

제1회 성균관대 · 山東大學 · 부산대 공동 국제학술대회

제국주의에 맞선 유교 지식인:

동아시아 의병 · 근왕운동의 투쟁 양상과 사상적 지향점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10:00 - 17:1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山東大學 中日韓合作研究中心,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제1회 성균관대·山東大學·부산대 공동 국제학술대회>

□ 기획주제: 제국주의에 맞선 유교 지식인: 동아시아 의병·근왕운동의 투쟁 양상과 사상적 지향점

- 일시: 2026년 8월 7일(금) 10:00~17:10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4단계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 인재 교육연구팀, 山東大學 中日韓合作研究中心,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 주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4단계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 인재 교육연구팀

□ 일정표(안)

사회: 김종민(퇴계학연구원)		
09:50~10:00	등록	
10:00~10:05	개회사: 김영진(성균관대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장)	
10:05~10:20	성균관대-山東大學-부산대 공동연구협약 체결식	
10:20~10:30	사진 촬영	
제1부: 동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발단과 전개		사회·좌장: 김정인(춘천교대)
10:30~10:55	항일전쟁기 재중 일본 반전문학	牛林杰(山東大學)
10:55~11:20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 의병운동의 전개와 인식 변화	심철기(한남대)
11:20~11:45	베트남의 근왕운동(Cần Vương·勤王運動, 1885~1896): 개관 및 톤타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9~1913)의 사례	Cao Việt Anh, Phạm Thị Hương (漢喃研究院)
11:45~12:15	종합토론	
12:15~13:20	점심식사	
제2부: 망명지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		사회·좌장: 신상필(부산대)
13:20~13:45	조선과 베트남 유림의 반제국주의 투쟁 － 황실 인사의 참여를 중심으로	김용태(성균관대)
13:45~14:10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 성격과 지향: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와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이항직(숙명여대)
14:10~14:35	재중 한국인의 출판, 저술과 항일운동	韓曉(山東師範大學)
14:35~15:05	종합토론	
15:05~15:20	휴식	
제3부: 반제국주의 운동과 문학		사회·좌장: 한영규(성균관대)
15:20~15:45	한계 이승희의 북경 곡부 여정과 활동 고찰	이규필(경북대)
15:45~16:10	문명의 위계에 맞서는 유교적 사유 －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에 나타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	전송희(부산대)
16:10~16:35	조소앙의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	柴琳(上海社會科學院)
16:35~17:05	종합토론	
17:05~17:10	폐회사: 신상필(부산대 점필재연구소장)	

이 발표집은 2024년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NRF2024S1A5C2A02046232)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제1회 성균관대·山東大學·부산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회사 (김영진 성균관대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장)

성균관대-山東大學-부산대 공동연구협약 체결식

제1부 동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발단과 전개

사회 · 좌장: 김정인(춘천교대)

제1발표 (10:30-10:55) 牛林杰(山東大學)
항일전쟁기 재중 일본 반전문학..... 1

제2발표 (10:55-11:20) 심철기(한남대)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 의병운동의 전개와 인식 변화..... 17

제3발표 (10:10-10:30) Cao Viet Anh, Pham Thi Huong
(漢喃研究院)
베트남의 근왕운동(Cần Vương · 勤王運動, 1885~1896) :
개관 및 톤타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9~1913)의 사례..... 31

종합토론 (11:45-12:15)

점심식사 (12:15-13:20)

제2부 망명지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

사회 · 좌장: 신상필(부산대)

제1발표 (13:20-13:45) 김용태(성균관대)
조선과 베트남 유림의 반제국주의 투쟁 — 황실 인사의 참여를 중심으로..... 53

제2발표 (13:45-14:10) 이황직(숙명여대)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 성격과 지향 :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와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71

제3발표 (14:10-14:35) 韓曉(山東師範大學)
재중 한국인의 출판, 저술과 항일운동..... 107

종합토론 (14:35-15:05)

중간휴식 (15:05-15:20)

제3부 반제국주의 운동과 문학

사회·좌장: 한영규(성균관대)

제1발표 (15:20-15:45)

이규필(경북대)

한계 이승희의 북경 곡부 여정과 활동 고찰..... 121

제2발표 (15:45-16:10)

전송희(부산대)

문명의 위계에 맞서는 유교적 사유

—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에 나타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 143

제3발표 (16:10-16:35)

柴琳(上海社會科學院)

조소앙의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 163

종합토론 (16:35-17:05)

폐회사 및 연구윤리 교육

신상필(부산대 점필재연구소장)

제1부

동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발단과 전개

牛林杰(山東大學) || 항일전쟁기 재중 일본 반전문학

심철기(한남대) ||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 의병운동의 전개와 인식 변화

Cao Viet Anh, Pham Thi Huong(漢喃研究院) ||

베트남의 근왕운동(Cần Vương · 勤王運動, 1885~1896) :

개관 및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9~1913)의 사례

항일전쟁기 재중 일본 반전문학

우림걸(산동대)

<국문 초록>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항일전쟁 시기 중국에서 출현한 특수한 문학 현상이다. 일본 군국주의가 반전 세력을 탄압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엄격한 의미로서의 반전문학이 생산되고 발표될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망명한 일본 좌익 문인들과 일부 각성된 일본인 포로는 중국에서 독특한 반전문학의 장을 개척하였다.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반전 일본인들이 전쟁과 반전운동의 실천을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이며, 일본 본토 전시 반전문학의 ‘결손’을 보완하는 중요한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재중 일본 반전문학의 창작 주체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지 와타루(鹿地亘), 이케다 사치코(池田幸子), 하세가와 데루(綠川英子) 등을 비롯한 좌익 작가들이다. 가지 와타루는 ‘7·7 사변’ 이후 공개적으로 중국의 항일 투쟁에 합류한 최초의 일본 작가로, 1936년 비밀리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루쉰(魯迅)의 도움을 받아 중국 생활을 시작하였다. 항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한 후, 그는 중국의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재중 일본인 반전동맹’ 결성에 참여했고, 《해안포대(海岸砲臺)》, 《북정을 보내며(送北征)》(시), 《삼형제(三兄弟)》(화곡), 《화평촌기(和平村記)》와 《전선에서 보낸 편지(寄自火線上的信)》 및 단편소설 《폐원의 작은 새(廢園的小鳥)》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케다 사치코는 단편소설 《시자이(西崽)의 이야기》 등 반전작품을 창작했다. 하세가와 데루는 장시 《잃어버린 두 개의 사과(丟失了的兩個蘋果)》, 산문 《자오(趙) 노부인 회견기》, 《금강촌한기(金剛村閑記)》 및 자전적 작품 《전쟁 중인 중국에서(在戰鬥的中國)》를 창작하였다.

둘째는 전쟁 포로들 가운데 출현한 일부 각성자이다. 중국의 포로 우대 정책에 감화되어 일부 일본인 포로들은 점차 침략전쟁의 본질과 죄악을 인식하게 되었고 펜을 들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다. 아키야마 류이치(秋山龍一)의 《삼백 대의 자동차의 소멸(三百輛汽車的死滅)》은 1인칭 시점으로 일본군 자동차 부대가 전멸할 당시 일본 병사들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각성을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일본 침략전쟁 ‘폐전문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호소이 겐지(細井健二)의 소설 《아마다 오장(山田伍長)》은 일본군 내부에서 반전의식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기시모토 마사루(岸本勝)의 《현대 일본 병사의 기질(現代日本兵の氣質)》은 일본군 병사들의 정신적 공허와 퇴폐를 폭로했다. 무라타 스스무(村田進)의 《시춘기의 비애(思春期的悲哀)》는 섬세한 필치로 전쟁이 일본 젊은 세대를 유

린한 모습을 그려냈다. 가와카미 유키오(河上幸雄)의 《죄악과 양심(罪惡與良心)》은 비극의 형식으로 인간성과 윤리를 파괴하는 전쟁의 폭력성을 깊이 고발하였다.

또한 산시, 간쑤, 닝샤의 해방구(陝甘寧邊區)와 기타 항일 근거지에서도 일본 반전문학 작품이 출현했다. 출판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가요, 시, 단막극 등의 형식으로 전파되었다. 아키야마 요시하루(秋山良照)가 창작한 3막 희곡 《활로(活路)》는 ‘가정, 병영, 전장’이라는 삼중 공간의 전환을 통해 일본 병사 기노시타(木下)가 강제로 전쟁에 동원된 이후 반전의식에 눈뜨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와다 신이치(和田眞一)가 구로시마 텐지(黒島傳治)의 소설을 각색한 《전초(前哨)》는 일본 병사들이 전장에서 겪는 내면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극작품은 일본 반전동맹 극단에 의해 일본어로 공연되었으며, 일본군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포로들의 각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일본 사회의 자민족 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기록이자 중일 민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항일과 반전 투쟁을 벌였던 증거로서, 이는 중국 항일문학과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국에서 고향의 양심을 수호한’ 것은 군국주의에 대한 사상적 청산인 동시에, 전후 중일 관계 재건을 위한 대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다.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특별한 역사적 기억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평화는 절대 강자의 시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양심 있는 사람들의 연대와 저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전쟁의 본질을 성찰하려는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를 지니며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抗日战争期在华日本反战文学

牛林杰（山东大学）

<中文摘要>

在华日本反战文学是抗日战争时期出现于中国的特殊文学现象。由于日本军国主义对反战势力的残酷打压，日本本土战时几乎没有严格意义上的反战文学生产和发表的空间。然而，流亡中国的日本左翼文人及觉醒战俘，却在中国开辟出独特的反战文学阵地。在华日本反战文学是在华日本人对战争及其反战运动实践的真实反映，是对日本本土战时反战文学“失语”的重要补充。

在华日本反战文学的创作主体由两部分构成。第一部分是以鹿地亘、池田幸子、绿川英子等为代表的左翼作家。鹿地亘是“七·七事变”后第一个公开加入中国抗日队伍的日本作家，他于1936年秘密逃至中国，在鲁迅的关怀下开始在华生活。抗战全面爆发后，他投身中国的抗日队伍，参与组建“在华日本人反战同盟”，创作了《海岸炮台》《送北征》（诗歌）、《三兄弟》（话剧）、《和平村记》《寄自火线上的信》（报告文学）以及短篇小说《废园的小鸟》等大量文学作品。池田幸子创作了短篇小说《西崽的故事》等反战作品。绿川英子创作了长诗《丢失了的两个苹果》、散文《赵老太太会见记》《金刚村闲记》以及自传体报告文学《在战斗的中国》，其作品将抒情性与政治性完美融合，被誉为“散文诗”。

第二部分是从战俘中涌现的觉醒者。在中国优待俘虏政策的感召下，大批日本战俘逐渐认识到侵华战争的罪行，拿起笔表达自己的认识和感受。秋山龙一的报告文学《三百辆汽车的死灭》以第一人称视角，生动刻画了日军汽车部队全军覆没时日本士兵的恐惧、挣扎与觉醒，是日本侵华战争“失败文学”的典型代表。细井健二的小说《山田伍长》描写了日军内部反战意识的增长。岸本胜的《现代日本兵的气质》以雄辩的笔调揭示了日军士兵的精神空虚与颓废。村田进的《思春期的悲哀》以细腻的笔触描写了战争对日本年轻一代心灵的摧残。河上幸雄的《罪恶与良心》则以悲剧的形式深刻控诉了战争对人伦的毁灭性破坏。

此外，陕甘宁边区和其他抗日根据地也涌现出大量日本反战文学作品。由于出版条件困难，这些作品多以歌谣、诗歌、短剧等形式流传。秋山良照创作的三幕话剧《舌路》以“家庭、军营、战场”的三重空间转换，展现了日本士兵木下从被迫参战到反战觉醒的完整历程。和田真一根据黑岛传治小说改编的《俯仰》，细腻描绘了日本士兵在战场上的内心转变。这些剧目由日本反战同盟剧团用日语演出，凭借文化同源性与语言优势，在瓦解日军士气、促进战俘觉醒方面发挥了重要作用。

在华日本反战文学既是日本民族自我批判的珍贵记录，也是中日人民并肩反战的友谊见证，在中国抗战文学和日本现代文学史中均应占有一席之地。这种“在异乡守护故土良知”的文化现象，既是对军国主义的思想清算，也为战后中日关系的重建埋下了对话的种子。

八十载光阴流转，重新审视这段特殊的历史记忆，其现实启示更加明确：真正的和平从来不是强权的恩赐，而是跨越国界的良知者共同抗争的成果。在华日本反战文学的生命力，正源于其对人性尊严的坚守、对战争本质的叩问，这种精神内核，在当今世界依然具有穿透时空的力量。

항일전쟁기 재중 일본 반전문학

우림걸(산동대)

- I. 서론
- II. かじ わたる(鹿地亘)의 반전 활동과 문학 창작
- III. みどりかわ えいこ(緑川英子)의 반전의 길
- IV. 섬감녕 변경구(陕甘宁边区) 및 기타 항일 근거지의 반전문학
- V. 전쟁 포로들의 반전문학
- VI. 이케다 사치코(池田幸子)와 타무라 토시코(田村俊子)의 반전 창작
- VII. 재중 일본 반전시의 유형과 특징
- VIII. 재중 일본 반전소설의 서사 특징
- IX. 결론

I. 서론

항일전쟁 시기, 재중 일본 반전문학(在華日本反戰文學)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타난 문학 현상이다. 이 문학 유형은 일본인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쓰여졌고, 일본 제국주의의 대중국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 일본 반전 인사들이 항전 과정에서 중국 인민과 협력한 관계를 반영하였다.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중국 항전 문학의 구성 부분인 동시에, 일본 근대문학에서도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문맥이다. 그러나 전쟁 환경의 제약, 문헌 자료의 소실, 그리고 전후 중일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으로 인해, 이 문학 유산은 오랫동안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일본 근대문학사에서는 거의 언급된 바 없고, 중국 항전문학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9·18 사변(九一八事變)으로부터 항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할 때까지, 중국 인민과 함께 항전에 나선 재중 일본 반전문학 투사들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 작가 그룹은 かじ わたる(鹿地亘)·이케다 사치코(池田幸子)·하세가와 테루코(長谷川照子, みどりかわ えいこ·緑川英子) 등을 위시로 한 작가들이었으며, 이들은 사상·정치적으로

좌익에 속했고, 일본 국내에서 군국주의 탄압을 받은 후 비밀리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의 항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본래 창작을 업으로 삼았고 예술적 소양이 높았으며, 중국 항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창작은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이 밖에도 루쉰(魯迅) 및 좌련(左聯)과 연계가 있었던 오자키 호츠키(尾崎秀実) 역시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며 중국 항일전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른 한 축은 전쟁 포로 속에서 끊임없이 각성한 인물들로서, 대후방(大后方)의 사카모토 히데오(坂本秀夫)·아키야마 류이치(秋山龍一)·아마카와 카나메(山川要)·하세가와 토시조(長谷川敏三)·키시모토 마사루(岸本勝)·코바야시 미노시치(小林巳之七) 등과, 섬감녕 변구(陝甘寧邊區) 등 항일 근거지의 스기모토 카즈오(杉本一夫)·모리 켄(森健)·우메다 쇼분(梅田照文)·요시다 타로(吉田太郎) 등이 있었다. 이상 두 부류의 인사들이 공동으로 재중 일본인 반전동맹(在華日本人反戰同盟)을 구성하였고, 반전 운동을 기반으로 반전문학이 탄생하였다.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특수한 조건의 산물이다. 상처와 간극이 양국 인민을 분리시키고 대립하게 하였으나, 반전문학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싸운 문학이었다. 이는 일본 민족의 당당한 문학 정수일 뿐만 아니라, 중국 항전문학의 참가자이자 동맹자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광활한 항일 전장 거의 곳곳에 일본 반전문학 투사들의 모습이 있었다.

II. かしわたる(鹿地亘)의 반전 활동과 문학 창작

かしわたる(鹿地亘, 1903—1982), 본명은 세토구치 미즈구(瀬口貢), 일본 오이타현(大分県) 출신이다. 그가 도쿄 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입학했을 때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이 융성하던 시기였으며, 동급생들과 함께 신인회(新人會)와 사회문학연구회(社會文學硏究會)를 조직하고 생활 현장으로 나아가 니가타현 키자키촌(新潟木崎村)의 농민 지주 반대 투쟁 및 노동학교와 세이코샤(精工舎) 노동자들의 파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1927년 노농당(工人農民黨)에 가입하고, 동시에 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예술 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프롤레타리아 예술 연맹에 가입하였다. 1932년 일본 공산당에 가입하여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예 조직 '고프(考普)'의 책임자가 되었다. 1933년 코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가 살해되고 미야모토 켄지(宮本显治)·쿠라하라 코레히토(藏原惟人)가 체포된 후, かしわたる은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예 운동의 방향 전환을 위해 싸우자(為日本無産階級文藝運動的方向轉變而斗争)》를 발표하여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의 마지막 조직인 '고프'의 해산을 촉구하였다. 같은 해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1935년 10월, 옥중에서 전향(轉向) 절차를 거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936년 1월, 비밀리에 중국으로 도망쳤다.

かしわたる은 7·7 사변(七七事變) 이후 일본 제국주의와 공개적으로 결별하고 중국 항일 대열에 투신한 최초의 일본 유명 인사였다. 그는 중국 항일전쟁 시기에 방대한 반전 활동과 문학 창작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かしわたる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창작은 대략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36년부터 1937년까지는 초기 단계로, 주로 상하이(上海)에서 번역과 창작에 종사하였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는 전성기로, 중국 항일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반전동맹을 지도하였다. 1946년 귀국 후에는 민주주의 운동을 계속하였다. 중국에서의 10년간 활동과 창작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성과가 컸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1. 중국 항일 대열에 투신

1936년 1월, 加じ わたる은 일본 감옥에서 석방된 후 비밀리에 중국 칭다오(靑島)로 향했으며, 이후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우치야마 간조(内山完造)의 소개로 그는 병중의 루쉰(魯迅)을 만났다. 루쉰은 그에게 중국 현대 작가 작품의 번역 작업을 주선하였고, 원고는 일본의 《개조(改造)》 잡지에 게재되어 加じ わたる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加じ わたる은 후일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루쉰 곁에서 보낸 9개월의 자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골 극단 무리 속에 섞여 상하이에 도착했다. 나는 고국의 어둠과 고독의 무거운 압박을 깊이 느꼈다. 검은 큰 파도가 뒤로 밀려가고, 구름과 바다도 한없이 먼 바다로 달아났다. 나는 흔들리는 갑판 위에 서서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그는 후평(胡平)·정백기(鄭伯奇)·샤옌(夏衍)·샤오쥔(蕭軍)·샤옹(蕭紅) 등 많은 좌익 작가 및 문화인들과도 교류하였다. 루쉰이 서거했을 때, 加じ わたる은 루쉰의 저택으로 달려가 관 운반 작업에 참여하였다.

7·7 사변이 발발하자, 加じ わたる은 일본의 침중(侵華) 행위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전화가 상하이에서 격화되자 일본 군함의 포격이 맹렬했고, 불기둥이 그의 앞에서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으며, 사람의 손발과 살점이 사방으로 흩어져 상하이는 혼란에 빠졌다. 加じ わたる은 한때 프랑스 조계(法租界)로 피신하였다가, 샤오쥔·샤옹·송칭링(宋庆龄)·쉬광핑(许广平) 등의 도움으로 홍콩으로 전진하였다. 홍콩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일본의 《중앙공론(中央公論)》 잡지(1938년 2월)에서 후타미 케이고(二見甚郷)가 일본의 소위 '방공성전(防共圣战)' '징응폭화(懲膺暴華)'가 '일본 국민의 공의(公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글을 읽고 크게 불만을 품어, 《소위 '국민의 공의'(所谓"国民的公意")》를 집필하여 우한(武汉)에서 발행되던 《신화일보(新华日报)》에 투고하였다. 1938년 2월 9일 게재될 때 편집자는 안어(按語)를 덧붙여 그를 "루쉰 선생 생전의 좋은 벗이자 일본의 반침략 반파시스트 동지"라고 칭하였다. 1938년 2월 8일, 《신화일보》는 이 글을 전재하며 "지극한 정이 담긴 감동적인 글이자, 일본 예술가가 중국 대중에게 처음으로 정의의 목소리를 발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 글이 발표된 후 국민정부 측의 주목을 받았으며, 천청(陳誠) 장관은 편지에서 "일본 혁명 작가 加じ わたる과 그 아내 이케다 사치코는 본국 군벌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정의를 밝힌 바, 지극히 감동적이므로 객지에서 맞이하여 여비를 증정하고 정중히 호송하여 우한에 이르게 한다"고 밝혔다. 1938년 3월 말, 加じ わたる 부부는 우한에 도착하여 중국 각계의 환영을 받았다. 귀모뤄(郭沫若)는 당시 제3청(第三厅) 청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귀모뤄의 소개로 加じ わたる 부부는 중화전국문예항쟁협회(中华全国文艺界抗敌协会) 창립 대회에 참석하였다. 《신화일보》는 보도에서 "가장 모두를 흥분시킨 것은 일본 반전 반침략 작가 加じ わたる과 그 부인 이케다 사치코가 천천히 입장한 것이었으며,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두가 그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며 형제와 같은 진실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저우언라이(周恩来)·차이위안페이(蔡元培)·샤오리쯔(邵力子)·귀모뤄·텐한(田漢)·라오서(老舍) 등이 모두 참석하였다.

2. 반전동맹의 조직과 르포르타주 창작

加じ わたる의 중국 내 활동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재중 일본인 반전동맹(在华日本人反战同盟)'을 조직하고 지도한 일이었다. 1938년 우한 도착 후, 그는 귀모뤄가 이끄는 군사위원회 정치부 제3청 산하에서 일했으며, 그 제7처 '대

적선전처(对敌宣传处)'의 많은 일본어 번역물과 선전물은 かしわたる 부부의 손에서 나왔다. 귀모뤄의 위촉을 받아 그는 후난성 창더(湖南常德) 인근의 '평화촌(和平村, 군정부 제2포로수용소)'으로 가서 포로 교육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전동맹을 결성하였다.

평화촌에서 포로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かしわたる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초기에 포로들의 눈에 かしわたる은 중국인을 돕는 '매국노'이자 무서운 공산당이자 일본 감옥의 탈옥수였다. 포로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동포입니까, 아니면 중국 관리입니까?"라고 항의하였다. 포로들 중에는 정치적 불량배와 사기꾼도 적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자신이 일본 좌익 작가라고 자칭하며 존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글자를 거의 모르는 자였다. 대화와 논쟁 중에는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물을 흐리는 자들도 있었다. かしわたる은 진리가 자신의 편에 있다고 믿었고, 인내심 있는 대화를 통해 풍부한 사실로 포로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교육 아래 일부 일본 포로들의 사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반전동맹의 일원이 되었다.

1939년 겨울, 계남(桂南) 쿤룬관(昆仑关) 전투가 시작되자 かしわたる은 사상이 전향된 포로수용소의 일본인들을 이끌고 대적 선전 작업에 참여하였다. 12월 23일, 계림(桂林)에서 '재중 일본인 반전동맹 서남지부(在华日本人反战同盟西南支部)'를 결성하였다. 이 전투에서 반전동맹원 마츠야마 하야오(松山速夫)·오오야마 쿠니오(大山邦男)·아유카와 세이지(鮎川誠二)가 일본 전투기의 습격을 받아 안타깝게 전사하였다. 1940년 7월 20일, '재중 일본인 반전동맹' 총부가 충칭(重庆)에서 창립 대회를 열었다. 1940년 가을, かしわたる은 충칭에서 반전동맹원들을 이끌고 후베이성 이창(湖北宜昌)으로 출동하여 전선 대적 선전을 지원하였다. 난닝(南宁) 탈환 전역에서도 반전동맹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전동맹원들은 전선에서 확성기로 일본군에게 방송을 하였고, 어떤 동맹원은 자신의 실명까지 밝혔다. 군사위원회 군정부장 천청은 1943년 8월 3일 かしわたる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제 동지들은 예리한 정치적 안목과 대의명신(大义灭亲)의 의지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항일 환경 아래에서, 무력을 휘두르고 도적 국가와 결탁한 군벌에 항거하고 일본 인민을 포탄받이로 삼는 것을 반대하며, 연맹 국가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뜻을 열렬히 지지하였다....."고 적었다.

かしわたる은 평화촌을 소재로 르포르타주 《평화촌기(和平村記)》를 창작하여 《구망일보(救亡日报)》에 연재하였다. 《구망일보》에서 직접 편집 작업을 담당했던 린린(林林)은 회상하기를 "《구보》가 복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 작가 かしわたる의 르포르타주 《평화촌기》를 연재했다. かしわたる은 재중 일본인 반전동맹 서남지부의 지도자였으며, 그는 후난성 창더 인근의 포로수용소에 가서 취재하여 이 작품을 썼다"고 하였다. 이후 かしわたる은 또 《화선에서 보낸 편지(寄自火线上的信)》(장링아오[张令澳] 역, 1943), 《우리 일곱 사람(我们七个人)》(선치위[沈起予] 역, 1943), 《반역자의 노래(叛逆者之歌)》(선치위 역, 1945) 등을 창작하였다. 이들 르포르타주는 반전 투쟁의 과정을 기록하였고, 일본 병사들이 군국주의 사상의 속박에서 점차 각성하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3. 장시(长诗)와 극작

かしわたる은 시 창작에서도 성과를 이루었다. 1936년 칭다오에 머물며 창작한 장시 《해안포대(海岸炮台)》는 시제 아래 '서사시(史诗)'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배경으로 식민주의가 중국 토지를 침략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시 속에서는 식민주의가 축조한 해안 포대가 이미 폐허가 되었음을 묘사하고, 제국주의가

중국 쿨리(苦力)를 압박한 폭행을 폭로하였다. 시편은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예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였고, 국제주의 정신이 넘쳐흘렀으며, 재중 반전문학의 선구적 작품이었다.

홍콩에 갇혀 지내던 시기에 창작된 《북정(北征)을 보내며(送北征)》는 옌안(延安)의 항일대학(抗日大学)으로 복상하는 청년 메이(梅)·황(黃)·천(陳)을 대상으로 하여, 시인이 중국 항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였다. 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가거라, 메이야, 황이여, 천이여, 삭풍이 그대들을 부르고 있다. 여기는 우리의 권력 아래 있는 단일한 곳이 아니다: 따뜻한 태양, 맑은 바다, 계절을 모르는 남국의 꽃들이 나태하게 피어 있고....." 시는 또한 영국 식민지 홍콩의 '단일함'과 중국 화북(华北)의 격렬한 항일 전투를 대비시켜 팔로군(八路军)을 찬양하였다.

반전 극작 《삼형제(三兄弟)》는 加じ わたる의 중국 내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 극은 일본 미야모토(宮本) 일가의 비극을 줄거리로 삼는다: 큰아들 이치로(一郎)는 공장 노동자이고, 둘째 아들 지로(二郎)는 중국 전장에서 전사하며, 셋째 아들 사부로(三郎)는 각성한 반전 분자이다. 극본은 미야모토 일가의 비극을 통해 침략전쟁이 일본 일반 민중에게 가져온 고통과 이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었다. 중국 극작가 홍선(洪深)은 《삼형제》의 공연을 열정적으로 추천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연출하여 더욱 진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지관(季凡)은 《신화일보》에서 《삼형제》가 "일본 우방의 입과 표정을 통해 일본 군벌의 유린 아래 있는 일본 대중의 생활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 극은 계림·충칭 등지에서 공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공연 사흘 만에 군정부 장관 허잉친(何应钦)이 "중국 병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연 중지를 명령하였는데, 이는 加じ わたる이 대후방에서 반전 활동을 전개하는 데 따르던 어려움을 보여준다.

加じ わたる은 중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산문(散文)도 창작하였는데, 《무엇이 거래인가(什么叫交易)》는 그중 비교적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글은 말의 거래를 비유로 삼아 일본 제국주의가 농민을 약탈하고 압박하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글은 격앙된 언어로 가득 차 있다: "형제여, 그대 눈에 타오르던 그 신성한 불꽃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인가? 나는 미칠 것 같다, 그대는 그대 생명의 권리를 팔아버렸다. 허리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생명으로 생명을 갚고, 피로 피를 갚아라!" 이 글의 필치는 루쉰 소설의 풍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작가가 루쉰과의 인연과 《대루쉰전집(大魯迅全集)》 번역 참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III. みどりかわ えいこ(緑川英子)의 반전의 길

하세가와 테루코(长谷川照子, みどりかわ えいこ·緑川英子, 1912—1946), 일본 야마나시현(山梨县) 출신으로, 1912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토목 공사 기사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 이동에 따라 사이타마현(埼玉县)·도쿄(東京) 등지로 이주하였다. 1929년, 테루코는 나라(奈良)의 한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열렬히 많은 혁명 서적을 읽었다. 혁명의 영향으로 그녀는 에스페란토를 사랑하게 되었고, 에스페란토를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1931년 진보적 작가 아키타 우지야쿠(秋田雨雀)를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토 운동자 동맹이 설립되었다. 1932년, 젊은 테루코는 일본 제국주의의 9·18 사변 및 1·28 상하이 전쟁(一二八上海战争) 발동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출옥 후에는 학교로부터 '사상 불량'을 이유로 퇴학당하였다. 1936년, 그녀는 에스페란토 활동 중 중국 청년 류런(刘仁)을 만나 결혼하였다. 1937년 1월, 부부는 중국으로 가서 항일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루거우차오 사변(卢沟桥事变)이 발발하자, 하세가와 테루코는 중국 인민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상하이 함락된 날 배를 타고 떠나 홍콩을 거쳐 광저우(广州)·우한(武汉)에 도착하였다. 1938년 6월, 그녀는 《신화일보》에 처음으로 'みどりかわ えいこ(绿川英子)'라는 필명으로 《애여증(爱与憎)》을 발표하여 일본 침략자의 만행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글에서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그것은 나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고향이며, 이곳에는 나의 진실하고 활동적인 동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 인민을 학살하고 있는 군벌을 증오한다"고 썼다.

우한 체류 기간 동안 みどりかわ えいこ는 일본어로 일본 국내에 방송하여 중국 군민이 일본군의 공격에 저항하는 소식을 보도하고 일본 침략자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결국 방송자가 일본인임을 확인하였다. 1938년 11월 10일 《신화일보》는 "적보에 의하면, 일본 여성의 반일 선전, 테루코가 한커우(汉口)에서 방송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みどりかわ え이こ는 《중국의 승리는 아시아의 서광(中国的胜利是亚洲的曙光)》이라는 글에서 "이번 전쟁에서 중국의 승리는 중국 민족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극동의 피압박 인민(일본 인민도 포함하여)의 해방이다. 중국의 승리는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인류의 내일을 여는 하나의 열쇠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또한 침략 전쟁의 포탄받이가 된 일본 병사들에게 호소하며 무장 봉기를 촉구하였다: "나는 일본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여러분의 붉은 피를 헛되이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다!'"

みどりかわ え이こ의 대표작으로는 장시 《잃어버린 두 개의 사과(丢失了的两个苹果)》와 산문 《새끼 고양이의 죽음(小猫之死)》이 있다. 장시 《잃어버린 두 개의 사과》는 '두 개의 사과'를 시인의 두 볼의 붉음을 비유한 것으로, 전쟁과 유리(流离)로 인해 사라져 버렸음을 노래하였다. 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오직 나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건만,
나는 오직 당신만의 사람일 수 없어요, 어머니!
그러나 이치는 분명합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한 증오,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야말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후평(胡风)은 이 시를 발표하면서 역후기(译后记)를 덧붙여 みどりかわ え이こ를 '작가'라고 칭하였고, 그를 "조국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딸의 마음과 전사의 마음이 하나로 녹아든 존재"라고 평가하였다. 산문 《새끼 고양이의 죽음》은 길 잃은 새끼 고양이를 기르던 경험을 실마리로 삼아 고양이의 성장과 죽음을 섬세하게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반전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글 속에는 "몇 년 동안 죽음에 대해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결심해 왔건만, 이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는 예외가 되었다"고 적혀 있다.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후, みどりかわ え이こ는 1946년 2월 동북 지방의 선양(沈阳)에 도착하였고, 이후 해방구로 들어갔다. 1946년 11월, 인공 유산 수술 사고로 지아무쓰(佳木斯)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나이 35세였다. 가오충민(高崇民)은 이를 알고 크게 분노하였다. 추도회는 매우 장엄하게 치러졌다.

IV. 섬감녕 변경구(陕甘宁边区) 및 기타 항일 근거지의 반전문학

섬감녕 변경구 및 기타 항일 근거지의 일본 반전문학은 물질적 조건이 매우 부족한 환경에서 발전하였다. 충칭 등 대후방에 비해 변경구는 안정적인 경제 조건과 출판 시설이 부족했고, 일본군의 빈번한 군사 행동으로 인해 반전 작가들의 창작 활동도 제약을 받았다. 변경구와 항일 근거지에는 *かじ わたる*이나 *みどりかわ えいこ*처럼 창작 경험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좌익 작가가 없었으며, 초기 단계의 반전문학은 각성한 일본 포로들에 의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변경구와 근거지의 일본 반전문학은 포로들에 의해 창설되었고 그 핵심 역량도 포로들로부터 나왔지만, 그 발전 속도와 질적 향상은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다.

변경구와 항일 근거지의 일본 반전문학은 1938년과 1939년 사이에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우선 말 위에서, 총 위에서 탄생한 산물이었고, 전전의 산물이었다. 각성한 일본 전사들이 대적 선전을 위해 나서면서 반전문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당시 각 일본인 반전동맹 지부 또는 일본 각성 병사 조직은 일본어로 된 다양한 간행물을 발행하였는데, 예를 들어 《각성(觉醒)》·《반전(反战)》·《사시신문(時事新聞)》·《새벽(晓)》·《동포신문(同胞新聞)》·《병사의 목소리(士兵呼声)》·《일군지우(日军之友)》·《해방화보(解放画報)》·《전선(前线)》·《병사지우(士兵之友)》·《일본인민지우(日本人民之友)》·《광명월간(光明月刊)》·《로남보도(魯南報道)》 등이 있었으며, 이들 간행물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죄행을 폭로하고 일본 병사들의 귀순을 촉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극은 변경구 일본 반전 문예 중에서 비교적 발달한 형식 중 하나였다. 각 일본인 반전동맹 지부는 극단을 조직하였는데, 지중지부(冀中支部)의 '국제극단(国际剧团)', 타이항지부(太行支部)의 '동포극단(同胞剧团)' 등이 있었다. 1941년, 일본 각성연맹(觉醒聯盟) 지남(冀南) 지부가 창작한 3막话剧 《활로(活路)》는 아키야마 료쇼(秋山良照)가 집필하였다. 이 극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 키노시타(木下)가 징집된 후 아버지가 협박에 못 이겨 자살하고, 키노시타가 군영 내에서 억압을 받으며 중국 전장에 투입된 후 점차 침략전쟁의 부당함을 깨닫고 결국 일본군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키야마 료쇼는 《활로》 공연을 회상하며 "《활로》의 상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키노시타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장면에서 관람하던 부인들이 울면서 '그 지주를 때려라!'고 외쳤고, 병사들은 분노하여 '죽여라!'고 외쳤다. 연극이 끝난 후 병사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진차지 변경구(晋察冀边区)에서 유행한 다막话剧 《전초(前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차지일보(晋察冀日报)》는 1942년 1월 14일 거의 전면에 걸친 평론을 게재하여 이를 진차지 연극사상 '새로운 기록'이라고 칭하였다. 와다 신이치(和田真一)는 《전초》 공연을 회상하며 상연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진차지일보》 문예란은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여 일본 반전동맹의 연극을 소개하였다고 전했다.

출판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시는 그 형식이 유연하여 간행물·전단·벽보 등에 발표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당시 일본 민요 가락에 반전 가사를 붙인 작품들이 일부 유통되었는데, 예를 들어 '여행도중절(旅笠道中节)'에 가사를 붙인 노래는 이렇게 쓰고 있다:

밤은 차갑고,
전쟁은 참혹하구나,
고국으로 돌아가자!
전쟁을 멈추고,

부모와 자식의 곁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노래의 기본 사상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이 일본 인민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노래 《팔로군에게로(到八路军去)》는 일본 병사들에게 팔로군에 투항하여 '반침략의 군대'를 결성하고 함께 침략 일본군을 타격하며, 마지막에는 일본에 '노농(工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변경구와 근거지 반전문학의 특징을 반영한다.

V. 전쟁 포로들의 반전문학

항일전쟁 기간 동안 상당수의 일본 병사들이 중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중국의 포로 우대 정책에 감화되어 그들 중 일부는 점차 침략전쟁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고, 붓을 들어 자신의 인식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함으로써 독특한 '포로 문학(战俘文学)'이 탄생하였다. 포로 문학의 기본 사상과 창작 태도는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동시에 중국 항일전쟁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1. 《황하(黄河)》 잡지의 반전 문예 특집호

1941년 5월, 세빙잉(谢冰莹)이 주필을 맡은 《황하》 잡지 제2권 제4호는 '일본 반전 동지 문예 특집호(日本反战同志文艺专号)'를 발간하였으며, 총 18편의 글과 작품을 게재하였는데, 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이 쓴 것이었다. 이는 항일전쟁 시기에 유일하게 발간된 일본 반전문학 특집호였다. 세빙잉은 1930년대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일본어도 배운 적이 있어 일본 상황과 일본 문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바오지(宝鸡) 포로수용소에 가서 원고를 청탁했으며, 직접 차를 타고 서쪽으로 바오지까지 가서 알고 지내던 일본 반전 우방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마침내 특집호를 출간할 수 있었다.

이 특집호에서 다케다 스스무(武田进)의 《나는 어떻게 난징(南京)을 폭격했는가(我是怎样轰炸南京的)》는 일본군 공군의 행동을 서술하였다. 다케다 스스무는 글에서 일본군 공군 지휘관이 그들에게 '황도(皇道)의 정신을 발휘하여' 난징을 폭격하라고 명령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폭탄을 모두 투하한 후 격추되었고, 포로가 된 후 중국 관리가 그에게 "우리가 죽이려는 것은 너희 일본의 군벌이지, 일본 인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모리시타 쿠로(森下九郎)의 3막극 《정의의 피의 전투(正义血战)》는 일본 농촌 청년 마즈다 신이치(松田真一)가 징집되어 전사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 군벌과 재벌을 비판하였다.

2. 아키야마 류이치(秋山龙一)의 르포르타주

키야마 류이치의 《300대 자동차의 소멸(三百辆汽车的死灭)》은 포로 르포르타주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글 앞에 편집자가 덧붙인 안어(按语)에서는 "본문은 '재중 일본 인민 반전동맹 준비회' 회원 아키야마 군이 작년 8월 산시성(山西省) 동남부 전투에 대한 추억이며, 이번 전투는 아키야마 군에게 마지막 전투였다..... 그는 지금 우리와 함께 서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다.

이 작품은 일본군 300여 대의 자동차가 산시성 천수이현(沁水县)에서 중국군에 의해 전멸된 과정을 서술하였다.

일본 국내의 전쟁 문학과 달리, 이 작품은 일본군을 미화하지 않고, 일본 일반 병사들이 패전 속에서 느낀 공포·고뇌·절망, 그리고 포로가 된 후 중국군의 우대 정책 아래에서 각성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1인칭 '나'를 주인공으로 하며, '나'는 자동차 병사로서 처음에는 "수면 부족 외에는 우리 눈에 적이 없었고, 마음은 매우 여유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중국군이 공격을 개시했을 때 주인공은 '눈에 적이 없음'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작가는 침략 일본 병사들이 중국군의 공격 아래에서 감정이 급속히 변화하는 모습을 매우 정밀하게 표현하였다.

작품은 또한 주인공이 포로가 된 후의 심리적 전환을 묘사하였다. 중국군이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대했을 때, "그들이 나를 조금도 모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는 매우不可思议하고 믿기 어려웠다. 이때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국내에서 들었던 적의 모든 비인도적이고 학살적인 이야기뿐이었다."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인간의 투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느긋하게 소의 뒤를 따라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이는 뛰어난 전기(战记) 르포르타주로서, 300여 대 일본 자동차의 소멸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패배한 전투 속 일본 병사의 형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刻画하였다.

VI. 이케다 사치코(池田幸子)와 타무라 토시코(田村俊子)의 반전 창작

이케다 사치코(池田幸子, 1913—1976)는 かわたる의 아내로서, かわたる과 함께 중국 8년 항일전쟁을 함께 하였다. 그녀는 큰 명성은 없었지만, 루쉰(鲁迅)·송칭링(宋庆龄)·저우언라이(周恩来)·귀모뤄(郭沫若)·마오쩌둥(毛泽东)·천청(陈诚)·펑위샹(冯玉祥)·스노(斯诺)·스메들리(斯沫特莱)·루이 아이리(路易·艾黎) 등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케다 사치코는 13세에 중국에 왔으며, 아버지는 러일전쟁 후 몰락한 소지주이자 지식인이었다. 7·7 사변 후, 그녀와 かわたる은 일본인의 통제를 벗어나 프랑스 조계(法租界)로 들어갔고, 이 행동이 그녀의 중국 항일전쟁 참가의 분수령이 되었다. 황웨이(黄薇)의 《이케다 사치코 방문기(池田幸子访问记)》(1938년 6월 5일)와 샤오흥(萧红)의 《치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법(牙粉医病法)》(1939년 1월 15일)은 그녀의 생활과 견해를 기록하였다. 샤오흥의 글에서 이케다 사치코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며, 731 세균부대의 죄행이 폭로된 후 이러한 견해는 입증되었다.

타무라 토시코(田村俊子, 본명 사토 토시코[佐藤俊子], 1884—1945)는 또 다른 유형의 재중 일본 여성 작가였다. 그녀는 일본의 유명 잡지 《중앙공론(中央公论)》사의 특파원 자격으로 1938년 12월 중국에 도착하였고, 1945년 4월 뇌일혈로 상하이에서 사망하였다. 타무라 토시코는 메이지(明治) 시대의 저명한 작가로서, 그녀의 창작에는 강렬한 여성 해방 의식이 관통하고 있었다. 1910년 《단념(断念)》으로 아사히신문(朝日新闻) 소설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생혈(生血)》·《자색 입술(紫唇)》·《매춘부(妓女)》·《미라의 입술연지(木乃伊的口紅)》 등이 있다. 중국에 온 후, 그녀는 상하이에서 중국어 여성 잡지 《여성의 목소리(女声)》를 창간하고 좌준지(左俊芝)라는 필명으로 주필을 맡았다. 이 잡지는 일본 측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편집 방침상 선전적 색채는 적었으며, '부녀의 목소리', '부녀를 위한 목소리', '부녀가 발하는 목소리'를 취지로 삼았다. 잡지의 주요 편집자였던 관루(关露)는 중국 공산당 지하 공작원이었으며, 타무라 토시코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항일 특공 활동에 조건을 제공하였다. 관루는 타무라 토시코를 '진심으로 사귄 친구(真心朋友)'라고 불렀다.

VII. 재중 일본 반전시의 유형과 특징

재중 일본 반전시는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선명한 정치적 선동성을 지닌 것으로, 《반전동맹가(反戰同盟歌)》·《해방지가(解放之歌)》 등이 이에 해당하며, 리듬감 있는 언어로 반전동맹원들을 각성시켜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도록 고취하였다. 《반전동맹가》는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리듬과 수식어를 통해 동맹원들이 일어나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도록 동원하였으며, 전곡은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단은 이렇게 쓰고 있다: "폭압의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죽음의 폭풍이 미친 듯이 날뛰네/자유로운 백성들이 오늘/의식의 세계가 전진한다!" 다른 하나는 서정성을 지닌 것으로, 사카이 케이지로(坂井敬二郎)의 《항구(港岸)》가 대표적이다. 이 시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항구에서 군인으로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이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다:

나는 아기와 함께 항구에 서서 기다렸지,
눈으로 껴안듯이 하나둘 입항하는 배들을 바라보았지;
그런데 항구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

《항구》는 일본 군국주의를 비난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자(母子)의 기다림을 통해 전쟁이 일본 평범한 가정에 가져온 불행과 고통을 폭로하였다. 시 속의 아기는 결국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죽었고, 아내는 "항구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일본 단가(短歌)와 하이쿠(俳句) 또한 재중 반전문학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 이 짧은 작품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전장의 고통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한 익명의 일본 병사 작품은 이렇게 쓰고 있다: "식후 산책하다 한 약방에 들어갔더니, 황폐한 방 안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어 새장 속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숙소로 데려왔다. 앵무새야! 어제까지만 해도 너를 귀여워하던 주인은 죽은 것일까? 전쟁은 인간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산 자의 고통'을 겪게 하는구나." 또 후쿠오카 류(福岡刈)의 '소조(小調)'는 이렇게 노래한다:

우에노(上野)의 벚꽃이여,
후지강(富士川) 가의 임이여!
정든 사람은 수척해졌구나,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 밖에도 변경구와 근거지에는 풍부한 시 창작이 있었다. 아마카와 스케테루(山川助藤)의 《전쟁 시작의 회상(戦争开始的回忆)》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전쟁이 일본 노동 대중에게 끼친 피해를 드러내었다. 하라 키요(原清志)의 《기밀 문서와 아기(机密文件与娃娃)》는 십여 년 전 일본에서 진보 활동을 하던 중 기밀 문서를 아기의 더러운 기저귀 더미 속에 숨겨 특고(特高) 경찰의 수색을 피했던 경험을 회상하였다. 이 작품들은 변경구와 혁명 근거지 일본 반전 산문의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VIII. 재중 일본 반전소설의 서사 특징

재중 일본 반전소설은 서사 전략에 있어 사실성(纪实性)과 허구성(虚构性)이라는 두 가지 다른 지향을 보여주었다.

호소이 켄지(细井健二)의 《야마다 오장(山田伍长)》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 부대 내에서 반전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야마다 오장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침략전쟁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관점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지녔다. 히노 아시헤이(火野苇平)·우에다 히로시(上田广)·이시카와 타츠조(石川达三) 등이 그린 '황국 용사(皇国勇士)'의 이미지와 달리, 호소이 켄지의笔下 일본 병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저주하고 증오했다.

무라타 스스무(村田进)의 《사춘기의 비애(思春期の悲哀)》는 독특한 서사 시각을 선택하였다. 작품은 일본군 병사가 미츠(美津)라는 여성을 한 일본 음식점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그렸다. 미츠의 오빠는 징집되어 소재조차 알 수 없었고, 그녀 자신은 전방 집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녀가 오빠와 얼굴이 비슷한 병사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울었다. 소설은 전쟁을 비난하는 한 마디의 말도 없이, 혈육의 이별과 불행을 통해 전쟁이 일본 일반 민중에게 미친 충격을 보여주었다.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 안개처럼 내 마음을 감싸던 한 조각의 애상(哀情)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짙어져 갔다."

카와카미 유키오(河上幸雄)의 《죄악과 양심(罪恶与良心)》은 허구적 작품에 속한다. 소설은 일본 병사 사부로(三郎)가 귀국 후 집이 폐허가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딸 우메코(梅子)와 관계를 맺게 된 후 결국 자살하는 비극을 서술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즐거움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전쟁 정책이 일본 사회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드러내었다. 사부로는 한편으로 군국주의의 독을 먹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군사 침략의 도구가 되었으며, 그의 경험은 제국주의가 국내를 예측시키는 특징을相当히 깊이 있게表現하였다. 우메코는 제국주의 전쟁의 가장 비참한 희생자였다. 카와카미 유키오의 예술적 상상력의 방향은 정확했으며, 일정한 예술 창작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IX. 결론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일본 근대문학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한 분야이다. 이는 중국 항전문학의 동맹자일 뿐만 아니라, 특정 역사 시기 중일 양국 인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문학적 증거이기도 하다. 이 작품들은 전쟁의 잔혹성을 기록하였고, 또한 일부 일본인들이 전쟁 환경에서 침략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일본 국내에서 오랫동안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본 쇼와(昭和) 문학사는 전쟁 시기의 문학을 논할 때 이시카와 타츠조(石川达三)·히노 아시헤이(火野苇平)·우에다 히로시(上田广) 등의 작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아키야마 류이치(秋山龙一)·호소이 켄지(细井健二)·키시모토 마사루(岸本胜) 등의 반전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쇼와 문학사에서 특색 있는 하나의 문학적 차원을 빠뜨리게 하였다.

이 문학 유산을 재조명하는 것은 항일전쟁 시기의 역사적 맥락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일 양국 인민이 진실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재중 일본 반전문학은 이 역사의 문자 기록으로서 일정한 문헌 가치와 연구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각주와 참고문헌 생략)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 의병운동의 전개와 인식 변화

심철기(한남대)

<국문 초록>

한말 의병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대표적인 무장투쟁이었지만, 그 사상적 지향과 운동 방식은 시기별로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을미의병은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유교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창의(倡義)에서 출발하였고, 을사의병은 러일전쟁 이후 변화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을 인식하며 전개되었다. 정미의병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산 군인과 지역 의병 세력이 결합하면서 의병전쟁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1896년의 의병운동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 시기 의병의 사상적 배경에는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意識이 자리하고 있었다. 의병은 일본의 침략과 친일 개화 정책에 맞서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 반대를 외치며 유교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을미의병은 단순히 사상적 저항이나 복고적 운동에 머물지 않았다. 지역의 유림, 전직 관료, 포군 등이 결합하면서 유교적 명분은 실제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제천·원주·춘천·양평 등 중부 내륙의 의병운동은 화서학파의 위정척사론과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가 결합한 대표적 사례였으며, 충청·경상·전라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학문적 전통과 향촌 질서가 의병운동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을미의병은 유교적 질서 수호라는 사상적 지향을 바탕으로 삼았으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가 일본의 침략과 국내 지배 질서의 동요에 대응하여 주도적으로 무장 저항에 나선 운동이었다.

1905년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905년 8월에 일어난 원용팔 의병은 을미의병 이후 의병운동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원용팔의 격문과 관련 문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단순한 왜양(倭洋)의 침입이나 조선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결부하여 파악하려는 인식이 나타난다. 일본은 전쟁을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군사·재정·교통·외교에 개입하였는데, 원용팔은 이를 조직적인 국권 침탈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그는 일본의 침략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였으며, 각국 공사관을 향한 호소를 통해 국제적 여론과 만국공법의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었다. 이는 유교 지식인의 현실 인식이 기존의 위정척사론적 세계관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 정세와 국권 문제를 함께 사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을사의병은 을미의병의 의리론(義理論)을 계승하면서도, 국권 회복을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1907년 정미의병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의병전쟁'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해산 군인의 참여는 의병부대의 군사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의병의 전투 방식도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 이인영의 관동창의대와 13도창의군의 결성, 서울진공작전의 추진, 해외 동포를 향한 격문 발송은 의병운동이 지역적 창의를 넘어 전국적인 항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인영은 각 지역 의병을 하나로 결집하여 일본군과 통감부 지배체제에 맞서고자 하였으며, 서울진공작전은 의병운동이 단순한 지방 봉기를 넘어 국권 회복을 위한 전국적 군사행동을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정미의병은 국왕에 대한 충의와 국권 회복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해산 군인과 지역 의병 세력이 결합한 반제국주의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 의병운동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사상적 명분, 군사적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저항 역량이 결합되어 전개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反抗日本帝国主义侵略的韩国义兵运动的展开与认识变化

沈哲基(韩南大学)

<中文摘要>

韩末义兵运动是反抗日本帝国主义侵略的代表性武装斗争，其思想取向与运动方式在不同时期呈现出一定变化。乙未义兵以维护朝鲜传统价值与儒教秩序的“倡义”为出发点，乙巳义兵则是在日俄战争后东亚国际秩序发生变化的背景下，基于对日本侵夺国权的认识而展开。丁未义兵则以高宗皇帝被迫退位和军队解散为契机，随着解散军人与地方义兵势力相结合，进一步强化了义兵战争的性质。

1896年的义兵运动以乙未事变和断发令为直接契机。这一时期义兵运动的思想背景，是对儒教秩序正在瓦解的强烈危机意识。义兵为反抗日本侵略及亲日开化政策，高呼为明成皇后遇害复仇、反对断发令，试图捍卫儒教秩序。然而，乙未义兵并非仅停留在思想抵抗或复古运动层面。随着各地儒林、前职官僚和砲军等力量的联合，儒教名分转化为实际的武装斗争。堤川、原州、春川、杨平等中部内陆地区的义兵运动，是华西学派卫正斥邪论与地方社会人际网络相结合的代表性事例；在忠清、庆尚、全罗等地区，各地的学术传统和乡村社会秩序同样构成了义兵运动的重要基础。由此可见，乙未义兵既以维护儒教秩序为思想取向，又是地方社会面对日本侵略及国内支配秩序的动摇而主动发动的武装抵抗运动。

1905年的乙巳义兵在《乙巳勒约》签订后全面展开。1905年8月爆发的元容八义兵，是反映乙未义兵以后义兵运动认识发生何种变化的重要事例。元容八在檄文及相关文书中并不将日本侵略视为单纯的倭洋入侵或朝鲜内部的政治混乱，而是试图将其与日俄战争后东亚国际秩序的变动联系起来认识。日本以战争为借口介入大韩帝国的军事、财政、交通和外交，元容八则将其理解为日本有组织地侵夺韩国国权的过程。此外，元容八还试图向国内外揭露日本侵略的真实情况，并通过向各国公使馆发出呼吁，对国际舆论和万国公法的可能性寄予期待。这表明儒教知识分子的现实认识已不再局限于既有的卫正斥邪论的世界观，而是逐渐扩展到将国际形势与国权问题一同加以思考的方向。因此，乙巳义兵在继承乙未义兵的义理论的同时，又具有向为了恢复国权的政治性抵抗而转化的过渡性特征。

1907年的丁未义兵是以高宗皇帝被迫退位和军队解散为契机，义兵运动转向“义兵战争”的时期。解散军人的参加显著增强了义兵部队的军事力量，义兵的作战方式也比之前更加有组织性和主动性。这一时期，李麟荣组织关东倡义队和十三道倡义军、推进汉城进攻作战，并向海外同胞散发檄文，以上均表明义兵运动正在突破地方性倡义的范围，扩展为全国性的抗日战争。李麟荣试图将各地区义兵力量统一起来，以对抗日本军队和统监府的统治体制。汉城进攻作战表明，义兵运动已经超越单纯的地方起义，开始指向以恢复国权为目标的全国性军事行动。丁未义兵在继续坚持忠于国王和恢复国权等名分的同时，实际上已发展为由解散军人与地方义兵势力共同参与的反帝国主义武装斗争。

综上，韩国义兵运动是为了反抗日本帝国主义侵略，结合了思想名分、军事行动与地方社会的抵抗能力，进而展开的复杂而富有动态性的抗日武装斗争。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 의병운동의 전개와 인식 변화

심철기(한남대)

I. 머리말

II. 1896년 의병운동: 유교적 질서 수호와 의병운동

III. 1905년 원용팔 의병: 국권침탈 인식과 국제사회 호소

IV. 1907년 의병전쟁: 해산 군인의 결합과 전국적 의병전쟁

V. 맺음말

I. 머리말

한말 의병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대표적인 무장투쟁이었다. 그러나 의병운동의 성격을 하나의 고정된 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896년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복제개혁 등에서 드러난 일본의 침략과 유교적 질서의 훼손에 대응하여 일어났고, 1905년 을사의병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탈을 국권침탈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의병운동의 논리와 대상이 구체화되었다. 1907년 정미의병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산 군인이 대거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은 전국적 규모의 의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을미·을사·정미로 이어지는 의병운동은 동일한 의리론의 반복이라기보다 일제 침략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인식과 실천방식도 함께 변화한 운동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병운동은 유생의병장의 사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병부대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보면 유림뿐 아니라 포군, 해산 군인, 상인, 광부,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고, 지역사회가 제공한 인적·물적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가 의병의 지속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의병운동은 전통적 질서를 지키려는 의리론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저항 역량이 무장투쟁으로 조직되고 국권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 1896년 원주·제천 일대의 의병운동, 1905년 원용팔 의병, 1907년 이인영의 관동창의대와 13도창의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원주라는 특정 지역의 사례를 단순히 지역사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주·지평·제천을 잇는 중부 내륙의 의병 네트워크는 을미의병에서 정미의병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물과 참여세력, 군사적 거점, 운동방향이 일정하게 이어지면서도 시기별로 변형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1896년에는 화서학과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명분과 지역 포군·재지세력의 결합이 무장투쟁을 가능하게 하였고, 1905년에는 일제의 토지·재정·행정 침탈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가 두드러졌다. 1907년에는 해산 군인의 군사력이 결합하고 전국 의병을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하려는 구상이 실제 작전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첫째, 을미의병의 유교적 질서 수호가 실제 지역 무장항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 둘째, 원용팔 의병을 통해 의병의 현실 인식이 일본의 구체적인 국권 침탈과 국제정세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을 살피며, 셋째, 정미의병에서 해산 군인과 지역 의병의 결합, 관동창의대와 13도창의군의 형성, 서울진공작전과 해외동포·각국 공사관을 향한 격문 발송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병운동이 사상적 명분, 지역사회의 조직력, 군사적 실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며 단계적으로 변화한 항일 무장투쟁이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1896년 의병운동: 유교적 질서 수호와 의병운동

1. 을미사변과 단발령, 의병 봉기의 사상적 배경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뒤이은 복제개혁은 화서학과를 비롯한 유림에게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조선의 문명질서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등근 깃과 좁은 소매의 서양식 복제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해 온 의관제도의 파괴로 인식되었다.¹⁾

유인석은 1895년 음력 윤5월 제천 장담에서 향음례를 열어 화서학과 동문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천군수 김익진이 새로운 문패와 명령장을 가지고 찾아오자 서상열이 이를 찢고 불태우는 등 강한 반개화 태도를 드러냈다. 장담에서 형성된 반개화 분위기는 지평·원주 등 화서학과 인적망을 통해 확산되었다.²⁾

이러한 위기의식은 1895년 명성황후시해사건을 계기로 반일 의병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은 일본의 침략을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의 존립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로 각인시켰다. 원주에서도 재지사족이 모여 국모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거의를 논의하였고, 이는 1880년대 관동연명상소와 반개화운동에 참여했던 지역 유림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었다.³⁾

여기에 1895년 11월 단발령이 반포되면서 반일감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유교 윤리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서 머리카락과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단발령은 단순한 위생·편의 정책이 아니라 인간을 금수와 같이 만드는 인륜의 파괴로 받아들여졌다.⁴⁾

이처럼 을미의병의 사상적 배경에는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 반대, 조선의 전통적 유교질서 수호가

1) 복제개혁은 1차 때 中華와 夷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넓은 소매를 등근 깃에 좁은 소매로 개정하였고, 2차 때 朝臣의 大禮服을 黑團領으로 하고, 進宮 때의 통상 예복을 黑色周衣로 개정하였다.

2) 유인석은 지평에 거주하면서 지평, 원주 일대 화서학파의 수장역할을 하는 이근원에게 향음례에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毀服을 자행한 박영효 등을 비판하고 나아가 회복에 이어 毀形이 조만간 닥칠 것을 걱정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穀菴集] 권7, 「答李文仲」)

3) 中宮殿薨逝 廢黜의實矣 臣民痛恨 安有其私 原州士林 聞起義(李晚燾, 『響山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제31, 1985), 1895년 9월 19일, 671쪽).

4) 孝經에서는 ‘身體髮膚 受之父母’라고 하여 신체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으며, 이는 효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회덕목이었다.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복고적 저항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과 친일 내각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교적 명분은 일본의 침략을 거부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의병운동의 논리로 기능하였다.

2. 원주의병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결합

단발령 이후 원주·지평 일대에서는 이춘영을 중심으로 의병봉기가 구체화되었다. 이춘영은 지평 출신이지만 처가가 원주였고, 중앙정계와 지역의 유생·포군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평의 포군을 전투력으로 확보하고 원주 안창의 연안김씨가를 통해 군수물자와 재정을 마련하려 하였다. 이춘영과 지평포군의 영수 김백선의 대화에서 지평 포군은 봉기의 핵심 병력이 될 수 있었으나 군사를 유지할 재원이 부족했고, 원주 안창에서 이를 해결하려 했던 사정이 확인된다.⁵⁾

원주가 봉기 거점으로 선택된 것은 경제적 후원뿐 아니라 군사적 조건과도 관련되었다. 강원감영 폐지와 군제개혁 이후 해산된 지방군이 남아 있었고, 원주관아에는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춘영은 지평 포군의 영수 김백선을 참여시키고, 원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의병부대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포군은 화승총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하는 초기 의병에게 중요한 군사자원이었다.⁶⁾

한편 이춘영은 지평의 순흥안씨 안중응과도 접촉하였다. 안중응의 아들 안승우는 유인석의 제자로 제천 장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춘영은 그를 매개로 제천 화서학과와 연계할 수 있었다. 당시 유인석은 현실을 타개할 방법으로 의병을 강조하면서도 내간상 때문에 직접 봉기할 수 없었고, 제자들에게 ‘처의삼사(處義三事)’를 제시하였다.⁷⁾

처의삼사 가운데 거의소청(舉義掃淸)은 의병을 일으켜 개화파와 일본세력을 축출하는 방안이었고, 거지수구(去之守舊)는 고국을 떠나 성리학적 대도와 예의를 보존하는 길, 치명자정(致命自靖)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의를 실천하는 길이었다. 안승우·이필희·이범직 등은 거의를 선택하여 원주 안창의 봉기에 합류하였다.⁸⁾

이 과정에서 원주의병은 화서학과 유생만의 부대가 아니라 원주·지평·제천의 지역 인사, 포군과 민인, 중앙정치세력의 후원 등이 결합한 연합적 성격을 띠었다. 학문적·훈인적·지역적 인적망이 병력과 재정, 지도자를 연결하면서 유교적 명분이 실제 의병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는 을미의병이 지역사회의 기존 질서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군사조직을 형성한 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

3. 호좌의진과 운동방략의 형성

영월에서 유인석을 총대장으로 하는 호좌의진이 출범한 뒤, 제천은 의병의 본거지로 정비되었다. 의병은 충주성

5) 구완희, 「부록: 의병스시말」, 『한말 제천의병 연구』, 선인, 2005, 391쪽.

6) 심철기, 「提川乙未義兵의 砲軍과 農民」 지역문화연구 3,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4, 62쪽.

7) 유인석이 이근원에게 편지를 보내오로지 의병으로서 말하건대, 공적으로는 천하국가로 하여금 장차 이적금수를 면하게 하고, 사적으로는 내 몸으로 하여금 장차 이적금수를 면하게 함이었다.」라고 하여 의병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昭義新編 卷3, 「與李文仲根元書」, 134쪽).

8) 처의삼사는 舉義掃淸, 去之守舊, 致命自靖으로 의병을 일으켜 개화파와 일본세력을 축출한다는 것이며,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성리학적 大道와 禮義를 보존한다는 것이고, 성리학적 대도와 예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결한다는 것이다.

을 공격하기에 앞서 단양·청풍의 친일 관료를 제거하고, 충주 지방대 내부와 사전 교섭하여 성문을 개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하였다. 충주성 점령은 지역 포군과 유생세력이 결합한 의병이 관군과 일본군이 주둔한 도시를 장악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충주·수안보·가흥 등에서의 전투와 주요 의병장의 전사, 김백선 처형 등으로 연합의병의 전투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정이 제시한 「헌책(獻策)」은 이후 의병운동의 방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는 아관파천 뒤에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 반대라는 의병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전국의 의병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맹주를 세우며 서울 주변의 양도를 차단하여 친일세력을 고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⁹⁾

특히 “조야의 물망을 짚어진 한 분을 맹주로 추대하고, 팔도 의병을 지휘”해야 한다는 구상은 지역별 의병을 하나로 묶는 전국 연합의병의 논리였고, 서울의 양도를 끊어 성 안의 인심을 움직이겠다는 구상은 훗날 서울진공작전과 연결되는 기본 틀을 보여준다.¹⁰⁾

또한 김사정은 역적의 죄상을 서울 사대문과 각처에 알려 각국 공사들도 이를 알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아직 국제법에 근거한 직접적인 외교활동은 아니었지만, 의병의 명분을 외국공사관에 알리고 외부의 시선을 활용하려는 초기 형태의 대외 인식이었다. 1896년 의병에서 이미 전국 연합, 서울 고립·진공, 외국공사관을 의식한 대외 호소라는 방략의 기본 틀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을미의병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창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제 의병운동 과정에서는 지역의 포군과 재지세력을 조직하고 거점을 확보하며 연합부대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작전 구상과 외국 공사관을 의식한 선전방략까지 모색하였다. 이는 을미의병을 단순한 전통주의적 반발로 보는 시각을 넘어, 지역사회의 군사적·조직적 역량이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무장항쟁으로 결집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III. 1905년 원용팔 의병: 국권침탈 인식과 국제사회 호소

1. 러일전쟁 이후 일본 침략에 대한 현실 인식

원용팔 의병은 1905년 8월 16일 원주 주천(현 강원도 영월 주천)에서 봉기하였다. 을사늑약 체결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의병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변화한 일본의 침략방식과 대한제국의 위기를 일찍 인식한 사례로 주목된다. 원용팔은 1896년 의병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격문과 유인식·각국 공사관에 보낸 문서에는 을미의병 때보다 구체화된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원용팔은 「격고문(檄告文)」의 첫머리에서 대한제국이 “소중화(小中華)의 강토”를 왜적에게 내주는 현실을 비판하는 등 여전히 유교적 의리론을 사용하였다.¹¹⁾

그러나 그가 봉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든 것은 유교적 의례 문제보다 일제의 현실적인 침탈이었다. 첫째는 황무지 개척권 요구와 역둔토 정리를 통한 토지 침탈이었다. 원용팔은 산림천택과 궁둔·역토의 산물과 이익을 일본이 독점한다면 백성들이 생활할 근거를 잃게 된다고 보았다. “토지는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들의 목숨”이라는 표현에서 드러

9) 이정규 엮음, 「창의건문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집, 113쪽.

10) 이정규 엮음, 「창의건문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집, 114쪽.

11) 「檄告文」,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36쪽.

나뒸, 그는 토지문제를 영토주권과 백성의 생존권이 결합된 문제로 파악하였다.¹²⁾

둘째는 제1차 한일협약 이후의 고문정치였다. 원용팔은 일본이 고문관을 설치하여 중앙의 각 부를 장악하고 지방의 관찰부와 군현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단순한 인사 간섭이 아니라 재판권·조세권을 포함한 국가 운영의 권한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¹³⁾

셋째는 일진회의 활동이었다. 원용팔은 일진회를 일본의 앞잡이이자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일본이 일진회의 주장을 조선인의 공론인 것처럼 내세워 침략정책을 민의에 따른 조치로 선전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일본의 침략이 군사력과 제도 장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친일세력을 통한 여론 조작과 정당화 작업을 수반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었다.¹⁴⁾

이러한 현실 인식은 을미의병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1896년 의병이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성과 유교적 질서 파괴를 비판하였다면, 원용팔은 토지·화폐·행정·재정·철도·여론 등 국가와 백성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민지적 침탈을 하나의 구조적인 국권 침탈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의리론은 여전히 봉기의 명분이었지만, 항쟁의 대상과 이유는 국가주권과 백성의 생존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2. 거점 확보와 의병 조직의 확대

원용팔은 원주 주천과 신림 일대에서 화서학과 동문과 1896년 의병운동 참여자를 규합하여 봉기를 준비하였다. 이 지역은 제천 장담과 인접하고 화서학과 관련 인사가 다수 거주하였으며, 둔창·역촌이 있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산악지형으로 포수가 많아 초기 전투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하였다.¹⁵⁾

원용팔은 주천의 부유한 박수창에게 군자금과 화포, 나귀 등 군수품과 포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풍정에서 봉기하였다.¹⁶⁾

이후 단양·영춘·영월·정선·평창으로 이동하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지역별 수성장·파수장·소모장을 임명하였다. 특히 영춘에서는 의병부대가 약 450명으로 늘어났고,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수성장과 파수장으로 임명하여 병력과 물자의 지속적인 공급을 도모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이동은 단순한 유랑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의병의 거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원용팔은 자신의 병력만으로 일본군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각 지역의 의병·포군·재정 후원자를 연결하는 연합전선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거점 확보와 소모활동은 의병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향후 전국적 연합의병과 서울진공을 가능하게 할 배후지역을 조성하는 의미를 가졌다.

12) 「傳檄日本公使館」,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44쪽.

13) 「上毅菴 柳麟錫先生」,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62쪽.

14) 「疏草」,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33쪽.

15) 심철기, 「원주지역 전기의병의 학문적 배경과 참여세력」, 『한국사상사학』 38, 2011, 182~183쪽.

16) 구완희, 『韓末의 堤川義兵』, 집문당, 1997, 260쪽, 주 11)에 의하면 박수창은 밀양박씨로 위인이 출중하고 재력이 있어 박 부자집으로 불렸다고 한다. 한편, 신림면에 설치되었던 가리파전영둔의 마름은 박창운이었다.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六. 顧問警察事故報告, (8) 「폭도의 狀況에 대하여(1905. 9. 7.)」.

3. 격문·서신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원용팔 의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격문과 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국내의 백성과 정부, 황제뿐 아니라 일본공사관, 청국공사관, 서구 각국 공사관, 일진회 등 서로 다른 수신자에게 문서를 보내 의병봉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원 또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무력의 열세를 외교적·여론적 압력으로 보완하려 한 것이다.

서구 각국 공사관에 보낸 서신에서 원용팔은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고 물산과 민용(民用)을 강탈하여 백성이 생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의병이 단순한 반란세력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봉기한 세력임을 알리고자 하였다.¹⁸⁾

또 일본의 침략이 대한제국에만 머물지 않고 장차 다른 나라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경계를 설정하여 말리게” 된다는 비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의와 중재를 기대하였다.¹⁹⁾

청국공사관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였다. 조선이 무너지면 랴오둥과 선양, 나아가 베이징도 일본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대한제국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²⁰⁾

원용팔은 황제에게 올릴 상소문에서도 토지·인민·정사가 일본의 통제에 들어가 국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병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일본에 대응할 수 없다면 의병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일본공사관에는 고문정치, 토지와 산물의 강탈, 일진회의 활동, 화폐개혁, 철도부설 과정에서의 토지·가옥·분묘 훼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침략정책의 중단과 철수를 요구하였다.²²⁾

일진회에 대해서는 해산하고 본업으로 돌아가 일본을 원수로 여길 것을 요구하는 효유문을 보냈다. 일진회를 처단대상으로 보면서 우리 백성이므로 개과천선할 가능성을 열어 둔 점은, 의병이 항쟁의 대상을 일본의 침략세력과 이에 적극 협력하는 세력으로 구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²³⁾

이러한 서신과 격문은 원용팔 의병의 인식이 기존 위정척사론적 세계관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일본의 침략을 국제정세와 국가주권의 문제로 파악하였고, 각국 공사관의 여론과 중재, 지원을 활용하려 하였다. 만국공법의 구체적 조문을 체계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국가의 권리와 국제사회의 공의에 호소하려는 태도는 이후 1907년 의병전쟁에서 각국 영사관과 해외동포를 상대로 전개된 외교·선전 활동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용팔 의병은 을미의병의 인적·사상적 기반을 계승하면서도 항쟁의 논리와 방략을 변화시켰다. 유교적 의리는 여전히 중요한 명분이었지만, 토지·재정·행정·교통을 둘러싼 현실적 침탈과 국권 상실의 위험이 전면에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거점을 연결한 연합의병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를 통해 의병운동을 전국적·정치적 저항으로 확장시키려 하였다. 이런 점에서 원용팔 의병은 1896년 의병운동과 1907년 의병전쟁을 연결하는 과도기이자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 「書告泰西各國公使館」,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52쪽.

19) 「書告泰西各國公使館」,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53쪽.

20) 「書告淸國公使館」,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59쪽.

21) 「疏草」,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34~335쪽.

22) 「傳檄日本公使館」,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43~348쪽.

23) 「曉諭一進會文」,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卷上, 381~383쪽.

IV. 1907년 의병전쟁: 해산 군인의 결합과 전국적 의병전쟁

1. 군대 해산과 관동창의대의 성립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정규군 출신 군인의 참여는 의병부대의 무기 운용과 전투능력을 크게 높였고, 기존 유생 의병세력과 해산 군인이 결합하면서 의병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의병전쟁으로 전환되었다.

원주에서는 원주진위대 해산군인들이 민공호를 중심으로 봉기한 뒤 강원도·충청도·경상북도 일대에서 활발하게 전투를 벌였다. 한편 이은찬과 이구채는 원주에서 모집한 의병과 해산군인을 이끌고 문경에 있던 이인영을 찾아가 의병대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들이 이끈 병력에는 해산군인 약 8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⁴⁾

이인영은 을미의병 당시 원주지역 의병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원주·여주 일대에서 학문적 명망이 있었다. 동시에 그는 청국병을 의병에 합류시키는 등 기존의 유생 의병장 가운데 비교적 군사적 현실을 중시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유생 의병의 명분과 해산군인의 전투력을 함께 아우를 지도자로 적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관동창의대는 민공호의 해산군인 중심 부대와 연합하면서 강원도 의병전쟁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관동창의대는 원주·지평·여주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한편 각종 격문을 통해 의병을 모집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보하였다. 그 편제에는 유생뿐 아니라 상인과 광부도 참여하였다. 이는 정미의병이 특정 신분이나 학파의 범위를 넘어 일제의 경제적·군사적 침탈에 반발한 다양한 계층이 결합한 무장투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2. 각국 영사관과 해외동포를 향한 격문

1907년 의병전쟁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국제사회와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이인영은 10월 측근 김세영을 서울에 보내 통감과 각국 영사관에 격문을 전달하고, 같은 취지의 글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게 하였다. 격문에서 의병은 일본의 불법적인 침탈에 대항하여 일어난 애국단체이며, 각국이 이를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하고 정의와 인도의 관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²⁵⁾

이러한 주장은 의병전쟁을 국내의 반란이 아니라 독립국가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벌이는 전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다. 의병 지도부는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 일본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승인과 여론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압박하려 하였다. 이는 1905년 원용팔이 각국 공사관에 보낸 서신에서 나타난 대외 호소가 1907년에 보다 구체적인 국제법적 언어와 교전단체 인식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이인영은 10월 말 ‘대한관동창의대장’ 명의로 해외동포에게 격문을 보내 국내 의병과 해외 한인이 서로 호응할 것을 요청하였다.²⁶⁾

24) 偶々李九載及李殷瓚ノ兩人兵五百ヲ引率シテ原州ヨリ來リテ大將トシテ立タンコトヲ勸メマシタカラ遂ニ之ヲ諾シマシタカラ……問 鎮衛隊ノ兵ハ洋銃ヲ持ツテ來タト云フカ其兵員ハ何程居リシヤ 答 聞慶へ李殷瓚ト李求采カ引率シテ來タノカ兵隊カ八十名位テ(『統監府文書』 8권, 「李麟榮陳述調書」, (2) [暴徒巨魁 李麟榮 調書 보고 건], 1909년 6월 30일).

25) 각국영사관을 방문하고 통문 한 장식 드리게 하였으니 그 대강 뜻은 일본의 불의한 것을 토죄하며 한국의 참경을 설명하고 또 같아대 의병은 순연한 애국혈단이니 각국에서도 이것을 국제상 전쟁의 단체로 아는 것이 가하며 또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나라의 돕기를 바란다(『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8일, 「고 의병총대장 리린영씨의 수적」).

26) 격문은‘외국에 있는 동포에게 격고한 글’의 제목으로 대한 광무 11년 9월 일 대한관동창의장군 이인영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한민보』, 1919년 1월 23일, 「고 창의장군 이인영씨의 격문」에 실려 있다.

그는 해외동포가 열강의 공법 아래에서 담판하거나 각국 사회에서 연설하여 일본의 침략을 알리고 국권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당시 미주 한인사회와 영문신문에서도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 고종 강제 퇴위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논설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에 소개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논설은 대한제국이 독립국인데 일본이 무슨 권리로 황제를 폐위하고 수도에 대포를 설치하느냐고 비판하였다.²⁸⁾

또 청일전쟁 이후의 조약과 포츠머스강화조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헤이그평화회의에 사신을 파견한 행위는 독립국가의 정당한 외교행위라고 보았다.²⁹⁾

이처럼 정미의병의 국제사회 인식은 국내 의병 지도부의 일방적인 상상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국내 신문을 통해 해외 언론과 미주 한인사회의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었고, 의병 지도부는 이를 활용하여 국내의 의병전쟁과 해외의 여론·외교활동을 연결하려 하였다. 의병운동은 지역 군사행동과 국제여론전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3. 13도창의군과 서울진공작전

1907년 말 이인영·민공호·이강년·허위 등 의병장들은 전국의 의병을 하나로 묶는 연합의병을 추진하였다. 각 지역 의병부대는 서로 연락하며 양주에 집결하기로 하였고, 관동창의대는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³⁰⁾

양주에 집결한 의병장들은 연합부대를 13도창의군으로 명명하고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하였다. 실제로 13도의 모든 의병이 완전히 결집한 것은 아니었으나, 13도창의군이라는 명칭은 전국의 의병을 대표하는 통합 군임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었다. 관동창의대에서 활동한 민공호·권중희·방인관·정봉준 등이 13도창의군의 주요 지휘부로 편입된 점은 13도창의군이 관동창의대를 하나의 기반으로 하여 경기·충청 등 다른 지역 의병과 결합한 조직이었음을 보여준다.³¹⁾

13도창의군의 목표는 서울로 진공하여 통감부와 친일 지배체제를 타격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서울진공의 기본 구상은 이미 1896년 김사정의 「헌책」에서 전국 의병의 통일과 서울의 양도 차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27) 붉은피로서 격문을 써 밖에 있는 참군자에게 고하나니 바라건대 제군자는 나의 비미한 것을 생각지 말고 나라 일로서 중심을 삼아 서로 맘을 두고 힘을 한가지로 하여 의로운 소리를 같이 질러 안과 밖이 서로 향응하여 서로 구원하여 혹은 열강의 공법 아래서 담판도 하며 혹은 각국 사회에서 연설도하여 공의를 붙들고 죄악을 치며 국권을 만회하며 원수를 도멸하면(『신한민보』, 1919년 1월 23일, 「고 창의장군 이인영씨의 격문」).

28) 韓國은 果然獨立國이니 獨立이라하고보면 日本은무슨 權利와무삼 權勢가 有하기로 皇帝를 廢하며 該國都城에 大砲를 置히고 人民을 虐부로 砲殺하나(『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4일, 「別報」).

29) 韓國은 他國의 迫害를 休息할 暇隙이업시 受히야 淸國을 免하면 俄國이오 俄國이아니면 日本이 侵略하야 今日此境에 及히지라 然히나 世界는 韓國獨立을 承認하엿고 韓國도 獨立을 公布하것은 吾儕가 記憶하느니라 一千八百九十五年(乙未年)日淸戰爭以後馬關條約을 見히면 朝鮮은 淸國과 干涉이업게되고 完全히 獨立國이되얏스니 其間에 俄國黨과 日本黨이 生히 緣故로 日俄戰爭이 起히야 포스마우쓰媾和條約에 日本은다 만 韓國外交權만차지히게되얏고 其外政權은 韓國獨立體面을 維持케히기로 承認하것이로대(『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4일, 「別報」).

30) 平安道義兵은 黃海道義將朴基燮과 聯絡하고 黃海道義兵은 長湍義將金秀敏과 相連하고 金秀敏은 鐵原義將前參尉金奎植과 連通하고 金奎植은 積城麻田義將許위와 相通하고 許위는 砥平加平等地에 李麟榮과 通涉하고 李麟榮은 堤川嶺東等地李康年과 原州等地로 閔肯鎬連되야 互相擬議通謀하느고(『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8일, 「地方消息」).

31) 再昨年十二月에 遂此地를 離히야 楊州로 進向히니라 楊州에 會히야 部署를 定호시 리麟榮은 삼三道義兵總大將이 되며 許위는 軍師長이 되야 策戰計劃을 任호고 各軍의 大將及隊號를 分하니 關東倡義大將은 閔肯鎬 湖西倡義大將은 李康年 嶺南倡義大將은 朴正斌 京畿黃海兩道鎮東倡義大將은 權義熙 關西倡義大將은 方仁寬 關北倡義大將은 鄭鳳俊이라(『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30일, 「義兵總大將李麟榮氏의 畧史 續」).

1905년 원용팔 의병에서도 지역거점 확보와 연합의병 추진으로 이어졌다. 1907년에는 이러한 구상이 해산 군인의 군사력과 전국 의병의 연합을 바탕으로 실제 군사작전으로 구체화되었다.

민공호 의병부대가 배포한 격문은 각 면장과 이장에게 2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을 모아 10일분의 양식을 휴대하고 서울 동대문 밖에 집결하도록 요구하였다.³²⁾

그러나 일본군은 의병의 이동로와 거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관동창의대와 민공호 부대는 원주·횡성·평창·양구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며 양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의병부대의 집결은 계획보다 늦어졌으며, 서울진공작전의 통일적 지휘도 어려워졌다.

1908년 1월 하순 허위의 부대가 먼저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도착하였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고, 뒤이어 관동창의대 등 약 2,000명의 의병이 모였다. 그러나 모든 주력부대가 집결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민공호 부대와 이강년 부대는 일본군과의 지속적인 전투 때문에 제때 합류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지휘권을 허위에게 넘긴 뒤 귀향하면서 작전은 더 이상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³³⁾

서울진공작전의 실패를 이인영 개인의 이탈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13도창의군은 각 부대가 독립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한 연합군이었고,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일본군의 추격과 교전으로 부대 간 연락과 집결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초기에는 관동창의대가 연합의 주도권을 가졌으나 서울 근교에서는 허위를 중심으로 한 경기의 병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휘권의 중심도 변하였다. 따라서 실패의 원인은 병력의 집결 지연, 일본군의 집중 진압, 연합군의 느슨한 지휘체계, 주요 부대의 미참여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13도창의군과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의병은 더 이상 개별 군현이나 산악지역에서의 방어적 저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군사조직을 표방하여 식민지 지배의 중심지인 서울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해산 군인과 유생 의병장, 상인·광부 등 다양한 세력이 결합하였고, 국내의 군사작전과 국제사회·해외동포에 대한 여론전을 함께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1907년 의병은 지역적 창의를 넘어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전국적 반제국주의 무장투쟁, 즉 의병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V. 맺음말

이상에서 1896년 을미의병, 1905년 원용팔 의병, 1907년 정미의병의 전개를 통해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 의병운동의 인식과 운동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시기의 의병운동은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적 기반, 의리론과 운동방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 양상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변화한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1896년 의병운동의 출발점에는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복제개혁 등으로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다. 화서학파를 비롯한 유생들은 전통적 가치와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을 의로 인식하였고, 그 의리론

3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8』-의병편 1-, 국사편찬위원회, 1979, 103쪽.

33) 『統監府文書』 8권, 「李麟榮陳述調書」, (1) 賊魁 중의 巨擘 李麟榮 체포 전말, 부록 李麟榮의 진술(6월 11일 天安分隊長 보고), 1909년 6월 12일.

은 원주·지평·제천의 지역 인적망과 결합하여 실제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포군과 해산된 지방군, 재지사족과 후원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의병은 단순한 유생의 사상운동을 넘어 군사조직으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연합의병, 서울의 고립과 진공, 외국공사관을 의식한 대외 호소 등 이후 의병운동에서 반복·발전되는 기본적인 방략도 나타났다.

1905년 원용팔 의병은 이러한 을미의병의 인적·사상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실 인식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원용팔은 일본의 침략을 단지 유교적 질서의 훼손이나 왜적의 침입으로만 보지 않았다. 황무지개척권과 역둔토 정리, 고문정치, 화폐개혁, 철도부설, 일진회의 활동 등을 국가주권과 백성의 생존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직적인 국권 침탈로 이해하였다. 또한 각국 공사관과 청국공사관에 서신을 보내 일본의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의와 지원을 기대하였다. 이는 을사의병이 을미의병의 의리론을 이어받으면서도 국제정세와 국권 회복을 함께 사고하는 정치적 저항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07년 정미의병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정규군 출신 병사가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의 전투력과 조직력이 강화되었고, 기존 유생 의병세력과 해산 군인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관동창의대와 민공호 부대의 연합, 13도창의군의 결성, 서울진공작전의 추진은 의병운동이 지역단위의 창의를 넘어 전국적인 군사행동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국 영사관과 해외동포에게 보낸 격문은 의병전쟁을 국제법상의 교전과 독립전쟁으로 설명하고 외부의 지원과 여론을 끌어내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정미의병은 국왕에 대한 충의라는 전통적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동에서는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전국적 반제국주의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전통과 근대, 지역과 전국, 국내 무장투쟁과 국제여론전이 서로 대립적인 요소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의병운동 속에서 중첩되고 결합하였다는 데 있다. 을미의병의 유교적 의리론은 저항의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는 이를 지속할 현실적 기반이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침략이 국가의 제도와 경제, 외교를 장악하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의병의 현실 인식도 국권과 국제질서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군대 해산 뒤에는 정규군의 전투경험과 무기가 결합하여 의병운동의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고, 전국적 연합과 서울진공이라는 목표가 구체화되었다.

결국 한국 의병운동은 단순히 전통질서를 지키려는 반근대적 저항도,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근대적 민족전쟁도 아니었다.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의리와 지역질서를 바탕으로 저항세력을 조직하고, 현실의 국권 침탈을 인식하며, 지역적 연합에서 전국적 군사행동으로, 국내의 격문과 상소에서 국제사회와 해외동포를 향한 호소로 운동의 범위를 넓혀간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이러한 연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을미·을사·정미의병은 한국 사회가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며 축적해 간 저항 역량과 국권 회복 인식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남의 근왕운동(Cần Vương · 勤王運動, 1885~1896) : 개관 및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9~1913)의 사례

까오 비엣 아인 · 팜 티 흐엉(한남연구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와 새롭게 발굴된 사료, 특히 응우옌 왕조의 주본(硃本), 프랑스 해외문서보관소(ANOM) 및 독일 문서보관소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베트남 근왕운동(1885-1896)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왕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 한계와 베트남 근현대사에 남긴 역사적 교훈을 새롭게 검토한다.

근왕운동이 전개되기 이전, 응우옌 왕조 시기의 베트남은 경제·정치·사회·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낙후된 군사력을 가진 상황에서, 응우옌 왕조는 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1862년부터 1884년까지 프랑스와 연이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정 내부에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대립하였으며, 뜨득(Tự Đức) 황제가 서거한 이후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은 주전파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여 함응이(Hàm Nghi) 황제를 옹립하고 항전 준비를 주도하였다. 1885년 7월 5일 후에(Huế) 황성에서 프랑스군에 대한 반격이 실패한 이후 그는 함응이 황제를 떤서(Tân Sở) 산성으로 호위하여 이동한 뒤 「근왕조(勤王詔)」를 반포함으로써 전국적인 항프랑스 투쟁을 호소하였다.

근왕운동은 1885년부터 189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888년 함응이 황제의 체포를 전후한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에는 북기와 중기의 문신, 사대부, 지방 관료, 그리고 일반 민중이 폭넓게 참여하였고, 바딘(Bà Đình), 바이서이(Bãi Sây), 흐엡케(Huỳnh Khê), 흥린(Hùng Lĩnh) 등 대표적인 의병 항쟁이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근왕운동이 단순한 충군사상을 넘어 19세기 말 베트남인의 애국심과 민족 독립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평서살좌(平西殺左)’ 노선의 계승은 가톨릭 공동체와의 충돌을 야기하여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프랑스 식민당국에 이용될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한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베트남, 프랑스, 중국, 독일의 다양한 보관 문서를 활용하여 톤탓투엣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근왕운동이 실패한 이후 그는 약 30년 동안 중국 국경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베트남의 독립 회복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새롭게 확인된 자료들은 그가 청나라 관료들과 접촉하여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였을 뿐 아니라 독일 외교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이러한 시도는 성공

하지 못했지만, 이들 자료는 그의 대외 활동과 국제적 원조 모색, 그리고 베트남-중국 국경 지역이 항프랑스 운동의 정치·군사적 연결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끝으로 본 논문은 근왕운동 실패의 주요 원인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베트남과 프랑스 간 군사력과 전략적 사고의 현격한 격차, 둘째, 통일된 지휘 체계와 지역 간 연대의 부재, 셋째, ‘평서살좌’ 노선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민족 내부의 분열, 넷째, 장기 항전을 지속할 경제적 기반의 부족이다. 비록 근왕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국민의 애국정신과 항외세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뿐 아니라 국가 역량의 구축, 민족 통합,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경험으로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越南勤王运动 (Cần Vương · 勤王運動, 1885—1896) : 概述及尊室说 (Tôn Thất Thuyết, 1839—1913) 个案研究

高越英(Cao Việt Anh), 范氏紅(Phạm Thị Hương)

<中文摘要>

本文综合运用既有研究成果与新近发掘的史料, 尤其是阮朝硃本、法国国家海外档案馆 (ANOM) 及德国档案机构所藏文献, 旨在重新审视越南勤王运动 (1885—1896)。在此基础上, 本文不仅重新确认勤王运动的历史意义, 也对其局限性及其留给越南近现代史的历史教训作出新的探讨。

勤王运动发生以前, 阮朝统治下的越南在经济、政治、社会 and 军事等方面均面临严重问题。在经济结构以农业为主、军事力量相对落后的情况下, 阮朝一方面采取妥协政策, 另一方面于1862年至1884年间接连同法国签订一系列不平等条约, 最终导致国家主权丧失。在此背景下, 朝廷内部逐渐形成主和派与主战派之间的对立。嗣德帝 (Tự Đức, 阮福时) 去世后, 尊室说 (Tôn Thất Thuyết) 成为主战派的核心人物。他拥立咸宜帝 (Hàm Nghi), 并主导抗战的准备工作。1885年7月5日, 在顺化皇城对法国军队发动的反击失败后, 尊室说护送咸宜帝转移至新所 (Tân Sở) 山城, 随后颁布《勤王诏》, 号召全国人民开展抗法斗争。

勤王运动在1885年至1896年之间持续展开, 并以1888年咸宜帝被捕为界, 大体经历了前后两个阶段。北圻和中圻地区的文臣、士大夫、地方官员及普通民众广泛参与其中, 先后爆发了巴亭 (Ba Đình)、荻林 (Bãi Sậy)、香溪 (Hương Khê)、雄岭 (Hùng Lĩnh) 等具有代表性的义兵抗争。本文强调, 勤王运动超越了单纯的忠君思想, 是一场集中体现了19世纪末越南人的爱国情感与民族独立意识的运动。与此同时, 运动的局限性在于对“平西杀左”路线的继承, 引发了与天主教社群之间的冲突, 不仅加剧了社会内部的分裂, 也为法国殖民当局加以利用提供了条件。

本文的核心内容是通过运用越南、法国、中国和德国所藏的多种档案文献, 从新的角度重新评价尊室说。勤王运动失败后, 尊室说在中国边境地区流亡近三十年, 一直为越南独立而谋求国际社会的援助。新发现的资料表明, 他不仅曾与清朝官员接触, 试图争取军事援助, 还会向德国外交当局请求协助。尽管这些努力最终未能取得成功, 但相关资料具体展示了尊室说的对外活动及其争取国际援助的努力, 同时也表明中越边境地区已成为抗法运动的政治与军事联络空间。

最后, 本文将勤王运动失败的主要原因归纳为四个方面。第一, 越南与法国在军事力量和战略思想方面存在显著差距; 第二, 运动缺乏统一的指挥体系及不同地区之间的有效联动; 第三, “平西杀左”路线产生的消极影响, 加剧了民族内部的分裂; 第四, 缺乏维持长期抗战所必需的经济基础。勤王运动虽然最终以失败告终, 但仍被视为越南近现代史上的重要转折点。它不仅是体现越南人民爱国精神与抵抗外来侵略意志的代表性事件, 而且作为一段重要的历史经验, 揭示了国家力量建设、民族团结与国际合作的重要性, 时至今日仍具有不容忽视的现实意义。

베트남의 근왕운동(Cần Vương · 勤王運動, 1885~1896) : 개관 및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9~1913)의 사례

까오 비엣 아인 · 팜 티 흐엉(한놈연구원)

I. 서론

II. 베트남 근왕 운동사(1885~1896) 개요

1. 배경

1) 근왕운동 이전의 베트남 상황

2) 근왕운동의 구체적 배경

2. 근왕운동

III.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본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의 노력과 희생

IV. 결론

I. 서론

근왕(Cần Vương, 勤王) 운동(1885~1896)은 19세기 말 국가와 민족의 거시적 문제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난 시기이다. 프랑스가 베트남 영토에 식민지 행정 체제를 강제로 구축한 상태에, 전통 군주제도가 점차 식민지적 군주제도로 변모해가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베트남 황제를 지지하고 원조한 베트남 민중의 운동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는 민심과 백성의 힘, 그리고 국력을 투영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극명히 반영하고 있다.

II. 베트남 근왕 운동사(1885~1896) 개요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은 지난 세기의 1975년까지 서구 세력과 거대한 대립을 이어왔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9세기 중반부터 베트남 남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일깨웠고, 이를 통해 중국 남부이자 인도 동부에 위치한 이 작은 땅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경제력과 군사 기술이 막강하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여 이익을 창출한 경험이 풍부한 서구 강대국에 맞서, 당시 베트남의 지도부였던 응우옌 왕조(1802~1945)는 기존의 전통

적인 정치적 기반과 군사 방식에 의존하여 당혹감과 낯센 속에서 저항을 펼쳤다.

1858년 다낭(Đà Nẵng) 무역항에서 울려 퍼진 첫 총성은 조정의 저항부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각계각층의 봉기와 프랑스 식민주의에 맞선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끊이지 않은 저항은 결국 베트남 민중의 모든 계층이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시킨 정점에 끌어왔다.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근왕(Cần Vương) 운동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래, 조정과 애국 지사(지식인층), 그리고 민중이 하나로 맞물리는 점점으로서 떠올랐다.

1. 배경

1) 근왕운동 이전의 베트남 상황

프랑스군이 다낭을 공격한 시기인 1858년을 기점으로 보면, 뜨득(Tự Đức) 황제¹⁾ 치하의 베트남은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심각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은 응우옌 왕조가 서구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결국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시기 베트남은 여전히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민인 순수 농업국가였다.²⁾ 소수공업 활동은 침체되어 있었고 대외 무역은 제한적이었으며, 무역 이익의 대부분은 화교와 서구 상인들의 손에 들어갔다. 특히 1864년과 1865년에는 심각한 흉작이 기록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는 국가의 국방 잠재력을 유지하는 역량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정의 군대는 전통적 모델에 따라 비교적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었으나, 서구에 비해 무기 장비와 군사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군사력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응우옌 왕조는 프랑스와의 무력 충돌에서 연이어 패배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와 다음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862년 남기(남부) 동쪽 3개 주를 프랑스에 할양한 임술화약(Nhâm Tuất 조약), 1847년 프랑스의 남기 6개 주 전체에 대한 주권을 공식 인정한 갑술조약(Giáp Tuất 조약), 1883년 복기와 중기를 프랑스의 보호령 체제 아래 둔 계미조약(Harmand 조약), 그리고 1884년 베트남 전역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확고히 한 갑신조약(Patenôtre 조약)이 그것이다. 이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프랑스 측의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침략 야욕이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제적·군사적 잠재력은 선교사 보호나 자유 무역 요구와 같은 단순한 핑계만으로도 베트남을 손쉽게 침략하기에 충분했다.

응우옌 왕조 정부의 태도는 화의와 양보 정책을 추구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에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 정부를 나약한 정권으로 평가했다. 1862년 화약 체결 전, 뜨득 황제는 남기(남부)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판타인잔(Phan Thanh Giản)³⁾ 일행에게 신신당부했으나 결국 영토 할양을 피하지 못했다.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1) 뜨득(嗣德, 1829~1883) 황제의 본명은 응우옌푹홍니엄(阮福洪任, Nguyễn Phúc Hồng Nhâm)이며, 이후 응우옌푹티(阮福時, Nguyễn Phúc Thi)로 개명했다. 그는 응우옌 왕조의 제4대 황제로, 1847년부터 1883년까지 재위했다.

2) 응우옌테안(Nguyễn Thế Anh, 1971), 『응우옌 왕조 치하 베트남의 경제와 사회』, 르어 티엡(Lữ Thiêng) 출판사, 57쪽.

3) 팜반선(Phạm Văn Sơn)은 판타인잔에 대한 특고인 「19세기 말 남기 사태에 대한 판타인잔의 책임과 그의 죽음」 (『사지집산(Tập san Sử Địa)』, 제78호 (1967), Khai Trí社 출판, 91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판타인잔(潘清簡, 1796~1867)은 수석 전권대사(정사)의 직책을 맡아 사이공에서 임술화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프랑스와의 협상 노선에 관해 뜨득 황제는 그에게 재량껏 집행하도록 허락했으나, 적들에게 영토를 할양하여 넘겨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판타인잔과 람주이히엵(Lâm Duy Hiệp)에게 1,300만 냥의 금액을 지불하고 재량껏 속환(贖還)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프랑스 측이 동쪽 3주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절대 윤택하지 않겠다는 입장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협상이

채, 황제 본인도 직접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백성을 버린 건 조정의 잘못이요, 나라를 판 건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사는구나(棄民朝儲咎, 賣國世間評).”⁴⁾ 또 즉 황제는 1862년 화약을 수정하고 프랑스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협상을 벌이는 등 잃어버린 동부 3주를 속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정은 프랑스에 대해 명확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기(남부)지역에서 일어난 의병 봉기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했다.⁵⁾ 당시 응우옌 조정의 태도는 프랑스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보불전쟁)으로 열세에 놓였던 상황을 활용해 영토를 탈환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즉황제는 프랑스 장군에게 남기 6주를 반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내치에 힘쓰라고 권고할 정도로 매우 순진했다는 평가받았다.⁶⁾

응우옌 왕조의 관료 사회 내부에서는 조정을 중심으로 주화파(主和派)와 주전파(主戰派)의 두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프랑스가 남기(남부)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한 초기인 1859년부터 현지 관료들이 군사와 민중을 이끌고 프랑스에 맞서 매우 격렬하게 저항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쩡영 딘(Trương Định)과 응우옌후후언(Nguyễn Hữu Huân) 등은 의병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황제의 철군 명령마저 거부하며 완강하게 항전을 이어갔다.⁷⁾ 1862년 화약은 베트남 남부 군민의 게릴라전으로 인해 프랑스의 실력이 약화해 가던 와중에 조정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때문에 지식인층은 크게 분노하며 조정을 원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지도자들이 이끄는 항전 운동은 더욱 고조되었는데, 특히 유학적 전통과 학문적 깊이가 깊은 지역일수록 그 저항의 기세가 더욱 거셌다. 더 나아가 많은 베트남 사대부들은 국가 개혁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즉황제에게 유학생 파견, 국내 방비를 위한 홍콩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기초 과학 교육 진흥, 농업 이외의 경제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조정이 전면에서 나서서 항전 운동을 공개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랬는데, 대표적으로 응우옌쑤옌토(阮長祚, Nguyễn Trường Tộ, 1830?~1871)는 외세와의 동맹을 통해 남기(남부) 지역을 탈환하자는 계획을 즉황제에게 상소로 올리기도 했다.⁸⁾

교육과 과거 제도를 통해 꾸준히 유지되어 온 유가(儒家)이념은 봉건 국가 체제를 움직이는 사대부와 문신(文紳) 계층을 형성시켰으나,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충돌은 사대부 계층으로 하여금 “군주(왕)인가, 조국인가”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깊은 당혹

시작되자, 판타인잔은 동쪽 3주를 적들에게 양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하라는 조항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후에(Huế) 조정으로 복귀했을 때 판타인잔과 캄주이히엠편은 혹독한 문책을 받았다.”

4) 딘쑤언림(Đinh Xuân Lâm, 2003년 6월), 「판타인잔 - 거대한 모순 덩어리」, 『역사연구(Tạp chí Nghiên cứu Lịch sử)』, 제6호(통권 331호), 2003년. 즉황제의 어제시(御製詩)에는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이 있다: “백성을 버린 건 조정의 잘못이요, 나라를 판 건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사는구나”(棄民朝儲咎, 賣國世間評).

5) 응우옌테안(Nguyễn Thế Anh), 같은 책, 52쪽.

6) 응우옌테안(Nguyễn Thế Anh, 1971), 앞의 책. 『대남실록(大南寔錄)』, 「제4기(대남실록 정편 제4기)」, 제43권에는 경오년(1870년) 9월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프랑스(불란서)가 프로이센(보로사)과 전쟁을 벌여 프랑스 국왕이 프로이센 군대에게 사로잡혔다. 프랑스 장군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황제는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겨 상박원(商泊院)에 명하여 해당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남기 6주를 반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근본(조국)을 구하라고 타이르도록 논의하였다.”

7) 쩡영딘(張定, Trương Định, 1820~1864)은 프랑스의 남기 침략 초기 단계(1859~1864)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의병 봉기를 이끈 인물이다. 임술화약 체결 후, 그는 후에 조정의 철군(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현지에 남아 항전 운동을 지속하여 이끌었으며, 민중들에 의해 “평서대원수”로 추대됐다. 응우옌후후언(阮有勳, Nguyễn Hữu Huân, 1830~1875) 역시 1862년 조정이 군대 해산령을 내린 후, 1859년부터 1875년까지 봉기를 이끌었으며 자신의 모든 군사 역량을 이끌고 쩡영딘의 의병대에 합류하여 함께 투쟁했다.

8) 응우옌 테 안(Nguyễn Thế Anh, 1971), 앞의 책, 66쪽, 68~73쪽.

『대남실록(大南寔錄)』 정사, 「제4기」, 제43권: “응에안(Nghe An)의 가톨릭 신자(예수교인) 응우옌쑤옌토(Nguyễn Trường Tộ)가 서구 세력(프랑스)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밀리에 상소하여 아뢰었다.”

감을 느끼게 했다. 결국 그들은 군주와 국가를 동일시하며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 여겼던 전통적인 사대부의 관념에서 벗어나, 붓을 꺾고 관직을 버린 채 칼을 쥐며 실천적 지식인으로 변모해 가는 필연적인 사상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근왕운동의 구체적 배경

『대남실록(大南寔錄)』에 따르면, 뜨득 황제의 봉어가 임박했을 때 당시 기밀원 대신(機密院大臣)이었던 찐띠엔 타인(陳踐誠, Trần Tiễn Thành, 1813~1883), 응우옌반뜨엉(阮文祥, Nguyễn Văn Tường, 1824~1886), 푼탓 투이엣(尊室說, Tôn Thất Thuyết, 1839~1913) 세 사람이 대사를 위임받기 위해 입궐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정은 이미 극심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대프랑스 노선과 관련하여 응우옌반뜨엉과 푼탓투이엣은 주전파(主戰派)였던 반면, 찐띠엔타인은 주화파(主和派)에 속했다. 뜨득 황제가 서거한 후, 투이엣과 뜨엉은 단 4개월 사이에 욱득(育德, Dục Đức) 황제, 협화(協和, Hiệp Hòa) 황제, 건복(建福, Kiến Phúc) 황제 세 황제를 연이어 폐위시켰고, 동시에 주화파의 수장이었던 찐띠엔타인을 살해했다. 이로써 주전파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당시 불과 14세였던 함의(咸宜, Hàm Nghi) 황제를 왕위에 앉혔다(1884년).

『대남실록(大南寔錄)』 정사는 1885년 음력 5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베트남 주둔 프랑스군 총사령관이었던 드 쿠르시(De Courcy) 프랑스 도통장군이 국서를 전달하고 입궐 배알 배례를 행하기 위해 후에(Huế) 황성에 도착했다. 그는 응우옌반뜨엉과 푼 탓투이엣에게 프랑스 공사관으로 와서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푼탓투이엣은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대신, 각 군영에 명령을 내려 무기 장비를 점검하고 정돈하게 했다. 음력 5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양력 1885년 7월 5일 밤~6일 새벽) 사이에 황성 내에서 정변(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푼탓투이엣의 지휘 아래 군대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제1대도는 그의 동생인 푼탓레(尊室訓, Tôn Thất Lệ, ?~1885)가 수군 부대를 이끌고 프랑스 공사관을 기습 공격했다. 제2대도는 푼탓투이엣이 직접 지휘하였으며, 분의군(奮義軍)의 장위(掌衛)였던 찐쑤언소안(陳春撰, Trần Xuân Soạn, 1849~1923)과 함께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진평(鎮平, Trấn Bình)대⁹⁾를 타격했다.

조정의 군대가 먼저 포성을 울리며 기습했으나, 날이 밝자마자 프랑스군은 즉시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들은 우수한 무기를 앞세워 전세를 완전히 압도했다. 당시 부정대신이었던 응우옌반뜨엉은 이 기습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밤사이 푼탓투이엣의 첫 충성이 울리자마자 즉시 입궐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응우옌반뜨엉은 황제와 삼궁(황태후 및 왕비들)에게 사태를 잠시 피하기 위해 겹궁으로 몽진할 것을 상소하여 청했다. 이후 응우옌반뜨엉은 자유(Tự Dũ) 황태후¹⁰⁾의 명령에 따라 후에(Huế)성에 남아 프랑스 측과의 강화 협상을 맡게 되었다. 뒤이어 성을 빠져나온 푼탓투이엣은 황제 일행과 합류하여 그들을 장시(Trường Thi)까지 호위한 뒤 북쪽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낮 12시경)에 반싸(Văn Xá) 마을에 도착하자, 푼탓투이엣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황제가 조정을 떠나 파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천하에 공포하고 근왕(Cần Vương)을 촉구했다.¹¹⁾

9) 다른 이름은 말카(Mang Cá)이다.

10) 자유(慈裕, 1810~1901) 황태후는 티에우찌(Thiệu Trị) 황제의 귀비(貴妃)이자, 뜨득(Tự Đức) 황제의 생모이다.

11) 『대남실록 정편(大南實錄正編)』, 제5기, 베트남 역사연구소 역, 하노이: 교육출판사, 2007, 138~139쪽.

2. 근왕운동

근왕(Cần Vương)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베트남(남조) 황제를 지지하고 원조한 운동이다. 근왕 운동의 중심인물은 남조의 함의(咸宜, Hàm Nghi, 1871~1944) 황제이다. 그의 정통 재위 기간은 1884년부터 1885년까지 단 13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통 연호는 “함의 원년(1885년)”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를 향한 민중의 열렬한 지지는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서 증명된다. 실제로 그가 파천한 이후에도 많은 한남(Hán Nôm) 문서에서 “함의 2년”, “함의 3년” 등의 연호가 여전히 사용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¹²⁾ 근왕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당시 응우옌 왕조 조정 내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자는 주전파(主戰派)의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부정대신 툐탓 투이엣(Tôn Thất Thuyết)이다. 주전파의 입장에 섰던 함의 황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조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또 다른 다수파, 즉 황친국척(皇親國戚) 및 조정의 중신들과 공식적으로 뜻을 달리하며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885년 7월 5일 프랑스가 망카(Mang Cá) 요새를 점령하여 후에(Huế) 왕성이 함락되자, 함의(Hàm Nghi, 1871~1943) 국왕과 응우옌 왕조의 주전파는 떤쑤(Tân Sở)성으로 피신한 뒤 같은 해 7월 13일(음력 을유년 6월 2일) 근왕유(勤王諭)를 반포하여 전국의 백성들에게 국왕을 보필해 외세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¹³⁾ 함의(Hàm Nghi) 원년(1885년), “... 국왕이 출행(出幸)할 당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어전어인인 ‘문리밀찰’(文理密察)인(印)과 보검(寶鈴) 2과(顆)만을 챙겼으며 금은 기물과 보물 등은 하인들에게 들려 가져가게 했다. ... 오시(午時)가 돼서야 반싸(Văn Xá) 마을[후에 흐엉짜]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이 즉시 왕명을 받들어 국왕이 파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천하에 알리고 근왕(Cần Vương)을 촉구하며, 남부와 북부에 차례로 공문을 보내 따르도록 했다.”¹⁴⁾ 근왕유가 결국 반포된 것이다. 약 한 세기 반(150년) 동안 그 문건의 진위 여부와 작성자에 대해 수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으나, 애국과 외세 저항이라는 베트남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 주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2) 예를 들어, 툐탓담(Tôn Thất Đàm)은 함의 황제가 체포된 후, 투항 권고와 함께 또응카인(Đông Khánh) 황제 치하에서 관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측과 주고받은 서신에서 여전히 “함의 2년”, “함의 3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단호한 저항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13) 베트남 역사연구소, 보킴꾸엥(Võ Kim Cương) 편저 (2017), 『베트남 역사 제6권 (1858~1896)』, 하노이: 사회과학출판사, 236쪽.

14) 『대남실록정편(大南實錄正編)』 제오기(第五紀). 베트남 역사연구소 역, 하노이: 교육출판사, 2007, 139쪽.

탄호아靑化, 팡남廣南, 팡응아이廣義, 빈딘平定, 푸옌富安, 칸호아慶和, 빈투안平順 성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남부에는 “근왕(Cần Vương) 운동이 남부의 동부 지방으로도 확산되었는데, 사이공에서 한 폭동이 일어났으나 신속하게 진압되었다. 프랑스 식민 당국은 총독 진 쩌바록(陳伯祿, Trần Bá Lộc, 1839~1899)의 손을 빌려 탄압케 했다. 1886년 중반에 푸옌, 칸호아, 빈투안 성에서 봉기가 다시 일어났다.”¹⁶⁾

사료(史料)는 지방의 지도자들이 줄을 지어 함의(Hàm Nghi) 국왕을 알현하고 근왕(Cần Vương)의 격문에 호응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함의 국왕의 가마가 팡빈(Quảng Bình)에 이르렀을 때, 그(마이르엉, Mai Lương)는 팡빈에서 가장 먼저 함의 국왕과 산중 조정(山朝)을 알현한 관료 중 한 명이었다.”¹⁷⁾ 봉기를 이끈 많은 지도자는 과거 베트남에 불리한 프랑스-베트남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반프랑스 행보를 보였던 인물들이었으며, 하띤(Hà Tĩnh)의 레닝(Lê Ninh)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비록 전국의 문신과 사대부들이 북부에서 중부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이고 용맹하게 근왕군의 대열을 이끌었던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도 수많은 문무(文武)의 재능을 겸비한 충신과 동지들이 국왕의 국내 피란길에서부터 중국 망명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 맞서 함의(Hàm Nghi) 국왕의 곁을 끝까지 지켰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애국지사로는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쩌쑤언소안(Trần Xuân Soạn), 르엉쑤안쑤(梁俊秀, Lương Tuấn Tú, 1836~1891?)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유산인 “애국심”을 품은 베트남 사람들은 근왕 운동에 주도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음으로 나열할 수 있다.

–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과 뜻을 같이한 남조(南朝, 응우옌 왕조)의 충신들 중, 유배지로 향하던 선상에서 순국한 기밀원대신(機密院大臣) 팜틴두앗(范慎通, Phạm Thân Duật, 1825~1885)이 있었고, 타히티 섬에서 세상을 떠난 기밀원대신 응우옌반뜨엉(Nguyễn Văn Tường, 1824~1886)이 있었다.

– 팡찌 성 안찰사(按察使) 툐탓남(Tôn Thất Nam)이나 하노이 제도(提督) 레츱(黎直, Lê Trực, 1828~1918)과 같은 관료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녹봉을 아끼지 않고 전란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피란길에 오른 국왕을 위해 군사를 모집하고 의거에 투신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 백치(Bạch Xí)의 호를 가진 도안찌뚜언(Đoàn Chí Tuân, 1855~1897)과 같은 시인(詩人)은 함의(Hàm Nghi) 국왕의 왕조를 계승하겠다는 염원을 품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연호를 용덕(Long Đức)이라 정하기도 하였는데, 많은 가톨릭 신자(천주교도)들이 포함된 의병을 모집하여 근왕(Cần Vương)의 의거에 투신했다.

– 탄호아(Thanh Hóa) 흥린(Hùng Lĩnh) 봉기를 이끈 진사(進士) 통쑤이떤(宋維新, Tống Duy Tân, 1837~1892), 탄호아 바딘(Bà Đình) 봉기의 핵심 지도자 중 한 명 인 정총(正總) 딘꽁짱(丁公壯, Đinh Công Tráng, 1842~1887), 문무를 겸비한 수재였던 마이쑤언트엉(枚春賞, Mai Xuân Thường, 1860~1887), 근왕 운동의 전 과정에 걸쳐 끈질기게 항전을 지속한 호엥케(Huỳnh Khê, Hà Tĩnh)봉기의 주역인 정원(庭元) 진사 판딘퐁(潘廷逢, Phan Đình Phùng, 1847~1895)과 군사 지휘관 까오탕(Cao Thắng, 1864~1893), 그리고 바이쑤이(Bãi Sậy, Hưng Yên) 봉기의 지도자 응우옌티엔투앗(阮善述, Nguyễn Thiện Thuật, 1844~1926) 등과 같이 문무의 재능과 지조를 겸비한 인물들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격차에 직면하여 장기적으로 항전을 전개한 문인과 무장들의 고결한 충절과 이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이다.

16) 응우옌 데 안(Nguyễn Thế Anh) (1970), 『프랑스 식민 지배하의 베트남』, 사이공: 르어티엥(Lửa Thiêng) 출판사, 115쪽.

17) 베트남 역사연구원, 보킴끄엉(Võ Kim Cường) 편저 (2017), 『베트남 역사 제6권 (1858~1896)』, 하노이: 사회과학출판사, 250쪽.

호영케(Hương Khê) 봉기(1885~1896년)는 근왕(Cần Vương) 운동의 최고 정점(頂點)으로 평가받는다. 정원(庭元) 진사 판딘풍(Phan Đình Phùng)은 과거 쭈옥득(Dục Đức, 옥덕) 황제를 폐위한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의 죄상을 정면으로 엄하게 꾸짖다가 투옥됐고 관직을 삭탈당한 채 고향으로 방축(放逐)되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 하고 강개(慷慨)하게 근왕 운동에 호응하였다. 판딘풍은 의병을 소집하여 군차체제로 군대를 재편성하였으며, 까오탕(Cao Thắng)을 시켜서 1874년식 프랑스제 소총을 본뜬 무기를 주조(鑄造)하도록 했다. 하띤(Hà Tĩnh) 지역의 의병 지도자들은 근왕(Cần Vương) 지유의 호소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판딘풍(Phan Đình Phùng)을 깊이 신뢰하고 따랐다. 이전에 수백 명 규모의 소수 군사로 구성된 의병대들은 각 지도자의 휘하에 모여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나,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그쳐 프랑스군에 의해 빠르게 와해되었다. 판딘풍은 이처럼 분산된 소규모 의병 운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직적인 군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파한 인물이었다. 판딘풍의 군대 항전은 1896년까지 이어졌으나, 그가 병으로 서거하고 호영케(Hương Khê,) 봉기가 실패하면서 근왕 운동도 사실상 완전히 종결됐다.

해당 근왕(Cần Vương) 운동 기간에는 그 파급력이나 파장 면에서 운동 자체의 결말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1885년 빈투안(Bình Thuận) 성에서 일어난 사태가 대표적이다. “전월에 해당 성의 신호(紳豪)와 향신들이 행재소(行在所)로부터 근왕지유가 반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다. 이에 흠어져 돌아온 조정의 군사들과 민간의 향용(鄉勇)들을 규합하여 천주교 교당을 방화하고 교도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으며, ... 다시 고을에 돌아다니며 가톨릭 신자들을 살해했다.”¹⁸⁾ 이처럼 근왕 운동은 두 가지 행동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프랑스군의 침략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이때 피살된 가톨릭 신자의 수는 2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둘째는 프랑스군의 보급 수송대와 주둔 부대 및 요새를 기습 공격한 것이었다.”¹⁹⁾

여러 계층의 베트남 사람이 참여한 1885~1896년의 근왕(Cần Vương)운동은 역사의 필연적 한계로 인하여 결국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베트남 역사는 그들의 숭고한 충군애국(忠君愛國) 정신을 다시 한번 엄숙히 기록했고, 군사와 외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 관계에 대처하는 수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얻게 되었다.

III.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본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의 노력과 희생

『대남실록정편(大南實錄正編)』에 따르면, 남조(南朝) 정부는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을 생포할 경우 은 1,000냥, 참수할 경우 은 800냥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이는 프랑스와의 화의(和議)를 주도했던 남조 황실 종친들의 주류적 관점에서 볼 때, 툐탓투엣이 함의(Hàm Nghi) 황제의 출분(出奔)을 단호히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황제의 출분이라는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이 프랑스에 저항하는 정신적 귀감이자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람판(南關, Ai Nam Quan)에서 중국 광서(廣西)성 용주(Long Châu·龍州) 지역까지의 육로 거리는 약 50km에

18) 『대남실록정편(大南實錄正編)』 제오기(第五紀). 베트남 역사연구소 역, 하노이: 교육출판사, 2007, 152쪽.

19) 응우옌 테안(Nguyễn Thế Anh) (1970), 『프랑스 식민 지배하의 베트남』, 사이공: 르어티엡(Lửa Thiêng) 출판사, 114쪽.

20) 『대남실록정편(大南實錄正編)』 제5기, 베트남 역사학원 번역본; 하노이: 교육출판사, 2007; 제9권, 148쪽

불과하다. 그러나 1세기 전, 트득(Tự Đức-嗣德) 황제 시기부터 황실 종친이자 무장(武將)이며 고명대신(顧命大臣)의 신분으로 지낸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9~1913)은 프랑스 세력에 의해 중국 운남(雲南)과 량광(兩廣) 지역으로 망명된 이후, 이곳 용주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26년 동안 타향에 발이 묶인 채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 월중(越中) 접경지대에서 보낸 약 30년에 걸친 그의 망명 생활은 베트남 군주제 역사의 핵심적 과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는 충군(忠君), 애국(愛國), 구원 요청(求援), 외교, 월중 국경 문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국경이란 분할의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주로 만남의 공간으로 존재한다”²¹⁾라는 역사적 실체의 존부(存否)에 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룬다. 프랑스 해외국립문서보관소(ANOM)와 독일 제국 시절의 카이저리히 도이체스(Kaiserlich Deutsches)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톤탓투엣의 중국 변방 유랑 시기 관련 자료들이 본고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지방지에 보존되어 온 관련 기록, 20세기 전반기 베트남 언론에 공표된 기사, 그리고 현대의 심층 연구 성과들을 계승하고 결합하는 흐름 위에서 다룰 것이다.

중국 영토 내에서의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의 행적은 북부 경략사(經略使)의 공문, 조-중(越-中) 접경지대 각 성(省)의 탐보(探報) 첩보 등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888년 기록에 따르면, “투엣(Thuyết)은 청나라 관리에 의해 운남(雲南)에 구금되었고, 르엉뚜안뚜(Lương Tuấn Tú)는 용주(龍州, Long Châu)에, 르엉득호아(Lương Đức Hòa)는 귀순(歸順, Quy Thuận)주에 구금되었다. 청나라 관리의 경우, 소수(蘇帥) 또한 강등되었으며, 접경지대 각 영관(營官)들은 모두 면직되었다”²²⁾ 라고 하였다. 또한 동년 기록에는 “안남인인데 청나라 사람(客)의 복장을 하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소제독(蘇提督)²³⁾을 배알하기 위해 ‘쩐쑤안 소안(Trần Xuân Soạn)’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첩을 소지하고 있었다.”²⁴⁾ 라고 한다. 이어 1888~1889년 기록에는 “레투엣(Lê Thuyết, 즉 톤탓투엣)과 르엉뚜안뚜(Lương Tuấn Tú)가 [귀]순주에 머물며 무죄배 10,000여 명을 모집했고, 다음 달에 거사를 도모하기로 했다”²⁵⁾는 기록되어 있다.

1889년, “역적(逆賊)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과 룡뚜안뚜(Lương Tuấn Tú)는 11월에 광둥(廣東)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귀순주(歸順州)에서 류원청에게 정황을 탐문한 바, 역적 투엣이 지난해 4월 운남(雲南)성으로부터 귀순주로 돌아와 토주(土州) 관원의 집에 한 달여간 류(留)하며 룡뚜안뚜에게 금전 600원(元)을 인도하여 까오방(Cao Bang)지방을 교란할 유용(游勇)들을 초모(招募)하도록 했음을 알게 되었다. 룡뚜안뚜는 토니(Tô Nhị), 빠떠우(Ba

21) 키스 W. 테일러(Keith W. Taylor), 「머리말」 in: 응우옌 테 안(Nguyễn Thế Anh) 저, 『베트남의 운회(Việt Nam vận hội)』, 하노이: 작가협회출판사, 2020.

22) ANOM: GGL.22168, 한문(漢文) 원문, 보관 문서 내 베트남어 번역본: “逆說被清官壓監在雲南省,梁俊秀監在龍州,梁德和監在歸順州,蘇帥亦干降級.清國沿邊諸官均被革職等...”

박끼(Bắc Kỳ-北圻) 권경략사(權經略使) 쩌르우후에(Trần Lưu Huệ-陳留惠, 1830~1907)가 박끼 통사(統監-Résident-supérieur)에게 보낸 1888년(음력 동경-Đông Kinh 3년 12월 12일) 자 문서로,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과 그 동지들의 중국 내 행적에 관한 탐보(探報) 첩보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임.

23) 蘇元春(1844~1908)은 광시(廣西) 출신의 청나라 말기 무장이다. 구이저우(貴州)에서 묘족(苗族)의 봉기를 진압한 공로로 운귀(雲貴)제독에 올랐다. 청불전쟁(淸佛戰爭) 당시에는 馮子材(1818~1903)를 보좌하여 특히 베트남 전선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다. 청불전쟁 종전 이후 토원춘은 광시 지역에 잔류하여 변방을 진수(鎮守)하는 임무를 맡았다.

24) ANOM: GGL.22168, 한문(漢文) 원문: “月初旬見臺南人改裝客服,不知從何前抵伊處.見臺帖叙名陳春撰等字入謁蘇提...”

25) ANOM: GGL.22168, 한문(漢文) 원문, Việt Anh 베트남어 번역본: “逆說同梁俊秀於拾壹月往廣東了.伊前在歸順州探問劉元清謂逆說於上年四月日由雲南省回歸順,住在土州官家一月餘,發文許梁俊秀金錢陸百元,糾募游勇往擾高轄.梁俊秀派委匪目之名蘇二巴頭梁三率募游勇在三州地.至柒月日雲南總督沉玉英許廣西巡撫之男子引逆說往求見廣東總督.仍不許入見.又往求大德國官保護仍大德官謂領得廣東總督給文書保護前,我始畫行保護” 랑선(Lạng Sơn-諒山)성의 탐보(探報) 첩보를 바탕으로, 박끼(Bắc Kỳ-北圻) 경략사(經略使) 쩌르우후에(Trần Lưu Huệ-陳留惠)가 1888~1889년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과 관련하여 인도차이나 총독 및 박끼 통사(統使)에게 보낸 이문(移文).

Đầu), 르엉탐(Luong Tam)이라는 이름의 비적(匪賊)들을 과건하여 삼주(三州) 땅에서 유용들을 지휘하고 초모하게 했다. 7월에 이르러 운남제독 침옥영(沈玉英)²⁶⁾이 광서순무(廣西巡撫)의 아들에게 역적 투엣을 인도하여 운남제독을 면대하여 청원하도록 허가했으나, 직접 접견하지 못했다. 또한 덕국(德國)의 보호 관원에게도 가서 알현하고 청원했으나, 대독국(大德國) 관원은 “광둥총독이 발급한 보호 문빙(文憑)을 받아온다면 우리가 보호할 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답했다.”²⁷⁾ 카이저리히 도이체스(Kaiserlich Deutsches / 독일 제국)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귀한 사료는 이러한 사실을 실증(實證)해 준다. 사료 내에서 “응우옌푹투엣 (Nguyễn Phúc Thuyết,)”이라는 본명으로 기록된 톤탓투엣 (Tôn Thất Thuyết)은 중국 망명 시절, 응우이각끼에우 (Nguy Khắc Kiêu)를 통해 중국 주재 독일 영사에게 서한을 전달하여 자국을 위한 대독국(大德國)의 원조를 모색하려 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연대는 광서(光緒, Quang Tự) 16년(1890년)이었다. 해당 사료의 부록을 통해 독일 영사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독일 측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공무(公務)를 관장할 권한과 책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탄타이 (Thành Thái) 연간인 1889년과 1890년에 주점이 찍힌 주본들에 따르면, 후에(Huế)의 기밀원은 프랑스 흡사 엑토르(Hertor)로부터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이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탄타이 황제에게도 이 사실이 상주(奏報)되었다는 통지서를 접수했다. 또한 남조(南朝, 응우옌 왕조) 조정은 양광(兩廣, 광둥·광서) 관원의 첩문(牒文)에서 “레투엣 (Lê Thuyết)”이라 칭해진 톤탓투엣을 비롯하여 쩌쑤언소안(Trần Xuân Soạn), 위각끼오(魏克喬, Nguy Khắc Kiêu) 등이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광둥에 도착했다가, 이후 해당 성의 인심이 순박하고 오지(奧地)인 나정주로 이송되어 안치(安置) 및 감시를 받게 되었다는 행로 정보도 입수했다.

해당 전(前) 친왕(親王)에 관한 문서철 속에는 “레투엣(Lê Thuyết)”이라는 표제로 별도 첩해진 한문·쯔놈(Hán-Nôm) 문건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문제와 관련된 총 15건의 베트남-중국 측 외교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유일한 단 한 건의 문건은 병부상서(兵部尙書) 겸 양광총독부당(兩廣總督部堂)이 호광총독부당(湖廣總督部堂) 장[지동]에게 보낸 발자(札子)로, 응우옌푹투엣(Nguyễn Phúc Thuyết / 즉 톤탓투엣)과 그 동지들이 청(淸)나라로 건너가 원조를 요청한 사안을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음력 1889년 광서 15년 10월 16일 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건의 문건들은 함의(Hàm Nghi)제 재위기부터 타인타이(Thành Thái)제 재위기에 이르는 1885~1890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로, 주화론(主和論)을 표방하며 톤탓투엣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항프랑스 노선과 그 저항 사상 및 행동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던 후에(Huế) 조정의 정통적 관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1889년(광서 15년) 청(淸)나라 병부상서(兵部尙書) 겸 양광총독(兩廣總督) 관서에서 발송한 문건에 따르면, 청나라 측이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과 그 동지들의 라정(羅定)에 체류를 위해 매월 지급한 생활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은(銀) 57량(兩) 3전(錢) 6분(分)이었으며, 그를 수행하는 수종(隨從)들의 인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톤탓투엣과 쩌쑤언소안(Trần Xuân Soạn)을 비롯하여 약 10명의 병졸과 하인들이 이 인원 제한 내에 포함되

26) 여기서 이 시기 운남총독(雲南總督)의 성명 표기에 오류(아마도 현지 발음을 듣고 받아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가 발견된다. 해당 관료는 광서(廣西,) 출신의 잠옥영(Sâm Dục Anh / 岑毓英, 1829~1889)으로, 중국 청(淸)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군사적 인물이다.

27) ANOM: GGL22168,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음, Việt Anh 베트남어 번역: “逆說同梁俊秀於拾壹月往廣東了.伊前在歸順州探問劉元清謂逆說於上年四月日由雲南省回歸順,住在土州官家一月餘,發交許梁俊秀金錢陸百元,糾募遊勇往擾高轄.梁俊秀派委匪目之名蘇二巴頭梁三率募遊勇在三州地.至柒月日雲南總督沉玉英許廣西巡撫之男子引逆說往求見廣東總督.仍不許入見.又往求大德國官保護仍大德官謂領得廣東總督給文書保護前,我始畫行保護”

어 있었다.²⁸⁾ 남조(南朝, 응우옌 왕조)와 청나라 조정의 공식 행정 문서에서 툐탓투엣은 “레투엣(Lê Thuyết)”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지인 『라정지(羅定志)』 권7 「유우(流寓)」 편²⁹⁾에는 그가 “응웬푹투엣”(Nguyễn Phúc Thuyết)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왕(王)”으로 호칭되기도 했다.

“왕(王) [툐탓투엣]은 이내 응우깅끼에우 (Nguy Khắc Kiêu), 퉁두이탄 (宋維新, Tống Duy Tân) 등 수종(隨從)하는 신하들 십여 명과 함께 주성(羅定州城)의 북관묘(北關廟)로 거처를 옮겨 우거(寓居)하였다. 관부(官府)에서는 양광세무국(兩廣稅務局)에 명하여 매월 망명 예비비로 은 5백 량을 지급하도록 했다.³⁰⁾ 왕의 거처에서는 의연히 군신의 예(禮)를 지켰고, 매월 초하루[朔日]마다 신하들이 알현하고 하례를 올렸다. 경사스러운 국가적 경전(慶典)을 맞이할 때 종으로 용전(龍殿)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왕이] 어좌에 오르며 군신들이 예전처럼 축하를 올렸다. 왕은 연세가 육순(六旬)에 가까웠으나 기력이 강건하고 용모가 괴위(魁偉)하며 빼어났다. 곧은 콧날에 귀가 컸으며 두 팔은 무릎까지 내렸는데 나라를 잃고 떠도는 유리의 비장함을 이기지 못해 늘 나직이 시를 읊조리곤 했다.”

1913년 그가 중국 용주(중국의 광둥지역)땅에서 서거하자, 중국의 인사(人士)들이 그의 높은 기개와 절개를 깊이 애도하며 다음과 같은 만연(輓聯)을 헌정했다.

“仇戎不共戴天，萬古芳名留象郡
護駕別尋靜地，千年殘骨寄龍州”³¹⁾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은 베트남 영토 내부에서 중국 접경지 성(省)들로 이어지는 고단한 망명 여정 속에서, 자국(自國)의 독립과 자주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 및 세력들을 탐색하고 조우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베트남-중국 국경 지대를 주도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청(淸)나라 조정의 고위 관료는 물론 현지 정권 내 인맥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에 더해 한 걸음 나아가, 광둥(廣東) 주재 독일 영사로 대표되는 대독국(大德國)의 외교적 보호와 원조를 과감하게 청원하려 시도하는 등 거시적이고 대담한 안목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외교적 염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시선을 다시 국내로 돌려, 프랑스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 세력과 인물들과 유연하게 연대하여 저항 역량을 구축해 나갔다. 1887~1892년 기간 동안 중국에 망명 중이던 톈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이 보내온 정신적·물질적 지원과 조율에 힘입어, 베트남 국내에서는 프랑스에 맞선 조직적인 무력 항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 청(淸)나라의 국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조국의 정세를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고향의 숨결을 느끼고자 했던 그에게 있어서, 중국 외에 다른 이국땅을 찾아 떠나는 망명길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툐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은 전근대 군주제 시기 베트남 역사에서 국가의 운명을 구하기 위한 군사적·물질적

28) ANOM: GGI.22168,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음, V.A 번역: “發給火食雜用銀每月共五十七兩三錢六分…以初來時十五人為限,不準再有增加”

29) 『중국지방지집성: 광둥부현지집(中國地方志集成: 廣東府縣志輯)』, 상해서점·파촉서사·강소고적출판사 공동 출간(발행 연도 미상), 401쪽. 본 전자판 자료를 안내하고 제공해 주신 응우옌만선(Nguyễn Mạnh Sơn) 연구원(호치민시)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0) “여기서 중국 현지(縣志)의 기록은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31) 「용주(龍州)에서 서거한 톈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선생을 애도한 중국인들의 대련」, 『장안보(莊安報)』, 제330호, 1938년 6월 17일 자, 2쪽.

원조를 모색할 때 중국을 가장 먼저 목적지로 선택했던 수많은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를 비롯한 베트남의 많은 선각자와 지식인들은 중국 외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또 다른 목적지와 세력이 존재함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당시 독일 제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그의 노력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반영된 구체적인 행동이었다. 다만 시대적 상황과 정세가 여의치 못하여, 톤탓투엣이 베트남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변화된 국제 관계를 온전히 통찰하고 구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예컨대 베트남 인민들의 주체적인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자 일본을 모델로 삼은 동유(Đồng du) 운동이 젊은 유학생들의 뜨거운 기개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흥하며 생동감 있게 솟구쳐 오른 것은,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1906년 무렵에 이르러서였다.

본고에서 다룬 해외 아카이브 소장 사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은 국권 회복을 위한 대외 원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과 접경한 중국 변방 지대를 무대로 비교적 유연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그의 원대한 염원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고향과 멀지 않은 이국땅에서 실의와 망명으로 점철된 채 보낸 약 3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국경선이 단순히 영토를 가르는 물리적 분절선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몸소 실증해 보였다. 나아가 그는 국경이야말로 서로 다른 주체들의 열망과 사상, 그리고 시대적 인식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마주하는 역동적인 공간임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³²⁾

V. 결론

근왕(Cần Vương) 운동이 실패로 그친 데에는 여러 내재적 원인이 작용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베트남과 프랑스 간의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쟁 수행 사고(전쟁 패러다임)의 차이이다. 비록 일부 국지적인 기습 전투에서 베트남 의병들이 지형지물에 통달한 점을 활용해 유격전의 이점을 극대화하기도 했으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전략이 부재했고, 전군을 통솔할 중앙 지도부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각 지방의 세력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적 역량으로 결집하려는 자발적 연대가 부족했기에, 지방의 봉기들은 유력한 지도자가 서거하면 대개 신속하게 와해되는 한계를 보였다.³³⁾ 연대와 협력에 관한 베트남의 오랜 격언인 “나무 한 그루로는 산을 이룰 수 없다(Một cây làm chẳng lên non)”라는 가르침이, 불행하게도 이 근왕운동에서는 올바르게 실천되지 못했던 것이다.

근왕(Cần Vương) 운동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1874년 프랑스-베트남 화약 체결 이후 유학 지식인층이 발동하고 고수해 온 ‘평서살타(平西殺左: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고 사악한 천주교도를 척살하자)’ 노선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뜨득(Tự Đức) 27년인 이 해(1874년), 유학 지식인층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으로 간주된 『문신격문(Văn thân tịch / 文身檄文)』은 가톨릭(천주교)을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부정했다: “하물며 이제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수단(언동)을 보니 스스로 하늘이라 칭하고 성인이라 칭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그 예교(禮敎)를 논하자면 아버지 없고 군주도 없어(無父無君) 저 염소나 개새끼 같은 무리와 다를 바가 없도다” [ANOM: GGI.11649]. 평서살타(平西殺左) 노선은 19세기 후반 베트남 유학자들의 대다수가 광범위한 대중 사이에서 발동했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조였다. 근왕 운동이 이 노선을 그대로 계승함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32) 비엣 아인(Việt Anh) (2018), 「1887~1892년 베트남-중국 국경 지대에 유포된 톤탓투엣(Tôn Thất Thuyết) 관련 주본(Châu bản)」, 하노이: 『베트남 기록관리』, 제9호, 2018, 46~50쪽.

33) 『프랑스 식민 지배하의 베트남』 (응우옌테안 저, 1970, 120쪽) 참조.

몰려 추적과 학살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프랑스군과 협력하여 의병에 맞서 싸우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³⁴⁾

근왕(Cần Vương) 운동이 실패한 세 번째의 명백한 원인은, 수 세기에 걸쳐 누적된 소수민족들의 남조(南朝, 응우옌 왕조)에 대한 불복종과 반발이었다. 프랑스 식민 당국은 다수인 킨(Kinh, 경)족과 소수민족인 트엉(Thượng)족 간의 이러한 갈등 관계를 철저히 공략했으며, 소수민족을 자국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회유와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분열 통치 정책은 결과적으로 트엉족이 프랑스의 편에 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므엉(Mường)족은 프랑스군을 도와 함의(Hàm Nghi) 국왕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큰 공헌을 했다. 이에 더해 산악 지대에 극도로 정통했던 트엉족은 프랑스군이 의병들을 상대로 반유격전을 극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³⁵⁾

근왕(Cần Vương) 운동이 실패한 네 번째 원인은, 이후 일본으로의 동유(Đông du) 운동이나 중국으로의 장기적인 망명 활동 등 베트남 혁명 운동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바로 초기부터 “자립적인 경제적 실력 양성”이라는 일관된 재정 정책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해외국립기록원(ANOM) 소장 문서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병 봉기나 항진 부대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급 노선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주요 생계 및 보급 수단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해당 지역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의병대를 ‘비적(匪賊)’이라 칭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한 현지 백성들의 수많은 진정서와 상소문이 현재 ANOM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보급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민심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기적인 국권 회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물질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34) 『프랑스 식민 지배하의 베트남』 (응우옌테안 저, 1970, 121~122쪽) 참조.

35) 『프랑스 식민 지배하의 베트남』 (응우옌테안 저, 1970, 122쪽) 참조.

< 참고문헌 >

I. 1차 자료

- 응우옌 왕조 국사관(國史館), 『대남실록정편(大南實錄正編)』·부편(副編).
- 프랑스 해외국립기록원 (ANOM: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ANOM).
- 독일 제국 문서고 (Kaiserlich Deutsches).

II. 인쇄자료

1. Việt Anh (2018), “Châu bản về Tôn Thất Thuyết lưu truyền tại biên giới Việt-Trung 1887-1892”, Hà Nội: Văn thư Lưu trữ Việt Nam, n.9, 2018, tr.46-50.
2. Viện Sử học: Võ Kim Cương (chủ biên) (2017), Lịch sử Việt Nam tập 6 (1858-1896),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3. Đỗ Bang (2016), Biển cổ kinh đô Huế và phong trào Cần Vương (1885 - 1896), Hà Nội: nxb. Tri Thức, 2017.
4. Viện Hàn lâm khoa học xã hội, Viện sử học, Tạ Thị Thúy chủ biên (2016), Lịch sử Việt Nam tập 7,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5. Nguyễn Thế Anh (1998), « The Vietnamese Confucian Literati and the Problem of Nation-Build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in Oh Myung-Seok et Kim Hyung-Jun ed., Religion, Ethnicity and Modernity in Southeast Asi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GIAS Monograph, Series 17, 1998, tr. 231-250. Paris: Parcours d'un historien du Việt Nam: Recueil des articles écrits par Nguyễn Thế Anh; Paris: Les Indes savantes, 2008 ; tr.835-846.
6. Phan Văn Cảnh (1997), Phong trào Cần vương ở Bình Định (1858-1887), Luận án tiến sĩ lịch sử, Đại học Sư phạm Hà Nội.
7. Nguyễn Phan Quang (1995), “Hà Tĩnh Ất Dậu ký (1885)”, trong Việt Nam cận đại - Những sử liệu mới, tập 2, Tp. Hồ Chí Minh : nxb.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r.148-263.
8. Nguyễn Quang Trung Tiến (1995), “Tôn Thất Thuyết Anh hào lẫm nổi nhiều kẻ”, trong Thông ti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số 2. Huế: Sở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Thừa Thiên-Huế, tr.146-156.
9. Nguyễn Thế Anh (1990), « L'engagement des masses rurales dans les mouvements politiques nationaux d'après l'historiographie de Hà-Nội (RDV-RSV) », in Premier symposium franco-soviétique sur l'Asie du Sud-Est, Moscou : Institut d'Orientalisme de l'Académie des Sciences de l'Urss, 1990, tr.255-266. Paris : Parcours d'un historien du Việt Nam: Recueil des articles écrits par Nguyễn Thế Anh; Paris: Les Indes savantes, 2008 ; tr.522-530.
10. Nguyễn Thế Anh (1984), “L'élite intellectuelle vietnamienne et le fait colonial dans les premières années du xxe siècle », in The Vietnam Forum, Yale Southeast Asia Studies : n.4, tr.72-99 ; Paris :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n.268 : 1985, tr. 291-307. Paris : Parcours d'un historien du Việt Nam: Recueil des articles écrits par Nguyễn Thế Anh; Paris: Les Indes savantes, 2008 ; tr.393-408.
11. Nguyễn Thế Anh (1978), “The Withering Days of the Nguyễn Dynasty”, in Parcours d'un historien du Việt Nam: Recueil des articles écrits par Nguyễn Thế Anh; Paris: Les Indes savantes, 2008 ; tr.324-343.
12. Nguyễn Thế Anh (1973), « Thử xét lại các nguyên nhân của phong trào kháng thuế miền Trung năm 1908 », Sài Gòn: Nghiên Cứu Việt-Nam, tr. 5-10.
13. Nguyễn Thế Anh (1968), Kinh tế và xã hội Việt Nam dưới các vua triều Nguyễn, Sài Gòn: Trình Bày; tái b

ản: Sài Gòn: Lửa Thiêng, 1971, 343tr. ; Hà Nội: Văn Học, 2008, 301 tr.; Hà Nội: Hội Nhà văn, 2019, 356 tr.

14. Phan Trần Chúc (1935), “Tôn Thất Thuyết dưới cán bút Phan Khôi”, trong Hà Thành ngọc báo, số 2374, 1 1 Tháng Tám 1935, tr.1.
15. Hoài Thanh (1935), “Tôn Thất Thuyết dưới mắt cụ Phan Sào Nam”, trong Hà Thành ngọc báo, số 2444, 2 tháng Mười Một 1935, tr.7.
16. “Câu đối người Tàu diễu ông Tôn Thất Thuyết, từ trần ở Long Châu (1913)”, trong Tràn An báo, Số 33 0, 17 Tháng Sáu 1938, tr.2.
17. Quốc sử quán triều Nguyễn, Đại Nam thực lục chính biên, đệ lục kỷ phụ biên. Bản dịch Việt văn của Cao Tự Thanh, Tp. Hồ Chí Minh: nxb. Văn hóa-Văn Nghệ, 2011.

III. 홈페이지

Nguyễn Thu Hoài (2023), “Trở lại câu chuyện Chiếu Cần vương và bản dụ Cần vương duy nhất trong Châu bản triều Nguyễn (Kỳ 1 và 2)”. <https://archives.org.vn/gioi-thieu-tai-lieu-nghiiep-vu/tro-lai-cau-chuyen-chieu-can-vuong-va-nhung-van-de-%E2%80%99Cđang-ngo%E2%80%99D-ve-van-ban-hoc-ky-2.htm>, truy cập 07/05/2026.

제2부

망명지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

김용태(성균관대) || 조선과 베트남 유림의 반제국주의 투쟁

— 황실 인사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황직(숙명여대) ||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 성격과 지향 :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와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韓曉(山東師範大學) || 재중 한국인의 출판, 저술과 항일운동

조선과 베트남 유림의 반제국주의 투쟁 — 황실 인사의 참여를 중심으로

김용태(성균관대)

<국문 초록>

본고는 근대 전환기 조선과 베트남에서 황실과 유림 세력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양상을 고종과 함의제(咸宜帝), 의친왕과 강저(疆樞, Cường Đế)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들의 활동이 양국 민족운동의 형성과 전개에서 지닌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과 베트남은 모두 유교적 군주국가로서 일본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직면하였으며, 국권이 위기에 처하자 황제와 황족은 국가의 정통성과 독립을 상징하는 정치적 구심점으로 부상하였다. 고종과 함의제는 각각 외교 활동과 근왕 무장투쟁을 통하여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며, 의친왕과 강저는 국권 상실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여 황실의 정치적 권위를 민족운동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구체적인 방식과 성과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황실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독립운동 세력을 결집하고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황실을 중심으로 한 복벽운동 또는 근왕운동은 군주제의 회복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만을 근거로 복벽운동을 시대착오적인 운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선과 베트남에서 유림 세력은 황실의 권위를 매개로 의병투쟁을 조직하고 민중을 동원함으로써 반제국주의 저항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왕과 복벽이라는 구호는 당시 민중에게 익숙한 정치적 언어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와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저항 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벽운동은 전통적 정치질서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 근대 민족운동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저항의 동력과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복벽주의 유림 가운데 일부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민권·공화·민족주의 등의 근대사상을 수용하고, 이후 근대적 민족운동의 주체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드시 유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교의 민본사상, 위정자의 도덕적 책임, 공공성, 의리와 실천의 정신을 근대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와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학과 근대 민주주의가 단순히 전통과 근대, 전제와 민주, 대립 관계에만 놓여 있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 상통하고 계승될 수 있는 사상적 요소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과 베트남에서 황실과 유림 세력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일부가 복벽주의에서 근대 민족주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은 양국 근대사의 구조적 공통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를 통하여 황실과 유림의 독립운동을 구체제의 잔재가 아니라 전통적 정치문화가 근대 민족운동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과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비교사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유교국가들이 제국주의와 근대에 대응한 다양한 경로를 밝히고 향후 양국 간 비교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朝鲜与越南儒林的反帝国主义斗争

一 以皇室成员的参与为中心

金龙泰(成均馆大学)

<中文摘要>

本文旨在以高宗与咸宜帝、义亲王与彊樞(Cường Đức)为中心,比较近代转型时期朝鲜与越南皇室及儒林势力开展独立运动的具体形态,并考察他们的活动在两国民族运动形成与展开过程中所具有的历史意义。朝鲜与越南均为儒教君主制国家,分别直面日本与法国的帝国主义侵略。随着国权陷入危机,皇帝及皇族逐渐成为象征国家正统性与独立的政治核心。高宗与咸宜帝分别通过外交活动和勤王武装斗争来试图维护国家主权,义亲王与彊樞则在国权丧失以后,同国内外独立运动力量建立联系,试图将皇室的政治权威转化为民族运动的资源。他们的活动在具体方式与实际成效上虽有差异,但都以皇室正统性为基础,集结独立运动力量并争取国际援助,在这一点上具有共同性。

以皇室为中心的复辟运动或勤王运动以恢复君主制度为目标,因此不符合近代公民国家与民主主义的发展方向,具有一定的历史局限。然而,不能仅据此便将复辟运动断定为一种时代错置的运动。在朝鲜与越南,儒林势力以皇室权威为媒介,组织义兵斗争并动员民众,在扩大反帝国主义抵抗方面发挥了重要作用。“勤王”与“复辟”的口号,是当时民众所熟悉的政治语言,正是借助这种语言,捍卫国家与共同体的抵抗意识得以转化为具体行动。因此,复辟运动并非只是对传统政治秩序的简单恢复,还在近代民族运动形成的初期阶段提供了重要的抵抗动力与组织基础。

更值得注意的是,复辟主义儒林中的部分人士在参与独立运动的过程中,顺应时代变化,逐渐接受民权、共和与民族主义等近代思想,并由此转变为近代民族运动的主体。他们在接受新的政治思想的同时,并没有一定要放弃儒教正体性,反而试图将儒教的民本思想、为政者的道德责任、公共性以及义理与实践精神,同近代民族主义和民主主义相联系。这一现象表明,儒学与近代民主主义并非仅仅处于传统与近代、专制与民主的二元对立关系之中,二者之间也存在可以相通和继承的思想要素。

朝鲜与越南的皇室及儒林势力以相似方式参与反帝国主义运动,且其中部分人士由复辟主义转向近代民族主义,这一事实揭示了两国近代史结构上的共同性。本文试图以此重新评价皇室与儒林的独立运动,其并非旧体制的残余,而是传统政治文化向近代民族运动转型过程中出现的过渡性现象。同时,本文通过比较史视角,考察朝鲜与越南的独立运动,旨在揭示东亚儒教国家应对帝国主义与近代转型的多样路径,并提出今后进一步拓展两国比较研究的必要性。

조선과 베트남 유림의 반제국주의 투쟁 — 황실 인사의 참여를 중심으로

김용태(성균관대)

- I. 머리말
- II. 高宗과 咸宜帝의 반제국주의 활동
- III. 李堉과 彊樞의 망명을 통한 국권 회복 모색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유림계열의 활동은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¹⁾ 이는 당시 독립운동 현장에서 천도교나 기독교가 수행했던 역할이 유림계열에 견주어 두드러졌던 점도 원인이 되었지만, 유림 독립운동 진영의 수구적 성격, 곧 復辟運動에 대한 학계의 반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이 망한 것이 유교 때문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림계열의 독립운동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림계열 독립운동의 역할과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독립운동사 전체에 대한 이해에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림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재평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주역』을 비롯한 유교 경전에 잘 드러나듯, 유학은 본래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자신을 쇄신해 온 사상이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유림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실학’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학술적 모색이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지에서 의미 있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동아시아의 유학이 시대의 변화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이 끝내 국권을 상실한 근본적인 책임의 소재를 따진다면, 변화하는 세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조선 내부의 역량 부족에 앞서, 폭력을 앞세

1)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황직, 「3·1운동에서 유교계 독립운동의 의의」, 『사회이론』 56, 한국사회이론학회, 2019 참조.

위 타국의 주권을 유린한 제국주의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국가공동체가 붕괴하는 위기 앞에서 유림이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섰다라는 사실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투쟁은 물론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폭력을 앞세워 침략하는 외세에 맞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는 다름 아닌 “불의에 대한 항거”였다는 점에서 이는 유학 사상의 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²⁾ 이와 같은 유림의 의병 투쟁은 이후의 독립운동을 촉발하는 ‘민족적 에너지’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의병 투쟁에 참여한 상당수의 유림은 항쟁의 실천적 경험을 거치면서 복벽주의에서 벗어나 근대적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으며, 이후의 독립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유림계열의 활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점은 복벽주의를 포기한 유림이 유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석주 이상룡이나 심산 김창숙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 필연적인 내적 모순이나 현실적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자이면서 민주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그 원인은 유학과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에서 형성되었지만, 양자 모두 인간의 존엄, 공공성,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유학과 민주주의 모두 그 자체로 완결된 보편적 가치일 수는 없지만, 양자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림계열의 독립운동 역시 그들이 추구하고 실천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림계열의 독립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황실 인사의 참여 역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 황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국권의 상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황실 인사들의 활동 또한 기울어 가는 왕조를 보전하거나 이미 무너진 왕조를 복구하려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책임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이들이 뒤늦게나마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국권 회복을 도모한 사실을 평가하는 일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황실은 단순한 구체제의 잔재에 머물지 않고 국권 회복의 정당성을 상징하며 여러 저항 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황실 인사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왕조를 보전하려는 위로부터의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이 황실에 품었던 공동체 수호와 국권 회복의 기대에 호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황실 인사의 독립운동은 망국에 대한 책임과 복벽주의적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전통적 권위를 반제국주의 투쟁의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하고 민중의 국권 회복 열망에 응답하려 한 역사적 실천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³⁾

그리고 황실 인사의 독립운동 참여는 조선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은 베트남에서도 유림은 황제를 중심으로 근왕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황실 인사들 또한 국내외의 항쟁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선의 高宗과 베트남의 咸宜帝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려

2) 독립운동 연구의 시각을 민족주의에서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옮겨가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참조.

3) 복벽주의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박현모, 「일제시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 3·1운동 전후의 왕정복고[復辟] 운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참조.

하였고, 망국 이후에는 李堉과 彊樞가 각각 독립운동 세력과 결합하여 국권 회복을 도모했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각 인물이 처했던 정치적 조건과 활동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향한 국가의 형태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유교적 정치질서 아래에서 황실이 지녔던 상징성과 유럽계열 항쟁에서 수행한 역할을 비교한다면, 동아시아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전통 유럽의 사상과 정치적 자원이 어떻게 변용되어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활용되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는 과거의 독립운동을 재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의 반제국주의 투쟁이 남긴 역사적 성취로부터 오늘날 동아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외세의 지배와 불의에 맞서 공동체의 자율성을 수호하고,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했던 그들의 실천은 제국주의의 유산과 국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高宗과 咸宜帝의 반제국주의 활동

조선과 베트남에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여 국권 수호를 도모하였던 대표적인 군주라고 하면 각각 高宗(1852~1919, 在1863~1907)과 咸宜帝(Hàm Nghi, 1871~1944, 在1884~1885)가 주목된다. 이 둘은 생몰년이나 재위 기간 및 생애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양국이 결정적으로 망국을 맞이했던 시기에 재위했던 군주였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외세의 압박으로 군주권이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도 황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유럽계열의 항쟁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高宗의 활동이 열강 사이의 외교와 황제권의 강화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咸宜帝의 활동은 궁정을 벗어나 勤王詔를 반포하고 유럽과 지방 세력의 무장 항쟁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활동을 비교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한 조선과 베트남에서 군주의 권위가 유럽계열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어떻게 결합하였는지를 비교 검토하는 데에 매우 유효하다.

高宗은 1852년에 태어나 1863년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 咸宜帝는 1871년에 태어나 1884년 응우옌 왕조의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이듬해 프랑스의 지배에 저항하여 수도 후에를 탈출한 뒤 근왕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의 나이와 즉위 시기는 高宗이 앞서지만, 제국주의 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권 회복 운동에 나선 시점은 咸宜帝가 빨랐다. 이에 아래에서는 사건의 순서를 고려하여 咸宜帝의 활동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高宗의 국권 수호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⁴⁾

咸宜帝의 본명은 응우옌 폭 민(Nguyễn Phúc Minh, 阮福明)으로, 1884년 8월 응우옌 왕조의 제8대 황제로 즉위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이미 프랑스의 군사적 침략과 정치적 간섭으로 국가의 주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었다. 프랑스는 1883년과 1884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을 확보하고 후에 조정의 내정에도 깊이 개입하였다. 합의제의 즉위 역시 프랑스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으며, 프랑스는 즉위 의례와 궁정 출입의 방식까지 통제하려 하였다. 불과 13세에 즉위한 합의제는 실권을 장악한 섭정대신 응우옌 반 트엉(Nguyễn Văn Tường, 阮文祥)과 톤 텃 투이엣(Tôn Thất Thuyết, 尊室說)의 보좌를 받았다. 특히 병부상서를 겸하

4) 국내에 咸宜帝에 관한 전문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주로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유인선, 이산, 2002), 「19세기말 베트남 근왕(勤王)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재고찰」(김종욱, 『동남아연구』 21-2, 2011), 『관 보이 찌우 자서전』(김용태 외 역, 소명출판, 2022)을 참고하여 咸宜帝의 행적을 재구성하였으며, 인터넷 위키피디아를 많이 참조하였다.

고 있던 푼 텃 투이엣은 조정 내 주전파를 이끌면서 군사를 정비하고 후에 서북쪽의 떤서(Tân Sở, 新所)에 항전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1885년 프랑스는 쿠르시(Roussel de Courcy)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보호국 체제를 강제로 정착시키려 하였다. 프랑스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자 푼 텃 투이엣은 그해 7월 4일 밤 후예에 주둔한 프랑스군을 기습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반격으로 공격이 실패하고 황성이 점령되자, 그는 합의제와 황실 가족을 호위하여 후예를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피난에 그치지 않았다. 합의제 일행은 쩡찌(Quảng Trị, 廣治)의 떤서에 항전 조정을 세우고, 합의제의 이름으로 관료와 사대부, 백성에게 프랑스에 맞서 봉기할 것을 촉구하는 「勤王詔」를 반포하였다.

.....짐은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런 변고를 만나고서 힘껏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도성이 함락되고 황후의 수레는 도성을 떠나 피란하게 되었도다. 모든 잘못이 짐에게 있으니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노라. 생각건대 인륜의 뒤흔든 도리로 맺어진 대소 신료들은 결코 짐을 멀리 버려두지 않을 것이로다. 지혜 있는 자는 계책을 내고, 용맹한 자는 힘을 보태며, 부유한 자는 군수 물자를 대도록 하라. 함께 싸우는 전우로서 곤란과 위험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응당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태한 이를 돕고 넘어지려는 이를 부축하며 막힌 곳을 풀어주고 형편이 어려운 이를 돕도록 하라. 마음과 힘을 아끼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늘은 하늘 뜻을 따르는 자를 도우리라. 그리되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짐으로, 위태함에서 안전함으로 변하여 강토를 회복하게 되리니 이번이 좋은 기회로다. 종묘사직의 복이 곧 臣民의 복이니 같이 슬퍼한 자와 더불어 같이 쉬리라.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5)

「근왕조」는 프랑스의 강압 때문에 조정이 부득이하게 군사를 일으켰다고 천명하고, 조정의 신료와 각지의 인민에게 국난을 함께 극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勤王」은 단순히 위기에 빠진 군주 개인을 구원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유교적 정치 질서에서 황제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치공동체의 독립을 상징하였으므로, 황제를 돕는다는 것은 곧 침략 세력을 몰아내고 국가의 자주권을 회복한다는 뜻을 지녔다. 「근왕조」에는 군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 왕조의 회복과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합의제의 이름과 황제권은 지방의 유림과 관료, 향촌 세력을 반프랑스 항쟁으로 결집하는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었다.

합의제와 푼 텃 투이엣은 떤서에서 라오스 국경에 가까운 산악지대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전을 계속하였다. 프랑스는 1885년 9월 합의제를 폐위하고 그의 형인 동경제(同慶帝)를 새 황제로 세웠지만, 상당수 유림과 백성은 프랑스가 옹립한 동경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제를 정통 군주로 받들었다. 「근왕조」에 호응하여 북부와 중부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으며, 응우옌 티엔 투엣(Nguyễn Thiện Thuật, 阮善述), 딘 쑹 쩡(Đinh Công Tráng, 丁公壯), 판 딘 풍(Phan Đình Phùng, 潘廷逢) 등의 유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항쟁을 이끌었다. 이들 세력은 하나의 통일된 지휘 체계 아래 조직된 것은 아니었지만, 합의제의 「근왕조」와 황제의 명의를 각 지역의 분산된 항쟁에 공통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합의제가 항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직접 군사와 정무를 주도하였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에

5) “朕涼德遭此變故。不能竭力幹旋，都城淪陷，慈駕播遷，罪在朕躬，慚愧無地。惟倫常所係，百辟卿士，無大無小，必不朕遐棄。智者獻謀，勇者獻力，富者出貨，以助軍需，同袍同澤，不辭艱險。當如何而可？扶危持顛，亨屯濟蹇者，不靳心力，庶幾天心助順，轉亂爲治，轉危爲安，復宇歸疆。此一機會，宗社之福，即臣民之福，與同戚者與同休，豈不難哉。” 이상의 원문과 번역은 최귀목, 『베트남문학의 이해』, 창비, 2010, 277면에서 재인용함. 단 번역문은 일부 수정함.

공격과 근왕운동의 준비 및 지휘에서 푼 텃 투이엣을 비롯한 주전과 대신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근왕조」의 실제 작성자도 함의제 자신이라기보다 그의 측근 관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함의제는 즉위 당시 13세에 불과했으므로 그를 근왕운동의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지휘한 지도자로 서술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함의제가 단지 대신들에게 수동적으로 이용된 존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는 프랑스와 후에 조정이 여러 차례 귀순을 권유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3년 동안 팡빈(Quảng Bình, 廣平) 일대의 산악 근거지에서 항전을 계속하였다. 푼 텃 투이엣이 청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외로 떠난 뒤에도 함의제는 측근들과 함께 저항을 이어갔다. 1888년 가을 호위 책임자였던 쯔엥광응옥(Trương Quang Ngọc, 張光玉)의 배신으로 프랑스군에 체포되었을 때에도 그는 동카인 조정의 신하들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황제 지위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한다. 프랑스가 그를 후어로 돌려보내지 않고 곧바로 알제리로 추방한 것도, 그가 베트남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항불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상징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1889년 1월 알제에 도착한 뒤 평생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44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함의제가 체포된 뒤에도 근왕운동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다. 특히 판 딘 풍이 이끈 봉기는 1896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근왕운동이 황제 개인의 신변을 구출하는 운동을 넘어 유럽계열의 광범한 반프랑스 항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판 보이 쩌우 역시 자신의 자서전에서 1885년 함의제가 수도를 떠나 「근왕조」를 내리자 “근왕당이 구름처럼 일어나고 물처럼 솟아났다”고 회고하였다. 당시 응에명 지역의 진신과 호걸들이 조서를 받들어 기의하였고 민병들이 프랑스군의 탄환을 몸으로 받아냈다는 그의 기록은, 함의제의 근왕유가 지방 유럽과 민중에게 끼친 충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판 보이 쩌우는 이를 ‘어리석은 충성’이라고 비판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애국적 활동에 뜻을 두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서술하였다. 이후 그는 판딘풍을 비롯한 근왕운동의 잔여 세력과 비밀리에 교류하였으며, 20세기 초 새로운 독립운동을 계획하면서도 옛 근왕당과 산림의 무장 세력을 결집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함의제의 근왕운동은 1880년대의 복벽적 무장항쟁에 그치지 않고, 판 보이 쩌우 세대의 근대적 독립운동으로 인적·사상적 자원이 계승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함의제의 활동은 전통적 황제권과 유럽의 충군 의식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복벽주의적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에서 왕조의 정통성과 국가의 독립은 아직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으며, 프랑스가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를 옹립한 상황에서 함의제를 받드는 행위는 곧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함의제가 근왕운동을 어느 정도 직접 지휘했는가와 별개로, 그의 귀순 거부와 항전, 그리고 황제로서의 상징적 권위는 지방 유럽의 무장투쟁에 정당성과 구심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함의제의 활동은 단순한 왕조 보전 운동이 아니라, 전통적 군주권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고종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고 생각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에도 고종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에 밀사와 밀서를 보내 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이러한 비밀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종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황제의 승인 없이 강제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임을 밝히고 일본의 침략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게 하였다.⁶⁾

물론 헤이그 특사 파견은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게다가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

6) 이명화, 「헤이그특사가 국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6~12면.

위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상설과 이위종은 헤이그를 떠나 유럽과 미주를 순회하며 한국의 독립 문제를 선전하였고, 이후 러시아에 정착하여 국외 한인사회의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특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주·러시아·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 인적 연계가 확대되었으며, 이준의 순국은 국내외 한인들의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⁷⁾ 따라서 헤이그 특사 파견은 대한제국이 수행한 마지막 비밀외교인 동시에, 황제의 외교적 저항이 해외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7년 강제 퇴위 뒤에도 고종의 항일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감시 아래 덕수궁에 머물면서 러시아로 망명하여 연해주에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 외교문서에 따르면, 1908년 11월 일본 주재 러시아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는 고종이 해로나 육로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고종이 연해주에 나타날 경우 대한제국 문제가 다시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여 러일관계가 긴장될 것을 우려하고 그의 망명을 만류하였다.⁸⁾ 이는 고종의 망명이 단순한 신변 도피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행동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고종의 연해주 망명 계획은 1910년에 더욱 구체화 되었다. 그해 4~5월 고종을 여러 차례 만난 이갑은 현상건과 함께 상하이 주재 러시아 상무관 고이에르에게 고종의 망명 의사를 전달하였다. 고종은 이범윤과 함경도 의병의 도움을 받아 북쪽으로 이동한 뒤 러시아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려 하였다. 또한 이갑에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연해주 군 당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일본군의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첩보·방첩망을 구축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고종의 친서는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병합을 승인하는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⁹⁾ 헤이그 특사 파견이 국제회의를 통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법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였다면, 연해주 망명 계획은 국외에 정치·군사적 거점을 마련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하려는 구상이었다.

고종의 망명 구상은 같은 시기 연해주 독립운동 세력이 추진하던 계획과도 방향을 같이 하였다. 이상설·유인석·이범윤 등은 1910년 6월 국내외 의병 세력을 통합하기 위하여 십삼도의군을 결성하였다. 이상설과 유인석은 그해 7월 고종에게 올린 상소에서 내탕금을 군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하여 항일투쟁을 직접 지도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은 고종이 국외로 파견하면 밖으로는 국제적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안으로는 국내 민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곧 고종을 단순히 복위시켜 구체제를 회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이용하여 의병 세력을 통합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시 국제사회에 제기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종의 망명 계획과 십삼도의군의 파천 요청 사이에 어떠한 연락과 협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¹¹⁾ 그럼에도 러시아 측 문서에서 고종이 실제로 연해주 망명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상설과 유인석 등이 고종의 파천과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은 양자의 구상이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

7) 이명화, 위의 논문, 40~50면.

8) 박민영, 「국치 전후 이상설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8~20쪽.

9) 최덕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고종(高宗)의 연해주 망명정부 구상(1909-1910)」, 『서양사학연구』 25,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1, 192~197쪽.

10) 박민영, 앞의 논문, 17~19쪽.

11) 박민영, 앞의 논문, 19~20쪽.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여 고종의 망명과 한인 의병 세력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 1910년 7월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고, 국권 상실 뒤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십삼도의군을 해산시키면서 연해주 망명정부 구상도 좌절되었다.¹²⁾

국권을 상실한 뒤에도 고종을 망명시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독립운동 진영의 시도가 계속되었다. 1915년 이상설·신규식·박은식·유동열·성낙형 등이 조직한 신한혁명당은 제1차 세계대전을 독립전쟁의 기회로 판단하고, 고종을 당수로 추대하여 북경에 망명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신한혁명당은 외교부장 성낙형을 국내에 파견하여 고종에게 「경각서」를 전달하고, 의친왕의 장인 김사준을 통하여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체포됨으로써 실행되지 못하였다.¹³⁾ 신한혁명당의 계획은 일제가 작성한 수사·재판 기록을 통해 주로 확인되므로, 고종이 당수 추대나 망명 계획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는 고종이 직접 주도한 독립운동이라기보다, 국외 독립운동가들이 고종의 정치적 대표성과 황실의 정통성을 활용하려 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918년에는 이회영이 고종의 북경 망명을 다시 추진하였다. 이회영은 고종에게 중국 망명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은 뒤, 북경에 고종이 머물 행궁을 마련하게 하였다. 육로와 해로 가운데 이동 경로를 검토하여 배를 이용하기로 하는 등 계획도 상당히 구체화 되었지만, 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서거하면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고종의 의중을 전하는 자료가 주로 후대의 회고에 근거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1910년 연해주 망명 구상 이후에도 황실 인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협력을 통한 망명정부 수립이 계속 모색되었던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독살설과 결합하여 3·1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고종이 조선 민중에게 여전히 국권 회복을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대중적 위상을 모두 고종의 항일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그가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국권 회복을 도모한 행적도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종은 구왕조의 군주이자 복벽의 대상이었지만, 국내외 항일 세력을 결집하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수 있는 상징적 대표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두 황제의 국권 회복 운동을 견주어 살펴볼 차례이다. 두 황제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투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종이 밀사 파견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등 주로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국권 회복을 모색했다면, 함의제는 유림 관료들과 함께 황도를 떠나 근왕조(勤王詔)를 반포함으로써 무장 항쟁의 실질적 구심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중대한 역사적 의의와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당시 조선과 베트남은 국권 회복을 위하여 외교와 무력 투쟁 등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활용하였던 만큼, 고종과 함의제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하는 가운데 우연한 상황에서 발현된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의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을 터인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두 황제 모두 운동의 실질적 주도자라기보다는, 유림 세력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정당성과 대중적 호소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세운

12) 최덕규, 앞의 논문, 208~211쪽.

13) 강영심, 『新韓革命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25~27쪽; 배우희, 『조선민족대동단의 항일독립운동 연구(1919~1922)』, 『승실사학』 54, 승실사학회, 2025, 215~216쪽.

14) 배우희, 위의 논문, 216~217쪽.

상징적 존재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복벽운동과 근왕운동에서 황제는 주역이 아닌 조연이었으며, 운동을 조직하고 실행한 주체는 황제의 권위와 왕조적 정통성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한 유림 세력이었다. 두 운동이 구체제의 상징과 충군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단순히 과거의 왕조 질서로 돌아가려는 시도로만 평가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제의 복위를 내세운 외형과 달리 그 실질은 외세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벽운동과 근왕운동은 과거를 향한 퇴행적 운동이라기보다, 전통적 정치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열고자 한 과도기적 반제국주의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李堉과 彊樞의 망명을 통한 국권 회복 모색

고종과 함의제의 반제국주의 활동은 각각 갑작스러운 서거와 프랑스군에 의한 체포로 강제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황실의 권위와 왕조적 정통성을 반제국주의 투쟁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려는 흐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군주가 직접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조선과 베트남의 유림계열 독립운동 세력은 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황실 인사를 물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택된 인물이 조선의 李堉(1877~1955)과 베트남의 彊樞(Cường Đệ, 1882~1951)였다. 두 사람은 모두 황실의 일원이면서도 현실의 황위 계승에서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군주를 대신하여 국권 회복 운동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비교하는 것은 군주의 직접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두 나라의 유림 세력이 황실의 권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활용하였는지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李堉은 高宗의 아들로서 彊樞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독립운동 세력과 결합하여 망명을 추진한 시기는 彊樞가 훨씬 앞섰다. 彊樞는 1904년 潘佩珠를 비롯한 유신 지식인들에 의해 황실을 대표할 인물로 추대된 뒤 일본으로 망명하여 장기간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하여 李堉은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과 결합하여 상하이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국경을 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모두 황실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였지만, 망명의 성과와 이후 활동의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래에서는 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먼저 彊樞의 망명과 국권 회복 운동을 살펴보고, 이어서 李堉의 조선민족대동단 참여와 상하이 망명 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彊樞(Cường Đệ, 1882~1951)는 응우옌 왕조를 창건한 嘉隆帝의 장자인 英睿皇太子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러나 明命帝(Minh Mạng) 계통이 황위를 계승하면서 그의 가계는 현실의 왕위 계승선에서 밀려났지만, 왕조 창업자의 적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潘佩珠는 1903년 황실 인사를 국권 회복 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에 따라 여러 황족을 물색한 끝에 강저를 찾아냈다. 그 배경에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군주를 받들고 적을 토벌하는 것 외에는 아직 어떠한 사상도 없다.”는 小羅 阮誠의 현실 인식이 있었다. 특히 응우옌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재력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지지를 얻으려면 嘉隆帝의 적통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강저는 판보이쩌우가 제시한 계획에 동의하여 맹약을 맺었고, 1904년 4월 비밀회의에서 회주로 추대되었다.¹⁵⁾

15) 판 보이쩌우, 김용태 외 옮김, 『판 보이쩌우 자서전』, 소명출판, 2022, 75~77, 85~88면; 白石昌也, 『日本をめざしたベトナムの英雄と皇』

강저의 추대는 전통적인 근왕 운동의 외형을 지녔지만, 실제 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한 주체는 潘佩珠와 阮誠을 비롯한 유신 지식인들이었다. 비밀회의에서는 당원의 확대와 자금 모집, 무장봉기의 준비, 해외 원조의 요청이라는 세 가지 방침이 결정되었다. 강저는 이러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한 지도자라기보다 황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유신 지식인들에게 이용된 존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는 계획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회주 자리를 받아들였으며, 반패주가 해외 원조와 유학생 파견을 추진하자 가족과 고국을 떠나 망명하는 데 동의하였다. 황실의 권위를 활용하려는 유럽 세력의 필요와 강저 자신의 반프랑스 의지가 결합한 결과였던 것이다.¹⁶⁾

강저는 1906년 정월 비밀리에 베트남을 떠나 하이퐁과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였다. 출국 직후 潘佩珠와 함께 성문화한 「維新會章程」은 프랑스를 축출하고 베트남의 국권을 회복하여 군주입헌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베트남의 젊은 학생들을 일본으로 탈출시켜 교육하는 東遊運動의 명목상 지도자로 활동하였다.¹⁷⁾ 이 시기 강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황실의 이름을 이용하여 국내의 지지 여론과 후원금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潘佩珠는 남부 지역의 “옛날을 그리워하고 군주를 사모하는 인심”에 호소해야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강저는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남부의 父老와 청년들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동유운동에서 황실의 권위는 왕조 복원의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 모집과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정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¹⁸⁾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위하여 베트남 독립운동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베트남 국내에서 동유운동 관계자들이 잇달아 검거되고 프랑스 정부가 일본에 압력을 가하자, 일본 정부는 1908년부터 베트남 유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반패주와 강저를 추방하였다. 강저는 잠시 태국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와 은신하였지만, 1909년 10월 소재가 발각되어 그해 11월 일본을 떠나야 했다. 일본의 발전을 본받고 그 지원을 얻으려 했던 동유운동이 오히려 일본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협력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¹⁹⁾

일본에서 추방된 강저는 중국과 태국 등지를 전전하며 나라 국권 회복 운동을 계속하였다. 辛亥革命 이후 반패주 등이 군주제를 폐기하고 공화주의를 채택하여 1912년 越南光復會를 조직하였음에도, 강저는 회장 겸 총무부장에 선임되었다.²⁰⁾ 왕조 복원이 목표에서 제외된 뒤에도 그의 혈통과 명망은 국내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강저의 정치적 의미가 군주 후보에서 민족적 결집을 위한 황실의 상징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실의 독립운동에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반드시 배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강저는 1915년 일본에 재입국하였으며, 1925년 판보이쩌우가 체포된 뒤에는 일본과 중국의 범아시아주의자 및 베트남 국내 세력과의 연계를 확대하였다.²¹⁾ 1930년대 후반 남부 베트남의 까오다이교 세력도 그를 지도자로 지지하였고, 그는 1939년 越南復國同盟會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북부 베트남 진입에 호응하여 1940년 랑선 일대에서 일으킨 봉기는 일본이 프랑스와 타협하고 지원을 중단하면서 실패하였다.²²⁾ 1945년 3월 일본이 프랑스의

子—ファン・ボイ・チャウとクオン・デ』, 彩流社, 2012, 34~40면.

16) 『판 보이쩌우 자서전』, 75~77, 85~87면.

17) 『판 보이쩌우 자서전』, 139~142면; 白石昌也, 앞의 책, 76~83면.

18) 『판 보이쩌우 자서전』, 177~180면.

19) 白石昌也, 앞의 책, 120~138면; Trần Mỹ-Vân, A Vietnamese Royal Exile in Japan: Prince Cường Để (1882-1951), Routledge, 2005, pp. 59~67.

20) 『판 보이쩌우 자서전』, 282~287쪽.

21) Trần Mỹ-Vân, 앞의 책, pp. 68~131; 白石昌也, 앞의 책, 139~210면.

식민통치기구를 해체하자 강저 측은 귀국과 정권 참여를 기대하였지만, 일본은 그 대신 현직 황제 保大와 陳仲金 내각을 선택하였다. 이로써 강저는 자신이 오랫동안 의지했던 일본에 의해 결정적인 순간에 배제되었다.²³⁾

일본의 패망 뒤에도 강저는 귀국을 모색하였으나, 1950년 홍콩을 경유한 귀국 시도마저 영국 당국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그는 이듬해 도쿄에서 사망하였다. 강저는 망명에 성공하여 장기간 활동하였지만, 일본에 의존한 탓에 국제정세와 일본의 정책 변화에 따라 거듭 좌절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군주입헌주의에서 공화주의에 이르는 여러 조직에 참여하며 독립을 추구한 그의 행적은, 황실의 정통성이 왕조 복원을 넘어 근대적 민족독립운동을 결집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李堯(1877~1955)은 高宗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1891년 義和君에 봉해졌다. 그는 외가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데다가 명성황후와 엄귀비의 견제를 받아 황위 계승의 중심에서 일찍부터 밀려나 있었다. 한편 1894년에는 보빙대사로 일본을 방문하였고,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였다. 특히 미국 유학 시절에는 金奎植과 함께 로노크대학에 다니며 서구 사회를 직접 경험하였다. 학업에서 뚜렷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강은 황실 인사 가운데 해외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인물이었다. 황실 안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바로 그러한 처지와 해외 경험으로 인해 국권 상실 이후에는 독립운동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황실 인사로 부상하였다.²⁴⁾

독립운동 세력이 황실 인사의 국외 망명을 추진한 것은 앞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고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1919년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황실의 권위를 독립운동에 활용하려는 구상은 이강에게로 옮겨갔다. 이강은 순종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었으며, 평소 항일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고종의 서거 이후 황실을 대표하여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이강이 주목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²⁵⁾

이강의 망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세력은 金嘉鎭과 全協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朝鮮民族大同團이었다. 대동단은 유림·종교인·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결집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을 연결하려 한 비밀결사였다. 대동단 총재 김가진은 조직 본부를 상하이로 옮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고자 하였으며, 1919년 10월 아들 金毅漢 및 임시정부 요원 李鍾郁과 함께 망명에 성공하였다. 임시정부는 이종욱에게 이강을 비롯한 황실 인사와 구한국 고관들을 상하이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가진과 전협도 이강의 합류가 독립운동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²⁶⁾ 당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에 「구황실 우대」 조항을 둘 것인지를 논의한 끝에 이를 채택하였다. 공화정을 표방한 임시정부에서도 황실의 상징성을 민족적 결집과 대외 선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던 것이다.²⁷⁾

그러나 이강의 망명 계획이 처음부터 김가진의 주도 아래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임시정부 내무차장 姜泰東과 이

22) Trần Mỹ-Vân, 앞의 책, pp. 132~158; 白石昌也, 앞의 책, 211~226면.

23) Trần Mỹ-Vân, 앞의 책, pp. 159~192; 白石昌也, 앞의 책, 218~238면.

24) 박한민, 「갑오개혁기 보빙대사 의화군과 유길준의 일본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45~88면; 정병준, 「김규식과 의친왕—미국 유학시절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52, 2023, 167~200면.

25) 배우희, 「조선민족대동단의 항일독립운동」, 2025; 반병률, 「상해 임시정부와 의친왕—구황실 조항과 의친왕의 ‘탈국’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92, 2024, 201~236면.

26) 신복룡, 『대동단실기』 선인, 2014, 120~137면.

27) 반병률, 앞의 논문, 201~236면.

강의 처남 金春基가 먼저 그의 해외 탈출 의사를 김가진에게 전달하였고, 이종옥은 대동단장 전협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강에게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협은 통영 어장의 어업권 계약을 빌미로 면담을 주선하였다. 1919년 11월 9일 밤 이강이 공평동의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전협은 비로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이강을 상하이로 모셔 고종의 죽음과 일본의 한국 병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동단원들이 권총을 보이며 이강의 측근을 위협하였으므로, 최초의 만남을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함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이강도 “이런 일이란 협박으로 될 일이 아니오”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전협이 무장한 단원들을 물리치고 김가진 및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이강은 상하이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²⁸⁾

결심을 굳힌 이강은 곧바로 변장하여 대동단원들과 함께 서울을 빠져나갔다. 일행은 세검정을 거쳐 고양군 구기리의 은신처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강태동이 경찰의 경계가 삼엄하다는 이유로 거사를 이듬해 봄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이강은 “나는 가기로 결심하고 나왔는데 연기하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며 그대로 출발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조선 왕실의 일원으로서 독립을 요구하는 민중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국내에서는 활동하기 어려우므로 국외로 나가 외교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동단 관계자의 예심조서에 전하는 것이므로 표현 그대로를 이강의 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협을 알면서도 변장하고 감시망을 빠져나가 실제로 국경을 향하였다는 행동은 그가 망명 계획에 동의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²⁹⁾

11월 10일 이강은 대동단원들과 함께 수색역에서 안동행 열차에 올랐다. 일행은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강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으로 변장시켜 3등 객차에 태웠으며, 질문을 받으면 백부를 모시고 중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안동에 도착하면 임시정부 교통국 안동지부가 설치되어 있던 조지 쇼(George L. Shaw)의 怡隆洋行에 은신한 뒤, 배편으로 상하이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강의 부재를 확인한 총독부 경찰이 신의주 방면에 긴급 수배령을 내렸고, 일행이 압록강 너머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일본 경찰이 역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강은 역 안의 찻집으로 몸을 피하였으나,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일본인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전협을 비롯한 대동단 관계자들도 잇달아 검거되었고, 대동단은 조직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³⁰⁾

망명 당시 이강은 자신의 명의로 된 「諭告」와 임시정부에 보내는 「親書」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고」는 대동단 관계자들이 작성하였으며, 이강도 경찰 신문에서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모두 이강 자신의 언어로 보기는 어렵다. 「친서」 역시 전협이 기초한 것이지만, 이강이 이를 지니고 상하이로 향하였고 임시정부도 체포 이후 이 문서를 번역·공포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망명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죽음, 강제병합의 부당성,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나 역시 한국민의 하나이라, 나는 독립되는 우리나라의 평민이 될지언정 합병한 일본의 귀족 되기를 원치 않는지라”하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황족의 지위를 이용하여 왕조를 복구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일본이 부여한 귀족의 지위를 버리고 독립된 공화국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28) 신복룡, 앞의 책, 137~146면.

29) 신복룡, 앞의 책, 145~154면, 148~149면.

30) 신복룡, 앞의 책, 153~163면.

31) 신복룡, 앞의 책, 145~147, 157~158면; 반병률, 앞의 논문, 201~236면.

이강의 망명은 안동역에서 좌절되었다. 또한 그는 독립운동 조직을 직접 결성하거나 장기간 관여한 것도 아니었다. 망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실질적인 주체는 대동단과 임시정부 관계자들이었고, 이들은 이강의 황실 신분이 가져올 정치적·외교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렇다고 이강을 독립운동 세력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명목상의 인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는 대동단의 계획에 동의한 뒤 변장하여 국경을 넘었으며, 거사를 연기하자는 요구도 거부하였다. 무엇보다 그의 목적지는 공화정을 표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였다. 이강의 탈국 시도는 왕조적 정통성과 공화주의적 독립운동이 반드시 대립한 것이 아니라, 국권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결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저가 망명에 성공하여 황실의 상징으로부터 점차 독립운동 지도자로 나아갔다면, 이강은 공화국의 평민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망명을 실행하였으나 그 문턱에서 좌절된 인물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강과 강저의 행적은 망명의 성패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강저는 프랑스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외 망명에 성공한 뒤 여러 독립운동 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베트남의 독립운동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반면 이강은 국경을 넘은 직후 체포됨으로써 임시정부에 합류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는 더욱 엄중해진 일제의 감시 아래 조직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채 울울한 후반생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두 사람의 의지나 역량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망명 경로와 시기, 식민 권력의 감시 방식, 국외 활동 공간의 유무 등 여러 우연적·정세적 조건이 두 사람의 상이한 운명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큰 흐름에서 보면 두 사람의 망명은 모두 유럽 세력의 북벌·근왕운동이 축적한 정치적 에너지가 근대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으로 계승·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었다. 독립운동 세력은 황실 인사의 혈통과 권위를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그 궁극적인 지향은 반드시 옛 왕조의 복원에 머물지 않았다. 이강이 독립국의 평민이 되기를 원하였고 강저가 군주 후보에서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변화한 사실은, 황실의 정통성이 왕조 복원의 명분을 넘어 근대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자원으로 재구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새삼 주목되는 바는 베트남 민족운동 세력(사회주의 세력을 포함하여)의 놀라운 저력이다. 그들은 전통 시대의 인적·정신적 자산을 흡수하면서 광범한 대중적 역량을 조직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생각되는 점은 조선과 베트남 역사의 상동성이다. 유교적 왕조 국가였던 조선과 베트남은 제국주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였다가, 황실과 유럽의 권위를 활용한 북벌·근왕 운동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역사적 단계를 밟았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뒤에도 양국은 모두 냉전 체제 아래 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다만 베트남은 오랜 전쟁 끝에 국가적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도 전쟁과 분단이 남긴 남북 간의 지역적·사회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두 나라는 외세에 의해 초래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여 온전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은 국가적 통합을 넘어 민주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도 안고 있다. 유교적 정치 문화를 공유하고 제국주의에 맞선 오랜 투쟁을 경험한 두 나라는 전통적 정치 문화가 지닌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에서 축적한 연대와 참여의 역량을 오늘날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정치체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성취와 한계를 비추어 보는 비교와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넘어 민족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 성격과 지향 :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와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이황직(숙명여대)

<국문 초록>

1910년 이후 한국사는 곧 독립운동의 역사이다. 그런 까닭에 1910년대 망명 항일 유림의 역사는 국외 독립운동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연구되곤 했다. 당시 국외 독립운동 세력의 중추는 국권상실 전후 월경·망명한 국권회복운동 참여자들이었다.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는 여러 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진출해서 운동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했는데, 이때 먼저 정착해 있었던 한인 이주민 사회와 결합을 시도했다. 대종교, 기독교, 천도교 계열뿐만 아니라 국권회복운동 국면에서 ‘의병’과 ‘자강’으로 분립했던 유교 세력도 새 터전을 찾아서 무리를 지어 망명해 왔다. 국내에서 척사 유림과 개신(혁신) 유림으로 대립했던 두 세력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대결 대신 협력 관계로 변화해서 국외 항일투쟁 기지 건설에 나섰다.

그런데 망명 유림 연구의 중점이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두어진 까닭에 이들이 근대 서구의 시민 정치 관념을 수용·실행한 망명지 자치의 의미와 역사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형편이다. 1910년대 의병과 자강 계열의 망명 항일 유림은, 우선 자치 규약을 만들어 이주민 공동체를 정치 결사체로 전환해서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연구는 국권상실 전후 망명 항일 유림 세력들의 정착지에서 실행된 다양한 자치 양태를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재해석) 또는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망명·이주민의 자치가 어떻게 입헌·공화정체의 새 국가 건설 과제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론적·비교사적 논의를 했다(2장). 다음으로, 의병 유림의 중핵에 해당하는 류인석(柳麟錫)과 화서학과 유림이 연해주에서 십삼도의 군 조직을 목표로 결성한 자치 단체이자 규약인 ‘관일약’(貫一約, 1909)을 분석해서 국망 전후 항일 의병 유림이 근대 민족주의와 민(民) 주체의 정치 원리를 수용해 가는 과정을 고찰했다. 국내 자강운동의 애국단체 결성과 연해주 구국 세력의 ‘일심단체’ 결성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관일약은 단체를 통한 근대적 의사 결집과 조직화 방식의 중요성을 긍정했고, 입약 자격을 연해주와 북만주의 이주민에게까지 개방해서 기존 향약의 신분제적 성격을 극복했다(3장). 이어서, 1907년 이후 뒤늦게 자강운동에 참여한 이상룡(李相龍), 김대락(金大洛) 등 경북 북부의 유림 지식인들이 신민회와 이회영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계획에 부응해서 망명해서 세운 자치 기관인 경학사(耕學社)와 후속 공리회(公理會)의 자치 규약과 활동을 분석했다. 특히 김대락의 ‘공리회취지서’는 유교 경전에서 취한 인의와 민본의

원리 그리고 전통 향약의 자치 원리를 원용해서 근대적 자치의 필요성을 논증해서 이를 통해 유교적 공화와 자치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4장).

이러한 논의가 망명 항일 유림 전체의 사상과 운동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국권상실 전후 망명 유림의 정착지 자치를 단순히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측면에 가두지 않고 독립협회 이래 근대적 시민 정치의 계승과 발전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流亡抗日儒林居住地的自治性质及其指向： 以儒教政治理想的转用和近代型转换为中心

李滉植(淑明女子大学)

<中文摘要>

1910年以后的韩国史即是一部独立运动史。正因如此，关于1910年代流亡海外的抗日儒林之历史，往往被作为海外独立运动史的一部分加以研究。当时海外独立运动的中坚力量，是在国权丧失前后越境、流亡的国权恢复运动参与者。在间岛和沿海州一带进出着各个宗教系统的独立运动势力，他们为争夺运动的主导权展开竞争。在这一过程中，他们都试图与此前已经定居当地的韩人移民社会相结合。不仅大倣教、基督教和天道教系统如此，在国权恢复运动阶段分化为“义兵”与“自强”两派的儒教势力，也为寻找新的立足之地而成群流亡至此。在国内曾相互对立的斥邪儒林与改新（或革新）儒林，为了适应陌生环境，逐渐由对抗转向合作，并开始建设海外抗日斗争基地。

然而，以往对流亡儒林的研究主要着眼于独立运动与抗日斗争，对于他们如何接受并实践近代西方公民政治观念，并由此形成的流亡区自治的意义和历史，迄今仍缺乏充分研究。1910年代，义兵派与自强派的流亡抗日儒林选择首先制定自治规约，将移民共同体转化为政治结社体，以培养其自治能力；继而以此为基础，将其发展为独立运动基地。本文从儒教政治理想的转用（重新阐释）以及其近代型转换的角度，分析国权丧失前后各流亡抗日儒林势力在其居住地实行的多种自治形态。

首先，本文的第2章从理论和比较史的角度，讨论了流亡者与移民的自治如何与立宪共和政体这一新国家的建设任务相连接。之后在第3章中，分析了义兵儒林的核心柳麟锡及华西学派儒林在沿海州为组建十三道义军而制定的规约——《贯一约》（1909），由此考察国家灭亡前后抗日义兵儒林接受近代民族主义以及以民为主的政治原则的过程。由于受到国内自强运动中爱国团体的结成，以及沿海州救国势力组织“一心团体”的影响，《贯一约》肯定了通过团体实现近代式的意见汇聚与组织化的重要性，同时将入约资格开放至沿海州和北满洲的移民，从而克服了传统乡约所具有的身份等级性质。第4章分析了1907年以后较晚参加自强运动的李相龙、金大洛等庆尚北道北部儒林知识分子的自治规约和相关活动。他们为响应新民会及李会荣提出的西间岛独立运动基地计划而流亡海外，并建立了自治机构耕学社及其后继组织公理会。尤其是金大洛的《公理会趣旨书》，援用儒家经典中的仁义、民本思想以及传统乡约的自治原则，论证近代自治的必要性，并在此基础上将其发展为儒教共和与自治理念。

以上的讨论固然不足以代表全部流亡抗日儒林的思想与运动，但本文并未将国权丧失前后流亡儒林在定居地开展的自治活动仅局限于海外独立运动基地建设的层面，而是站在独立协会以来近代公民政治之继承与发展的层面上，对其作出新的阐释。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 성격과 지향 :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와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이황직(숙명여대)

- I. 망명 유림 자치 결사 연구의 필요성
- II. 국외 이주민 자치와 새 국가 수립 구상의 관계
- III. 화서학과 의병 유림의 자치, ‘관일약’
- IV. 혁신 유림의 자치 - 김대락의 공리회
- V. 망명 유림의 정착지 자치의 역사적 의의

I. 망명 유림 자치 결사 연구의 필요성

1910년 이후 한국사는 곧 독립운동의 역사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 독립운동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실행된 데 반해, 국외 독립운동은 망명 항일투쟁 세력과 이주민 자치 조직의 연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19년 3·1운동은 이러한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국내 독립운동 세력이 호응해서 역량을 결집한 결과였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선언하고 9월 1차 개헌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이 천명했는데, 이로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기원으로 하는 시민 정치,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의 입헌·자강과 국채보상운동의 자치·자강, 신민회와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주창한 민주·공화정체 구상이 마침내 결실을 얻었다. 비록 임시헌법 조항이기는 했지만, 구한말 이래 시민 정치 세력의 정치적 목표가 국내·국외 독립운동 세력(‘광복운동자’) 대부분의 동의로 채택되어 향후 운동의 확고한 지향이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지대했다.

당시 국외 독립운동 세력의 중추에는 국권상실 전후 국경을 넘어 망명한 유림 세력이 포함된다. 망명 유림은 대체로 이전에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병탄 직전까지 유림의 국권회복운동은 크게 의병과 자강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옛 척사 유림과 보황 세력이 의병 유림의 주축이었던 데 반해 개신(/혁신) 유림은 자강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다. 국내에서는 의병과 자강으로 나뉘어 대립했던 두 세력은 국망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을 꾀하기도 했다. 여전히 복벽을 꿈꾼 의병 유림 세력은 한동안 보수적 사상을 고수했으나 망명 지역의 척박한 현실과 1911년 신해혁명의 여파에 따라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강운동 계열 망명 세력 가운데 개신(혁신) 유림은 대중교 독립운동과 연계되거나 신민회와 연계한 독립운동으로 나아갔다. 1910년대 망명 항일 유림이 당시 국외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그런데, 그동안 망명 유림 연구의 중점이 해당 시점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독립군 양성 그리고 의병(독립군)의 대일 항전에 두어진 까닭에 이들의 활동이 구한말 이래 애국·개혁 유림이 추진했던 유교 정치 이상의 근대적 전환 시도에 이어져 있었다는 데는 주목하지 않았다. 망명 항일 유림의 활동에는 일반적인 독립운동사로는 포착할 수 없는 종교적 수준의 헌신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의미 세계가 아로새겨져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망명 전에 이미 대한제국의 국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제정에서 입헌정체로의 전환 같은 근본적 수준의 정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서구 근대의 정치 관념을 유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변용의 논리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 망명 유림 가운데 의병 유림뿐만 아니라 의병 실패 후 자강운동으로 전환한 경북 북부의 혁신 유림의 항일투쟁에는 여전히 의병의 의기가 보존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명을 다한 조선의 유교 정치 이상을 혁신하고 향후 세워질 새 국가의 이념으로 부흥시키겠다는 엄숙한 종교개혁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 이후 권력화한 도학 정치와 비현실적 춘추대의와 존화양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서구 제국을 본떠 ‘입헌정체로의 전환’을 시도한 자강운동의 논리에 이어지고, 또한 국채보상운동 전후 지방의 개혁 성향 유림과 백성이 무력한 군주를 대신해서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의 주권 대행’ 시도에서 포착된 ‘자치를 통한 자강’ 시도를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천에 담긴 유교 정치 이상의 혁신과 근대적 전환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이나 대일 항전처럼 바깥으로 드러난 활동보다 이들의 실천을 이끈 관념으로 ‘새롭게 해석된 유교’의 의미 체계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신흥학교(신흥무관학교) 설립 주축 세력의 한 축인 서간도 망명 유림이 이러한 과업에 참여한 것을 입헌·공화의 정치 이념으로 재해석한 유교 원리의 실천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일 유림이 집단 망명하게 된 정치적 동기 그리고 이들이 망명지에서 실행한 자치에 구현된 유교적 시민 정치 원리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1910년대 망명 항일 유림은, 우선 망명지에서 자치 규약을 만들어 이주민 공동체를 정치 결사체로 전환해서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항일 유림의 망명지에 따라 자치형태와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의병 유림과 자강 계열 유림의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국권상실 전후 망명 항일 유림 세력들의 정착지에서 실행된 다양한 자치 양태를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재해석) 또는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먼저, 망명·이주민의 자치가 어떻게 입헌·공화정체의 새 국가 건설 과제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론적·비교사적 논의를 할 것이다(2장). 다음으로, 의병 유림의 중핵에 해당하는 류인석(柳麟錫)과 화서학과 유림이 연해주에서 십삼도의군 조직을 목표로 결성한 자치 단체이자 규약인 ‘관일약’(貫一約, 1909)을 분석해서 국망 전후 항일 의병 유림이 근대 민족주의와 민 주체의 정치 원리를 수용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3장). 끝으로, 자강운동과 연계된 이상룡(李相龍), 김대락(金大洛) 등 경북 북부의 혁신 유림 지식인들이 신민회와 이회영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계획에 따라 망명해서 세운 자치 기관인 경학사(耕學社)와 후속 공리회(公理會)의 자치 규약과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향약 전통을 근대적인 시민 정치 원리로 재해석해서 유교적 공화와 자치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4장). 이러한 논의가 망명 항일 유림 전체의 사상과 운동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국권상실 전후 망명 유림의 정착지 자치를 단순히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측면에 가

두지 않고 독립협회 이래 근대적 시민 정치의 계승과 발전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국외 이주민 자치와 새 국가 수립 구상의 관계

1910년대 망명 항일 유림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교 계열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국망 직전 관북 화서학과 유림 의병의 복상 그리고 연해주로 망명한 류인석의 13도의군(十三道義軍) 창설은 향후 십여 년간 계속될 항일 유림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국망 직후 서간도로 망명한 애국·개혁 성향 유림이 설립한 경학사와 신흥 학교는 이후 대일 무력 항전에 나서게 될 독립군의 모태였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운동의 방법과 정치 이상의 차이로 분기·대립해 왔던 의병 유림과 개신(개혁) 유림이 국망 전후 장기간 지속 가능한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 건설이라는 공통된 전략을 채택한 것은 불가피한 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이해롭다. 따라서 1910년대 이후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망명 유림 연구가 항일투쟁 중심의 독립운동사의 틀에서 진행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망명 유림 항일투쟁의 물질적 토대인 서간도와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는 1860년대 이후 관서와 관북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 새 삶의 터전을 개척한 한인 정착지이기도 했다.¹⁾ 청과 러시아의 이주 정책 추이에 따라 한인 사회가 크게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항일 유림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 이념의 독립운동 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국권 위기 국면(1904~1910) 훨씬 전부터 해당 지역에는 이미 한인 이주민이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다. 계속되는 재해와 관의 수탈로 인한 곤궁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모국을 떠났을지라도, 한인 이주민들은 공동 경작을 통한 생산성 증대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정착지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자치를 실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원초적 자치의 기초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들은 청 당국이 요구한 입적과 치발·역복(難髮易服)에 따르는 경제적 급부를 거부한 채 모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규범과 생활 양식을 고수했다. 이때 규범과 생활 양식이 조선 사회에 융해된 유교적 향촌 자치 원리에서 형성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인 이주민 사회의 강한 문화적 정체성과 유교적 도덕 규범은 외세 침략이라는 위기를 계기로 근대적 민족의식으로 쉽게 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얼마 후 국권상실 국면에서 망명하게 될 항일 유림 세력의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만주와 연해주에서 전개된 유림의 독립운동은 그들보다 먼저 도강·이주한 한인 정착지의 자치 경험과 인적·물적 토대 위에서 전개됐다. 국망 전후 비로소 국경을 넘는 망명 활동가들이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주민 조직과 연계하거나 직접 자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국외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독립운동가만큼이나 선행 이주민의 헌신과 희생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국망 전후 의병을 포함한 무장 항일투쟁의 중심이 국외로 옮겨지던 무렵에 정치적 목적으로 망명한 항일 유림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먼저 이주·정착한 한인 사회가 결합해서 지역 단위의 자치, 단체를 통한 자치,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민족 자치를 목표로 하는 정치 결사체가 다수 생겨났다. 물론, 항일 유림 외에도 다양한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저마다 한인 이주민 공동체

1)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1897년 기점 이전의 이주민은 '조선인'으로 칭하는 것이 맞지만, 이 연구가 1910년대 전후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에 표기상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한인'으로 통칭한다. 한편, 국외 독립운동의 인적·조직적 기반은 먼저 국외로 이주해서 정착한 한인 사회였다. 남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러시아 영토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미국 서부 그리고 멕시코 등 미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 한인들이 결성한 초보적인 자치 공동체의 역사는 한국 독립운동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와 결합해서 운동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했다.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는 여러 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진출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했는데, 이때 먼저 정착해 있었던 한인 이주민 사회와의 결합은 필수적이었다. 대종교, 기독교, 천도교 계열뿐만 아니라 국권회복운동 국면에서 ‘의병’과 ‘자강’으로 분립했던 유교 세력도 새 터전을 찾아서 무리를 지어 망명해 왔다.

의병과 자강 계열의 망명 유림 세력은 각각 새 정착지에서 우선 자치 규약을 만들어 결사체를 형성하고 다음으로 이를 독립운동 기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에서는 공통되었다. 국내에서 대립했던 두 세력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존의 갈등과 대결 대신 협력 관계로 변화해서, 속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1919년 무렵이면 대부분 공화정체의 국가 수립 노선을 수용하고 근대적 독립운동에 합류했다. 그렇게 성장한 자치 결사체 기반 조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옛 제국을 대체할 시민 주체의 새 국가 건설 구상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다.²⁾ 다만 그 과정은 연속적이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다. 이에는 외부적으로는 망명 유림의 정착지가 중국(청, 중화민국)과 러시아(소련)의 행정력과 일본의 외교·군사 영향력에 자유롭지 않은 지역으로 이들의 탄압과 간섭이 작용한 것이 주요인이었지만, 전통과 근대 사이에 중첩해 있던 유교 정치 이상과 실천의 딜레마라는 내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었다.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 엄연히 존재했고, 강요된 퇴위 뒤에도 태황제(太皇帝) 고종은 1919년 1월까지 생존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의병 유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신(개혁) 유림조차 공화정체를 운위하면서도 새 국가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주저했다. 마찬가지로, 신민회 계열의 정착지에서도 3·1운동 전까지는 태황제를 존송하며 이주민 사회의 정신적 중심점으로 삼고 있었다. 가장 혁신적인 유교 지식인 집단이 고종을 국외로 망명시키려 한 것은 이념상 병존할 수 없는 복벽과 공화가 이들의 내면에서 양립했음을 알려주는 흔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구속력을 전제할 때 비로소 망명지 유림의 정치 이념과 실천의 딜레마와 진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를 단지 무장 항일투쟁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적 시도 정도로 그 의미를 국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항일 유림이라는 느슨한 개념으로 포착하기에는 당시 망명 유림 세력이 학맥과 연고 그리고 정치 성향 등에 따른 분화와 재통합 등의 양상이 매우 복잡했다. 분산형 종교(diffused religion)로서 유교가 중앙의 권력적 교단 조직이 결여한 속성을 갖는 까닭에,³⁾ 망명 유림 전체를 아우를 권위적 조직체 형성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국망 전후 망명한 다양한 유림 집단들은, 특별한 교류 없이도, 자기들이 정착한 지역의 한인 사회를 정치 결사체로 전환하고 자치를 실행하면서 자신들의 유교 정치 이상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되었다. 따라서 정착지의 자치 실험은 독립운동 측면뿐 아니라 망명 유림이 기존 유교 정치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전유한 유교 정치 이상을 복국 전에 먼저 지역 단위에서 실행한 것이라는 의미를 얻게 된다.

물론, 그 가운데 신민회 계열과 연계된 서간도 망명 유림의 자치에서 추구한 비전은 그 이전 미주 한인 사회에서 비롯한 정치적 구상, 곧 지역 자치의 연합을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 계획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안창호가 일군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한인촌(파차파 캠프)을 바탕으로 결성된 공립협회(1905) 시기부터 내면화한 이상

2) 국외에 산재한 지역별 자치 단체나 기관을 통합해서 아래로부터의 통일된 공화정체의 새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창의적인 구상은 미주 지역의 이주민 자치 조직인 대한인국민회에서 출발했는데, 자치를 통해서 시민 정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안창호가 그 중심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3) 양창쿤(楊慶堃)은 『중국 사회의 종교』에서 파슨스(Talcott Parsons)의 ‘규정적 제한성(specificity)/분산성(diffuseness)’ 유형 변수 범주와 바흐(Joachim Wach)의 종교 집단 유형의 ‘규정적/자연적’ 집단 범주를 종합해서 이 개념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서구의 제도 종교가 세속과 분리된 숭배 체계를 갖는 것과 달리 유교는 독자적 신학 체계와 제도화된 교단 조직이 결여한다(Yang, 1961: 294-295; 304-305).

이기는 했지만, 그 구상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것은 1910년 2월 미주 한인 단체의 통합체로 대한인국민회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이미 1908년부터 만주와 노령(露嶺, 연해주)에 파견된 공립협회 회원들이 구축한 항일 네트워크를 기초로 국외 각지의 지방총회를 먼저 결성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1912년 11월에는 그 통합체로 중앙총회의 임원과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과 1911년에 걸쳐 기관지 『신한민보』를 통해 전제군주를 부정하고 인민 정신에 기초한 정부 수립 논의를 전개했다. 이런 점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신한민보』의 일련의 논설에서, 대한 제국 시기에는 유예되었던, 민주·공화정체 수립 구상을 읽어내기도 했다(장규식, 2018: 59). 그리고 거기에는 이주민 자치를 국가 건설의 첫 단계로 간주하는 이론적 기초가 있었다. 경술국치 얼마 뒤에 게재된 『신한민보』의 논설 “대한인의 자치기관”(1910)에는 국외 이주민이 각 지역에서 먼저 실행한 자치 제도를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곧 독립이라는 논리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없는 동시에 정부도 없으며 법률도 없으며 일체 생명·재산을 보호할 기관이 없으니, 우리 동포는 즐겨 적국의 법률을 복종하여 원수의 소와 말이 되고자 하는가. 금일 20세기는 그 정체(헌법공화)가 어떠한 것을 물론하고 자치 제도가 정체 상에 주안(主眼)되는 문제라, 그 백성의 자치할 능력이 있는 자가 결단코 남의 기반(羈絆)을 받지 아니하니, 오늘에 나라가 없어진 것도 우리의 자치 제도가 완전히 못하였던 연고이며 내일에 국가를 회복함도 우리의 자치 제도가 완전한 연후의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급급히 할 바는 일반 국민의 자치력을 배양하며 자치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도다. 그 자치 제도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내가 나의 손으로 법률을 세우며 내가 나의 손으로 법률을 행하며 내가 나의 손으로 세운 법률을 지키며 내가 나의 손으로 행하는 정치에 복종하여 결단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타인의 절제(節制)를 당하지 않는 데 있으니, 동리에는 일동(一洞)의 자치가 있으며 고을에는 일군(一郡)의 자치가 있으며 일도(一道)에는 일도의 자치가 있으며 나라에는 일국(一國)의 자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제군이 목도하는바 미국의 정치를 보더라도 가히 알 일이거니와 우리의 오늘 행할 바의 자치 제도는 일동·일군·일도의 자치가 아니요, 이천만 국민의 자치를 목적으로 장래 신한국의 자치를 더 잡는 일이다. (『신한민보』, 1910년 10월 5일. 현대어 수정은 필자)

이 논설의 전체 요지는 한인 이주민의 자치 기관인 대한인국민회가 “국가 인민을 대표할 총기관”으로 입법·행정·사법의 기관을 두고 자치하는 임시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요지의 정치적 진보성 못지않게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 논설에서 그러한 전환의 근거를 ‘자치’ 원리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자치는 단순히 제도로써 지방자치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한되지 않고 근대 시민 정치의 절대적 기초인 ‘자기 통치’ 원리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논설에서 자치는 “내가 나의 손으로 법률을 세우며 내가 나의 손으로 법률을 행하며 내가 나의 손으로 세운 법률을 지키며 내가 나의 손으로 행하는 정치에 복종”하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한국사를 통틀어 근대 정치 원리로서 자치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다.⁴⁾

자치는 정치 결사체의 통치 질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정치 결사체에서 시민은 스스로 통치하는 자이다. “타인의 간섭”과 “타인의 절제”를 받지 않는 까닭이다. 시민이 피치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스스로 만든 법률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뿐이다.⁵⁾ 논설의 저자는 근대적인 “헌법공화” 정체 곧 입헌·공화정체의 원

4) 한국사에서 최초로 시민 정치 원리로서 자치를 공론화한 것은 『독립신문』 창간 직후인 4호(1896년 4월 14일)와 5호(16일) 연속 논설이다. 한편, 그 전에 『한성순보』 11호(1884년 2월 8일, “歐米地方政治”)에 서구와 일본의 지방자치가 최초로 충실히 소개된 바 있고, 갑신정변 직후 일본으로 도파·망명한 박영효가 고종에 올린 ‘건백서’(1888)에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인 현회를 소개하고 조선에서 실행을 상소한 바 있다(박영효, 1990: 287).

5)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는 시민이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피치자라는 동일성 원칙이 실행되었다(이지문, 2017: 43-44).

리가 정치 결사체에서 시민의 자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서 마침내 ‘아래에서의 자치’를 통한 새 국가 건설과 자치를 통한 새 국가 운영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백성이 자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우리 국민이 자치를 실행할 역량을 갖춘다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마을, 고을, 도시에서의 자치 경험을 통해 자치 능력을 배양하게 되면 마침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해서 시민 자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외 한인의 정착지 자치는 새로 건설할 우리 민족의 국가에서 자치를 실행하는 기초가 된다.

1911년 2월 새로 『신한민보』 주필이 된 박용만은 여러 편의 논설에서 이를 더욱 체계화했는데, 기존 교민 사회 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전체를 정치적 조직의 제도로 편성해서 자치 능력을 발휘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민족 전체를 결집할 정치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 수립 논의는 비록 형질은 없을지라도 정신상의 ‘무형’(無形) 국가를 먼저 세우자는 구상으로 완결되었다(『신한민보』, 1911년 4월 5일; 5월 3일). 이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했던 안창호의 대한인국민회 조직화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대한인국민회 지방총회가 차례로 결성되고 얼마 후 그 총의로 중앙총회 조직 구성까지 완료되면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형체 없는 가정부(假政府, 임시정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주민 자치를 먼저 실천하고 이후 각 지역의 자치 단체가 연합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를 수립한 이러한 역사는 시민 정치가 민주·공화정체 국가 건설의 전제임을 잘 보여 준다.

대한인국민회의 지역 자치를 통한 새 국가 수립 구상이 1770년대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실제 역사에서 착안한 정치적 상상력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인에게 자치는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원리이자 습관이었다. 미국 시민 정치의 기원이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 집단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뉴잉글랜드 정착지라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 분리와 계열의 첫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자치 규약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The Mayflower Compact)인데, 당대의 관용구를 제외하면 이 서약의 유일한 내용은 ‘자치’였다. 영국 국왕의 특허장 없이 건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17세기 뉴잉글랜드 식민지에서 이주민이 건설한 정착지인 타운(town)의 자치는 처음부터 확립된 질서였다. 이런 점에서 타운의 거주민들은 입법과 운영에 참여하는 자발적 통치자였고, 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결합한 결사체(타운)의 법률(자치 규약)에 따를 때는 피치자였다.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민회에 참석해서 정착지의 중요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사소한 사항까지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시민의 전형이었다.

이처럼 이상적인 자치가 가능했던 데는 타운의 시민들이 서로 평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자유인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각 개인은 오직 신 앞에만 책임을 지는 독립된 인간이지만 동시에 동료 시민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호 의존 관계의 존재이다. 자치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까닭에, 시민 정치는 처음부터 온전한 의미에서 시티즌십과 분리되지 않았다.⁶⁾ 자생적 생활 공동체인 타운에서 시작한 자치는 타운보다 더 큰 정치 단위, 곧 카운티(county), 주(state), 그리고 연방(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신분

6) 마샬(T. H. Marshall)이 국가 공동체의 소속 및 자격을 의미하는 현대적인 시티즌십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였다. 마샬은 시티즌십 가운데 ‘권리’의 세 양상으로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제시했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Marshall, 1950; O’Byrne, 2003: Ch. 1). 하지만, 식민지 시기 북아메리카의 자치 지역에서 이미 사회권까지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제와 계급제가 없는 미국 사회가 내면에서 굳게 통합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타운 단위에서 맺어진 결사와 자치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얻는 자유와 협력의 훈련이 크게 기여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청교도적 관습이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면, 식민지 건설 초기인 17세기에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했다(토크빌, 2018: 75). 그리고 마침내 미국인들은 이러한 자치의 원리에 따라 독립혁명을 수행해서 주권재민 원칙에 기초한 새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미주 한인 사회의 경험과 조건을 반영한 대한인국민회의 구상, 곧 자치 기관의 연합으로서 새 국가 건설 계획이 미국의 독립혁명 역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한 항일 유림 집단들이 저마다 1909년부터 1911년 사이에 이미 정착지 자치를 실행하고 이를 새 유교 정치 이상의 실현 계기로 삼으려 했던 정치적 실험의 배경은 언뜻 떠올려지지 않는다. 가장 보수적인 화서학과 의병 유림은 연해주와 북간도의 망명 의병과 이주민을 정치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자치 규약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대적 결사체(단체)를 조직했다. 자강과 의병 경력의 유림이 협력해서 건설한 서간도 한인 이주민 자치는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유교적 공화정체 국가 수립을 위한 시민 정치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가운데 항일 의병 유림 계열의 지역 자치 실험은 시기적으로 대한인국민회보다 1년가량 앞서 있었으므로 애초에 그 구상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와 달리 서간도 망명 유림은 신민회 조직과 연계된 까닭에 이들의 자치에 대한인국민회의 구상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간도 망명 유림이 정착지 자치를 실행한 원리는 선진 유학과 근대 금문경학을 바탕으로 서구 입헌·공화 이념을 수용한 독자적인 개혁 유교의 정치 사상이었다. 실제로 기독교 민족운동 진영 주도로 진행된 1913~1914년 북간도의 민족 자치 시도가 대한인국민회의 지방회 성격이었던 것과도 확연히 구별된다⁷⁾ 그렇다면, 만주와 연해주의 망명 유림의 지역 자치는 애초에 미주 한인 사회와 사상과 조직에서 상이한 원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망명 유림의 자치 실험에 관한 역사적 탐색 그리고 그 지적 원천에 관해 고찰해 보자.

III. 화서학과 의병 유림의 자치, ‘관일약’

1895년의 을미의병부터 1919년의 파리장서운동으로 이어지는 리(理) 중심의 유학사를 보수적 전통주의의 대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정재식, 1991: 256~268; 2005: 39~40), 그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십여 년에 불과한 이 기간에 조선의 유림은 대내외 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분화되어 갔고, 그 가운데 재경·상경 유림을 중심으로 기존 유교 정치 이상을 재해석해서 개혁과 자강의 원리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유림 사이의 동질성과 연속성보다는 차별적인 양상과 변화 시도에 주목해서 유교 사상의 근대적 전환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을미의병의 지도 세력은 ‘중화로서 조선’ 인식에 기초한 위정척사 계열 유림으로 종교성이 강한 유교 보편주의자였다.⁸⁾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見利思義, 見危授命]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 유림의 창의를 엄숙한 종교적 사명이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상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창의를 의병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조선 사회의 지배 세력인 유림은 국권 위기를 불러일으킨 일본인으로 망국의 책임도 져야 했다. 이에 분발한 일

7) 이명화(2014: 40)는 간민회(간민자치회)를 대한인국민회의 지방총회 가운데 하나인 ‘간도지방회’로 파악했다.

8) 이 장에서 의병항쟁의 전개 과정과 그 참여 인물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는 오영섭(1999), 박민영(1998; 2016), 김상기(2009; 2015; 202

0) 등을 저본으로 하고, 그 밖의 출처와 참고 자료는 본문과 각주에 달아두었음.

부 유림은 기꺼이 국권회복의 책무를 짊어지고 기의한 이른바 2차 의병에서, 창의를 주체는 10년 전과 같았지만 그 지향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1895~96년과 달리 1905년의 위기에서는 전통적인 의병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국권회복 시도가 전개되었다. 전통 유림이 상소, 자정순국(自靖殉國), 의군 창의(의병) 등으로 일제와 대결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개신 유림은 배일 언론 활동과 애국·개혁 세력 양성을 위한 자강운동으로 나아갔다. 다만, 1904년 7월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침탈에 맞선 보안회(輔安會) 결성 시점부터 1905년 12월 을사조약 무효화 운동 시점까지 반일 투쟁의 중심은, ‘의병 유림과 개신 유림’의 이분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충군/애국 성향이 혼재된 전·현직 관료 유림이었다. 보수적 근왕·보황 성향의 충군 세력과 개혁 성향의 애국 세력은 1898년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로 나뉘어 경쟁하던 관계였고 이후로도 대립·갈등 관계였는데, 국권상실 위기라는 미증유의 국난 앞에서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운동 방식에 전통적인 상소·자정과 근대적인 애국단체 결성 방식이 혼재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1905년 11월 26일 조병세(趙秉世)를 소두로 해서 심상훈(沈相薰), 민영환(閔泳煥) 등 전·현직 대신이 주도한 입결 연명 상소에 청장년 개혁 관료가 대거 동참한 것은 조직적인 조약 무효화 운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다.⁹⁾ 청년 개혁 관료 가운데는 입헌정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헌정연구회 계열의 애국·개혁 성향 관료 유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헌병·경찰이 이를 탄압하던 와중에 민영환이 11월 30일 자결 순국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조병세와 심상훈 등 30여 명의 전·현직 대신과 청년 관료들이 황제의 조약 철회를 요구하며 고종의 비지(批旨)를 기다리며 표훈원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2월 1일 부득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독한 조병세는 다음날 순국했다. 재조·재야 구별 없이 전개된 ‘표훈원 농성’은 을사조약 무효화 투쟁이 기존의 상소와 순국 등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재경 관료 유림의 조직적 투쟁으로 의미가 있다(이황직, 2025).

개혁 성향의 관료 유림이 주도한 을사조약 무효화 운동과 전통 유림의 상소·자정에서 이 시점의 유림이 과거와 달리 일본의 침략을 유교 문명 수호라는 관념적 문제보다 국가 존망의 현실적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을미의병 시기에 유림은 일본을 양이(洋夷)의 앞잡이로서 중화 문명을 위협하는 한낱 도이(島夷)로 여겼다. 그런데 을사·병오·정미 연간의 의병 유림은 서구 열강의 하나인 러시아를 제압한 일본을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¹⁰⁾ 국망 위기에 닥쳐 이인영과 허위가 주도한 13도창의군(1907~1908)은 서울 진공작전 직전에 각국 영사관에 ‘국제공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에 대해 요청했는데, 이는 유림 의병 세력이 오랫동안 적대시했던 근대적 만국공법의 세계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보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병 유림의 근대적 전환이 내부의 가치 갈등 없이 단기간에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사(前史)는 훗날 보수적 유림 세력의 주류가 3·1운동 전후 마침내 근대적 시민 정치 노선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국망 전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강렬하게 일제에 맞선 항전을 계속했던 보수주의적 유림 의병 세력의 항전을 국내 잔류 의병과 국외 이동 의병으로 분류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국외 이동 의병 세력을 대표하는 화서학과 유림 항일투쟁의 근간인 망명지 자치 활동을 류인식의 사상 전환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다.

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128) 『時局ニ關スル報告』 祕第105號(1905.11.27.) <別紙2>. 상소문과 명단은 ‘한국근대사료DB’. 조병세 외 49명의 명단을 보면, 이들이 당색, 파벌, 지위 등에 얽매지 않고 오직 조약 무효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결집한 전·현직 관료 유림임을 알 수 있다.

10)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박은식의 의병 인식에는 이러한 전환이 반영되었다. “의병이란 것은 곧 민군(民軍)”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에 즉각 의로써 분기”한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였다(『백암박은식전집』 2권: 445).

1. 국망 전후 홍주의병 유림의 항일 투쟁

국내 잔류한 의병 유림에게는 국망 전부터 혹독한 시련이 닥쳤다. 1906~1911년 일제의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 작전’에 사상자 수만 명을 낸 호서·호남 의병 세력은 더는 무력 항전을 이어갈 수 없었다.¹¹⁾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으나 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국내 유림은 1910년대 변화한 정세에 대응하여 비밀결사와 의혈 투쟁 등 새로운 조직 방식으로 전환해서 항일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박결순, 2013). 익숙한 독립운동사의 서사와 달리, 1910년대 까지도 국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한 세력은 여전히 의병 유림과 그 후속 세대들이었다. 호서·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벽을 꿈꾼 호론 계열의 의병 유림과 구한국 애국 관료들이 참여한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가 비밀리에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고, 영남 지역에서는 의병에서 자강운동으로 전환한 혁신 계열 유림과 근왕 성향의 의병 유림이 협력해서 조직한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의혈 투쟁이 진행되었다.¹²⁾

의병 유림 가운데 일부는 국망 전부터 근거지를 국외로 옮겨 장기적인 항전을 준비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류인석과 화서학과 유림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홍주의병과 13도창의군 가운데 일부 등 다양한 학맥의 유림 의병이 집단 또는 개별로 항일투쟁을 위해 망명 대열에 합류했다. 국외 망명 유림은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점차 서구의 정치체제와 이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자강운동으로 전환한 혁신 유림과 신민회 계열과 관련 있는 애국·개혁 유림은 자유·평등의 정치 이념과 입헌·공화 정치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4장 참조). 다만, 개혁 성향의 망명 유림도 복국(復國)을 위해서 ‘무력 항전을 통한 국권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의병 계열의 망명 유림과 협력 관계로 전환했고, 장기적 항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국내에 잔류한 보수적 의병 유림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갔다. 국외 망명 유림과의 협력 관계는 국내 잔류 의병 세력이 고립되었다거나 외부 세계의 변화에 동떨어졌다는 오해와 달리 실제로는 점진적인 자기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망명 유림과의 관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홍주의병 유림 세력의 국망 이후 동향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홍주의병 주도 유림은 1919년 파리장서운동 시점까지 전통적 화이관을 고수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홍주의병 세력의 정치 의식 변화는 1906년 2차 창의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 1896년의 1차 홍주의병은 국모 시해에 대한 복수설치와 변복·단발령에 반대하는 준화양이의 기치로 창의를한 데 반해, 1906년 민종식(閔宗植)과 안병찬(安炳瓚)이 주도한 2차 홍주의병은 을사조약 무효화를 목적으로 창의를한 데 차이가 있었다. 격문과 통문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다른 지역 유림의 거병을 촉구한 데서 그치지 않고, 홍주의병 지도부는 한성 주재 각국 공사에게 독립청원서를 발송했을 만큼 근대적인 국제 질서를 수용하고 있었다(김상기, 2020: 100). 이후 홍주의병 유림과 그 후예들은 김복한(金福漢)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기호 지역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임경호(林敬

11) 일본군이 남긴 『조선폭도토벌지』는 1906~1911년 사이 순수한 의병 사상자만 무려 21,485명에 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은 의병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활동 지역의 마을을 모두 불태웠는데, 1907년 7월부터 약 1년여간 6,681호가 사라졌다고 한다(조동걸, 1989: 212~213).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무장한 의병으로 피살된 자가 10여만 명”이었다고 서술했는데(『백암박은식집』 2권: 494), 일본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군의 의병 학살 기록은 매우 축소된 것이고, 실제 의병 집단의 피해는 기록된 것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상기, 2009). 실제 의병 사상자는 수만 명 정도일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유림 의병장들이 대거 순국하거나 체포되는 1909년 이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지휘하면서 주축 세력의 교체와 유교 지도 이념의 약화라는 성격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후속 세대의 대결 의식의 기저에는 여전히 유교 정치 이상이 작동하고 있었다.

12) 연구 목적과 범위의 제한으로, 대한독립의군부, 민단조합, 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 등 의병 유림이 관계한 1910년대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은 생략한다. 이에 관해서는 남부희(1994), 신규수(1999), 이성우(2007; 2014), 권대웅(2010), 경상북도경찰부(2010) 등을 참조할 것.

鎬, 임승주의 자)를 연락책으로 삼아서 이상설과 이회영 등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유진태와 이득년 등 재정 개신 유림을 통해서 국내 민족운동 진영과 협력할 수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1918년 고종 망명 계획과 1919년 파리장서운동에서 실제로 작동했다.¹³⁾ 다만, 홍주의병 주축으로 생존한 유림은 1910년대 대한독립의 군부의 실패 이후 대체로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홍주의병 출신으로 애국·개혁 유림으로 전환해서 일찍이 국내 자강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도 있었다. 1차 홍주의병에서 초명인 김홍제(金弘濟)로 활약했던 김광제(金光濟)가 대표적이다.¹⁴⁾ 김광제는 1차 홍주의병 패배 직후 스승 황재현(黃載顯)이 이세영과 함께 재차 창 의한 남포의병에 참여한 무관 출신 유림이었다. 이후 김광제는 개신 유림으로 전환해서 1906년부터 대구 광문사 사장을 맡아 교육·출판을 통한 자강운동에 헌신하던 중 1907년 벽두에 부사장 서상돈(徐相敦, 가톨릭)과 함께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의 출발점이 지역 주민의 자치 활동과 이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광제는 국채보상운동 전인 1906년에 이미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 기구로 대구(경북)에 인민대의소(人民代議所, 민의소 또는 대의소 등은 약칭임)를 설립해서 국권회복의 방책으로 “자치·자강”(自治·自強)을 제기했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26일). 김광제의 자치 논의는 이듬해 국채보상운동의 전국화 과정에서 결성된 각 지방의 국채보상회 다수가 무력한 군주와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이 주권을 대행해서 국권 회복의 주체가 되겠다고 결의하도록 이끌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대구(경북) 인민대의소의 경우처럼 민의소(民議所)를 결성해서 자치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¹⁵⁾

홍주의병 주축 세력인 호른 계열 유림과 학맥상으로 거리가 있었던 이세영(李世永)은 망명 항일 유림의 길을 걸었다.¹⁶⁾ 충무공 이순신의 12대손으로 아산에서 태어난 이세영은 1894년 충남 정산 관현(현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으로 이사 직후 유회군(儒會軍)을 조직해서 충남 서북부에서 봉기한 동학 농민군을 격퇴했고, 이를 계기로 을미개혁의 변복령에 반대해서 거병을 준비하던 홍주 유림과 함께 창 의해서 1895년 12월의 1차 홍주의병과 후속 남포의병에서 전투를 지휘했다. 가문과 의병 경력을 배경으로 이세영은 고종 친정 체제의 대한제국 군대에 임용되어 1902년에는 헌병대장 서리에 이를 만큼 충성스런 무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세영은 1906년 2차 홍주의병에서도 참모장과 중군장을 맡아 홍주성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일본군에게 패전하고 체포되어 황해도 황주 철도(鐵島)로 종신 유형에 처해졌다. 이때 함께 유배된 화서학과 유림 의병장 전덕원(全德元)과 결 의해서 평생 동지가 된다.¹⁷⁾ 1908년 해배 직

13) 조선 유교는 성균관과 향교라는 공식적 조직 체계 대신 학동을 공유하는 인물의 네트워크인 학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네트워크는 구한말 유림 의병의 창 의와 초기 독립운동에서도 작동되었다. 보수적인 유림 세력의 운동 네트워크 작동 방식은 타 독립운동 세력의 근대적인 단체 결성 방식만큼 항일투쟁에서 효과적이었다. 다만, 단체와 조직 중심의 독립운동사 서술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을 뿐이다. 한편, 유교와 서구 종교의 교단 체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Yang(1961: 294-295, 304-305)을 볼 것.

14) 김광제의 청년기 시를 수록한 『석람시고』(石藍詩稿)에 실린 시 “심진”(心陳)에 당시 남포전투에 나선 의진의 기세와 의리가 잘 드러나 있다. 청년기 김광제의 유회군과 의병 참여에 관해서는 김형목(2015)을 기초해서 서술하고 덧붙임.

15) 충청남도 태안군 안민도(현 안면도)의 국채보상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안민도민의소가 대표적이다. 지방 민간 자치단체의 연합을 통한 애국적 주권 행사 논리는 안민도민의소의 ‘국채보상 발의문’(『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2일)을 따름.

16) 이하 이세영의 의병과 독립운동 관련 서술은 이성우(2022)를 따르고, 공교회 활동에 관해서는 서동일(2016)을 따름. 이성우(2022)는 이세영이 1939년까지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古狂年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서동일(2016)은 학동·학맥을 넘어서 망명 유림의 연대와 한인 자치 지향과 관련해서 동삼성한인공교회의 활동을 분석했다.

17) 전덕원은 류인석의 문인으로 화서학파의 관서 창의를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황주에 유배되었다. 1912년 만주로 망명해서 대한독립단, 대한통군부, 의군부 등 의병 조직의 지도자로서 만주뿐만 아니라 국내 진공을 통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명성이 크게 활약했다. 전덕원, 조맹선 등 화서학과 의병 유림은 1920년대까지도 북벽주의 성향을 유지했을 만큼 전통적인 유교 정치 이상을 고수했다. 1922년 남만주의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해서 대한통군부(이후 대한통의부)로 확대해 가는 와중에 전덕원은 대한독립단의 북벽주의 계열을 이끌고 이탈해서 대한의군부를 조직해서

후 이세영은 정산 관현에 성명학교(誠明學校), 인근 부여에 신명의숙(信明義塾)을 설립하면서 교육·계몽운동 흐름에 동참했다. 1909년에는 대한협회 은산지회 설립에 나섰는데, 이는 같은 해 이상룡, 류인식, 김대락 등 경북 북부(정재학과) 유림의 대한협회 안동지회 설립 그리고 김창숙 등 경북 남부(한주학과) 유림의 대한협회 성주지회 설립 등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안동의 혁신 유림이 의병에서 자강운동으로 구국 노선을 전환하면서 국외 망명 전후 능동적으로 입헌·공화 사상을 수용해 간 것과 달리, 이세영은 근왕·복벽 성향을 유지한 채 홍주의병과 태인의병(최익현, 임병찬) 세력이 주도해서 비밀리에 결성한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에 관여했다. 1913년 4월 대한독립의군부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이세영은 서간도의 이회영을 비롯한 망명 유림과 연락하면서 그해 6월 중국 안동으로 망명했다. 이세영은 한주학과 유림 이승희의 동삼성한인공교회 설립에 초기부터 관여했고, 함께 공교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노상익(盧相益), 안효제(安孝濟) 등 안동현 접리수 한인촌 망명 유림을 비롯한 다양한 학맥의 망명 유림과 함께 남만주 일대의 망명지 자치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1916년 신흥강습소(1917년 신흥학교 개명) 소장 서리를 시작으로 1919년 8월 신흥학교 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3년간 신흥무관학교를 맡아 독립군을 양성했고, 1919년 3월 국외 독립운동의 거두들이 연서한 ‘무오’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이후 서간도 일대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해서 한족회 결성을 주도해서 한인 자치를 실행하고 동시에 군정부 사령관을 맡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았다.

2. 화서학과 의병 유림의 국외 망명

1907년과 1908년 사이 의병 유림 세력이 이인영과 허위의 13도창의군으로 창의를 한 데 반해, 의병 유림 일부는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서 서·북간도와 연해주로 북상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세력은 류인석을 필두로 한 화서학과 계열의 의병이었다. 이진룡, 조맹선(趙孟善), 양제안(梁濟安), 전덕원, 박장호(朴長浩), 백삼규(白三圭)의 유림 의병은 그 주축이었다. 이에 합류한 이남기(李南基), 김정규(金鼎奎) 등 관북 유림도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세력이었다.

그런데 국외로의 이동은 의병의 활동 전략과 목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창의를 목표에 동조하는 지방의 유림과 백성에게서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사정과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고난 끝에 정착한 이주민 사회에서 보수적 유교 정치 이상을 따르는 유림 의병을 따르는 세력은 많지 않았다. 특히 북간도에는 대중교의 창시자 나철(羅喆)을 비롯한 유력 인물 다수가 망명해서 포교와 민족교육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었고, 유림 출신의 유력 인물들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 민족운동 세력의 자치 조직 건설에 협력하고 있었다. 국경을 넘자마자 유림 의병은 더는 자신들의 도덕적·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제 유림 의병은 다른 세력과 공존하며 대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거꾸로 유림 의병은 자신들이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 스스로 망명의 의미를 설득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외 망명 유림에게 국권회복은 더는 일회적인 전면 전쟁으로 달성할 단기 목표가 아니라 국외 정착지 이주민과 결합해서 내부 역량을 키우고 이념이 다른 운동 세력들과 연합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림 의병의 보수적 이념과 사회관도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 민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세영은 대한통의부 군사부장으로 직접 의용군을 이끌고 진압에 나서서 옛 동지 전덕원을 체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이성우, 2022: 118-119).

라 주체성을 갖는 운동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절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유림 집단이었던 화서학과 의병이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한 변화를 아직 초기 단계의 유교적 시민 정치로 나아가는 한 계기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화서학과 의병의 지도자였던 류인석의 말기에 이루어진 사상적 전회를 시민 정치 관점에서 재해석할 것이다.

류인석은 1842년 춘천에서 태어나 13세부터 화서학과 문하에 들어 수학했다. 1868년 이항로가 별세한 이후, 화서학과와 의병의 두 거목인 김평묵(金平默)과 류중교(柳重敎)에게 수학하면서 점차 화서학과와 의병의 적통을 이을 인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시작으로 척화론을 본격적으로 주창했다. 1895년 겨울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후 문인들과 거병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1896년 2월 충북 북부와 강원 지역의 유림을 규합해서 창의를 했다. 제천의병 패배 직후인 9월에 류인석 의진은 압록강 건너 서간도 일대에서 ‘결원청국’(乞援淸國)하며 의병 거점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해 10월 통화현 오도구(현재 통화시 유하현 오도구향)에서 수의(守義)하던 중 회인현을 거쳐 1897년 8월(음력)에 귀국하는 것으로 1차 망명을 끝냈다. 1898년 윤3월에 신변 위협에 따라 다시 통화현 오도구로 망명해서 팔왕동(패왕조)으로 이거했으나 1900년 의화단의 난을 당해서 1900년 평안북도 강계로 귀환하는 것으로 2차 망명을 마쳤다. 이후 류인석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지역 유림에게 화서학과 의병의 종지를 전했다. 1907년 재차 창의를 했으나 연합 의진의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장기 항쟁을 위한 국외 기지를 탐문했다. 1908년 러시아 연해주 일대로 망명해서 의병운동을 지도해서 이범윤(李範允), 이상설, 이남기, 이재운 등과 함께 항일 의병의 통일 조직인 십삼도의군을 결성하고 도총재로 추대되었다. 국망 후에도 연해주에서 항일 활동을 계속하다가 1914년 3월 서간도로 떠나 1915년 1월 29일(음력) 서세했다.¹⁸⁾ 의병을 지휘하면서 서도 유교 교육을 병행하면서 『소의신편』, 『우주문답』 등 많은 저술을 남겼고, 문인들이 유고를 모아 54권 29책으로 『의암집』을 간행했다.

류인석은 위정척사·존화양이 노선을 고수하면서도 국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옛 노선과 사상을 변화시켜야 했다. 본래 화서학과 유림은 서세동점에 맞서 성리학에 내재한 종교성을 학문과 실천 양면에서 강화했다(김장태, 2001: 110-114). 이항로는 공자의 『춘추』 편술에서 파악한 존화양이의 책무에 따라 난적을 토벌한 후에 비로소 군신과 부자의 도가 들어설 수 있다고 강설했다. 『주역』 12벽괘(辟卦) 가운데 박(剝, ䷖)괘 상구효(上九爻) 효사(爻辭)의 ‘석과불식’(碩果不食), 곧 ‘으뜸 과일은 먹이지 않는다’는 믿음은 그 자연순환론적 뒷받침이었다.¹⁹⁾ 박괘는 음의 세력이 점차 치솟아 올라서 맨 위 우듬지 ‘한 줄기 양의 기운’(一脈陽氣)을 지키고 있는 형상이다. 이때 마지막 양효를 기자(箕子) 이래 중화의 정통을 계승한 ‘조선’으로 해석하면, 조선은 중화 문명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갖게 된다. 박괘를 이어 순음(純陰)의 세계인 곤(坤, ䷁)괘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순환의 이치이니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이미 박괘의 석과는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그것이 곤괘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복(復, ䷗)괘로, 이는 절망적인 어둠을 이겨낸 문명이 부활하는 새벽을 상징한다. 요컨대, 12벽괘의 순환이라는 보증을 통해서 이항로는 비록 양의 힘에 중화가 유린당할지라도 이에 맞서면 반드시 문명을 수호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춘추』의 존화양이론과 『주역』의 형이상학을 결합한 이항로의 논리는 이후 화서학과 문인들이 공유하는 종교적

18) 류인석의 서간도와 연해주 망명 활동에 관한 서술은 박민영(2016, 특히 1~2장)을 따랐다.

19) 『華西先生文集附錄』 卷之二, ‘金平默錄 二’. “孔子生. 作春秋. 尊周攘夷. 討亂誅賊. 然後君臣父子之道. 得以不墜於地矣. (……) 剝之爲卦. 有碩果不食之爻. 則一陽猶有存者. 坤之爲卦. 天地已閉矣. 詎有一點子陽氣哉. 然而聖人嫌於無陽也. 曰龍戰于野. 以明陽之終未嘗無也. 此非知道者. 孰能信之. 孔朱當剝之時. 其事較易. 宋子當坤之時. 其難又有甚焉.”

절대성을 보증하는 교설로 자리했다. 예컨대, 최익현은 척화 상소에서 석과불식을 근거로 조선 중화의 책무성을 강조했고,²⁰⁾ 또한 화서학과 유림의 창 의 논리에서 석과불식 논리는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²¹⁾ 류인석이 국망 이후 망명지에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맥양기를 보존할 책무를 강론하며 의병 항쟁을 이어간 데도 종교적 절대성을 갖는 화서학과의 존화양이론이 작용했다. 류인석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변고를 겪고 나서 ‘처변삼사’(處變三事)를 강론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自靖遂志), 망명하여 옛것을 지키든지(去之守舊), 거병하여 적을 소탕하든지(舉義掃清) 하라는 것이다(『국역 소의신편』: 77-79).²²⁾ 죽음으로 절의를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류인석은 “천지의 양맥(陽脈)이 끊어지고, 중화의 맥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나라를 부지하고 도를 보존하는 것, 금수(禽獸) 됨을 벗어남,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국역 소의신편』: 79-81)을 목표로 창 의 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류인석과 화서학과 특유의 양/음, 중화/오랑캐 등 선명한 이분법적 구도는 보수적 유림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서구 열강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 맞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기초로, 류인석의 의병 항쟁에서 의기와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가 화서학과의 화이관을 고수한 까닭에 보수적인 정치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항일투쟁에서도 근대적 민족주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그의 의병 항쟁을 일관하는 ‘사상’은 전통적인 유교 정치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망 전후 가장 강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에서 자기 세력을 거의 갖지 못했던 류인석이 지도적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충군 성향의 전 간도관리사 이범윤 계열과 관북 유림 의병 세력이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연해주 한인 사회의 주류는 신민회 계열의 항일 민족 세력과 근대적인 정치 의식을 갖춘 토착 이주민 세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류인석의 명망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 이들이 그를 지도자를 내세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사상 변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들과 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류인석이 근대적인 독립운동 체계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존화양이론을 수정하려 했던 노력 덕분에 연해주의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의 통합적 항일투쟁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1900년대 초반 양서(평안·황해)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유림을 지도할 때도 류인석은 여전히 완고한 전통주의자였지만,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특히 1908년 연해주로 이동하면서부터 류인석은 과거 의병운동의 논리와 방식으로 더는 국외 민족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변화하는 정세와 다양한 계층의 세력들을 아우르려면 이들을 설득할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다. 1908년 무렵 결성 작업을 마치는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했던 바로 그 시기에 류인석 의진도 연해주를 의병 근거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1908년 초에 망명을 실행했다. 1908년 7월 최재형과 이범윤의 수천 명의 의병이 함북 경성에서 창 의 한 김정규, 이남기, 서상옥(徐相郁) 등의 관북 의진과 함께 두만강을 넘어 진격해서 경흥, 경원, 온성, 회령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국내진공작전의 실패 이후 위

20) 『勉菴先生文集』 卷之三, ‘持斧伏闕斥和議疏’. “獨我箕封一區. 憑藉祖宗之威靈. 不失好惡之正性. 譬則剝之上九. 碩果之象也. 若舉此一區之臣民. 而納之禽獸之域. 爲純坤無陽之世界. 則是豈仁人君子之所忍爲乎.”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유독 기자가 세운 우리나라 한 지역만이 조종(祖宗)의 위엄과 영기에 힘입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바른 천성을 잃지 않았으니, 비유하건대 박괘 상구효 석과의 형상과 같습니다. 이에 이 나라 백성을 들어다가 금수의 지역에 헌납하게 되면 순전한 곤괘의 양이 없는 세상이 되니, 이를 어찌 인인·군자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21) 『昭義新編』 卷二, ‘雜錄’. 류인석, 『국역 소의신편』(의암학회, 2006), 79~81쪽. 이후 『국역 소의신편』에서 인용 출처는 본문에 ‘『국역 소의신편』: 쪽수’ 형식으로 표기함.

22) 원문은 『昭義新編』 卷二, ‘雜錄’.

축되고 분열된 의병 세력을 다시 통일하기 위해 류인석은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를 모두 아우르는 항일 의병 세력을 규합하여 1910년 6월 십삼도의군을 조직하고 도총재로 취임했다. 십삼도의군 조직은 1910년 8월 국망 직후 성명회(聲明會)의 합병 반대 운동과 1914년 성립된 대한광복군정부로 계승되었다.²³⁾

3. 류인석의 망명지 자치, ‘관일약’

유교계의 시민 정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류인석이 십삼도의군 조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1909년 음력 7월경에 시행한 의병 결사체인 관일약(貫一約)이다. 관일약은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 변경 한인들을 항일 의병으로 조직하기 위해 결성한 자치 기관으로, 규약 이름에서 유교 전통의 향약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사실 류인석은 1898년 서간도 통화현으로의 2차 망명 시점에 “주민교화와 항일투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향약 조직을 원용”했다(박민영, 2019: 277). 1900년 봄에 시행한 통화현 팔왕동 향약은 이주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빈궁을 피해 국경을 넘은 농민들이었으므로 예속에서 벗어난 것은 부랑자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류인석은 그들 가운데서도 “항심(恒心)이 있는 사람”은 모두 향약 약원으로 받아들여 효제·충순의 교화를 이역에서도 펼쳤다(『국역 의암집』 1권: 306; 『국역 의암집』 6권: 401).²⁴⁾ 당시 약장(約長)은 평안도 객산 출신으로 회인현으로 이주한 가난한 선비 최응겸(崔應謙)이었고, 류인석은 불과 17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 그의 딸을 기리는 비문을 지었다(“최열부표적비”(崔烈婦表蹟碑), 『국역 의암집』 6권: 9).

‘연보’(『穀菴集』 卷55)에 따르면, 2차 귀국 활동기인 1904년에 류인석은 최익현과 더불어 향약을 전국화해서 재조·재야 유림을 아우르는 전국적 규모의 항일 유림 조직으로서 향약 조직화를 구상했다. 서울에 도약소(都約所)를 두고,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도헌(都憲)과 유사(有司)로 삼아 각 도와 읍·면·리에 약소를 두어서 여씨향약의 4대 강목을 실천하고자 했다. 1904년의 전국적 향약 조직화 계획에서도 “귀천을 막론하고” 약원으로 받아들여 명부에 기록해 두고자 했다. 그런데 전국적 향약 구성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류인석은 이소응(李昭應)과 이정규(李正奎)를 통해서 제천 한 지역에서 먼저 향약을 설치했다. 제천 향약의 류인석 강회에 천여 명이 약원들이 운집했는데(『국역 의암집』 1권: 554-557), 신분제의 제약을 넘어서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성취였다. 이미 두 차례의 향약에서 신분제의 한계를 넘어서 도덕적 교화와 위기 극복만을 강조했던 경험이 1909년 연해주의 관일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무엇보다도, 유교 정치의 시민적 전환 측면에서, 이주민 정착지 내에서의 평등한 사회관계 덕분에 관일약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당사자 간의 자치 계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유림·양반이라는 신분상의 우월함과 위세가 무력해진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현된 속성으로, 우월한 일방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속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국과 의병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술적인 고려 때문인 것은 물론이지만, 서구 민족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신분제로부터 개인을 해방해서

23) 1909년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류인석 의병 계열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 안중근은 자신을 ‘팔도총독 김두성’이 파견한 특과독립대장으로 자처했는데, 류인석을 보호하기 위해 김두성이라는 가명을 만들어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안중근에게 거사 자금을 제공한 이진룡이 류인석 문하의 의병장이라는 점, 이진룡이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뒤 거주한 곳이 류인석의 『소의속편』을 편찬한 의병 유림 백삼규(白三圭)의 집이었다는 점 등에서 안중근과 류인석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민영, 2019: 130).

24) 이는 2차 귀국 직후 무고에 대한 류인석 진정서(“情辭還到畿甸情辭”)에 등장한다. 해당 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方設鄉約, 盖先寓人多是浮浪無法, 間有恒心人, 不能自持苦懇, 爲此而相安. 且天下禮樂蕩壤之時, 行得我列聖所飭, 先賢美規, 自是好事故設之, 是則不忍棄同胞, 偕正維持之道也. 約規以敦孝悌於家, 效忠順于國爲本. 其爲忠順則謹守先王禮法, 格貢力役之征, 此在異域, 不失爲民之道也.”(『穀菴集』 卷4, ‘情辭還到畿甸情辭’(庚子十月)).

평등한 관계의 국민으로의 통합을 촉진한 것과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²⁵⁾

이러한 여러 차례의 향약 조직화 경험을 바탕으로 류인석은 1909년 연해주에서 관일약을 결성했다. “관일약 서문”에는 취지와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관일약은 어찌하여 하는가. 부득이해서이다. 어찌하여 부득이한가. 지금 도이(島夷, 일본)의 재앙이 나라가 망하고 도가 없어지고 몸이 보전되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는 극한 데까지 이르렀으므로 이 약(約)을 하는 것이다. 이 약은 장차 재앙을 면하기 위함인데 그만둘 수 있겠는가. (……) 4애(四愛, 곧 愛國, 愛道, 愛身, 愛人)를 하나로 일관할 따름이다. (……) 약은 약속이니 마음을 약속하면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고 중인(衆人, 여러 사람)을 약속하면 중인을 하나로 할 수 있다. 약은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까닭이니, 오늘의 일은 첫째도 관일약이요 둘째도 관일약이다.²⁶⁾

인용문에 보이듯이, 관일약은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대등한 관계의 독립된 인격 사이에서 여럿이 동시에 수행하는 약속으로 작동한다. 연해주의 관일약과 조선의 향약은 성리학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궁극적 지향 측면에서는 전통주의적 속성을 공유한다. 이는 관일약에 실제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일약약원록”(貫一約約員錄)에는 1909년 음력 7월 1일 처음 입약한 류인석 등 9명이 등재된 이후 1914년까지 총 121명의 성명, 자, 생년, 본관, 망명 전 거주지, 입약일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약원 가운데 경력이 확인되는 인물은 거의 모두 류인석의 화서학과 유럽이거나 그에 동의하는 관북 의병과 유럽 인사들이었다.²⁷⁾ 류인석의 관일약을 일러 사(士) 중심의 유교 전국화 조직으로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일면 타당한 이유이다(강재언, 1983: 특히 7장).

다만, 국망 위기라는 시점과 국외 이주민 정착지라는 연해주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유럽·양반이라는 신분상의 우월함과 위세가 사라지면서 비의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이주민 정착지 내에서의 평등한 사회관계 덕분에 관일약의 약속은 우월한 일방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치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관일약으로 통합해서 힘을 배양한다면, 의병 세력이 본국에 왕조를 복원하려는 계획도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관일약 시행 이후 류인석은 더 적극적으로 구국단체 결성을 통한 세 확대의 필요성을 임원들에게 알렸다. 류인석은 관일약 임원에게 쓴 편지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나의 땅은 한국(韓國)입니다. 나의 종족은 한족(韓族)입니다. (……) 우리 대한이 회복된 연후에 나는 국가가 있는 백성이 되고 나는 종족이 있는 사람이 되니, 살아도 우리 대한을 회복하는 일만 있을 뿐이고 죽어도 우리 대한을 회복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 일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는 단체를 결성(結團體)하는 것이 최고 상책이고 무기를 갖추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말로는 불가하고, 무기를 갖추는 것은 수십·수백의 세력과 살림으로도 불가합니다.²⁸⁾ (“경시제임원,” 『국역 의암집』 4권: 431)

25) 민족주의와 개인,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이 된 논의로 콘(1974: 22-30)의 논지와 이를 확장한 진덕규(1983: 특히 6장)의 논의를 볼 것. 근대 민족주의 전개 과정에서 집합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구성원 개개인 또는 집단 간의 차이를 수용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민족주의와 근대 시민 정치가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Calhoun, 1997: 93-100).

26) 『穀菴集』 권42, 序 ‘貫一約序’. 박민영(2016: 65)의 역문을 따름.

27) 구완희(2017: 315-319)가 정리한 “관일약약원록” 원문과 참여자 명단을 바탕으로 분석했음.

28) 이하 『국역 의암집』에서 인용은 류인석, 『국역 의암집』(춘천: 의암학회, 2006-2010)을 따르고 필자가 역문 일부 수정함. 『국역 의암집』에서 인용은 ‘『국역 의암집』 권수: 쪽수’ 방식으로 표기함. 원문은 『穀菴集』 권36, ‘警示諸任員’. “吾土韓國也. 吾種韓族也. (……) 我韓復然後, 吾爲有國之民. 吾爲有族之人, 有生復我韓而已, 有死復我韓而已. (……) 濟事之策, 結團體太上也. 備器械其次也. 結團體, 不可以一兩人言, 備器械, 不可以百十柄計.”

따라서 관일약은 향약이라는 유교 공동체로 제한될 수 없었다. 관일약이 유교 정치를 복원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만, 이는 국권회복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관일약이 실행 과정에서 약원 확대를 위해 애도(愛道)보다 애국(愛國) 중심의 단체로 나아가게 되는 까닭이었다. 류인석이 안중근 의거 이후 위기에 처한 관일약을 재정비해서 거사의 의지와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약원들에게 보낸 편지(1910년 2월 10일)에는 이러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청과 러시아 양 지역에 거류하며 왕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뒤집어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기만 하면, 또한 모두(관일약에) 입약시켜 형세를 성립하게 한다. 형세가 이루어지면 이익이 생기고 거사 이후에 한 읍을 거수(據守)하면 들어올 만한 자는 들이고 두 읍을 거수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여, 여러 읍과 여러 도에 이르러 수시로 거수하고 수시로 들어서 전국에 미치게 하면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형세가 장대하게 되어 병제(兵濟) 이외에도 또한 무한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황건봉시약중제현,” 『국역 의암집』 4권: 427).²⁹⁾

청과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을 관일약에 받아들여자는 류인석의 제안은 세를 형성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북상한 의병 유립 등 동조자 집단만으로는 관일약을 확대할 수 없었다. 1909년 8월 이후 반년간 관일약에 입약한 이는 채 4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³⁰⁾ 이런 상황에서 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배왜(排倭)·복국(復國)의 주체가 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일약 약원으로 받아들여야 했다.³¹⁾ 따라서 관일약 입약의 전제는 ‘마음가짐’이다. 애국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 먼저이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꿰는 것은 그다음이다.

이를 위해서 연해주와 만주에 정착한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용할 유교적 실천론을 제시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척사론을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윤대식, 2002: 87-90). 류인석 만년의 저작인 『우주문답』(宇宙問答, 1913)은 척사 유립의 저항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유교 이상의 근대적 혁신과 독립운동을 연결하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탄생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적인 논리는 여전히 화서학파의 사유를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답이 없는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질문’이 포함되면서 성리학적 사유는 근대적 민족주의와 접합해서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우주문답』 저술 직전에 동아시아 질서가 격변했는데, 중원에서는 신해혁명(1911)으로 만주족의 지배가 끝나고 한족 국가 건설이 시작된 데 반해 중화로서 조선은 섬 오랑캐 일본에 의해 멸망했다. 스승 이항로와 선배 최익현이 발전시켰던 존화양이의 원칙과 자부심이 더는 통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의병과 이주민을 위해서 류인석은 주자, 송자, 화서의 전통적 유학 사상이 근대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해야 했다. ‘문답’ 형식으로 저술한 것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29) 『毅菴集』 卷36, ‘荒見奉示約中諸賢’. “(約事繫關) 淸俄兩地居留往來之人, 苟非反覆害事者, 亦皆入約, 致勢成立, 勢立則利生, 舉事以後, 據一邑則入其可入者, 據二邑則如之, 至於諸邑諸道, 隨據隨入, 以及一國, 無不入可入者. 如此則致勢張大, 兵濟以外, 亦有無限好事矣.”

30) 관일약 입약 인원과 일시는 구완회(2017: 311-312)의 “관일약약원록” 분석을 따름.

31) “의안이 지위가 높고 낮은 여러 사람(大小衆人)에게 통보되어 무릇 왜를 배격하고 무릇 나라를 회복할 사상이 있어서 의로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함께 이름을 적고 마음을 모으고 널리 합쳐서 사업을 이루려는 것이요, 이를 온 나라에 미쳐 반드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약한 것이다.”(『국역 의암집』 4권: 225-226). 필자 수정. 원문은 “義案通大小衆人, 凡有排倭復國思想, 可同義事者, 同錄結心, 普合成務, 推及一國, 期必有事.”(『毅菴集』 권32, 雜著 ‘散言’). 하운서(2021: 256-267)는 이를 정명(正名)의 실천 의식으로 보는데, 정확히 말하면 ‘의병’의 ‘의’를 기존의 특수주의적 신분 윤리에서 끌어내서 보편주의적 책임 윤리(곧, 국가적 사업에의 복무)로 전환해서 그 뜻을 바로 세우려 한 것이다.

류인석과 화서학과 유림 의병은 끝까지 복벽론의 정치 이상과 중화론의 문화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이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시의를 따른 변통이었을 뿐 근본적 변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근대적인 정치 관념을 수용한 사상적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류인석의 후기 사상은 구한말 항일과 보수를 겸해야 했던 유림 의병이 고난 끝에 도달하게 된 사회의식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08년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장기적인 저항을 위해 연해주로 이주한 이후 류인석은 유교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일약을 결성해서 의병과 정착지 주민들의 자치와 항쟁을 도모했다. 대등한 사회관계를 전제로 맺어진 자치 계약으로서 관일약은 주민이 항일의 주체로 자각하게 하는 도덕적 정치적 계기를 제공했다. 국망 이후 변화한 정세에서 류인석은 화서학과와 정치와 문화 이상을 수정해서 중국과 조선의 대등한 관계와 현실적인 국리민복을 중시했다. 비록 시민 정치를 수용하는 근대적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류인석은 보수적인 유교 체계 내에서 변화에 대응한 운동 방식과 논리를 제공해서 훗날 식민지 시기 정통 유림이 민족운동과 시민 정치를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IV. 혁신 유림의 자치 - 김대락의 공리회

대체로 개신 유림은 옛 독립협회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애국·개혁 성향의 유교 지식인 집단으로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 위기 국면에서 입헌정체 도입과 교육구국의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자강운동 계열의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지속해서 의병의 항일투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혁신 유림은 뒤늦게 의병 항전 노선에서 개혁 노선으로 전환한 경북 북부 지방의 유림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신학문을 가르칠 학교를 설립하고 자강운동 단체의 지회를 설립하면서 지역 유림 사회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서구 문화 유입으로 인한 유교 전통의 해체 위기로 인식한 보수적 의병 유림 세력이 신학교를 습격해서 교사를 처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 사건 직후 경술국치가 이어지면서 혁신 유림은 새로운 항전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그런데 국망의 참담한 사태를 전후해서 국외 망명한 개신 유림과 혁신 유림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들과 다른 경로로 망명한 의병 유림과 접하면서 이들의 목숨을 건 항전 방식을 수용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국외 망명한 의병 유림 집단도 개신·혁신 유림의 집단 망명을 통해 이들의 진심을 수용하고 함께 항일투쟁을 모색했다. 이렇게 의병 유림과 애국·개혁 유림이 협력해서 망명·이주 한인 사회의 자치를 기반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협력했다. 1919년 3월 미주, 북경, 상해, 서·북간도, 연해주를 포괄해서 최고 독립운동가들이 선포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 서명자 가운데 다수가 유교 계열이었는데, 그 가운데 구한말 일찍이 근대적 전환을 수행한 개신·혁신 유림뿐만 아니라 화서학과 유림 의병을 비롯한 다양한 보수적 유림 계열 의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망 직후 이른바 ‘안동 혁신 유림’이 이회영 일가의 서간도 망명에 동행하게 된 것은 유림 독립운동사의 출발을 알렸다는 것뿐 아니라 유교 정치 이상의 근대적 전환과 유교 계열의 시민 정치 실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혁신 유림을 출현하게 한 배경으로 구한말 자강운동에서 유림의 근대적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안동의 혁신 유림이 신민회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동참해서 서간도에 경학사(耕學社)와 신흥학교(신흥농습소,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룡(李相龍)과 김대락(金大洛) 등의 활동

과 저술을 중심으로 안동 혁신 유림이 망명 정착지에서 근대적 시민 정치를 실행한 내용과 그 유교적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1. 구한말 안동 유림의 근대 정치사상 수용

구한말 유림의 근대 정치사상 수용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한국사에서 서구 정치 제도와 사상의 수용에서 유림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1880년대 초반 고종의 개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림 세력 일부가 동도 서기론을 펼치기도 했고, 청년 개혁 관료들은 『한성순보』를 통해 서구 근대 정치체제를 소개하고 그 긍정적 성격을 유교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절충주의적 수용 노선의 존재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구한말 유림의 근대 정치사상 수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게다가 청년 개혁 관료 주축의 엘리트적 개혁 시도였던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여파로 이후 10년간 반동적인 세력이 집권하면서 쏘았던 개혁 흐름 자체가 사라졌다.

1894~95년 갑오·을미개혁과 1896~98년 독립협회 운동을 통해서 마침내 근대적 성격의 시민 주체가 탄생했는데, 특히 1898년 10월에서 11월의 2차 만민공동회와 그 민의의 수렴을 통한 국정 운영의 기원인 관민공동회 그리고 군주의 통치권을 규제하는 초보적인 헌정 체제를 요청한 헌의6조를 통해서 근대적인 정치 제도와 사상 수용을 공식화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 최근의 평가이다. 비록 이 과정에 독립협회에 참여한 소수의 청년 개혁 관료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유림 세력의 참여와 기여가 거의 없었지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시민 정치를 지켜보면서 개혁 성향의 재조 유림과 재경 유림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상경해 있던 유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개혁에의 공감대가 확산해 가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고종의 반동과 전제군주화 그리고 이를 제도화한 이듬해 대한국국제 선포로 개혁 세력의 활동이 위축된 1898년 12월부터 1904년의 기간에도, 재경 재조·재야 유림은 실시간으로 청의 망명객 량치차오(梁啟超)가 일본에서 간행한 『청의보』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인쇄된 신학문 잡지와 서적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분할 지배 시도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서서히 가시화하는 국권 위기 국면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개혁 요구를 결집해 갈 수 있었다. 1900년 무렵에는 이기(李沂), 홍필주(洪弼周) 등 실학 전통을 바탕으로 먼저 개혁 성향으로 전환한 유림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고, 장지연, 박은식 등이 언론계에서 활동하며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당대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교 정치 이상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수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05년 개혁 성향 유림이 주축을 이뤄 출범한 헌정연구회의 입헌정체 도입 모색은 그러한 흐름이 가시화한 결과였고, 1906년 대한자강회 출범부터 본격화한 자강운동과 그 계열의 지역별 교육·계몽운동을 주도한 학회 설립 등에서 각 지방의 애국·개혁 유림의 주도성과 결집 또한 특기할 만하다. 구한말 자강운동의 주축이었던 이들 개신 유림이 유교개혁론의 선구자가 된 데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

안동 혁신 유림의 의병 경력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자강운동과 그 연장선의 국채보상운동의 영향 덕분에 혁신 유림으로 전환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유림의 서구 정치사상 수용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유교 정치 이상의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구별되어 사용된 개신 유림과 혁신 유림의 용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안동 혁신 유림의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 참여는 단체나 조직보다 학맥과

혈연·지연 등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까닭에 재경 개신 유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대립 관계였던 의병 유림과도 협력해서 활동했다. 예컨대, 구한말 한성에서 자강운동 계열의 개신 유림인 유진태(兪鎭泰)와 이득년(李得年) 등은 국망 이후 전개된 국외 독립운동의 국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혁신 유림, 대중교 유림, 의병 유림 등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성향의 망명 유림 네트워크와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교 정치의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도 ‘개신 유림 = 입헌군주정’, ‘혁신 유림 = 공화정(민주정)’으로 도식화하고 그것으로 정치적 진보성의 수준을 재단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안동 혁신 유림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들이 집단으로 국외 망명을 감행한 동기에 유교 정치 이상의 근대적 전환 결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간도 일대에서 이주민 자치 공동체 만들기과 항일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나로 묶어 진행했는데, 이로써 유교적 시민 정치 이상이 당대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수립될 새 국가의 정치 이념을 선취할 수 있었다.

자강운동의 영향으로 개혁 성향으로 전환한 정재학과 유림의 대표적 인물은 이상룡(李相龍)이다. 정재학과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의 학문을 계승한 문인 학자들로 적전 제자인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과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등을 통해서 19세기 후반 경북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유림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화서학과와 마찬가지로 정재학과 문인들도 위정척사 사상을 견지하기는 했다. 하지만 류치명의 성리설이 리·기의 분개(分開)를 극단적인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통한 선악 가치 분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대신 순수한 리를 밝혀서 내부의 인(仁)을 구현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던 까닭에, 정재학과의 위정척사론 또한 외부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이 아니라 내부에서 올바름을 보존하기 위한 성찰과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설석규, 2004: 206-207). 이처럼 배타적이기보다는 내적인 도덕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정재학과의 현실 인식은 권세연과 김도화를 중심으로 창 의한 정재학과 전기 을미의병의 보수성뿐만 아니라 그 10년 후 을사조약 체결 이후 후기 의병 실패 후 자강운동으로 전환한 이상룡 등 청장년 유림의 개혁 지향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보수 일색의 안동 유림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1907년 신교육 기관인 협동학교를 설립했고, 1909년에는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면서 유림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상룡은 고성 이씨 종택 임청각(臨淸閣)의 주인으로 김흥락의 문하의 유림이었다. 일찍이 복제개혁에 반대하고 서원 재건을 촉구하는 상소 작성에 나섰을 만큼 보수적 성향으로, 1900년대 초반까지도 향촌 사회의 도덕적 통합을 위해서 전통 향약을 복원하려고 했다(박원재, 2004: 386). 이러한 학풍과 경력 덕분에 1905년 국권 위기에서는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해서 가야산에 의병 기지를 세우기까지 했다. 그런데 을사·병신년 의병의 무력한 패퇴 이후 이상룡은 의병 항쟁의 한계를 자각했다.³²⁾ 암중모색 중이던 이상룡은 당시 자강운동에 호응해서 교육·계몽운동에 나서면서 서서히 사상 전환을 감행했다. 1907년 봄 협동학교(協東學校) 개교는 이상룡, 류인식, 김대락, 김동삼 등의 사상 전환에 안동 여러 문중이 호응한 결과였다(이경자·김은혜, 2021: 80). 이상룡은 1908년 11월에 대한협회의 지회 설치 권고에 응답해서 1909년 3월에 안동지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안동의 혁신 유림이 이미 유교 정치의 근대적 전환을 통한 체계적인 애국·개혁의 논리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상룡이 1909년에 작성한 “대한협회 안동지회 취지서”(1909)는 그 예증이다.

32) 이상룡은 이전에 권세연·김도화의 전기 안동의병 참여를 계기로 김도화의 문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당시 전기 안동의병에는 김도화의 제자인 류인식과 송기식도 참여하고 있었다. 훗날 이상룡과 류인식은 협동학교 설립과 대한협회 안동지회 설립에서 협력하게 된다.

대한협회라는 것은 대한국민의 정당이 되는 모임이다. 오호라, 우리 한국도 또한 국민이 있는 것인가? 대개 나라는 백성들의 공산(公產)이고,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다. 저 문명국의 백성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런 의무를 알아서 국사(國事)는 국민이 다스리고, 국법은 국민이 정하고, 국리(國利)는 국민이 일으키고, 국난은 국민이 방어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업신여길 수 없고, 그 나라는 망하게 할 수 없으니, 이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 압제에 시들어 자유를 누릴 힘이 없고, 기대는 것에 익숙해져 독립할 의지가 없다. 국가를 군주의 사유물로 여기고 조정의 정치를 관사(官司)의 독점물로 인식하여, 말이 공사(公事)와 관련되면 곧 ‘월권이 될까 혐의스럽다’라고 하고, 근심이 외환에 미치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무방하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당당한 4천 년 조국을 팔짱을 낀 채 이웃나라의 보호 아래로 헌납하였다. 오호라, 슬프도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국역 석주유고』 상권: 622)

취지서 ‘원문’을 보면, 첫 구절에서 “대한 국민”(大韓國民)으로 등장하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 한국도 또한 국민이 있는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명시적으로 “국민”(國民)을 언급하고 있다. 뒤따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民은國之主人)이라는 구절은 곧 ‘국민주권’을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표현이다. 취지서에 나타난 국민 관념에 따라서 저자들은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로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취지서의 국민 관념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다. 이상룡을 비롯한 취지서의 저자들이 근대 국가의 ‘국민’ 관념을 전통적인 ‘민’ 개념과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강운동의 논리를 생산하고 유포한 개신 유림이 과거 앞선 세대 개혁론에서 통상적으로 전고로 삼았던 『서경』의 ‘민유방본’(民惟邦本)에서 유래하는 민본주의적 해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략을 취했던 데 반해, 취지서의 주체들인 안동 혁신 유림은 정확히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 개념을 따르고 있다. ‘문명국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대한의 국민도 “국가的主人”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국가의 흥망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선언한다. 국민주권의 인식 여부는 국가 흥망성쇠의 핵심 요인이다. 서구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치 주체로서 스스로 나라의 부강에 책임을 진다. 반면에 군주국인 대한은 국가가 위기에 닥쳐 군주가 국권을 포기하더라도 백성이 국가적 위기에 나서지 않게 된다. 이미 1905년 헌정연구회의 주축이었던 개혁 성향 유림의 입헌·자강의 시도가 있었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화 과정에서 애국·개혁 유림들이 국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주권 대행’을 통한 국권회복을 내세우며 자치·자강을 설파하기도 했다.³³⁾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백성의 공산(公產)이고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은 확실히 더 과감해 보인다. 1909년의 시점에서 국민이 망국을 막을 책임을 갖는다는 언명은 이미 일제에 포획된 황실과 정부에의 기대를 접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 인식에 기초해서 보면, 이들이 나라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로서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한의 백성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국민으로 재탄생해서 국가 존망이 달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이다. 이상룡을 비롯한 안동 혁신 유림이 대한협회 지회를 결성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삼가 들건대, 나라라는 것은 백성들 무리의 단체이다. 백성들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

33) 이는 김광제의 논리로 그의 자치·자강 개념은 『대한매일신보』(1906년 8월 26일)에 실린 경고문(警告文)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자강은 이후 국채보상운동에서 전국화되었고, 유교적 자치 개념은 경북 고령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한주학과 유림 이인재의 “자치민의회취지서”(自治民議會趣旨書, 『高靈郡自治民議所程式』(1909))에서 완성된다. 이인재의 “자치민의회취지서” 전문 번역과 해설은 이황직(2024)을 볼 것.

지며, 백성들이 모이면 나라가 공고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나라가 공허해진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합군(合群)을 급선무로 삼으니, 정사는 의회가 있고, 선비들은 교회가 있고, 농민들은 농회가 있고, 상인들은 상회가 있고, 공인들은 공회가 있다. 그곳에서 시무를 감습하고 실업을 힘써 연구하여 백성들의 지혜가 날로 열리고 국력이 날로 증진되면, 안으로는 부강한 권세를 확장하고 밖으로는 경쟁 세력에 저항할 수 있으니, 이는 대개 현세가 통행되는 규범이고 양의(良醫)가 이미 효험을 보았던 처방이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가 이런 방법을 써서 발흥하였고, 인도, 베트남, 유태, 파키스탄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국역 석주유고』 상권: 622-623)

취지서는 무력한 정부 대신 국력을 키울 방책으로 민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했다. 민이 결성한 단체로 국가를 규정하는 관점에서는 민의 역량과 결속력이 국력의 핵심 요인이다. 그리고 국민이 뜻을 모아 ‘단체를 결성해서 단결해 나가는’[合群] 방식으로 사회 부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생각 자체는 당시에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단체 결성을 강조하는 ‘합군’의 논리는 1906년에는 『대한자강회월보』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편술)을 통해서 소개되어 자강운동 세력의 표준적 논리로 확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지연 논설의 원본에 해당하는 량치차오의 논설 다수가 얼마 후 『황성신문』과 각종 지방 학회지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재경 개선 유림뿐만 아니라 지방의 보수 유림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상룡은 취지서와 별개로 안동지회 회관에 게시하기 위해 작성한 “취지문”(趣旨文-書揭大韓協會會館)에서 취용한 자료 대부분이 중국인 양계초의 문집에 근거했음을 명시해서 밝혀 두기도 했다(『국역 석주유고』: 612). 실제로 바로 위에서 인용한 취지서의 후반부는 량치차오가 1896년부터 『시무보』(時務報)에 연재한 『변법통의』(變法通議)의 “학회를 논함”(論學會) 편을 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취지서의 핵심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인용문의 전반부, 곧 단체 결성을 통한 국권 보존 논리인데, 이는 량치차오 『신민설』 13절 ‘합군’(合群)의 논지를 따왔다.³⁵⁾ 량치차오는 제국주의의 시대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에서 합군, 곧 작은 단체부터 국민 전체의 큰 단체까지 키워나갈 능력이 국가의 우열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³⁶⁾ 이처럼 개혁의 주체가 더는 군주가 아니고 ‘민’이어야 한다는 량치차오 ‘신민설’의 주장은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으로 국권상실 위기가 더 심화한 당시 정국에서 대한제국의 유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초기 논설집인 『변법통의』에서 량치차오는 유신의 주체로 군주를 내세우고 광서제의 무술변법(戊戌變法)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무술정변(戊戌政變)으로 군주 주도 개혁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이후의 ‘신민설’ 단계에 이르면 개혁 주체로 군주 대신 민을 내세우고 전통적인 백성이 근대적 시민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기대했다. 이에 따라 유교 전통에 대한 태도도 ‘절충’ 대신 ‘전면적인 근대적 전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민, 곧 새로운 백성으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유

34) 『變法通議』 원문은 廣智書局(上海, 1910) 판본 『飲氷室文集』 卷1, ‘丙申集’ 20. 량치차오의 초기 논설은 소수의 개선 유림만 접했다가 『음빙실문집』에 묶여 간행·수입된 이후에 그의 후기 논설과 함께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35) 량치차오의 ‘합군’을 통한 독립론을 먼저 수용한 것은 헌정연구회로, 『헌정요의』 5회차 연재(『황성신문』, 1905년 7월 25일)에서 “人이羣을成야國이 된즉”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羣’은 곧 ‘群’으로, 량치차오가 ‘society’의 한자로 옮긴 용어이다. ‘사람이 먼저 사회를 결성하고 나서 그 바탕에서 국가가 형성된다’라는 구절에서 『헌정요의』의 입헌정체론에 일본 헌법학보다 량치차오의 변법·자강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헌정요의』에서 합군의 정치적 의미는 더 깊이 탐구되지 않았다.

36) 양계초, 『신민설』(이혜경 주해)(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참고. 『新民說』 원문은 廣智書局(上海, 1910) 판본 『飲氷室文集』 卷8, ‘壬寅集1’, 14-18. ‘합군’은 옌푸(嚴復)가 옮긴 헉슬리(Thomas Huxley)의 『천연론』(天演論, 원서명 *Evolution and Ethics*, 1894)에서 채택된 번역어인데(박홍규·조계원, 2012), 옌푸는 청의 위기를 설명할 때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그 비판과 극복의 논리로는 헉슬리의 윤리적 개입 방식을 옹호했다(양일모, 2024: 282-288). 장지연의 ‘단체’는 량치차오의 ‘군’에 해당한다. 장지연의 “團體然後民族可保”와 량치차오의 “合群”은 논증 전개 형식이 같지만, 단합하지 못하는 원인의 목록에는 차이가 있다.

교 경전에서 강조했던 개인의 수신 윤리[私德]로는 부족하고 대신 그 너머의 사회와 국가 윤리[公德]가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유교 외부에서 보충해서 길러야 한다. “신민이란 우리 백성들이 옛것을 다 버리고 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신(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담금질하고 연마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없던 것을 취해서 보충하여 새로워지는 것이다”(『신민설』: 61).³⁷⁾ 유교 윤리만으로는 부족한 자유와 권리 사상 같은 근대 시민 정치의 기초는 서구에서 배워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협회 안동지회 취지서를 량치차오의 신민설 수용 맥락에서 읽을 때 비로소 안동 혁신 유림의 유교 정치 이상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근대적 정치 개혁의 사상으로 전유하려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취지서대로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정당 역할의 민군 단체(民群團體) 결성이 보국(保國)의 요체라는 생각에 따라 결성되었다(김기승, 1999: 59). 대한협회가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를 인적·사상적으로 계승한 민군 단체라는 점에서, 그 지방 지회로 동참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십 년여 전에 이미 독립협회를 효시로 공론장이자 단체로서 근대적 ‘회’(會)의 전통이 확립된 바 있고, 실제로 헌정연구회와 후속 대한자강회, 대한협회의 결성을 주도한 윤효정은 후기 독립협회의 주축을 이룬 청년 개혁 관료였다. 따라서 이상룡 등 혁신 유림은 량치차오의 합군 관념을 그대로 따랐다기보다는 그것의 실제 원천인 서구 근대 정치사상으로 관심을 확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보는 편이 낫다. 실제로 이상룡은 동양과 서양의 사회·정치 사상에서 단체 관련 논의를 묶어서 ‘합군집설’(合群輯說)을 편술했는데(『(국역) 석주유고』 상권: 579-587), 이는 한주학과 유림 이인재가 서구 근대 정치사상 탐구를 넘어서 그 기초인 고대 그리스 기원의 서구 철학사를 탐구해서 유교 정치 이상 혁신을 위한 이론 기초를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⁸⁾

이처럼 당대의 정치사에 더해 서구 정치사상 수용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지서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취지서는 단지 하나의 애국·계몽 단체에 참가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위기에서 무력한 정부를 대신해서 구국의 주체로 ‘사회’의 역량을 강조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취지서는 유교 문명 수호를 목표로 했던 의병 유림의 보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주 대신 국민을 중심으로 유교 정치 이상을 혁신한 유교적 시민 정치의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을 더 강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11년 2월 이상룡 일가를 비롯한 안동 혁신 유림의 서간도 집단 망명은 그러한 사상적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세습 군주가 외세에 굴복해서 국가를 저버렸을지라도 국가의 새 주인인 국민으로서 나라를 되찾아야 할 의무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권 상실 직후 이회영과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기지 추진 계획을 전해 듣고 이에 호응한 각 문중 인사들과 협력해서 압록강을 건넜다. 비록 류인식은 중간에 자금 마련을 위해 귀국했다가 발이 묶였지만, 그해 4월 이상룡과 김대락은 이회영, 이동녕 등 서간도의 신민회 계열의 지도자들과 함께 봉천성 유하현 삼원포 일대에 한인 망명·이주민의 자치 공동체 경학사(耕學社)와 신흥학교(新興學校)를 건설했다. 병농일치 원칙에 따라 신흥학교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한 데서 이들에게 자치와 독립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독립은 자치를 실행하는 시민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자치는 독립의 기본 바탕에 해당한다.

37) 『신민설』 제3절(釋新民之義). 이하 본문에서 『신민설』의 인용은 ‘『신민설』: 국역본 쪽수’ 방식으로 표시함. 역문은 필자가 일부 수정했음. 원문은 다음과 같음. “新民云者, 非欲吾民盡棄其舊以從人也. 新之義有二, 一曰淬厲其所本有而新之, 二曰採補其所本無而新之.”

38) 이인재는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된 서구 학술서를 탐구한 결과를 『태서신편』(泰西新編)과 『고대희랍철학고변』(古代希臘哲學攷辨)으로 묶어냈는데, 『태서신편』은 전하지 않는다. 이인재가 스승 곽종석에게 올린 편지(“上俛宇先生,” 『雀窩集』 卷二: 161-162)에는 그가 서양 학문을 탐구한 취지와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경학사 설립 취지 또한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취지와 다르지 않았다. 정치적 목표가 보국(保國)에서 복국(復國)으로 바뀌었을 뿐, 실천의 주체는 ‘대한의 국민’(韓民)이고 실천의 단위는 ‘단체로의 결사’(社)였다. “경학사취지서”(耕學社趣旨書, 1911)의 전반부는 국권상실 직후 울분과 함께 허울뿐인 개혁을 망국의 원인으로 적시하고 비판하고 후반부에 경학사 창립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남만주는 부여, 고구려, 발해의 고토(故土)이므로 여기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이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하니 한인 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민지를 개발하고 체력을 겸비해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면 “시기가 이르렀을 때 (복국의) 사업이 두루 완전하게 될 것”이라 한 뜻이다(『(국역) 석주유고』 상권: 624-627). 과거 안동의 보수적인 유림과 백성에게 대한협회에 가입하기를 애써 권했던 것처럼, 이상룡은 망명 정착지 서간도에서 다시 이주민에게 경학사 가입을 호소했다. 이주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개인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단체 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겨울이 물러나면서 봄이 올 것이고, 어두운 밤을 떨치고 아침을 맞은 조국을 볼 것이다.³⁹⁾ 지극히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던 서간도의 시민 정치는 이러한 유교 정치의 혁신 덕분에 가능했다.

2. 공리회, 유교적 공화의 시민 정치

일찍이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까지 이회영·이시영 형제 일가와 이상룡, 김대락, 류인식, 김동삼 등 안동의 혁신 유림이 북풍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집단 이주했다.⁴⁰⁾ 경북 지례의 허혁(許赫, 허위의 형)은 따로 합류했다. 이 절에서는 신민회 출신의 개혁 관료와 안동 혁신 유림, 그리고 서간도에 먼저 이주해 있던 의병 계열이 협력해서 세운 경학사와 그 후속 단체인 공리회를 중심으로 유림의 정치 이상이 유교적 공화주의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경학사는 이념과 조직 양면에서 체계를 갖춘 망명지 자치 단체로서 한국 시민 정치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09년 설립한 류인식의 관일약은 성리학적 ‘교화’ 기관의 성격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자치 계약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경학사의 경우에는 정착지에 모인 이주민 300명이 군중대회를 열어 공개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점에서 ‘망명지에서 수립된 최초의 근대적 시민 자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경학사의 자치 전통은 1913년 공리회(共理會), 1916년 부민단(扶民團)으로 계승·재편되었고,⁴¹⁾ 1919년에는 한족회(韓族會)와 서로 군정서로 이어지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자치와 항일운동의 터전이 되었다.

당시 혁신 유림의 유교적 공화주의가 어떻게 경학사의 운영 이념으로 채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대락의 『백하일기』를 살펴보자. 1845년생인 김대락은 안동 혁신 유림으로 서간도로 이주한 집단에서 최연장자였다. 후배 혁신 유림들이 그러했듯이, 김대락 또한 십여 세 연하의 매부 이상룡의 가야산 기병에 필요한 군자금 모집에 나섰던

39) “오시오, 오시오, 우리 무리를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 사(社)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시오, 오시오, 기러기때 날아가면 서풍이 날로 드세질 것이고, 금계가 한번 울면 동천(東天)이 장차 밝아오리다.”(『국역 석주유고』: 627)

40) 서간도에는 이회영과 이상룡 등의 유하현 삼원포 정착지 외에도 다른 성격의 망명 유림 정착지가 더 있었다. 회인현(懷仁縣) 홍도촌(興道村)에는 이견승, 정원하, 홍승헌 등 소론·강화학과 유림이 망명했고, 홍도촌 안동현(安東縣) 접리수(接梨樹) 서구(西溝)에 노상익, 안효제 등 애국 유림이 이민응(李敏應)의 도움으로 한인촌을 건설해서 정착했다. 접리수 한인촌이 갖춰진 1913년 이후 밀산의 이승희, 홍도촌의 이견승과 정원하가 합류했다(서동일, 2015: 289-296). 접리수 한인촌도 유교적 자치 규약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문서로는 전하지 않고, 노상익의 『大訥手卷續編』에 남전향약(藍田呂氏鄉約)의 전통을 따라 ‘約長條例節目’을 지었다는 단편적 기록만 남아 있다(윤희: 299). 한편, 홍도촌과 접리수 망명 유림의 교유와 문학에 관해서는 이은영(2016-)을 볼 것.

41) 경학사와 부민단 사이에 공리회가 한동안 서간도 자치 기관이었다는 서술은 조동걸(2000)의 해석을 따른 것임.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완고한 보수 유림으로 욕습여 성상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룡과 함께 시세의 변화를 살피면서 이순을 넘은 나이에 존화양이의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유교 정치 이상의 근대적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보다 대체로 한 세대 아래 유림의 운동 방향 전환을 뒷받침해서, 처음에는 설립에 반대했던 협동학교의 운영 그리고 대한협회 안동지회 설립에 관여했다. 이 시기에 지은 “독대한협회서유감”(讀大韓協會書有感, 1909)에는 노년의 유학자가 자강운동에서 받은 충격을 어떻게 유교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산속에 묻힌 옥돌 겉모습이 돌 같아 통곡하며 호소한들 어느 누가 알아줄까.
하루아침 쪼개어 천하에 드러내니 비로소 알았노라 어주는 보배가 아닌 것을.⁴²⁾

옥돌은 겉모습이 돌과 같아 그 진면목을 알기 어렵다. 초산의 박옥에서 화씨벽(和氏璧)을 꿰뚫어 보지 못한 일이 그러했다. 반면에 물고기 눈깔은 언뜻 진주처럼 빛난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옥돌 대신 물고기 눈깔을 선택하곤 한다. 대한협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김대락은, 인용한 시구의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 화려하나 내실이 없었던 조선의 유학 전통을 비판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실천에 비로소 유학의 정수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 점에서 김대락의 관점은 이기, 홍필주, 박은식, 장지연 같은 자강운동의 개신 유림과 차이가 없다. 협동학교의 신교육과 대한협회의 애국적 정치 활동은 곧 유교의 근본정신을 따른 시무책이라고 김대락은 판단한 셈이다.

1911년 서간도 망명 이후 이주민의 자치 공동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대락의 공화주의적 유교 해석은 더욱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서 유교적 시민 정치의 이론과 실체는 더욱 체계화한다. 망명지에서 작성한 일기를 묶은 『백하일기』에는 김대락이 작성한 몇 가지 중요한 문서인 “권유문”(勸諭文, 1911), “분통가”(憤痛歌, 1912~1913), “공리회 취지서”(共理會趣旨書, 2013) 등이 실려 있다. 먼저 “권유문”을 살펴보자.

쇠와 돌은 쉽게 부술 수 있지만 자유에 대한 더운 마음은 갈아낼 수가 없고, 정확(鼎鑊: 죄인을 삶아죽이는 솥)이 앞에 있다 해도 진보하는 단체는 막을 수 없다. (……) 지금 천하의 대세는 서양이 으뜸이다. 서양이 천하에 으뜸이 된 까닭은 세상에서 어려워하는 바를 실천하여 앞 시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양은 알았으나 다른 나라는 알지 못하고 서양이 행한 것을 다른 나라는 미치지 못하였다. 온 세상이 어리숙할 때 서양은 먼저 깨었고 온 세상이 혼몽할 때 서양은 개명하였다. 먼저 깨달은 쪽이 뒤지는 쪽을 깨우쳐 주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며,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삼키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⁴³⁾ (『(국역) 백하일기』: 125-126)

“권유문”은 김대락이 1911년 삼원포 이주 직후 신흥학교(신흥강습소) 개교를 위해 임대한 교사의 보수·개축에 나선 학생들을 권면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콜럼버스, 크롬웰, 워싱턴, 나폴레옹 등의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승 열패의 현실을 직시해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워나갈 정신과 의지를 배양하도록 깨우치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그런데 “권유문”에서 더 주목할 점은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전통적 의리 정신과 결합한 근대적인 유교 정치 이

42) 이 시의 전체 원문은 다음과 같다. “老夫無明尸似居 伴窓起讀大韓書 衝心裂肺言言切 可使吾人淚滴裾 有鏡煤塵鏡似盲 長時處在舊粧簾 磨光刮垢還依舊 始識青菱本體明 有劍磨鋒劍匪眞 十年淬鏢鍊精神 盤根錯節灰遊地 始識秋蓮用在人 有玉藏山玉似珉 (楚)山泣別孰知眞 一朝剖璞爲明月 始識魚珠不敢珍.”(원본에는 ‘楚’자가 없음). 이 가운데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밑줄 친 부분임. 김대락의 삶과 “독대한협회서유감” 원문·번역문은 조동걸(2010: 222-230)을 중심으로 『(국역) 백하일기』의 해당 부분을 함께 참조했고, 필자가 일부 수정했음.

43) 김대락, 『(국역) 백하일기』(안동독립운동기념관 엮음, 교남문화 옮김)(안동: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11), 125-132쪽(‘서정록,’ 1911년 7월 4일). 이하 『(국역) 백하일기』에서의 인용은 ‘『(국역) 백하일기』: 쪽수’ 방식으로 표시함.

상이다. 김대락은 먼저 조선의 유교 정치를 비판한다. 본래 유교의 정치 이상에 따르면 국가는 사람(백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까닭에 국가와 사람이 불가분의 관계여야 했는데, 오백 년 동안 전제 통치의 결과로 조선에서는 국가와 사람이 분리되었다. 그런 까닭에 국치를 당하고도 사람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았고 분발해서 의기를 발휘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피란의 배에서도 『대학』을 강론한 육수부(陸秀夫)와 “군막에서 『춘추』를 읽은 언월도의 관우(關羽)”처럼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는 문장에서 여전히 김대락이 국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교의 의리 정신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권유문”에서 김대락의 강조점은 의리 자체가 아니라 의리가 지향하는 바에 있다. 신흥학교의 학생은 자·덕·체를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서구의 강성함을 뒷받침한 정치 제도인 입헌과 공화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부분에서 김대락이 이미 망명 직후인 1911년 시점에 입헌·공화 정치 이념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명·이주 한인들이 독립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근대적 단체 결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백 마리 개가 소리내어 짖고, 한 마리 기러기가 서리에 울면 못 기러기가 돌아간다. 새나 짐승이 오히려 그러하거늘 사람이 그만도 못해서야 하겠는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열 사람이 모이면 열 사람의 단체가 되고, 열 사람부터 시작해서 백 사람이 모이면 백 사람의 단체가 된다. 나라를 보기를 내 집 보듯이 하고 다른 사람 보기를 내 몸같이 한다면 한 사람의 몸이 만인의 단체를 이루고 한 집 안에 온 나라가 연결된다. 아아, 그대들 어깨에 짊어진 것이 무겁다. (『(국역) 백하일기』: 130)

인용문에서 김대락은 이주민이 단체를 만들어 결사해서 서로 깨우치고 그 단체들이 다시 더 큰 단체로 연합해서 국가를 새롭게 하자고 역설했는데, 이는 2년 전 이상룡이 “대한협회 안동지회 취지서”에서 국망 위기를 극복하는 방책으로 국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 있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김대락에게서 유교 정치 이상의 근대적 전환으로서 자치의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글은 1913년 음력 6월에 작성한 “공리회취지서”(共理會趣旨書)이다. 공리회는 경학사가 해산하고 나서 서간도 일대에서 지역별로 새로운 ‘동포 사회의 자치 기구’가 결성되었는데, 유하현 삼원포에서는 왕삼덕, 김동삼 주도로 공리회가 결성되었다.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취지서를 작성한 김대락이 공리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조동걸, 2020; 서동일, 2020). 취지서에 공표된 이주민 자치 기구로서 공리회 결성 필요성과 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각각 다른 지방에서 성장하여 성질이 서로 다른 데다, 비바람에 날리고 떠돌다가 연고 없는 땅에서 서로 만났는데, 우리가 어찌 다 어진 사람이요 군자이겠으며, 과거에 지냈던 견해가 어찌 다 좋은 규범이요 훌륭한 법도이겠는가? 따라서 근심과 걱정을 함께 하는 처지에 덕으로써 평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천 호에 수장을 두고, 백 호에 수장을 두는 것이 진실로 또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후로 만약 법도를 어기고 도덕을 거슬러 스스로 공리의 정치(共理之政)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다면, 열 집의 안에서는 십장(十長)이 규찰하며, 백 집의 안에서는 백장(百長)이 탄핵하여, 작은 허물과 세세한 절목은 덮어두어 용서하되, 벌나고 억세어 교화시키기 어려운 자는 법사(法司)에 상소(上訴)할 것이다.

이주 가난하여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는 거두어 땅과 집을 주고, 어리석고 몽매한 자는 덕의(德義)로써 깨우치고, 일을 의논하는 자리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처세하는 방략에서는 화광동진(和光同塵)에 힘쓰며 인(仁)을 연마하고 의(義)를 점점 쌓아 우리들을 태평하고 어질고 장수하는 경지에 오르게 한다면, 우리들의 지난날의 불행은 오늘의 다행

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한때의 곤란은 곧 용옥(庸玉,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의 기초가 될 것이다. (『(국역) 백하일기』: 330-331)

취지서는 정착지의 주민 구성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까닭에 자치 실행에 ‘도덕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반도·패덕(反道·悖德)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 규약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규찰·탄핵하고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사법 기구로 넘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취지서는 공리회가 이주민 사회를 10호, 100호의 자치 단위로 편제하고 각 단위의 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규정했다. 이는 언뜻 공리회의 자치를 법가 잔재의 권위적 통제를 지향한 것처럼 오해하게끔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공리회 자치가 유교의 ‘도덕적 교화’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 땅과 집을 주어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 덕과 의로써 교화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유교 도덕의 실천 원칙이면서 동시에 유교 정치의 공화(共和) 관념에 이어진다.

이러한 공리회의 자치 원칙 가운데 인의(仁義)는 여전히 이주민 사회의 교화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리로 설정되고 있다. 취지서 후반부에는 『예기』 ‘학기’와 ‘단궁’을 인용하면서, 일상에서 공경과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것이 곧 정치 공동체에서 공화를 달성하는 도덕적 기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가족, 마을, 지방, 천하로 확대되어 가는 공동체의 구체적 원리로서 김대락이 착안한 것은 향약 같은 전통적인 자치 원리를 원용한 근대적 자치 조직이었다. 십가, 백가, 천가로 이어지는 공리회의 유교적 자치 원리와 조직은 이후 서간도의 한민족 이주민 사회의 원리로 확립되었다.⁴⁴⁾

그런데 취지서의 핵심 원리인 ‘공리’ 개념이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애초에 공리는 사상사와 운동사에서 등장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이다. 더구나 취지서에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는 데다 취지서의 용례도 수렴되기보다는 발산하는 까닭에, 그 뜻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에서 용례들을 분석해야 한다. 우선, 취지서에서 공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공동지치”(共同之治)이라는 구절이다. 이는 “천하공리”(天下共理)를 설명하며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미 고루한 습속을 벗어나 유신한 지 오래이므로 (정착지 한인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으로 다스리자’는 뜻을 갖는다.⁴⁵⁾ 한자어 ‘理’가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의 뜻으로 흔히 쓰이니, 공리는 곧 ‘공동체의 자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락은 굳이 ‘자치’ 대신 ‘공리’라는 생소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治’와 ‘理’는 모두 ‘다스리다’의 뜻이지만, 그 어원과 지향이 다르다. ‘治’는 고대 제왕의 치수(治水)에 나타나듯이 주로 국가의 권력적인 통치에 사용된다. 반면에 ‘理’는 ‘玉’ 부수의 자로 옥공이 박옥을 깎아서 그 안에 숨은 본질을 구현해 내는 것을 연원으로 하므로 내면의 다스림, 곧 도덕적인 자기 규율에 가깝다. 김대락이 성리학자인 한, ‘시민 결사체의 자치’라는 정치적 행위는

44) 이런 점에서, 혁신 유림의 유교적 공화주의를 선포한 “공리회취지서”는 1620년 식민지 미국의 플리머스에서 정착한 이주민들이 정착지에서 영국의 통치가 아니라 자치를 선언하고 그 원리를 설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에 비견할 만하다. 이주민의 자치 규약인 이 서약은 자유 정착지가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로 작동되는 자치 공동체의 원리를 담고 있고, 훗날 미국 독립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했다.

45) 이 부분에서 김대락은 전통의 자치 원리이자 기구인 여씨향약의 4대 강목을 언급하며 유림 집단이 이를 말로만 떠들었을 뿐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조선의 향약에 대한 일반적 비판이기보다는 그 얼마 전 경학사의 해산 원인, 곧 잇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에 실패하고 곤궁해지면서 재차 흩어져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한인 사회가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었던 데에 대한 자성이었다. 도덕적 기강이 사라진 데다 환난을 겪고도 서로 구휼하지 않는 한인 사회의 실태를 비판하고 나서, 취지서는 옛 향약을 대체할 새로운 원리로서 공리(共理)를 제시한 것이다.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지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데, 취지서에서 공리는 공화(共和) 개념과 짝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리는 공화와 대등 병렬 관계로, 공리와 공화가 비록 그 어원과 함의는 다른 개념일지라도 그 정치적 결과는 같다는 김대락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공리의 지향점이 잘 담겨 있는 취지서의 종결부를 읽어보자.

한 집안 속에는 한 집안 공동체가 있으며, 한 마을에는 한 마을 공동체가 있다. 이처럼 한 지방에는 한 지방 공동체가 있고, 천하에는 천하 공동체가 있는 것이다. 가령 갑자기 도로에서 만난 관계라도 정감이나 얼굴이 익숙한 듯하다던가, 혹은 우연히 횡역을 만났는데 한 집안 사람처럼 갓 끈만 매고 황급히 구원하였다면,⁴⁶⁾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공화(共和)이고 공리(共理)이다. 공경과 의리에 신의를 함께 더하는 일도 이 속에 있을 것이니, 이것이 또한 공화의 근본이요, 이것이 또한 이른바 공리의 효험이다. 모든 우리 동지들이 어찌 다 함께 힘쓰지 않겠는가! (『(국역) 백하일기』: 332-333)

이 인용부는 유교의 윤리학과 정치학의 기초인 ‘확충’의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집안에서 마을로, 다시 지방에서 국가·천하로 관심과 개입의 단위를 확대해 가는 것은 지극히 익숙한 논의 방식이다. 천하가 일가(一家)라는 전제에서는 낮은 사람도 모두 동포가 된다. 그러하니, 정착지의 망명·이주민이 고향도 신분도 다를지라도, 누군가 횡역(橫逆)을 당하면 자기 집안 사람이 역경에 닥친 것처럼 여기고 시급히 구원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게 서로를 구제해 주게 되면 ‘요순시대’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취지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상호 구제의 원칙이 그러하다.

이렇게 서로 구제해 주는 때를 만나 영원히 우호를 맺는다면 공공의 자리에 발을 헛디뎈 넘어질 염려가 없어져 두 도의 한 구역(二道一區, 유하현과 통화현의 한 구역)이 절로 완전히 우리 단체(團體) 속에 들어올 것이다. 너와 나 사이의 의심과 장애가 풀리고 남과 나의 사이에 간격이 모두 사라져 가는 곳마다 당우(唐虞)의 치세가 되니, 오나라와 월나라 같은 원수지 간도 형제로 지낼 수 있게 할 것이다. (『(국역) 백하일기』: 331. 필자 부분 수정)

“가는 곳마다 당우의 치세”, 곧 ‘요순시대’는 유교 정치 이상의 연원이며 동시에 궁극의 목표이다. 상호 구제가 실행되어 관습화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쟁투가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 나와 타인 사이에 간격이 사라지는 대동의 세계가 도래한다. 요순시대의 상정을 통해서 김대락은 한인 자치 기구로서 공리회의 지향을 분명히 표명할 수 있었다. 공리가 곧 공화가 되는 까닭이다. 당시 공화 개념은 고대와 근대의 용례가 뒤섞여 사용되었는데, 부재하는 군주를 대신하는 공·경·대부의 합의제 정치의 이상이 고대적이라면, ‘res publica’에서 유래한 번역어 공화는 공화국이나 공화정체에서 공동의 통치를 뜻하는 근대적 용례이다. 본래 이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republic’ 번역어로서 ‘공화’가 고대 중국의 공화 개념에 명시적으로 담긴 ‘합의제’의 성격과 암시적으로 담긴 ‘반군주제’ 성격을 고려해서 선택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대락은 이미 막바지 자강운동에 참여하면서 공화의 근대적 용례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화가 곧 공리라는 취지서의 표명은 특권적 통치자를 부정하는 혼합정체로서 공공선과 법치를 강조하는 근대 공화주의가 공리의 “공동지치”(共同之治)와 정치적 함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리회취지서”에 언급된 요순시대의 표상은 곧 유교 정치의 근대적 전환을 통해 자치와 합의라는 근대적 공화정

46) 이 구절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맹자』 ‘이루 하’, “한 집안 사람이 싸울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 흐뜨린 채 갓 끈만 매고서 달려와 구원하더라도 가하다”(今有同室之人鬪者, 救之, 雖被髮纓冠而救之, 可也.). 횡역(橫逆) 또한 ‘이루 하’에 등장한다.

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⁴⁷⁾

경학사에서 공리회로 이어진 근대 전환 유림 주도의 자치는 끊어지지 않고 1916년 초 부민단(扶民團) 결성으로 이어졌다. 부여(扶餘)의 유지에서 부흥의 결사를 세운다는 뜻의 부민단은 순국한 의병장 허위의 형으로 안동 혁신 유림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한 허혁을 단장으로 서간도 지역의 한인 자치 기관의 역할을 했다. 부민단을 계승해서 1919년 3·1 운동 직전에 결성된 한족회(韓族會)는 자치와 함께 군정부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나섰다. 한족회 군정부는 임시정부 성립과 함께 임정 산하의 군사기관에 편제되면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개칭되었다. 이를 미국 독립혁명이 정착민의 지역 자치가 처음부터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던 독립운동이 아니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서간도의 자치 활동은 처음부터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유교 정치 이상을 수정해서 입헌 공화정 수립을 위한 시민 정치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망명 유림의 정착지 자치의 역사적 의의

이 연구는 국권상실 전후 망명 항일 유림 세력들의 망명·정착지에서 실행된 다양한 자치 양태를 유교 정치 이상의 전유(재해석) 또는 근대적 전환 측면에서 분석했다. 앞선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류인석(柳麟錫)과 화서학파의 의병 유림의 연해주와 북만주 일대에서 실행한 관일약 분석을 통해서 국망 전후 항일 의병 유림이 근대 민족주의와 민 주체의 정치 원리를 수용해 가는 과정을 고찰했다. 국내 자강운동의 애국단체 결성과 연해주 구국 세력의 ‘일심단체’ 결성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관일약은 단체를 통한 근대적 의사 결집과 조직화 방식의 중요성을 긍정했고, 입약 자격을 연해주와 북만주의 이주민에게까지 개방해서 기존 향약의 신분제적 성격을 극복했다. 둘째, 이상룡, 김대락 등 안동 일대의 혁신 유림이 서간도에서 설립한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공리회의 자치 규약과 활동을 분석했는데, 특히 김대락의 ‘공리회취지서’는 유교 경전에서 취한 인의와 민본의 원리 그리고 전통 향약의 자치 원리를 원용해서 근대적 자치의 필요성을 논증해서 이를 통해 유교적 공화와 자치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당시 망명 유림을 비롯한 항일 세력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치를 원칙으로 정치 결사체를 구성한 과정은 ‘자발적 망명·이주 ▶ 이주민 공동체와 결합 ▶ 자치 기구 결성 ▶ 독립운동 기지 수립’의 단계를 밟았다. 이런 점에서 1910년대 한인 망명·이주민의 자치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17세기 북미 뉴잉글랜드 정착지 이주민의 자치를 기초로 미국 독립의 역사와 비견될 만하다.⁴⁸⁾ 연해주와 북간도·서간도의 한인 이주민 집단도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이주민처럼 공동의 자치 규약을 갖춘 결사체를 발전시켰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망 전후 정치적 망명자들이 국경을 넘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는 생계를 위해 이주한 한인들이 모국의 전통적 습속을 유지한 채 촌락을 이뤄 생활하고 있었다. 국망 전후 망명한 의병 유림이나 혁신 유림에게 문화적으로 친화적이었던 이주민들이 유교적 성격의 자치 규약에 호응한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망명 유림과 동조한 한인 이주민이 맺은 관일약은 17세기 북미 식민지 정착지에서 주민 총의로 맺은 자치 규약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관일약과 북미 식민지의 자치 규약은 자유를 찾아 본국을 떠난 이주민들이 특정한 종교적 가치를 기초로 자치 기관을 수립하려

47) 공리회의 공리 개념을 유교적 공화주의의 원리로 처음 파악한 이는 서동일(2020: 169-171)이다. 그에 따르면, ‘공리’는 당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낯선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리와 함께 사용된 ‘공화’와 같은 뜻이다.

48) 이는 토크빌을 자문한 미국 지식인의 자기 확인과도 일치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지역공동체가 국가에 앞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플리머스, 세일럼, 찰스턴은 매사추세츠 정부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지역들이 나중에 연합하여 심려 깊은 의지의 법률로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모방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미국 역사 속의 선조들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Zunz · Kahan, 2002: 53).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관일약 약원들의 궁극적 관심이 정착지가 아니라 본국에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 의병 유림의 관일약에 비교하면, 서간도로 집단 망명한 혁신 유림은 신민회의 주축인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면서 자치와 독립운동을 진행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서간도 망명 유림의 주류는 종교적 배타성을 약화하고 대신 유교 정치 이상을 수정해서 세속 세계에서 작동 가능한 근대적 정치 이념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실제로 이상룡과 경학사의 주지는 유교보다 민족주의에 있었다. 이와 달리, 김대락은 “공리회취지서”를 통해 군주 전제를 뒷받침해 온 전통적인 유교 정치 이상을 수정해서 대신 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존중하는 입헌·공화 정치 이념을 수용할 기초와 자치 실행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일대 망명 유림에 관한 연구는 항일투쟁의 수위나 독립운동사예의 기여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망명 항일 유림이 북국 이후 수립하려 한 나라의 정치체제와 지향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유예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망명 유림 간 정치 이념상의 차이가 어떻게 한인 사회의 자치 단체 형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비교 연구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동안 독립운동의 역사로만 평가되어 온 중국·러시아 지역 망명·이주민의 역사를 시민 정치의 핵심 원리인 ‘자치’ 측면에서 새로이 접근하면, 한국사의 시민 정치가 국망으로 단절되고 유예된 것이 아니라 국외 망명·이주민 사회로 계승되어 전개되었다는 서사가 가능해진다. 이때 망명·이주민 사회사의 위상은 달라진다. 독립운동 기지 또는 디아스포라의 비극 같은 익숙했던 종래 주제에서 벗어나서, 망명·이주민의 자치 역사는 과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자강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발전해 나간 한국사의 시민 정치를 계승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1910년대 망명 유림 독립운동의 기초였던 자치 원리와 경험은 다시 국내 유림에게 전해져서 1919년 3·1운동의 전국화 과정을 주도하는 데 기여했다. 파리장서운동을 통해서 영남과 기호의 유림은 집단으로 화이론과 복벽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원리로서 유교의 혁신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 향촌 사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옛 의병 유림과 보수 유림 세력의 근대적 변화는 청년 세대들이 독립과 공화정체 수립을 향한 실천의 원리로서 유교 시민 정치를 수용하게 했다. 홍주의병과 그 후예들이 주도한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 1920)와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 1927)의 활동에서 보듯이, 1920~30년대의 청년 유림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유일한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인식하고 대내적으로 일체에 맞서 향촌 사회의 정치 주체로서 단체 자치와 교육·문화사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 공동체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덕적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한국 시민 정치만의 독특한 윤리적(보수적) 특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망명 항일 유림의 정착지 자치는 조선 후기 실학의 민본적 전환에서 시작된 유교의 시민적 전환을 완료해서 유교가 한국 시민 정치의 한 기원으로 당당히 자리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자료/문집

-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華西先生文集附錄』
『勉菴先生文集』
『省窩集』(李寅梓).
『高靈郡自治民議所程式』.
김대락, 『(국역) 백하일기』(안동독립운동기념관 엮음, 교남문화 옮김)(안동: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11).
류인석, 『국역 소의신편』(춘천: 의암학회, 2006).
류인석, 『국역 의암집』 1~6권(춘천: 의암학회, 2006~2010).
류인석, 『우주문답』(서준섭 외 3인 옮김)(춘천: 의암류인석선생기념사업회, 2002).
박영효, “갑신정변,” 『갑신정변 회고록』(조일문·신복룡 엮고 옮김)(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원출처는 『신민』(1926년 6월).
박은식, 『백암박은식전집』(서울: 동방미디어, 2002).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김희곤 외 10인 옮김)(서울: 경인문화사, 2008).
梁啓超, 『飲氷室文集』(上海: 廣智書局, 1910).
양계초, 『신민설』(이혜경 주해)(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국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경찰부, 『국역 고등경찰요사』(류시종·박병원·김희곤 역주)(서울: 선인, 2010).

논문/저술

- 강재언, 『근대한국사상사연구』(서울: 한울, 1983).
구완회, “연해주 시기 유인석의 도전과 좌절의 기록들 - ‘貫一約’ 관련 자료 3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집(2017).
권대웅, “박상진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연구』, 28집(2010).
금장태,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의식』(서울: 태학사, 2001).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집(2009).
김상기,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연구』, 98호(2015).
김상기, “충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충청문화연구』, 24집(2020).
김형목, “국채보상운동 이전 동양자 김광제의 민족운동,” 『충청문화연구』, 15집(2015).
남부희, 『유림의 독립운동사 연구』(서울: 범조사, 1994).
박결순, “1910년대 비밀결사의 투쟁방략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집(2013).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서울: 한울, 1998).
박민영,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 수난』(서울: 선인, 2016).
박민영, 『화서학파 인물들의 독립운동』(서울: 역사공간, 2019).
박원재, “석주(石州) 이상룡(李相龍)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 - 정재(定齋)학파의 유교개혁론(1),” 『오늘의 동양사상』, 11호(2004).
박홍규·조계원, “옌푸(嚴復)와 번역의 정치 - 『천연론』에 담긴 ‘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집 4호(2012).

서동일,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171호(2015).

서동일, “일제 초기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 현실』, 99호(2016).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송실사학』, 45집(2020).

설석규, “정재학과 위정척사론의 대두와 성격,” 『국학연구』, 4집(2004).

신규수, “일제하 독립운동의 일사례 연구 - 독립의군부 『관견』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59호(1999).

양일모, “진화론 및 사회경제사상의 수용과 유학계의 대응,” 한국국학진흥원 기획, 『서양사상의 유입과 유학계의 대응』 (한국근현대유학사상연구총서 5)(서울: 블루앤노트, 2024).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서울: 국학자료원, 1999).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척사와 실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권 2호(2002).

이경자·김은혜, “안동지역 근대교육의 전개양상 - 협동학교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9집(2021).

이명화, “1910년 전후 간민교육회의 형성과 간민회,” 사단법인 규암 김약연 기념사업회(역음), 『중국 동북지역 한인사회 형성과 간민회의 역사적 위상』(중국 동북지역 한인사회와 간민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4).

이성우, “광복회 명칭과 성격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41집(2007).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집(2014).

이성우, “고광 이세영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103집(2022).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 일제강점기 서간도 망명 우국지사 이건승 안효제 노상익 노상직 예대희 조정규와 안창제를 중심으로』(서울: 학자원, 2016).

이지문, “추첨민회 도입을 통한 양원제 개헌 모색,” 『사회이론』, 51호(2017).

이황직, “자강운동기 유교 정치의 시민적 전환 연구 - 성와 이인재의 삶과 생각,” 『사회이론』, 65호(2024).

이황직, “헌정연구회의 애국·개혁 성향 유림 연구 - 개신 유림의 초기 형성 측면에서,” 『사회이론』, 68호(2025).

장규식, “3·1운동 이전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확산,” 『한국사학사학보』, 38권(2018).

정재식, 『의식과 역사 - 한국의 문화전통과 사회변동』(서울: 일조각, 1991).

정재식, 『한국유교와 서구문명의 충돌 - 이항로의 척사위정 이데올로기』(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조동걸, 『한말 의병전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 『안동사학』, 5집(2000).

진덕규, 『현대 민족주의의 이론구조』(서울: 지식산업사, 1983).

쿤, 한스, 『민족주의』(차기벽 옮김)(서울: 삼성문화재단, 1974).

토크빌, 알렉시 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2』(이용재 옮김)(서울: 아카넷, 2018).

하운서, “의암 유인석과 ‘관일약’의 유학적 의미,” 『퇴계학논집』, 29호(2021).

Calhoun, Craig, “Nationalism and the Public Sphere,”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Perspectives on a Grand Dichotomy (ed. by Jeff Weintraub and Krishan Kumar)(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his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O’Byrne, Darren J., The Dimensions of Global Citizenship: Political Identity Beyond the Nation-State (London: Frank Cass, 2003).

Yang, C. K. Religion in Chinese Society: A Study of Contemporary Social Functions of Religion and Some of Their Historical Facto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Zunz, Olivier and Alan S. Kahan(eds.), The Tocqueville Reader: A Life in Letters and Politics (Oxford, MA: Blackwell Publishing, 2002).

재중 한국인의 출판, 저술과 항일운동

한효(산동사범대)

<국문 초록>

일제 강점기(1910~1945) 동안 조국을 상실한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망명하거나 이주하여, 중국에서 활발한 출판 및 저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신문, 잡지, 저서 등을 발간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항일 투쟁의 이념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재중 한국인이 창간한 신문과 잡지는 약 200여 종, 저서는 50여 권에 달한다. 본 논문은 이 시기 재중 한국인이 중국에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한 발굴과 서지 정리를 바탕으로, 당시 한국인의 출판 활동이 지닌 역사적·민족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출판 활동이 당시 한국인의 독립운동 및 항일의식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특히 <조선의용대통신>을 중심으로 해당 잡지의 서지 사항, 주요 저자, 주제 경향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재중 한국인의 출판 활동이 단순한 언론 활동을 넘어 민족 정체성 유지, 국제적 연대 형성, 그리고 항일 투쟁의 이념적 기초 제공 등 다층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본 논문은 한중 간 역사적 교류와 연대의 한 단면을 재조명함으로써 동아시아 항일운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정립을 위한 학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殖民统治时期在华韩国人的出版、著述与抗日运动

韩晓(山东师范大学)

<中文摘要>

日本对朝鲜半岛实行殖民统治时期(1910—1945年),众多丧失祖国的韩国人流亡或移居中国,在中国展开了活跃的出版及著述活动。他们通过发行报纸、杂志以及出版书籍等,积极宣传独立意识,为朝鲜半岛民族命脉的延续做出了贡献。

根据迄今已确认的资料统计,当时在华韩国人创办的报纸与杂志约有200余种,著作达50余部。本文旨在以对上述资料的整理的基础上,阐明当时这些出版活动所具有的历史意义与价值。

本文结合社会、历史背景,分析此类出版活动与当时韩国人在华展开的独立运动、抗日运动之间的关联。并特别以《朝鲜义勇队通讯》为中心,通过详细分析该杂志的主要作者、刊载的作品主题以及相关内容等,阐明在华韩国人的出版活动在维持民族认同、激励抗日意识以及促进国际连带等方面所发挥的重要作用,以期为重新审视中韩两国之间的历史交流与连带,拓宽东亚抗日研究的视野,以及为构建面向未来的中韩关系提供宝贵的研究资料。

재중 한국인의 출판, 저술과 항일운동

한효(산동사범대)

- I. 서론
- II. 재중 한국인의 출판과 항일서사의 형성
- III. 『조선의용대통신』의 항일서사와 국제연대
- IV. 맺음말

I. 서론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국을 잃은 수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들은 신문, 잡지 등을 창간하는 동시에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의하면 20세기초부터 1945년까지 재중 한국인이 창간하거나 발행에 참여한 신문·잡지는 약 200여 종, 저서는 100여 종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출판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 다양한 독립운동 조직과 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재중 한국인 항일서사의 중요한 생산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재중 한인의 출판·저술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역사학적 연구, 간행물 연구, 사상 및 문학·예술 활동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국 각 지역 한인의 이주와 정착, 독립운동 및 사회·문화 활동을 통시적 연구 성과는 재중 한인 연구의 기본적인 역사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¹⁾ 양자오취안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혁명가들이 중국에서 창간한 신문과 잡지를 폭넓게 조사하고, 이들 간행물이 독립운동의 이념을 선전하고 중국 사회에 조선 문제를 알리는 핵심 매체였음을 밝혔다.²⁾

두 번째, 간행물 연구로는 한국독립당 광둥지부 기관지 『한성』에 대한 고찰³⁾과 상하이에서 발행된 한문 주보 『진

1) 국사편찬위원회, 『중국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2.

2) 楊昭全, 〈朝鮮革命者在華創辦報刊〉, 《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 崑崙出版社, 2004.

3) 박향란·하동명, 「한국독립당 광둥지부 기관지 『한성』 연구」, 『한국학연구』 제71집, 2023.

단』 4)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한성』 연구는 간행물의 발간 과정과 구성, 한중 필진의 성격을 밝히고 그 속에 나타난 약소민족 연대와 공동 항일의식을 분석하였다. 『진단』 연구는 중국 측 인사들의 창간 지원과 중국인 필진의 글을 검토하여, 이 잡지가 한국독립운동을 선전하고 한중 정치·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된 잡지를 중심으로 망명지사들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연구 등도 있다.

세 번째, 사상 및 문학·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발행된 잡지를 중심으로 망명지사들의 동아시아 인식과 주체성을 분석하거나, 망명 문인들의 문학 창작과 예술 활동에 나타난 정체성을 고찰하였다. 김병민은 망명지사들의 동아시아인식, 공동 주체성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⁵⁾. 오은아 등은 연극 「조선의 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항일투쟁과 문예적 표상이 상호작용하였음을 밝혔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재중 한인의 출판과 문예 활동이 독립운동, 한중연대 및 정체성 형성에서 지닌 의미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1910~1945년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인의 신문·잡지 발간과 저술·출판 활동의 전체 규모와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고, 재중 한인의 출판·저술 활동을 하나의 지식생산과 문화실천의 체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일서사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민족, 혁명, 연대, 국제주의 등의 의미 체계 속에서 어떻게 조직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항일서사는 소설이나 시뿐만 아니라 신문기사, 논설, 전지통신, 전기, 추도문 등 다양한 출판 텍스트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따라서 출판은 항일운동을 기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항일 경험을 서사화하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매체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항일서사가 어떠한 출판 환경 속에서 생산되고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장 활발한 출판활동을 했던 잡지 중 하나인 『조선의용대통신(조선의용대)』을 중심으로 항일서사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여 재중 한국인의 출판과 저술이 단순한 항일운동의 기록을 넘어 항일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확산시킨 문화적 실천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재중 한국인의 출판과 항일서사의 형성

20세기 초,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들은 정치적 망명과 독립운동을 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신문과 잡지는 초기에 창간된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신한청년>, <진단>, 30년대와 40년대에 창간된 <한성>, <동방전우>, <조선의용대통신> 등이 있다. 단행본의 경우, 김택영의 <화개가고>, 박은식의 <한국통사> 등으로부터 1943년에 발간한 <한국광복군소사>까지 대략 100여종 정도 되었다. 일부 간행물은 발행 기간이 매우 짧거나 한두 호만 발행된 뒤 폐간되었으며, 전쟁과 망명 생활, 자료의 유실 및 보존 환경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많았으며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여 종 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적 발행 상황을 본다면 1919년 3·1운동 이후와 1930년대 초반,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출판 활동이 뚜렷하

4) 유하·우립걸, 「『진단(震壇)』을 통해 본 근대 한중교류의 한 단면」, 『한국학연구』 제46집, 2017.

5) 김병민, 「한국 망명지사들의 동아시아 인식과 주체성-중국 내 발행 잡지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71호, 2019; 석길매·김병민, 「탈경제 항일서사와 공동주체성의 구축-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문학창작과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76집, 2025

6) 오은아·문미라, 「조선의용대의 '전쟁포로' 초모 활동과 연극 「조선의 여아」의 의미-‘화북진출’ 표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205집, 2023

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단순한 출판량의 증가가 아니라 민족계몽 중심의 출판에서 독립운동의 조직화, 중한연대의 강화, 그리고 국제 반파시즘 연대로 항일 담론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재중 한국인의 출판은 독립운동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핵심 매체였기 때문에 망명과 민족 수난의 서사를 많이 다루었다. 국권 상실과 망명 생활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면서 식민지 경험을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기억으로 형상화하였다. 예를 들면, 신규식은 <한국혼>에서 한국이 망국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본 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⁷⁾.

이와 함께 역사상의 영웅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재현하면서 영웅 서사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진단>은 제8호부터 <한국명인전기>를 시설하여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연재하였는데 그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였다⁸⁾. 박은식의 『안중근』⁹⁾은 중국에서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안중근 전기로 그의 의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윤봉길, 이봉창¹⁰⁾ 등 독립운동가의 전기, 추도문, 기념문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순신, 안중근, 윤봉길을 하나의 역사적 계보 속에 배치함으로써 민족이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영웅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다는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과거의 항왜 정신은 현재의 항일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독립운동은 민족 역사 속에 내재된 정신적 전통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영웅의 희생과 정신을 현재의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독립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출판은 영웅을 기록하는 매체인 동시에 미래의 영웅을 만들어 내는 문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재중 한국인의 출판은 한국인 사회 내부를 넘어 중국 사회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震壇』은 중국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중국 혁명가들의 글과 축사를 수록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을 중국 혁명과 동일한 역사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을 중한 양국이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변화는 출판 언어와 독자층의 확장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어 간행물의 증가는 중국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한국 독립운동은 점차 중국 사회와 공유되는 공공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출판은 현실의 정치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매체였으며, 중한 양국은 반복적인 서사를 통해 공동의 역사와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재현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재중 한국인의 출판은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항일 담론은 한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 반파시즘 운동의 일부로 확대되었다. 출판물에는 중국의 항전뿐 아니라 일본 반전세력, 세계 각국의 민족해방운동, 국제 정세에 관한 글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으며, 항일서사는 민족주의를 넘어 국제주의와 반파시즘이라는 새로운 의미 체계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특히 재중 일본 반전문인의 활동은 이러한 국제주의 담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의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그들의 글과 활동은 재중 한국인의 출판물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수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중 한국인의 출판이 국제 반파시즘 연대를 구축

7) 申圭植, <韓國魂>, <震壇>

8) 仙桃支雲, <古今水軍之第一偉人世界鐵甲軍艦之鼻祖李舜臣>, <震壇>

9) 박은식, <안중근>, 상해대동편집국, 1914

10) <도왜실기>, 한인애국단, 1932.

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판 활동의 축적은 1939년 창간된 『조선의용대통신』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의용대통신』은 이전 시기의 출판물이 축적해 온 민족 수난의 서사, 영웅 서사, 중한연대, 국제주의 담론을 종합적으로 계승하면서, 전선 체험과 혁명 실천을 결합한 새로운 항일서사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조선의용대통신』은 재중 한국인 출판 문화의 발전 과정과 항일서사의 형성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III. 『조선의용대통신』의 항일서사와 국제연대

1937년 중일 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하자,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항일 전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피압박 민족들 또한 중국의 항일 전쟁과 연계하여 자국의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국제적·지역적 정세 속에서 1938년 10월, 조선의 독립을 무장 투쟁의 목표로 삼는 항일 무장 조직인 조선의용대가 중국 우한에서 창립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제1·5·9전구 등 여러 전선에서 활동하면서 항일 투쟁, 대일 선전, 적군 와해, 포로 교화, 그리고 중한 민족 간의 연합 전선 구축을 핵심 임무로 삼았다. 창립 이후 부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활동 영역 또한 넓어짐에 따라, 부대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외부에 대한 체계적인 선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곧 조선의용대의 공식적인 기관지 창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39년 1월 21일 계림에서 『조선의용대통신』이 창간되었으며, 1940년 3-5월 조선의용대 본부가 계림에서 중경으로 옮기면서 제34호(1940.5)부터 『조선의용대』로 변경하여 1942년까지 총 42호가 발행되었다. 1942년 5월 15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도록 명령하여 양 조직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일부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조선의용대 편제의 변화로 인해 <조선의용대>도 폐간하게 되었다.

1. 『조선의용대통신』의 발간과 필진 구성

『조선의용대통신』은 정기적인 발행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전시 상황에서 부정기 간행물의 형태로 발행될 수 밖에 없었다. 제19·20호 합병호,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을 기념한 제25·26·27호 합병호, ‘7·7’ 3주년 기념 증간호, 창립 3주년 기념 제40호, 전사자 추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41·42호 등 기념호와 특별호가 편성되었다. 편집부는 3·1운동, 7·7사변,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일, 전사자 추모와 같은 역사적 계기를 중심으로 지면을 재편함으로써 독립운동과 항일전쟁을 하나의 연속적인 역사로 구성하였다.

간행물의 주요 언어가 중국어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중국어 사용은 조선의용대 내부의 의사소통보다는 중국 군인과 지식인, 언론인, 항일단체 및 국제사회를 주요 독자로 상정한 결과였다. 중국어로 독립운동의 역사와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중국 항전의 일부로 위치시키고, 중국 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군과 일본인 포로를 대상으로 한 대적선전에서도 중국어 간행물은 직접적인 선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필진은 조선의용대 내부 인사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이달, 이두산, 김약산, 김학무, 이정호, 윤위화 등 조선인 혁명가와 문인들이 정치논설, 전선통신, 시, 회고, 혁명운동론 등을 발표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왕계현, 마의 등을

비롯한 신문인·정치인·교육자·군 관계자들이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중한연대를 지지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일본 반전문인인 가이지 와타루(鹿地亘), 아오야마 가즈오(青山和夫), 하세가와 데루(綠川英子)등도 조선 독립운동과 국제 반파시즘 연대를 주제로 글을 발표하였다.

가이지 와타루는 「3·1절 기념축사」¹¹⁾에서 조선의용대를 “3·1절의 피의 재생”으로 형상화하였고, 아오야마 가즈오는 「조선의용대의 두 돌」과 「우리는 조선의용대를 배워야 한다」¹²⁾를 통해 조선의용대를 중국 항일전선의 대표적인 국제부대로 평가하였다. 하세가와 데루의 「아직 만나지 못한 조선의 형제들에게」¹³⁾는 조선인·중국인·일본 반전민중을 ‘형제’라고 하여 공동 저항의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한국 혁명가와 문인뿐 아니라 중국 인사와 일본 반전문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조선의용대통신』은 서로 다른 민족이 공동의 적과 역사적 과제를 인식하고 항일의 의미를 함께 구성한 문화공간이 되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 민중을 분리하여 재현하고, 일본 반전민중을 항일공동체 내부에 포함시킨 것은 민족주의적 항일서사의 한계를 넘어선 국제주의적 인식을 보여준다.

장르를 살펴보면 정치논설, 시국평론, 전선통신, 전투실록, 시, 산문, 추도문, 선언문, 번역문, 목각과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논설은 혁명의 노선과 항일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전선통신은 현장성을 확보하며, 시와 산문은 항일 경험을 정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추도문과 제문, 약력과 사진은 개인의 죽음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조선의용대통신』은 정보 전달, 정치교육, 문학적 형상화와 집단기억의 생산이 한 지면에서 결합된 복합적인 항일서사 매체였다.

2. 항일서사의 단계적 전개와 주제 변모

『조선의용대통신』은 항일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재구성하였다. 창간 이후부터 종간에 이르기까지 수록된 글의 주제와 서술방식은 시대적 상황과 항일운동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였다.

창간 초기인 1939년에는 「3·1운동의 혁명적 의의」 「3·1운동의 교훈」 「조선독립선언서」 「중한민족 손에 손잡고 앞으로」 등과 같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조선혁명의 정당성, 중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었다. 이는 조선의용대의 창설과 함께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혁명 동원 서사가 중심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1940년에는 실제 전장에 대한 서사가 많아졌다. 「조선의용대 제1구대 혈전실기」가 연재되고, 「제2구대 통신」 「제3구대 통신」 「중조산 반소탕전」 「강남 화선상」 등 다양한 전선 보도가 대폭 증가한다. 동시에 「나는 금강산으로 돌아가리」 「전선의 동지들에게」와 같은 시 작품이 실리면서 전쟁 체험은 문학적 감수성을 통해 재현된다. 이 시기의 『조선의용대통신』은 혁명 담론을 실제 전투 경험과 결합하여 전장 서사를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1941년 이후에는 주제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동방 약소민족은 단결하라」 「미국의 조선인」 등과 같이 인도, 일본 반전운동, 해외 조선인 사회 등을 다루는 글이 증가하면서, 조선혁명은 더 이상 중한 양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반파시즘 운동의 일부로 재구성된다. 이는 『조선의용대통신』의 공동체 인식이 민족공동체와 중한연대를

11) 鹿地亘.馮乃超譯.“三一”節紀念祝詞.朝鮮義勇隊通訊,1939(6):2-3.

12) 青山和夫.朝鮮義勇隊의兩周年.朝鮮義勇隊通訊,1940(38):4-5.

青山和夫.我們要學習朝鮮義勇隊.朝鮮義勇隊通訊,1941(40):9.

13) 綠川英子.還沒有見過面的朝鮮的兄弟們.朝鮮義勇隊通訊,1939(6):2.

넘어 국제 반파시즘 연대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종간기인 1942년에는 전선 보도와 희생을 기념하는 글이 두드러진다. 「3·1대혁명운동 역사」 「3·1을 기념하며 우리의 임무」 「형대 승리의 의의와 전사 동지 추도」 「우리는 네 동지를 어떻게 추도할 것인가」 등은 순국자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용대통신』의 주제는 항일서사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혁명 동원에서 출발한 서사는 전장 체험을 거쳐 국제 반파시즘 연대로 확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혁명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서사로 발전하였다. 이는 『조선의용대통신』이 항일운동의 집단기억과 공동체 의식을 생산하는 중요한 출판문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3. 항일투쟁의 호소와 혁명서사의 구축

『조선의용대통신』에서 항일투쟁은 추상적인 정치 구호로만 제시되지 않는다. 편집부는 3·1운동의 역사적 기억, 조선의용대의 전선 활동,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문학적 상징을 서로 연결하여 독자에게 항일투쟁의 정당성과 긴박성을 전달하였다. 조선의용대의 항전문에 활동은 조선의용대의 항일투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개되었는데 조선의용대의 전투사기를 고양하고 대내외 영향력을 확충하며 중한연대, 군민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¹⁴⁾.

제5호는 「3·1운동의 혁명적 의의」 「3·1운동의 교훈」 「3·1운동 이후 조선혁명운동의 새로운 발전」 「조선독립선언서」 「3·1운동 소사小史」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제6호에도 「3·1기념대회 연설문」과 가이지 와타루의 「3·1절 기념축사」가 수록되었다. 1940년 제33호와 1942년 제41호에서도 3·1운동의 역사, 의의와 현재의 과업을 다시 다루었다.

이는 과거의 혁명을 현재의 항일투쟁 속으로 반복적으로 소환하여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서사 전략이었다. 특히 가이지 와타루가 조선의용대를 “3·1절의 피의 재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1919년의 혁명이 과거에 종결되지 않고 현재의 무장투쟁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피’는 식민지 폭력과 희생의 기억을, ‘재생’은 혁명정신의 계승과 현재화를 동시에 상징한다. 가이지 와타루는 이어 한중일 반전민중들을 “각 민족 해방의 피로 연결된 혈맹”¹⁵⁾으로 규정하면서 3·1운동의 기억을 국제 반파시즘 투쟁으로 확장하였다.

항일투쟁의 호소는 전선 활동의 연속 보도를 통해서도 구체화되었다.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조선의용대 제1구대 혈전실기」가 연재되었으며, 제32호 이후에는 제1·2·3구대의 전선통신이 집중적으로 실렸다. 「제1구대 혈전실기」의 연재는 출정, 행군, 전투, 선전공작과 대원들의 생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김위의 「양자강 위에서—중국 전사들에게 삼가 바칩」¹⁶⁾은 양자강을 중국 민족의 동맥으로 형상화하고, 강물과 파도, 전사의 피와 의지를 서로 대응시킨다.

“양자강의 물결은 바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의 피는 파도가 되고,

14) 김강, 김병민. 「조선의용대 항전문에 활동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66집 (2020): 138.

15) 鹿地互. 馮乃超譯. “三一”節紀念祝詞[J]. 朝鮮義勇隊通訊, 1939(6):2-3.

16) 金維. 揚子江上—敬贈中國的戰士們[J]. 朝鮮義勇隊通訊, 1939.8(19-20):6. 원문은 다음과 같다. “揚子江的流水正象徵著你, 你們的血一浪濤, 你們的吶喊一咆哮, 你們的意志一洪流。”

당신들의 함성은 포효가 되며,
당신들의 의지는 거대한 흐름이 된다.”

이 시에서 양자강은 항일의 힘과 역사의 전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전사들의 피와 목소리, 의지는 끊임 없이 흐르는 강물과 결합함으로써 중국 항전이 멈출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의미로 부각된다. 그리고 중국 전사들의 투쟁을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 항전을 세계 반파시즘 투쟁의 일부로 확장하였다.

악희의 「나는 금강산으로 돌아가리」¹⁷⁾는 항일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귀환’의 서사로 표현한다. 작품 속 화자는 금강산을 떠난 뒤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못한 현실을 탄식하면서도, 장차 “전진의 노래를 부르고 장엄한 개선곡을 연주하며” 침략자를 제거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여기서 금강산은 상실한 조국과 독립 이후의 귀환을 상징한다. 망명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지로 전환된다.

이처럼 『조선의용대통신』은 역사적 기념, 연속적인 전선 보도와 문학적 형상화를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항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항일투쟁에 참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도록 촉구하는 혁명서사를 구축하였다.

4. 중한연대에서 국제연대로의 공동체 의식

『조선의용대통신』 제호의 목차를 보면 「중한민족 손잡고 전진」 「중한 두 민족은 단결하라」 「중국 항전은 곧 조선혁명의 승리」 「중한 양민족의 시대적 사명」 「왜 중한 양민족은 단결해야 하는가」 「중한 두 민족의 단결을 강화하자」 등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1940년 이후에는 「동방 각 민족의 우의를 위한 새로운 기초를 세우자」 「국제 신형세와 중한연합」 「동방의 각 소민족은 연합하라」 등으로 공동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김약산은 조선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순치의 관계에 있으며, 중국 항전의 승리가 조선혁명의 성공을 촉진하고 조선혁명의 발전 역시 중국 항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¹⁸⁾. 이러한 인식 속에서 중국과 조선은 항일 투쟁을 하는 역사적 주체로 재현되고 중한연대는 현실적인 생존전략인 동시에 공동의 적과 공동의 미래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보여준다.

명철의 「중국의 딸」¹⁹⁾은 정치적 연대를 정서적인 공동체로 구체화한 작품이다. 이 시는 중국 여성들이 “해방의 횃불”을 들고 일본 침략자와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들을 조선인의 “형제자매”로 한다.

“우리는 형제자매의 공동체,
같은 고난을 겪고
같은 적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당신들의 형제자매처럼 당신들을 사랑한다.”

17) 若曦.我要回到金剛山.朝鮮義勇隊通訊,1939(10):7.

18) 金若山.中國民族抗日戰爭中告朝鮮國內革命同志書.朝鮮民族戰線,1938 (2) : 2.

19) 明哲.中國的女兒[J].朝鮮義勇隊通訊, 1940(34):17. (我們是兄妹的團體, 遭遇著同樣的苦難, 遭遇著一樣的敵人, 我們也和你們的兄弟姐妹一樣地敬愛你們.)

여기에서 공동체는 ‘같은 고난’과 ‘같은 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은 형제자매로 재구성된다. 시의 후반부에서 “노예의 사슬은 이미 끊어지고 강도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공동의 고통은 공동의 승리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된다.

『조선의용대통신』이 형성한 공동체는 중한 양국을 넘어 일본 반전세력까지 포괄하였다. 하세가와 데루는 「아직 만나지 못한 조선의 형제들에게」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형제’라고 호명하고, 중국 인민 역시 같은 형제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 항전의 승리, 조선 민족의 해방, 일본 인민의 해방이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긴밀하고 견고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표현은 조선·중국·일본 반전민중을 세 개의 분리된 집단으로 두지 않고 서로의 해방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한다.

가이지 와타루 역시 「3·1절 기념축사」에서 조선의용대를 “3·1절의 피의 재생”이자 “각 민족 해방의 피로 이어진 혈맹”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는 재중 일본 반전인사, 조선 독립운동가와 중국 인민이 함께 싸워 일본 파시즘을 타도하고 “새로운 동아시아의 새벽”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와 ‘혈맹’은 공동의 희생과 해방의 목표를 공유하는 정치적·윤리적 연대를 뜻한다.

이러한 국제주의는 편집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제28호에는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 제30호에서는 일본 노동계급, 인도의 해방, 일본의 전시경제가 다루어졌다. 제36호에는 인도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민족운동, 재중 일본인 반전혁명동맹 선언이 함께 배치되었고, 제40호에는 「동방 각 약소민족은 연합하라」와 일본 반전동지들의 축사가 수록되었다.

또한 일본을 재현하는 방식에서도 민족주의적 적대의 한계를 넘어선다. 『조선의용대통신』은 일본 제국주의와 일반 일본 민중을 구분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한중일 민중 모두의 공동의 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인 포로의 각성, 일본 반전동맹의 활동, 일본 반전작가의 글을 적극적으로 수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의 결과였다.

결국 『조선의용대통신』은 중한연대를 시작하여 일본 반전민중, 인도 등 식민지의 피압박민족, 세계 반파시즘 세력으로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일서사는 특정 민족의 복수나 적대의 서사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파시즘에 맞서는 보편적 해방의 서사로 발전하였다. 이는 재중 한국인의 출판 활동이 항일운동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문화 활동이 아니라, 항일의식을 형성하고 항일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확산한 적극적인 실천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속 파벌, 발행 언어, 간행 지향 및 발행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 망명 한국인 전체 간행물 생태를 온전히 포괄할 수 없다. 전체 재중 조선인 출판사 연구를 진행하려면 추후 다원적 사료를 보완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재중 한국인의 출판과 저술 활동을 중심으로 항일서사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출판과 저술을 단순한 독립운동의 기록물이 아니라 항일의 의미를 생산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하는 문화적 매체로 파악하였다.

재중 한국인의 출판 활동은 민족 수난과 독립 의식을 바탕으로 영웅 서사, 중한연대, 국제 반파시즘 서사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항일서사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특히 『조선의용대통신』은 역사 기록, 전선 보도, 문학 창작, 추모 서사를 결합하여 항일운동을 하나의 통합된 서사로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결국 재중 한국인의

출판은 독립운동을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민족공동체에서 중한 공동체, 나아가 국제 반과시즘 공동체로 확장되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선의용대통신』 『진단』 『한성』 『동방전우』 『독립신문』 『신한청년』 등.
국사편찬위원회. 『중국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2.
김강·김병민. 「조선의용대 항전문예 활동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66, 2020.
김병민. 「한국 망명지사들의 동아시아 인식과 주체성－중국 내 발행 잡지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71, 2019.
석길매·김병민. 「탈경계 항일서사와 공동주체성의 구축－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문학창작과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6, 2025.
문미라·오은아. 「조선의용대의 ‘전쟁포로’ 초모 활동과 연극 「조선의 여아」의 의미－‘화북진출’ 표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5, 2023.
박향란·하동명.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기관지 『한성』 연구」. 『한국학연구』 71, 2023.
유하·우림걸. 「『진단(震壇)』을 통해 본 근대 한중교류의 한 단면」. 『한국학연구』 46, 2017.
楊昭全. 「朝鮮革命者在華創辦報刊」. 『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 昆侖出版社, 2004.

제3부

반제국주의 운동과 문학

이규필(경북대) || 韓溪 李承熙의 북경·곡부 여정과 활동 고찰

전송희(부산대) || 문명의 위계에 맞서는 유교적 사유

—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에 나타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

柴琳(上海社會科學院) || 조소앙의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

한계 이승희의 북경·곡부 여정과 활동 고찰

이규필(경북대)

<국문 초록>

한계 이승희는 1913년 12월 2일 북경과 곡부를 방문하는 길에 올랐다. 북경과 곡부의 공교회 인사들과 만나 활동 상황을 살피고 곡부의 孔廟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는 한편 원세개 총통 및 중화민국 정부와 국회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120일의 여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계는 북경 기차에 오를 때 선친 寒洲의 『理學綜要』, 『四禮輯要』, 『春秋集傳大義』 3부를 행장에 꾸러갔다. 나열한 선고의 이 저술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부터 이미 한계가 작심하고 챙겨 간 것인데, 북경행에서 매우 유의미한 상징성을 지닐 뿐 아니라 한계의 사유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찰이 필요하다. 한계가 북경 길에 오르며 이 저술들을 행장에 꾸린 행위 자체가 이미 매우 의도적이며 목적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 한계는 북경과 곡부를 방문하는 녀 달 동안 「孔教教科論」, 「孔教進行論」, 「孔祀冠服說」 등 공교와 관련한 글을 세 편 작성하였으며, 4條의 국정 건의안을 담은 편지를 원세개에게 보냈다. 이 글들은 한계의 시국관, 교육론, 공교에 관한 여러 층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계의 긴 인생에서 중요한 활동과 중요한 글들이 없지 않지만, 특히 위의 글들은 만년의 현실 인식과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한계의 고민과 한계가 꿈꾸는 궁극적 세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그 바탕에 깔고 있는 한계의 철학적 논리를 가장 간명하면서도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계의 고뇌를 이해하는데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글들이다.

선친 寒洲의 학문과 저술이 한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그것이 한계의 사유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 한계가 꿈꾸고 주장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의 지점이 규명되리라 기대한다.

韩溪李承熙北京曲阜行程及活动考察

李奎泌(庆北大学)

<中文摘要>

韩溪李承熙于1913年12月2日后程前往北京和曲阜。此行最主要的目的是会见北京与曲阜的孔教会相关人士，考察孔教会的活动情况，并拜谒曲阜孔庙。与此同时，他还希望向袁世凯、中华民国政府及国会陈述自己的政治见解。本文拟考察这段120天的旅程。

韩溪登上前往北京的列车时，随身携带了先父寒洲的《理学综要》、《四礼辑要》和《春秋集传大义》三部著作。这三部书早在韩溪出发之前便已有意携带。因此，它们在此次北京之行中不仅具有极为重要的象征性，而且也是理解韩溪思想与世界观时必须考察的材料。换言之，韩溪在后程赴京之际特意将这些著作收入行囊，这一行为本身便具有很浓的主观意图和目的性。

此外，在访问北京与曲阜的四个月间，韩溪撰写了《孔教教科论》、《孔教进行论》、《孔祀冠服说》等3篇有关孔教的文章，并向袁世凯致函了包含四项内容的国政建议案。这些文章涉及韩溪的时局观、教育论以及关于孔教的多层次思考，蕴含着其核心的思想内容。在韩溪漫长的一生中，固然不乏重要活动与重要著述，但上述文章尤其集中地展现了他晚年的现实认识与世界观。它们以最凝练的方式概括了韩溪的苦恼及其所向往的终极世界，同时又最为简明而有力地呈现出支撑其思想的哲学逻辑。可以说，这些文章是理解韩溪思想苦闷与精神追求的最重要文献。

而寒洲的学问与著述对于韩溪而言究竟具有何种意义，又对韩溪的思想与活动产生了何种影响，在此基础上，韩溪所向往、主张并试图实现的又具体是什么？这些问题未来也可以基于上述考察得到进一步阐明。

韓溪 李承熙의 북경·곡부 여정과 활동 고찰

이규필(경북대)

- I. 들어가며
- II. 북경 孔敎 관련 인사와의 만남과 교류
- III. 寒洲 저술 3종의 소개와 강독
- IV. 北京에서의 文筆 활동과 著作
- V. 나오며

I. 들어가며

1913년 12월 2일 韓溪 李承熙(1847~1916)¹⁾는 북경과 곡부를 방문하는 길에 올랐다. 1914년 4월 1일에 간도로 돌아오기까지 120일에 달하는 짧은 여정이다. 사람의 인생에 어느 한 순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랴만, 북경·곡부를 방문한 꼬박 넉 달의 여정은 한계의 사유와 철학, 한계의 공고 운동을 이해함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북경과 곡부의 공교회 인사들과 만나 그들의 생각과 활동 상황을 살피는 한편 韓人 공교회 지부를 만드는 것,²⁾ 곡부 孔廟를 방문하고 연성공을 만나는 것 등이 방문의 주목적이다. 이 외에도 袁世凱(1859~1916) 총통 및 중화민

1) 참고로 이날은 양력으로 1913년 12월 28일 일요일이다. 다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날짜는 한계가 사용한 음력을 기준으로 함을 밝힌다. 고찰 대상인 저자 이승희의 호도 본고에서는 韓溪로 사용하고자 한다. 젊어서 剛齋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호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렬하기에 중년 이후로는 주로 大溪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성주군 월항명 대포리 한개마을에 살았기 때문이다. 1909년부터 이승희가 길림성 密山府에서 韓興洞을 조성하여 경영하였지만, 이때부터 곧바로 자신의 호를 韓溪라고 했는지는 미상이다. 하지만 韓溪라는 호를 1912년 무렵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북경 길에 오를 1914년 무렵에는 대외적으로 한계라는 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1915년에는 자신의 숙원에 대해 韓興이 吾所命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먼우를 비롯한 당대의 벗들도 대개 1913년 이후로는 모두 '韓溪子'라고 불렀다. 앞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중국 망명 이후로는 한계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1927년에 만이들 李基元(1885~1982)이 신연 활자로 문집을 간행할 때 서명을 '大溪先生文集'이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집안에서는 '大溪'를 공식적인 호로 삼고 있다. 참고로 현재 본가의 후손들은 여전히 '대계공'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가 북경·곡부 여정 고찰에서 대상으로 삼은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大溪先生文集』이다. 필사본 『韓溪遺稿』가 있지만 여러 지점에서 오류와 결자가 적지 않고, 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大溪先生文集』을 영인하여 펴낼 때 『韓溪遺稿』을 대조하여 교감하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2) 한계가 이 여정에서 東三省韓人孔敎會 설치를 승인받기는 하였지만, 공교회와 관련한 한계의 애초 의도가 단순히 '東三省韓人孔敎會 설치 승인'에 있었다고 한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국 정부와 국회에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여 망명 한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바람, 강유위와 만나고 싶은 바람 등도 있었다.

방금 말한 몇 가지 일들은 망명 韓人 유교 지식인으로서 중요한 사안들이고, 한계가 『서유록』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때문에 한계의 북경·곡부 여정은 선행연구에서 적잖이 다루었다. 2007년에 왕원주에 의해 북경 방문 시기李文治와의 논쟁이 고찰되었으며, 2021년에 한길로에 의해 『서유록』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북경행의 배경과 교유시의 일면’과 ‘곡부 방문의 소회와 현실’이 각각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2023년에 송지현에 의해 『서유록』 소재 한시의 문명 의식이 조명되었다.

위의 선행 연구들에 의해 한계의 1914년 북경·곡부 여정의 전모와 전후 사정이 학계에 전반적으로 소개되었다. 아울러 중화사상이나 문명 의식과도 같은 지점들의 일부가 조명되기도 했다. 다만 초기 연구의 특성상 韓溪의 학문적인 저변과 그 심층을 밀도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계의 사상과 활동의 표면을 광범하게 더듬는 정도에 그친 면이 없지 않다. 한계의 북경·곡부 방문의 의미를 정확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차근차근 다시 검토·고찰할 필요가 있다.

12월에 북경으로 들어가 공교 총회에 가입하고, 支部 설치를 승인받았다. 여가에 孔社 인사들과 「孔教教科論」·「孔教進行論」·「孔祀冠服說」 및 선친의 저술 『理學綜要』·『四禮輯要』·『春秋集傳大義』를 강론하였다.³⁾

「西遊錄序」에서 한계는 자신의 북경·곡부에서의 활동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공교 총회 가입과 지부 설치 승인이다. 표면상의, 그리고 북경·곡부 방문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정말로 주목해야 할 진술은 바로 그다음의 진술이다. 「孔教教科論」·「孔教進行論」·「孔祀冠服說」은 북경에서 한계가 지은 세 편의 글이고, 『理學綜要』·『四禮輯要』·『春秋集傳大義』는 북경으로 출발할 때 한계가 행장에 꾸린 선친 寒洲 李震相(1818~1886)의 저술이다.

306자의 짧은 서문에서 한계가 자신의 문장과 선친의 저술을 특필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경·곡부 여정의 탐토는 이 지점의 고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계의 사유와 철학, 한계의 공교 운동이 모두 이 지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경·곡부 방문의 진정한 의미도 이 지점의 고찰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이 지점을 간과하였다. 일견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장처럼 범범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가 북경으로 가는 기차에 오를 때 선친의 저술을 단단히 꾸린 것은 매우 의도적이며 뚜렷한 목적성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다.

앞에 언급한 3편의 문장 외에도 한계는 여러 편의 글을 북경·곡부 방문 기간이 지었다. 4條의 국정 건의안을 담은 편지를 원세개에게 보냈고, 주요 단체와 주요 인물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썼다. 이 글들에는 時局, 敎育, 孔敎와 관련한 관한 한계의 고심과 철학을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한계의 긴 인생에서 깊은 사유와 온축한 학문을 담은 명문들이 많고 많지만, 특히 이 시기의 글들은 만년의 현실 인식과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계집』 권3 『서유록』의 기록을 1차 자료로 만난 인물들과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주의 저술 3종 및 『대계집』에 수록된 여러 글들(특히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북경·곡부 방문의 목적과 그 의미를 새롭게 톺아보고자 한다.

3) 十二月入北京 忝名孔教總會 承認支設 暇與同社諸君 講教科若進行之方冠服之儀 及吾先君子理學綜要四禮輯要春秋集傳大義

II. 북경 孔敎 관련 인사와의 만남과 교류

120일간의 짧지 않은 여정에서 한계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중국에 건너가 있던 많은 韓人 망명객들이 한계를 찾아와 담론을 나누었거니와 북경 공교회 사람들을 만나 공교회 일을 논의하였고, 時務와 韓中 學術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와 관련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북경 방문의 전모와 드러낼 것이라 판단한다. 본 장에서는 중국 북경과 곡부의 공교 관련 주요 인물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북경 공교회 관련 인물, 둘째는 孔道會 관련 인물, 셋째는 학자형 고위 관료, 넷째는 공자의 후손과 기타 인물이다.

1. 북경 孔敎會 관련 인물

북경·곡부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공교회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 역시 공교회 관련 안건이었다. 한계는 1913년 12월 2일, 安東縣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12월 10일에 천진을 거쳐 북경에 도착했다. 11일에 바로 尹胄榮을 만나 북경 공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 이튿날인 12일에 공교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권 27에 실린 「與北京孔敎會總會長」이다. 한계는 이 편지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공교회를 창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진정한 중화의 백성들이 될 기회를 준다면 동지들과 孔敎會의 趣旨를 發起하여 힘을 다하여 도울 것’이라며 趣旨書를 가지고 한 번 찾아가겠노라 하였다.⁴⁾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북경 공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북경에 왔으며, 孔敎會 사업을 같이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 것이다.

이들이 지난 12월 14일, 陳煥章(1880~1933)이 찾아와 공교회 강연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계기와 시기는 불분명하나 앞서 韓溪는 李時品이란 인물로부터 진환장의 『孔敎論』을 받아 읽었다. 그리고 북경에 도착한 이튿날인 12일에 예대희와 아들 이기인을 통해 『孔敎論』을 돌려주었다. 만나기 전에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韓溪는 진환장의 『孔敎論』에 대해 고평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더러 시류에 억지로 영합한 면모가 있으니 氣數의 압박을 받은 것’⁵⁾이라 평가하였다. 중국 공교회의 지향과 한계가 추구하는 공교 운동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북경 공교회와 韓溪의 직접적인 교류의 계기를 연 진환장은 북경 공교회 이해를 위해서든, 한계의 북경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든 주목을 요하는 인물이다. 15세에 廣州 萬木草堂에 들어가 康有爲에게 배웠고 梁啟超와 同門이기도 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1911년에 Columbia University 博士學位를 획득하였다. 1912년에 歸國하여, 상해에서 孔敎會를 창설하고 회장 강유위 아래에서 중간사를 맡았으며, 1913년 8월 15일 嚴復, 梁啟超 등과 參議院과 衆議院에 「孔敎會請願書」를 올려 孔敎를 國敎로 정할 것 요청하였다. 이후 袁世凱 總統府 顧問으로 초빙을 받아 북경으로 와 있던 그야말로 공교회의 핵심 인사이다.

이처럼 비중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韓溪는 공교회 韓人 지부 설치 관련 주요 사안을 거의 진환장과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진환장 역시 東三省 지부 설치 건을 전적으로 한계에게 의지하였다. 진환장이 12월 23일에 처음 작성

4) 竊聞中華士大夫倡立敎會 議所以推明擴施之方 … 妄欲躬聽下風 奉藉餘光 以與我幾萬失步迷途之人 重觀天日 共作眞中華之氓 謹與一二同志 發起會旨 仍復抖擻衰精 竭蹶寧汙 幸得日接大都雄觀 惟是形跡踴躍 音語殊方 懼無以遽瀆崇明 謹遣儒士芮大僖樛子基仁 奉所帶趣旨書一度 先詣門下 以聽進退之命 惶恐屏俟 伏惟鑑亮

5) 時有牽合時趣處 亦氣數所迫也

한 동삼성 한인 지부 설치 승인서의 수신자를 ‘東三省韓人孔敎會’가 아니라 ‘韓溪老先生閣下’라고 적었을 정도였고,⁶⁾ 한인 공교회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안건도 12월 28일 두 사람이 논의하여 결정했다.

북경 공교회의 진환장과 韓溪 사이에서 긴밀하게 오가며 실무 간사 역할을 하던 인물은 진환장의 비서격인 李時品(1886~?)이다. 四川 출신 의사였던 그는 진환장을 韓溪에게 연결시켜 주었으며 한계가 북경에 도착하던 날부터 북경을 떠나는 날까지 진환장과 한계 사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그의 적극적인 주선 덕에 12월 16일 진환장과 지부 설치 건을 논의할 수 있었고, 3월 21일에 공교총회와 奉天都督 張錫鑾에게 東三省 韓人 孔敎會를 보호해달라 부탁하는 편지도 그와의 교감 속에 작성한 것이었다.

2. 孔道會 관련 인물

한계는 孔道會 회원도 적극적으로 만났다. 당시 북경에는 여러 갈래와 다양한 성격의 孔敎會가 있었다. 그중 孔道會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王錫蕃, 劉宗國, 薛正淸 등이 濟南에서 만들려고 했던 講經會를 북경에서 조직하고자 시도하여 북경의 중화민국 정부에 청원했고, 원세개가 孔道會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여 그 때문에 ‘공도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공도회는 그 설립 기반이 원래 講經會였기에 학문적 성격이 짙기도 하여 拜經會⁷⁾라는 행사를 만들었다. 한계는 공도회로부터 拜經會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첫 요청에는 직접 가지 못하고 예대회와 아들 이기인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 拜經會를 만든 사람이 龍澤厚(1861~1946)이다. 강유위의 제자로 강유위의 뒤를 이어 萬目草堂의 학장을 지냈고, 桂林經學會와 上海中國國會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광둥과 계림에서 공교회 운동을 하다가 1913년 무렵 북경에 와 있던 그는 몇 안 되는 중국 내 정주학과 학자였다. 때문인지 12월 20일에 만난 한계와 용택후는 단번에 마음이 통하여, 북경 안경관에 韓溪가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하고 12월 25일에는 공도회 지부 설치를 위해 세를 내어 마련해 둔 法源寺 大悲院의 방을 韓溪에게 선뜻 내주기도 했다.

이런저런 도움으로 두 사람은 매우 친해졌다. 1914년 1월 9일에 용택후가 주도하는 배경회에 이윅고 한계가 참석하였으며 그 길에 용택후의 안내로 국자감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었고, 이튿날인 10일에는 용택후가 ‘자신과 같은 중국 사람도 함께 한인 공교회 일에 몸담게 된다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유위에게 편지를 보내보라고 적극 추천하기까지 하였다.⁸⁾ 1월 11일에 한계가 강유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모두 용택후와 돈독한 관계 덕에 가능한 것이었다. 권26에 실린 「與康更生有爲」가 바로 그 편지이다.

용택후는 한계를 진심으로 존경하였던 듯하다. 그는 1월 12일에는 한계의 구상대로 학교를 세우고 ‘한계의 구상대로 교과를 정비하여 교육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형식적 찬사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4일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곧바로 大悲院에 학단을 열어 제자를 받아 강론할 것을 권하기도 하고, 조선의 학자들이 오면 모두 편하게 지낼 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도 하였으며, 끝에는 수제자가 되고 싶다고 자청하기까지 하였다. 24일에는 앞서 9일에 함께 국자감을 구경했던 일을 『孔廟遊錄』이라는 글로 정리하여 작은 책을 만들고 그 서문을 써 달라

6) 改承認書面[初作韓溪老先生閣下]

7) 拜經이라는 말은 南齊의 臧榮緒가 공자와 五經을 존신하여 매년 공자 생일이 되면 오경을 진열해 놓고 절을 하였다[常以宣尼庚子日生 其日陳五經拜之]는 고사에서 온 것이다. 이 고사를 본따 당시 공도회의 중심 인물 龍澤厚가 拜經會를 만들어 절을 하고 講經하였다.

8) 龍積之繼至。論教科論。眞得孔門宗旨。仍勸開會院中。得自與中國人共來從事。余辭未敢。積之又請通書康更生

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용택후의 이런 진심이 통해서인지 한계는 그에게 1월 26일에 「공교진행론」을 보냈고, 용택후는 답장을 보내와 ‘선생께서 이번에 오신 것은 공자나 기자께서 말없이 데려와 주셔서 우리 천하의 사람들에게 죽은 목숨을 살리고 마른 뼈에 살을 붙여 주신 것’이라며 신문에 실을 것을 권하였다. 또 2월 2일에는 대비원에 공교회를 설립하면 강연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등 한계에 대한 용택후의 후의는 실로 대단했다. 한계는 용택후의 후의에 힘입어 훨씬 폭넓고 자신있게 중국 지식인들과 만나고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한계는 2월 4일에 ‘곡부에 얼른 다녀온 뒤 한인 공교회를 같이 설립하자’고 약속하였다.

용택후와 함께 공도회 활동을 하던 청년 학인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黃莫斌이고, 하나는 薛正淸이다. 두 사람은 大悲院 孔道會 회원이었고, 용택후의 제자로 보인다. 이중 용택후의 지근 거리에서 늘 자잘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은 黃莫斌이다. 한계는 매우 탐나는 걸출한 청년이라고 말하였다. 1월 9일 배경회 참석 차 문묘를 유람할 때 안내한 사람도 황막빈이었고, 11일에 강유위에게 편지를 부치라는 말을 전한 사람도 황막빈이었다. 1월 15일 무렵 그는 한계의 글을 점검하고 신문에 신기를 요청하였으며, 2월 3일 한계가 공도회 강연을 거절할 때도 그를 통하여 뜻을 전하였다. 진환장과의 사이에서 주선한 인물이 이시품이 있었다면 용택후와의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한 인물이 황막빈이다.

황막빈과 함께 다닌 薛正淸도 한계의 북경 방문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명나라 주자학자 文淸公 薛宣(1389~1464)의 방계 후손으로 그 역시 정주학을 지향한 청년 학인이었다. 한계는 그것을 의미있게 부각하여 ‘正淸은 성이 薛이고 文淸學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름과 실상이 그 학문의 지향에 딱 들어맞다.’라고 하며, “선학 기미가 많은 오늘날 학계에 뛰어난 선비 설정청이 반갑네”⁹⁾라고 시를 짓기도 하였다. 설정청은 12월 29일에 한계를 찾아와 예절에 관해 묻기도 하고, 1월 4일에 格物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였다. 한계는 이를 筆話로 남겼다. 그가 지은 글에 ‘『춘추』는 尊王이 주가 아니고, 공자께서 異端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서술이 있어 한계가 이를 지적한 일이 있다.¹⁰⁾ 작은 단서이기는 하지만 薛正淸의 학문이 조선 학계와 성격이 자못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공교회 인물들의 사유와 지향이 실상 韓溪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달랐음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¹¹⁾

3. 공교 진작을 주장하는 학자형 관료 인물

북경에서의 활동과 당시 한계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을 요하는 인물이 있다. 李文治(1858~1932)이다. 운남 大理府 太和縣 출신으로 1899년 북경 會試에 합격한 이문치는 국비로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학자로 관료였다. 그의 딸과 조카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국제 정세나 흐름에도 밝았던 이 인물은 1906년 昆明方言館의 직위를 받아 국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데다 1913년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북경에 와 참의원 교육 부문에서 활동하였으며, 1914년 한계를 만날 때는 공교를 국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활동 중이었다. 한계를 만날 당시 57세로, 한계보다 11세 연하이다.

이문치와 한계의 교류는 학자와의 학술 교류적 성격이 짙다. 그는 한계를 스승처럼 존경하여 대우했고, 한계 역시

9) 如今學界多禪味 可喜高章薛正

10) 正淸有所著 言春秋不主尊王 孔子不攻異端 故余詰其主意.

11) 설정청 및 그와 나는 筆話는 별도의 상세한 고찰을 요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생략한다.

그와의 첫 만남에서 “儀表가 존경스러웠다[儀表可敬]”라고 하여 은근한 존경심과 함께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드러내었다. 이문치는 언어학에 관심 있는 학자이기도 했는데, 한계와 만남의 계기가 된 것도 그가 1905년에 출판한 『形聲通』이라는 책이었다. 『形聲通』은 拼音文字 체계에 대한 자기 이론을 정립한 것이었는데, 한계는 마침 한계 역시 비슷한 성격의 『音文類表』라는 저술을 지은 것이 있었기에 둘은 이 지점에서부터 이미 서로 통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1월 3일,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곧바로 서로를 알아보았다. 이문치는 한계가 가지고 온 『이학종요』를 일별하자마자 한눈에 韓溪 家學의 요점을 파악할 정도로 날카로운 안목을 지녔던 그는 1월 12일에 청나라 주자학자 冉觀祖의 『天理主敬圖』를 한계에게 보냈다. 天理를 부각하여 敬과 연결시켜 양명학에 대응한 冉觀祖의 심법 논리가 한계 가학의 主理 논리와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두 사람은 막역하게 되어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시문과 저술을 비평하였다. 2월에는 원세개에게 보낼 편지를 이문치와 논하기도 하였고, 한계의 『蒙語類訓』을 간행하여 소학교 교과서로 삼자고 청하기까지 하였다. 이문치는 한계의 부친 寒洲의 저술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여 『이학종요』에 대해서는 정자학의 핵심을 이해한 저술로 고평하며 ‘중국에 견줄 책이 없다. 한국에서 완성판을 구매할 수 있는가’ 물었다. 고례와 縑布冠과 深衣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틈만 나면 물어왔고, 한계가 북경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이문치는 치포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계는 이별의 선물로 深衣 한 벌을 남겨주었다.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매우 친밀하였다. 당시 이문치가 딸을 잃어 2월 4일에 한계가 조문을 갔고, 곡부에서 돌아온 한계의 거처를 위해 이문치가 셋집을 얻어주었다. 이는 한계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도 컸는데, 경찰이 이방인을 검문할 때 이문치가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3월 12일 무렵에는 순찰관이 이문치에게 한계의 신원보증서[保單]를 써달라고 하여 이남빈이 작성해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헤어지던 날 한계는 ‘첫눈에 말없이 마음이 통했노라[一見無言意自通]’고 회상했고, 이문치는 ‘이제하면 용문정사를 열어 스승님 모시고 가르침 받을까’라고 하며 존모와 아쉬움을 아울러 표현했다. 한계의 전별연도 이문치가 마련하였다.

또 한 사람의 재미있는 인물이 있다. 공도회에서 강연했던 周嵩年이다. 행력을 상고할 수 없는 이 인물은 한계에 따르면 청나라 말기 현령을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 역시 한계의 저술 및 古禮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복장으로는 深衣와 縑布冠에 대해 궁금해하였고, 한계의 『曲禮集傳』과 『內則集傳』에 굉장한 흥미를 보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계와 筆話를 나누었으며 한계가 북경을 떠날 때 ‘곡례집전은 밤하늘의 달[記補曲臺月鑑空]’이라고 노래하여 존모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결국 그가 이문치와 함께 『曲禮集傳』과 『內則集傳』을 간행하려 하였기에, 한계는 해당 책들을 필사하여 북경을 떠나는 날 그의 부인에게 해당 전해주었다.

또 王闓運(1833~1916)은 호남성 湘潭 출신으로 尊經書院과 船山書院 등에서 강의를 하다가 태평천국 시기 중국 번의 막부에 들어갔고, 1913년 원세개의 초빙을 받아 북경에 온 인물이다. 國史館館長을 맡아 國史를 편수했고 參議院參政을 겸임했다. 3월 24일 공교 총회에서 강연하는 그를 보고 만나 인사하였다. 그날 한계는 82세의 이 老碩學 관료에게 ‘얼굴은 기리게요 필력은 왕회지’라고 하여 존모의 뜻을 한껏 드러내며 “중화 존봉이 우리의 세상[尊華是我天]”이라고 시를 읊어 건넸다.

이 외에도 孔社의 인물 花農 徐琪(1849~1918)도 학자형 관료이다. 한계보다 2살이 적은 서기는 1880년 진사시에 급제하여 한림원 편수, 내각학사, 우부 시랑을 지낸 인물인데, 이 때문에 『서유록』에서도 徐侍郎이라고 부르고

있다. 뒤에 원세개 정부의 參政이 되었다. 서기 역시 한계에게 흥미를 느끼고 후대하여 종이를 선물하기도 하고 시사에 대해 담론하기도 하였다.

4. 공자의 후손과 기타 인물

공자가 곡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공자의 75대손 孔祥霖(1852~1917)이다. 공상림은 1877년 과거에 급제하고 河南提學使를 역임하였으며, 당시 곡부의 提學으로 있었다. 한계는 2월 3일에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곡부 방문 예정을 미리 알리고, 2월 22일 곡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명함을 보내어 곡부에 도착하였음을 알렸다. 2월 23일 공상림을 방문하자 그는 한계를 한껏 환대하였고, 李獻廷이라는 사람을 불러 孔府를 안내하게 하였다. 만나던 날 한계는 공상림에게 孔府 소속의 재정에 대해 묻기도 하고, 천하의 도서를 기부받아 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계는 孔敎의 진작에 곡부 공교회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듯하다.

공상림 역시 寒洲의 『이학중요』를 고평하였고, 『사례집요』에도 관심을 보였다. 공상림은 한계를 각별하게 예우하여 27일 周公의 사당은 공상림 자신이 직접 안내하였고, 2월 28일에 한계는 『이학중요』와 『사례집요』를 공상림에게 주어 곡부 공교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9일에 『養正韻語』 2권을 공상림으로부터 받고, 뒤에 『闕里文獻考』 8권이 간행되면 받기로 약속하였다.

곡부 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孔令貽(1872~1919)이다. 공자의 76대 종손으로, 제30대 연성공이다. 한계가 북경에 도착했을 때 연성공 공령이는 북경에 있었다. 그러나 12월 28일에 북경을 떠나 곡부로 돌아왔기에 당시 만나지는 못하였고, 우선 편지와 함께 『춘추집전』 한 부를 먼저 보내었다. 2월 22일 곡부에 도착하여 다시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곡부에 왔음을 공령이에게 알렸다. 그러나 당시 공령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고, 돌아올 때 잠깐 찾아가 병 위문을 하고 하직 인사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곡부 방문에서 상징성만큼은 그 어느 인물보다 작지 않다.

또 곡부를 다녀 온 뒤 3월 14일에 맹자의 72대손 태안 사람 孟昭章을 만나 筆話를 나누었다. 17일에는 孔道會 강연에 참석하였다가 서양 사람 衛西琴(Alfred Westharp, 1882~1952)을 만났다. 한계는 영국인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독일 사람이다. 뮌헨 대학에서 음악과 심리학 전공하고, 중국 문화를 좋아하여 1913년에 중국으로 왔다. 뒤에 한계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서유록』에 등장한다. 한계가 당시 만났던 중국 인물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구분	인명	간략정보	비고
孔敎總會	陳煥章(1880~1933)	Columbia University 博士 강유위 제자, 梁啓超 동문	『孔敎論』
	李時品(1886~?)	자는 明庶. 四川 출신. 廖平의 제자	筆話
	宋伯魯(1856~1932)	字 芝棟, 호 芝田. 陝西 禮泉 사람 섬서 회장	강연
孔道會	龍澤厚(1861~1946)	字 積之. 廣西 출신. 강유위 제자, 萬目草堂 학장 孔道會 조직	筆話
	黃莫斌	字 啓瑞. 광동성 출신. 大悲院 孔道會 회원	

	薛正清	陝西 韓城人. 大悲院 孔道會 회원	筆話
	孔令貽(1872~1919)	제30대 연성공	『춘추집전』
공자 맹자 증자 후손	孔祥霖(1852~1917)	자 少霖, 공자 75대손, 곡부 제학	筆話 『이학중요』 『사례집요』
	孔德同(1902~1980)	공상림의 姪孫, 孔德成의 족형	
	東野氏	주공의 후손	
	孟昭章	字 子貞, 산동 泰安 사람. 맹자의 72대손	筆話
	曾福謙(1851~1922)	字 伯厚, 호 郟叟. 증자 후손	
	紀朗夫	공상림의 제자	筆話
관료	李文治(1858~1932)	字 南彬. 운남 大理府 太和縣 출신 會試 합격, 중화민국 참의원	『形聲通』 筆話
	王闓運(1833~1916)	호 湘綺, 河南 사람. 國史館 館長	강연
	周嵩年	字 熊濤, 號 西山. 縣監	筆話
	徐琪(1849~1918)	자 花農. 浙江 사람	筆話
	王士傑(1858~1931)	字 偉臣, 號 耐安. 河南 武陟 사람	강연
기타	甯述俞	潼關 사람	『明學』
	袁峻	字 孝高	筆話
	王樹柟(1859~1936)	자 晉卿, 호 陶廬老人	강연
	袁世峻	원세개의 從弟	
	張肇松	寧陽縣鄉土志 간행	
	衛西琴(1882~1952)	독일인	시, 편지
	金子順	중국 귀화인, 한국어 상실	筆話

III. 寒洲 저술 3종의 소개와 강독

한계가 북경·곡부 행을 결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선친 한주의 저술을 중국 지식인들에게 알리고 그 의미를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한계가 행장에 각 3부씩 단단히 꾸러 넣은 3종의 책은 『春秋集傳』, 『四禮輯要』, 『理學綜要』이다. 이 책들은 한계가 구상하는 孔敎 이론, 한계가 지향하는 공교 운동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둘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다.

1. 『春秋集傳』과 尊王攘夷

먼저 고찰할 책은 寒洲가 58되던 1857년에 지은 원고를 1911년에 손자 李基元(1885-1982)이 雲陶齋에서 신활자로 간행한 『春秋集傳』이다. 한계는 선친의 원고를 宋晉翼 형제와 함께 손수 교정하였다. 하지만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간도로 가며 曠宗석과 장석영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다.¹²⁾ 한계는 북경으로 떠나는 길에 아들로부터 받은 간행본을 꾸러넣고, 첫걸음에 ‘선친이 내게 『춘추집전』 맡기셨으니, 영걸들 만나 강구하라는 뜻’¹³⁾이라고 노래하였다. 저자 한주도, 아들 한계도 이 책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春秋』는 王正月의 大義를 전면적으로 표방하는 책이다. 이는 救亂世와 尊王攘夷의 정신적 원류로써, 경세관과 역

12) 『春秋集傳』 간행 경위에 대한 간략한 전말에 해서는 曠宗석, 『俛宇集』 권411 「春秋集傳跋」(1913) 참조.

13) 「發北京行」先君付我春秋傳 爲訪英賢此講求

사관, 의리관과 윤리관 등의 면에서 공자 정신의 표본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계는 “霸道の 시대로 내려오면서 功利만 다투고 仁義를 가장하여 大倫이 미약해졌다. 공자가 당시에 태어나셨으나, 정사를 시행할 수 없어 만년에 『춘추』를 지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치는 자식, 음란한 여인의 죄를 토벌하자 三綱의 의리가 비로소 밝아졌다.”¹⁴⁾라고 자신의 春秋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계는 『춘추』의 중요성을 功利를 다투는 시대에 대응하여 仁義를 바로 세울 책, 난신적자를 징계하여 삼강의 윤리를 밝힐 책이라 본 것이다.

한계의 이러한 사유는 선친 한주의 사유를 계승한 것이다. 한주는 『春秋集傳』 서문에서 “난신적자가 연이어 나와 華夏가 夷狄으로 변하고, 인류가 짐승으로 변하려 하였다. 공자가 이 시대에 태어나시어 열국을 돌아다니며 도를 행하여 구원하려 하였지만 끝내 행하지 못하였다. 물러나 『詩』와 『書』를 산삭하고 『예』와 『악』을 기술하여 世教를 부지하고자 하였지만, 무력한 말은 소용이 없어 현실 사업에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나왔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노나라의 역사를 가져다 필삭하였다.”¹⁵⁾라고 하였다. 이 지점과 관련하여 金東敏은 선행연구에서 『춘추』 저술이 공자 개인의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강력한 시대적 요청이듯 『춘추집전』의 저술 역시 지식인의 사명이자 시대 요청의 결과임을 표명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¹⁶⁾ 사유와 문장의 흐름이 한계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의 말로 보면 한주는 『춘추』를 무력한 『시』·『서』·『예』·『악』과 달리 변질되어가는 세상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책’으로 생각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春秋集傳』은 그 생각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의도로 만들어진 저술이다. 평생 학문을 닦은 학자로서는 실로 회심의 학술 기획인 셈인데, 이를 알아본 면우 곽종석은 跋文에서 ‘지금 천하가 혼란해지려고 하니, 『春秋』를 깊이 읽지 않으면 선비가 될 수 없다.’는 평소 한주의 말을 인용하여 ‘『춘추』는 약을 조제하여 병을 치료하는 책이므로 성인이 완전한 道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 『春秋集傳』에 달려 있다’¹⁷⁾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앞에 서술한 寒洲의 서문, 면우의 跋文 및 한계의 진술을 보면 한계가 선친의 『春秋集傳』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는지, 북경·곡부 여정의 첫걸음에서 선친의 당부를 왜 새삼 되새겼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 처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용택후이다. 용택후에게 고평을 받은 한계는 이 책을 孔令貽가 있는 연성공부에, 그리고 공교총회에 각각 한 부씩 보냈다. 선친의 책을 공교총회에 보내며 한계는 이렇게 노래했다.

今人援孔似迷藏 지금 사람들 공자 끌어 씌어 속임수 같으니
剛說春秋不尊王 『춘추』를 말하면서도 존왕을 하지 않네
王正大義昭如日 왕정월의 대의 해처럼 밝으니
願共諸君講一場 여러분과 함께 강론 했으면

起承 句에서 한계는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공교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말만 공자를 외쳐 허울 좋은 자존심만 내세울 뿐 사실상 尊王攘夷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서양 제도를 쓰고, 서양 달력을 쓰고, 신식 학교를 세

14) 降及霸塗 惟功利是競 仁義爲假而大倫微 我孔夫子生於其時。不能行其政。晚作春秋。討亂臣賊子淫婦之罪而三綱之義始明。

15) 『春秋集傳』, 「序」, “亂臣賊子接踵而起, 華夏將變於夷狄, 人類將化爲禽獸。吾夫子作於是時, 周游列國, 欲行道以救之, 而卒莫能行也。退而刪『詩』·『書』, 述『禮』·『樂』, 欲以扶世教, 而空言無補, 不若見之行事, 乃取魯史之未及修堵筆削之。

16) 김동민, 「李震相 『春秋集傳』의 性理學的 『春秋』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집, 대동문화연구원, 1018, 149면.

17) 『春秋』猶用藥治病.

위 서양 사상에 매몰된 채 구호로만 공자를 찾고 있는 공교운동의 모순을 迷藏이란 말로 꼬집었다. 轉結 句에서는 『春秋集傳』의 의의와 함께 자신이 북경에 온 목적을 밝히고 있다. 선친의 이 책은 『춘추』의 王正月의 의미를 환히 밝혀놓았으니 함께 강론하자고 외친 것이다.

한계는 자신의 포부를 실행하였다. 연성공부와 공교총회에 『春秋集傳』을 보냈을 뿐 아니라 설정청과 尊王攘夷에 대해 토론하였고, 『春秋集傳』의 가치를 알아주고 고평해준 공자의 후손 공상립에게 “여기 와서 진가 알아주는 이 만나 정말 기쁘다”고 고마워하며 “중원에도 『춘추』 읽을 곳 있다”고 자못 감격스러워하였다. 또 뒤에 연성공부에 보내어 보관한 소감을 노래하며 “유교의 세상이 좋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¹⁸⁾고도 하였으니, 한계가 이 책에 건 기대를 알 수 있다. 西勢의 위기 앞에 공자 정신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부친의 『春秋集傳』을 상정한 것이다.

2. 『四禮輯要』와 古禮 회복

한계는 1906년 4월에 대구 경무서에서 출소하여 8월에 三峯書堂에서 『사례집요』를 간행하였다. 출소하자마자 지친 몸도 추스르지 않고 심력을 기울여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선친의 이 저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자료를 하나하나 고증하고 원고를 교정해야 하는 지난한 이 간행사업을 한계는 시종 직접 챙겼다. 간행을 마친 한계는 그 감회와 의의를 이렇게 노래했다.

人生四禮本之天 인생의 관혼상제는 하늘에서 근본한 것
常變千殊一理然 천만 가지 상례와 변례 이치는 하나라네
蒼姬世範鴻濛闢 주나라 『의례』는 혼돈 개척하였고
朱子家書丈尺懸 주자의 『가례』는 법도를 세웠지
先君述輯心專苦 선친께서 저술과 편집에 고심 다하셨고
數友譏評事亦賢 벗들은 교정과 평석에 또한 힘 다했네
慚愧銀根多債誤 내 건문 짧아 오류 많을까 부끄럽지만
敢言來百證斯篇 이 책 수없이 검증했다고 감히 말하네

경련과 미련에서 『사례집요』의 완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선친 한주가 40대 초반부터 작고하기 한 해 전까지 무려 25년 정도 심혈을 기울인 역작인데다, 문하의 주요 제자들이 모두 참여한 대사업이었으니, 한계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이어 수련과 함련에서 선친의 『사례집요』가 다른 아님 주나라의 『의례』와 주자의 『가례』를 잇는 저술이라고 자부하는 한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계에게 이 책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주가 『사례집요』를 저술한 계기 중 중요한 하나는 深衣이다. 한주가 임종하기 2년 전, 67세 되던 1884년에 조정에서 도포 착용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전부터 한주는 深衣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령을 접하고 ‘금령에 심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를 입었다. 그리고 금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18) 敬奉春秋藏聖府。且待吾天 好一還

위해 『衣制論』을 지어 고례의 법복인 심의를 착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말하자면 고례의 회복이 『사례집요』 저술의 중요한 동인이자 목적의 하나였던 셈이다.

한계는 『사례집요』에서 고증하여 복원한 심의를 입고 북경으로 갔고, 또 『사례집요』를 연성공부와 공교총회에 보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한계의 의복과 『사례집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진환장은 한계의 모습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았고, 뒤에는 공교회에서 행하는 ‘공자 제사의 관복 제도’에 대해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 용택후와 공상림, 이남빈, 맹소장 등도 한계의 예학과 『사례집요』에 관심을 보였다.

이중 용택후는 禮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절감하고 있던 터에 한계를 만나 『사례집요』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예학이 한계의 가학 중 하나이며 한계가 예의 담지자임을 인정하여 ‘고례 회복 여부’ 등의 고민을 물어오기도 했다. 그때 한계는 ‘古禮를 힘껏 행하여 선왕의 관복 제도가 중요한 줄을 알게 된다면 다시 중화 제도를 회복할 선구자가 될 것’이라며 고례의 회복을 강력하게 권장하였는데, 그 자신감의 바탕에 『사례집요』가 있었다.

곡부에서 만난 맹자의 후손 孟昭章도 예학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 역시 예학을 깊이 연구한 적이 없으며 고례에 무지함을 실토히면서도, 관혼상제의 기준 의절을 정하여 총통 이하 모든 사람들이 행하게 한다면 세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리고 한계에게 『사례집요』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深衣와 緇布冠이었다. 『사례집요』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청나라 의복을 일상으로 입고, 머리를 깎아 변발하였던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고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계의 옷차림과 『사례집요』는 그들에게 많은 궁금증과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四禮輯要』는 한계에게 조선 유자로서 자존심이요 고례 담지자의 표상이었다.

3. 『理學綜要』와 中華

韓溪가 행장에 넣어 간 3종의 책 중 가장 늦게 원고가 완성된 책이 『理學綜要』이다. 寒洲 이래 한계의 집안은 아들 三洲 李基元에 이르기까지 主理를 가학으로 표방하여 主理世家로 자처해 왔다. 그 世傳 家學의 모든 것을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술이 『理學綜要』이다. 그만큼 한주 자신 오랜 세월을 걸쳐 심혈을 기울여 초고를 작성하였고, 문하의 대표 제자들이 교정과 간행의 지난한 작업에 참여하였다.

한주는 1887년 2월에 세상을 떠나는데, 1886년 李斗勳에게 보낸 편지에 ‘『구지록』 23권은 진작에 등사를 마쳤지만 『理學綜要』 1질만은 완료하지 못할 안건이 될 듯하다.’²⁰⁾ 한 것으로 보아 눈을 감을 때까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듯하다. 한주가 39세 되던 1856년에 『主宰圖說』을 짓고 44세 되던 1861년에 『心卽理說』을 지었으니 주리에 관한 기본 논리는 이미 40대에 완성된 셈이다. 『理學綜要』 저술의 구상이 시작된 시기는 미상이나 『理學綜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61세 되던 1878년부터이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理學綜要』 저술에 힘을 쏟았으나 끝내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한계가 1889년 尹胄夏, 郭鍾錫, 李德厚, 李斗勳 등과 교정하여 책을 완성하고, 허유 및 장석영에게 보내어 감수를 요청하였다. 1894년에 한계는 허유와 윤주하 등과 함께 다시 교정하고, 이어 1896년에 郭鍾錫, 張錫英 등 몇몇 벗들과 정리하여 20편으로 만들었다. 후산 허유의 말마따나 그야말로 문하의 제자들이 다함께 心力을 다한 대사

19) 我東衣制 三重相疊 果似煩剩 如欲改之 當以遼古之法服 今反取秦漢以後不雅之服何哉 古之深衣 制簡便而有法象 當講究而通其變也

20) 求志錄二十三卷。曾所畢膽。而惟理學綜要一帙。似爲未了之案

업이었다.

한주는 학문을 明理 곧 ‘理를 밝히는 행위’로 보았고, 明理의 목적을 ‘이치를 따라 살아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사람에게 있는 理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신을 주재하는 天君 곧 마음이다. 이것이 한주 ‘心卽理’ 설의 요약인바, 한주는 이것을 『理學綜要』의 서문 첫머리에 언급하여, 이 책을 왜 『理學綜要』라고 명명하였는지 천명하였다. 이어 자신이 주리의 학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克己私’ ‘斥異端’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理學綜要』는 理氣를 다루어 온 종래의 저술들과 체제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권1 天道에서 ‘理의 大原’을 논하며 ‘太極은 一箇 理’임을 말하고, 이기의 선후에 대해 ‘理生氣’를 말하여(권1 76면) 理의 절대성을 분명히 했다. 권6에서는 理의 主宰에 대해 말하면서 心에 대해 ‘사람에게 있는 天理로서 형기를 주재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 후반부 권21에서는 主氣를 주장하는 이단이 理를 멸절시키는 해악에 대해 말하며 양명학을 비판하는 퇴계의 설을 인용하여 이 책의 목적 중 하나가 斥異端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맨 마지막 권23은 중요하다. 主理의 조종을 요로 삼아 周公, 孔子, 顏淵, 子思, 孟子, 周子(주돈이), 형제, 張子(장재), 朱子, 퇴계를 모두 主理의 종지를 계승해 온 성현으로 보고 있는데, 退溪를 李子로 존숭하여 기록하였다.

이 독특한 저술은 단번에 중국 지식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용택후는 이 책을 보자마자 “삼가 『이학종요』와 『사례집요』를 보니 덕을 높이고 학문에 힘쓴 그대의 선친은 ...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분”이라고 감탄했다. 이문치는 『이학종요』의 맨 마지막 장 “리와 기는 둘[理氣二物]”이라는 단락을 콧 집으며 평생토록 깊이 새기겠노라고 하며 “지금 중국엔 여기에 견줄 책이 없다.”라고 고평하였다. 나아가 李子가 누구인지 물어 한계가 퇴계라고 답해주시기도 했다. 공상림 역시 “세상의 도덕과 사람의 마음에 功이 있다”고 격찬하였다.

『理學綜要』는 한주 이래 主理를 내세워 온 한계 家學의 총요였다. 하지만 이 책을 한계가 왜 한사코 북경과 곡부에 들고 간 것인가. 『春秋集傳』이나 『四禮輯要』는 한계의 공교 운동이나 논리와와의 연결 지점이 이해되지만, 『理學綜要』는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主理와 공자, 두 단어는 사뭇 이질적이고 현격한 거리감을 준다. 하지만 『理學綜要』야말로 한계의 공교 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책이다. 그 단서를 다음의 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격적 논의는 앞의 두 책과 함께 다음 장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吾東主理學 우리 한국의 주리학은
堪作中原心 중화의 핵심
三書在聖府 삼종의 책을 공부에 보냈으니
庶展平生忱 평생의 소원 풀게 되었네

IV. 北京에서의 文筆 활동과 著作

공교회 인사들을 만나고 부친의 저술을 강론하는 한편 한계는 잠시도 쉬지 않고 글을 썼다. 글들은 대개가 당시 中華民國 정부와 孔敎 관련 중심인물들을 상대로 쓴 것들로, 韓溪 晩年の 사유와 고민이 간결한 문체 속에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을 꼼꼼히 읽어야 비로소 중화와 민족, 공교와 主理에 대한 한계 철학의 성격을 정확히 탐토할 수 있다. 북경과 곡부에서 지은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²¹⁾

21) 『서유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계집』의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작성일의 경우 정확한 날짜를 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연번	제목	권 차	작성일	비고
1	「與北京孔教會總會長」	27	12월 12일	
2	「孔教教科論」	29	12월 30일	1월 3일 발송
3	「與康更生有爲」	26	1월 11일 경	
4	「答龍積之」2	27	1월 12일 경	
5	「孔教進行論」	29	1월 23일 경	1월 28일 발송
6	「聖祀冠服說」	29	1월 23일 경	1월 28일 발송
7	「大成廟拜經錄序」	31	1월 25일 경	
8	「清心丸說」	29	1월 27일 경	
9	「字說百選序」	31	1월 28일 경	
10	「與孔少師少霽」1	26	2월 3일 경	
11	「孔道會講話」1, 「孔道會講話」1	28	2월 5일 경	
12	「與袁總統」4	26	2월 9일 초안	2월 19일 발송
13	「與黎副總統元洪」	26	2월 19일 경	
14	「與孔衍聖公」2	26	2월 22일 경	
15	「告孔子墓文」	32	2월 24일	
16	「告周公廟文」「告子思子墓文」「告顏子廟文」	32	2월 26일	
17	「與孔衍聖公」3	26	2월 27일 경	
18	「與孔少師少霽」2	26	2월 29일 경	
19	「與衛博士西琴」	속2	3월 17일 경	
20	「中華內政急務私議」	30	3월 20일 경	
21	「與北京日報社長」	27	3월 21일 경	
22	「與王湘綺闔運」	26	3월 24일 경	
23	「孔教會講話」	28	미상	

1. 정치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한계는 1911년 출범한 원세개의 중화민국 정부를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았다. 특히 원세개가 추진하는 共和政을 두고 躐等이라는 표현을 쓰며 적잖이 불안해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하나는 원세개 정부가 어떠한 준비도,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서양의 제도를 단순히 답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계는 ‘성인이 표준을 세워 민족이 달라도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온 것이 동양의 역사’로, ‘타국을 침략하고 이민족을 살해하는 서양의 국가주의와 다르다’고 말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와 평등이라는 개념 때문에 동양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화민국의 법령이 서양식 의복과 서양식 제도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식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로한 우려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어설픔게 남의 흉내나 내다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한 것인데, 한계는 이를 邯鄲之步에 비유하며 경계하였다. 그리고 원세개 정부의 정책이 만주족 및 망명한 한국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한계는 편지로 써서 원세개에 보냈다. 처음 쓴 편지는 1912년 4월에 쓴 것이고, 북경에 오기 전까지 모두 3차에 걸쳐 편지를 보냈다. 권26의 「與袁總統」1, 2, 3서이다. 이 편지들에서 한계는 ‘서양의 功利

누락된 작품도 일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추후 보다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

는 도깨비요 여우'라고 매도하며 '中華의 국교는 반드시 공자를 받들어야 한다'는 원론 아래 '공자가 『춘추』를 지어 大一統의 의리를 높이 세웠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명분을 외친 것이고, 북경으로 와 제4서를 보내면서 비로소 한계는 중화민국 정부에 바라는 건의안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서유록』에서 이른바 四條이다.

정리하면 첫째 外債를 줄이고 재정을 확충할 것, 둘째 민란과 軍閥 蠢動을 막고 국방력을 강화할 것, 셋째 憲法을 확립할 것, 넷째 孔敎를 국교로 채택할 것에 관한 방안이다. 앞의 세 지점은 당시 중화민국이 직면한 현안을 상당히 정확히 지적한 것이며, 마지막 공교와 관련한 건의안은 자신이 중국 특히 북경에 건너온 목적과 직결된 것이다. 다만 긴 건의안의 여러 주장을 관통하는 한결같은 하나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周나라 이래 전통적인 제도를 오늘날에 맞게 개선하여 확립하라는 것이다.

곧 재정, 국방력, 국교 등에서 모두 周나라 이래 전통적 제도를 활용하라는 제안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화제 대신 立憲君主制를 추천한 한계는 통령정부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요순시대의 정치가 오늘날 입헌군주제에 부합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논리 아래 총재를 행정부, 四岳을 상원의원, 衢室을 하원의원, 九官을 사법부에 연결시켜 입헌군주제 정부의 체제를 설명하고, '中華가 진정한 공화정을 구현하기를 바란다면 입헌군주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할 때도 한계는 小註를 통해 '제도와 전장은 주나라에 더욱 잘 갖추어져 있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결국 한계가 줄기차게 원세개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요약하자면 『춘추』 王正의 의리를 명확히 세워 尊王攘夷의 기치 아래 요순 정치식 입헌군주제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춘추』 의리의 바탕, 그것은 바로 『춘추』의 저자 공자이다. 한계가 孔敎 운동에 적극 뛰어든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다.

공교 운동이 현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계는 학교 교육의 개혁과 정비를 구상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경에서 각 고을의 省縣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향교를 이용하여 공교육을 정비하고, 주나라 제도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 『주례』 「주관」의 六德, 『서경』 「순전」의 五敎 그리고 六藝와 四科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정비할 것을 원세개에게 건의하였다.²²⁾ 한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서유록』의 서문에 특별하였으며, 2월 5일에 원세개의 종제 袁世峻이 찾아왔을 때 그와 이 편지를 두고 필화를 나누기도 했다.

북경에서 韓溪는 중화민국에 제언할 목적으로 또 하나의 글을 지었다. 「中華內政急務私議」이다. 이 글은 북경에 있는 동안 구상하고 지은 글인 듯하다. 완성은 3월 중순이 지난 어느 시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는 이 글에 대해 1914년 3월 21일에 이시품과 筆話를 나눌 때 언급하였다.

「中華內政急務私議」는 크게 財政과 學政에 관한 제언이다. 재정에 관한 제언은 1) 公債를 모집하여 은행을 조직할 것, 2) 화폐를 개혁할 것, 3) 주민과 토지에 대한 세제를 정비할 것이다. 학정에 관한 제언은 1) 국가감을 비롯한 관학의 대성전을 바탕으로 학교를 재정비할 것, 2) 유교 경전을 교과로 세울 것, 3) 고대의 학제를 바탕으로 학규를 정립할 것 등이다. 재정이든 학정이든 모두 『周禮』를 비롯하여 『소학』과 『예기』 등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정립한 구상이며, 또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與袁總統」 제4서의 내용을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라 하겠다.

22) 한계는 원세개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형태로 부총통 黎元洪에게도 편지를 보내었다. 2월 19일 무렵으로 추정된다.

2. 학교 교육의 개혁과 관련하여

「中華內政急務私議」의 절반은 교육과 관계된 내용이다. 한계가 북경으로 와서 처음 만난 공교의 중요 인사는 진환장이다. 한계가 진환장을 주목한 이유는 康有爲와의 연결을 의식한 것이다. 한편 진환장이 한계를 주목했던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무엇보다 한계의 「孔教教科論」 때문이다. 진환장은 공교의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를 쇄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한계와 진환장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한계 역시 유교를 혁신하여 서세에 대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교육의 쇄신과 학교 설립으로 보았다.

신학교를 세우는 대신 국자감을 비롯한 國學을 쇄신하여 중국 전역에 확장 건립하고 이를 중화민국에서 시행할 새로운 공교육 체계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韓溪의 생각이다. 한계가 생각하는 학교는 전래의 국자감과 달리 학년제와 교과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서양 학제의 장점을 수용한 형태이다. 다만 그것이 공자의 정신과 동양 전래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孔教를 진작할 이 새로운 학교 체계의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를 韓溪는 「孔教教科論」이라는 글로 발표했다.

「孔教教科論」의 요지는 간단하다. 教科 체제를 정비하되 기존의 五德, 五倫, 六藝, 四科를 바탕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1) 智·仁·勇·敬·誠 五德을 교육 정신으로 삼아 서구 정신에 대응하자는 것, 2) 五倫의 질서는 중화와 야만의 기준이니 이를 가지고 물질 중심의 서구 질서에 대응하자는 것, 3) 六藝를 오늘날에 맞게 군사 교련 등 실용 분과의 교과로 개편하자는 것, 4) 孔門의 四科는 옛날 대학의 窮理·正心·修己·治人이자 오늘날 고등교육인 대학교의 교과이므로 이것을 부활시켜 오늘날 학교 교과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孔教教科論」은 본래 한계가 강유위나 진환장에게 제안하려고 쓴 글이다. 첫 구상이 언제 시작된 것인지는 추적하기 어렵지만 北京 행 기차에 오르면서 정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도착하여 진환장과 만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고심하여 1913년 12월 30일에 마침내 완성되었다. 예대회와 아들 이기인이 북경의 시가지로 구경을 나갔던 한 해의 마지막 밤, 그 때 韓溪는 홀로 남아 「孔教教科論」을 베껴적었다. 초안과 윤문을 마치고 마침내 완성한 것이다.

완성한 지 사흘이 지난 1914년 1월 3일에 韓溪는 「孔教教科論」을 공교총회에 보냈다. 한계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孔教教科論」을 통해 북경 孔教 총회 인사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공교 총회를 통해 원세개의 중화민국 정부에 보내는 것이었다. 결과야 어떻든 한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진환장은 이 글을 보고 한계에게 새삼 흥미를 느끼며 다른 글도 써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북경 공교 총회는 이 글을 중화민국 정부에 보내어 학교 개혁의 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孔教教科論」은 「中華內政急務私議」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孔教教科論」은 「中華內政急務私議」를 읽을 때 비로소 한층 명징하게 그 의도가 이해된다. 韓溪는 「孔教教科論」을 짓고 난 이후 자신이 구상하고 주장하는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中華內政急務私議」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품이 「孔教教科論」을 상해로 보내어 『孔教雜誌』에 싣겠다고 했을 때, 韓溪는 양계초에게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계는 “학교의 일은 반드시 孔教의 취지로 교과를 만들어 신학문과 융합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신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綱常과 仁義를 알 수 있고 孔教를 지향하는 선비들이 실용의 학문을 할 수 있다.”라

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말하자면 한계는 공자 이래 유교의 학제를 바탕으로 서양 학제의 장점과 실용 교과를 융합하는 방식의 개혁을 구상했던 것이다.²³⁾

1914년 1월 23일, 종일토록 비가 내렸던 이 날, 북경에서 韓溪는 또 한 편의 중요한 글을 썼다. 「孔教進行論」이다. 이 글은 진정한 孔子教를 만들기 위한 과정과 현안을 적시한 것이다. 공자 이래 권력자와 문장가를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이 공자를 외쳐대곤 했지만 대개는 그것이 私利를 위한 목적에서 나온 거짓이기 때문에 공자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공자의 정신이 변질되었다는 것이 한계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고민 아래 진정한 공자교를 정립하기 위해 한계는 몇 가지 제안을 했다. 1) 학교의 개혁이다. 漢唐 이래 천하의 학교가 모두 공자를 향사하였는데, 당시에 와서는 도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각각 종교를 바탕으로 학교를 만들고 중화민국에서는 서양의 학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韓溪의 진단이었다. 한계는 북경에서 각 현에 이르기까지 다시 孔廟를 설치하고 공교의 과목을 천명하여 전문학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교육 대상이다. 문맹 퇴치를 위한 보편 교육에서 黨學→縣學→州學→國學으로 이어지는 인재 선발 과정을 제안하였다. 전통시대 小學·大學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구상이다. 3) 교과서이다. 13경을 바탕으로 초등 교과서와 여학교 교과서 및 대학교 교과서를 수준별 전공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교육 과정이다. 한계는 서양 교육의 엄격한 수업 시간 제정, 인원과 성별에 따른 분반, 전공별 분과, 학년제를 주목하고 매우 고평하였다. 다만 종전의 교육 과정엔 이와 같은 것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제도화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 하며 이를 빨리 정비하여 시행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한계는 서양 교육에서 중시하는 경제, 정치, 기술, 군사 등은 공자도 모두 말해 놓았으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함께 정치와 조세 제도 등을 개혁하고, 신구의 교과를 융합하여 시대에 맞게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이 글은 「孔教教科論」과 「中華內政急務私議」 사이에 있는 것이다. 「孔教教科論」, 「孔教進行論」, 「中華內政急務私議」 순으로 읽으면 韓溪의 생각과 구상이 구체화 되는 과정과 확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글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 면에서 한계에게 후의를 아끼지 않았던 용택후는 「孔教教科論」을 고평하여 ‘吾道の 嫡傳’이라고 하였으며 “선생님을 따라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오덕五德과 오륜五倫, 육예六藝와 사과四科를 만들어 이를 확충하고 싶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두 사람이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처음부터 상당한 교감을 나누었던 것인데, 그 고민의 결과물이 「孔教進行論」이다. 한계가 「孔教進行論」을 완성하자마자 용택후에게 보낸 것, 이후 한계가 동삼성 한인 공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 등은 모두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古禮 및 冠服 회복과 관련하여

당시 중국 공교회 인사들이 한결같이 긴급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 있다. 중화민국 정부 출범 후 단절되었던 공자 제사 곧 석전제 복원이다. 석전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하여 의결까지 통과하였지만 문제가 적지 않았다. 우선 儀式 절차를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청나라 이래 달라진 의관도 문제였다. 古禮를 복원하려 해도 남아 있는 자료나,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문제는 당시로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1914년 1월 21일, 아들 이기인이 공교회에 갔을 때 당시 북경 공교회를 맡고 있던 진환장이 이기인을 통해 공자 제사의 관

23) 한계는 동삼성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시품에게 편지를 보내어 공교회와 관련한 여러 일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대계집』 권27에는 4편의 편지가 실려있다.

복 제도에 대해 물어왔다. 진환장의 물음이 발단이 되어 한계는 이를 뒤인 23일에 「공교진행론」과 함께 「孔祀冠服說」을 지어 28일에 공교회에 보냈다.(권29의 「聖祀冠服說」이다.)

공자의 제사에는 반드시 공자의 관복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여러 聖像이 저마다 다 다르고 또 그림을 보고도 참모습을 알기 어려우니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공자께서 “젊어서 노나라에 있을 때에는 達掖衣를 입었고 장성하여 송나라에 있을 때에는 章甫冠을 썼다.” 하였다. ... 학자에 따라 深衣가 혹 縫掖이라는 것이니 곧 深衣가 周縫한 것이게 이렇게 이름한 것인가. 황제와 순임금 이래 상하와 남녀와 길흉과 문무에 모두 深衣를 입었고 주나라 제도에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노나라는 주나라 예를 고수하여 공자가 따랐으니 틀림없이 深衣를 입었을 것이다. 지금 선비들은 마땅히 장보관과 심의를 입고서 공자를 제사 지내어야 한다.

「孔祀冠服說」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 성격의 글과 章甫冠 및 深衣의 양식과 치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위의 인용문은 서문 성격의 글에 보이는 내용이다. 중간 부분 공자의 말은 『예기』 「儒行」에서 인용한 것이다. 袁公이 공자에게 ‘선생의 服은 유자의 服인가’라고 묻자, 공자가 ‘저는 노나라에 살면서 심의를 입었고 송나라에 살면서 장보관을 썼다’고 대답한 고사이다. 『家語』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

한계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다. 황제와 순임금 이래 古禮의 복식은 深衣였고, 공자 역시 평소에 縫掖한 심의를 입고 머리에 장보관을 썼음이 『예기』와 『가어』에 실려있으므로, 선비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낼 때 의당 공자가 입었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아래 진환장과 공교회 인사들을 위하여 장보관과 심의의 양식과 치수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공교회로 보냈다. 장보관과 심의의 제도는 寒洲의 『사례집요』에 근거한 것이다.

2월 17일, 주송년은 한계가 쓰고 있는 冠이 무엇인 줄도 몰라 이름이 무어냐고 물었다. 冠의 이름이 縹布冠이고 『儀禮』 「縹冠」 鄭玄의 註에 자세히 나온다는 한계의 대답을 듣고 구매처를 묻기까지 하였다. 그때 한계는 자신이 지은 「孔祀冠服說」을 꺼내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감탄한 주송년은 한계에게 ‘용택후가 북경에 돌아오면 공도회에서 고례의 관복을 크게 제창해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孔祀冠服說」을 보내고 난 1월 28일 무렵, 한계는 또 하나의 글을 썼다. 용택후의 『字說百選』에 대한 서문이다. 용택후는 禮에 관심이 워낙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冠禮의 복원에 관심이 많았다. 청나라가 들어선 이래 변발의 문화가 朝野에 자리잡았는데, 변발의 문화에서는 관례가 필요 없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용택후는 지인이 아들에게 관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의례를 몰라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 한계를 만나 조선에서 관례를 행해왔음을 알고 몹시 흥미를 느껴 자문을 구했다. 또 관례에서 字를 지어주고 字說도 지어주었던 옛 문화를 복원시키기 위해 역대 대문호들의 자설을 모아 『字說百選』이란 책을 만들고 그 서문을 한계에게 부탁하였다. 권31에 실린 「字說百選序」가 지어진 전말이다.

관례에는 三加라는 의식 절차가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冠服이 바로 「孔祀冠服說」에서 소개한 장보관과 심의이다. 고례와 관례 복원에 관심이 많았던 용택후로서는 한계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字說百選』에도 한계의 서문을 받고 싶어했던 것이다. 용택후의 요청을 받은 기회에 한계는 冠服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피력하였다. 거기에서 한계는 관례를 ‘成人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요 ‘孔子가 행했던 禮’로 설명하고 ‘이 때문에 관혼상제의 가장 처음에 관례를 놓아두었으나, 변발한 이래 관례가 무너졌기에 이후로 혼례·상례·제례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였다.

한계는 禮를 공자의 유품이자 중화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冠服은 ‘禮와 中華의 징표’였고, 심의와 장보관은 그 冠服의 대명사였다. 말하자면 한계는 심의와 장보관을 통해 중화의 관복을 회복하고, 중화의 관복을 통해 중화의 고례를 복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古禮와 冠服의 회복을 통해 중화의 중흥을 꿈꾼 것이다. 그 원대한 목표로의 첫 걸음을 위해 冠禮 복원을 적극 응원하며 「字說百選序」를 지어주었고, 석전제 복원을 적극 지지하여 「孔祀冠服說」을 지어주었다.

4. 中華論 그리고 主理論과 관련하여

북경에서 한계는 용택후가 주도하여 문묘에서 행하는 拜經會에 초대를 받았다. 1월 9일에 배경회에 참석한 길에 용택후의 안내를 받아 대성전을 비롯한 문묘 전역을 찬찬히 둘러보고 그 자세한 모습을 『서유록』에 남겼다. 그리고 보름 뒤 1월 24일에 용택후로부터 遊錄의 서문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편의 글을 지었다. 권31에 실린 「大成廟拜經錄序」이다. 이 글은 ‘중화는 공자의 중화이다.[中華者 孔子之中華也]’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한계가 극력 孔敎를 외친 이유가 한 줄로 압축되어 있는 문장이다. 한계에게 중화란 공자의 정신이요 공자의 道이며, 공자의 禮요 공자의 문화이다.

拜經會의 의식은 문묘 및 공자와 관련된 경전에 절을 하는 행사이다. 일종의 종교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절을 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한계는 ‘문묘에 절하는 것은 표면적인 행위’요 ‘경전에 절하는 것이야 말로 근본에 가깝다’라고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부여이다. 하지만 한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전에 절하는 것도 결국 문장에 절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공자의 마음[孔子之心]에 절한다’라고 하며, 배경회 회원들에게도 공자의 마음에 절하기를 추천하였다. 결국 핵심은 공자의 마음, 곧 心이다. 공자의 道도 禮도 모두 ‘공자의 心’으로 수렴된다.

위와 같은 한계의 생각은 2월 6일 석전제 행사 뒤 이루어진 공도회 강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날 강연 원고는 「孔道會講話」라는 글로 정리되어 『대계집』 권28에 실려있다. 그중 「孔道會講話」1에서 한계는 공자를 믿는 것에 대해 ‘허상을 믿지 말라’고 외쳤다. 「大成廟拜經錄序」과 요지가 같다. 이 말을 이어 ‘공자는 중화의 마음이다.[孔子者 中華之心也]’라는 하였다. 저 「大成廟拜經錄序」의 문장을 되짚어 부연한 듯한 문장인데, 한층 선언적이고 강렬하다. 한계는 이 말을 전제로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중화는 보존되고 이 마음이 죽으면 중화가 망한다’고 하였다. ‘공자의 心’이 ‘중화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중화를 ‘공자의 心’과 연결시킨 한계의 사유는 心과 理에 대한 특유의 家學 논리, 곧 寒洲 이래 家傳의 主理論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계는 자신의 학문을 主理라고 명확히 밝혔다. 主理가 성현들이 千古토록 전수한 ‘宗旨’로²⁴⁾ ‘從古의 성현들은 본래 主理를 하지 않은 분이 없다’고 확인하여 ‘儒學은 主理일 뿐’²⁵⁾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계 주리론의 요지는 心卽理이다. 이때의 心은 ‘天理의 主宰者’로 절대적 위상을 갖는다.

「孔道會講話」2에서 한계는 ‘心의 속성과 理’의 관계에 대해 ‘心은 형적도 시공간도 없어 작용이 국한되지도 구애되지도 않아 만고만방을 초월하니, 오직 일신을 관장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理만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心을 초월적 주재자로 상정한 것이다.

24) 主理二字 乃千古聖賢相傳宗旨也

25) 從古聖賢元無不主理之人.

吾儒之學。主理而已

주자가 소옹의 설을 인용하여 ‘心은 사람의 태극이다.’라고 하였고, 「태극설」을 지어 ‘心은 천리의 주재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태극은 천지의 心이다.

주자의 「태극설」에서 “성정의 덕을 주재하는 것은 心이고 천리의 주재이다.[妙性情之德者心也 天理之主宰也.]”라고 한 것을 가져와 한계는 ‘심은 천리의 주재’라고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소옹의 설과 연결하여 ‘태극은 천지의 心’이라고 하였다.

‘태극은 천지의 心’이란 말을 저 앞의 ‘공자는 중화의 心’이란 말과 결합하면 공자는 태극이 되고 공자의 마음은 중화의 마음으로써 천지의 마음이 된다. 「孔道會講話」2에서 ‘2500년 뒤에 우리가 공자를 암송하는 것은 오직 그 心 때문이고, 이역만리 타향에 함께 앉아 언어가 달라도 지향을 같이 하는 것은 心이 같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은 이러한 사유 구조와 논리 위에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공자의 心은 태극의 一理요 주재자이다. 따라서 천지의 心을 주재하므로, 천지의 모든 사람들의 心에는 동일하게 공자의 心이 있다. 공자의 心을 실천하여 공자의 冠服을 입고 공자의 언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화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중화인이다. 한계가 주장하는 공자교 논리의 뼈대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계가 『이학종요』를 들고 조국을 떠나 먼 이역으로 가서 공교 진작 활동에 적극 투신한 것은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이다. 한계에게 공교 운동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문명 운동이요 인류 공영의 운동이요 利器를 앞세워 폭력을 자행하는 서구와 일본에 항거하는 운동이다.

V. 나오며

한계가 북경과 곡부를 방문한 진짜 목적은 선친의 저술 3종을 공교총회와 연성 공부에 기증하기 위한 것. 예상대로 중국 지식인들은 굉장한 관심. 학자로 인정, 한국 학술 인정. 공자와 고례의 의미를 재발견. 토론. 그에 촉발받아 여러 편의 글을 지으며 자신의 논리와 구상을 정리.

한주의 『理學綜要』, 『四禮輯要』, 『春秋集傳』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春秋集傳』은 공자, 義理, 尊王攘夷, 斥異端. 중화 정신의 표상.

『四禮輯要』는 고례, 관복, 문화, 교육과정과 학교 체제. 중화 문화와 양식의 표상.

『理學綜要』는 主理. 理는 心, 太極, 主宰者, 孔子, 中華. 중화 논리의 완성.

民族主義와 中華主義에 관한 첨예한 지점들, 孔敎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과의 입장 차, 한국 유교 개혁론자들과의 이론차, 漢詩에 대한 해석 등 중요한 지점들에서 한층 깊은 연구를 촉발하는 단서들이 제출될 것이라 기대하며, 한계 만년의 주요 작품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

문명의 위계에 맞서는 유교적 사유 —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에 나타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 전송희(부산대)

<국문 초록>

지금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대체로 무장투쟁이나 외교적 청원과 같은 가시적 실천의 형태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군사력과 자본만이 아니라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인식의 틀, 예를 들어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위계, 진보를 향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시간, 서구적 정치·사회 제도를 인류 보편의 도달점으로 서사화하는 담론을 통해서도 관철되었기 때문에 이 인식의 틀 자체를 겨냥한 사상적 대결 또한 저항의 엄연한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12년 深齋 曹兢燮(1873~1933)이 저술한 「非共和論」을 다시 읽고, 이를 사회진화론과 문명 위계론이라는 제국주의의 이념적 기반 자체를 겨냥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비공화론」은 1912년에 돌연히 등장한 텍스트가 아니라, 조공섭이 1907년 양계초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래 「讀飮氷室文集」(1908)과 「困言」(1909)을 거쳐 다져온 서구 학술 비판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신해혁명 이후 共和라는 말이 문명·진보와 동일한 계열의 신문물 언어로 유통되던 담론장 자체가 이미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자명한 전제로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공섭이 이 논쟁에 뛰어든 것은 하나의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담론장의 전제 자체를 되묻는 행위였다. 아울러 그가 「비공화론」을 저술한 시점이 국권 상실에 저항하던 실천적 이력과 포개진다는 사실은 이 논설이 몸으로 실천된 저항과 나란히 놓이는 또 하나의 사상적 전선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본고는 「비공화론」의 논증을 세 층위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조공섭은 정치권력의 기원을 인간 사회 내부의 필요에서 찾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면서도 곧이어 그 정당성의 최종 근거를 天命이라는 초월적 근원으로 옮겨 놓는다. 세습과 禪讓을 정당한 정치권력의 이동으로 제시하며 역대 왕조 교체에 섬세한 정당성의 위계를 매기는 이 논증 위에서 그는 대통령제를 도적의 우두머리, 그리고 유자들조차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던 불교 승가의 假습보다도 못한 것으로 격하시킨다. 이는 문명의 척도를 자임하던 서구식 제도를 그 척도의 최하단으로 끌어내리는 상징적 전복의 전략이며, 정치적 정당성의 판정 기준을 애초에 서구·일본이 설정한 대상 바깥에 두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둘째, 조공섭은 서양 사람의 법은 다스려짐은 있고 혼란은 없다는 양계초의 명제를 낮과 밤, 봄여름과 가을겨울의

순환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경험적 사실에 견주어 논파한다. 이는 서양 문물 자체에 대한 배격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를 역사 발전의 종착점으로 절대화하는 진보의 단선적 시간관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서구 공화정의 안정성을 아직 백 년이 되지 않은 일시적 국면으로 상대화하고, 폭군의 출현을 막는 길을 제도가 아닌 군주 교육에서 찾음으로써 서구적 제도의 이식이 아닌 유교적 修己治人의 전통 안에서 정치적 안정의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그는 정치 참여의 확대가 오히려 명분 없는 권력욕의 난립으로 귀결됨을 지적하고, 隱逸을 정당한 실천 양식으로 승인하며, 한 세대에 걸친 仁政의 축적이라는 유교 정치 고유의 시간성이 잦은 정권 교체를 내장한 대통령제 아래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그는 서구적 명칭을 유지한 채 그 실질을 완전히 유교적 선양 모델로 치환해버리는데, 이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정 기준이 서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는 상징적 제스처로 읽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공화론」이 진단한 공화정의 병리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을 되비추는 거울로도 읽힌다는 점이다. 조공섭이 실력과 仁政의 축적이 아니라 선전과 동원의 총량으로 정치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지적은 현재의 매체 정치·이미지 정치의 병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가 선거제도를 두고 백성의 도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우뚝한 인물이지만 따르는 이가 드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헛된 명예로도 대중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경계한 대목 역시 실질적 역량보다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가 지도자 선택을 좌우하는 오늘날의 현상에 대한 우려와 그 구조가 다르지 않다.

나아가 그가 대통령제의 한계로 지적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 비록 심원한 계책과 훌륭한 정책이 있더라도 그 단서를 겨우 시행했는데 그것을 바꾸는 이가 다시 오게 된다는 진단은 선거 주기에 종속된 임기제 권력이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백 년 앞서 짚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조공섭의 대안이었던 신분적 세습이나 禪讓의 모델을 오늘날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으나 그가 제도의 형식적 정합성보다 그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의 도덕적 역량과 정치의 장기적 시간성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은 제도의 완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치의 근본 문제를 다시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처럼 무기력한 침묵이나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적 기반 자체를 겨냥한 논증을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저항은 20세기 초 조선 유교 지식인들의 서구 비판 저작 전반을 시대착오의 증거가 아니라 문명 위계 담론에 맞선 지적 대결의 산물로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대라는 파고 앞에서 조선 정신문화가 지녔던 두께와 논증적 저력을 재평가하는 더 넓은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对抗文明等级秩序的儒家式思维

— 深斋曹兢燮《非共和论》中的反帝国主义政治哲学

全颂喜(釜山大学)

<中文摘要>

迄今为止，对帝国主义的抵抗大多被叙述为武装斗争或外交请愿等可见的实践形式。然而，帝国主义不仅依靠军事力量与资本实现统治，也通过一整套为其支配秩序提供正当性的认知框架得以贯彻。例如，将文明与野蛮区分开来的等级秩序、朝向进步而单向展开的历史时间，以及把西方的政治与社会制度叙述为全人类普遍归宿的相关话语。正因如此，直接针对这一认知框架本身展开的思想对抗，同样应被视为一种不容忽视的抵抗形式。基于上述问题意识，本文拟重新解读深斋曹兢燮(1873—1933)于1912年撰写的《非共和论》，并将其重新阐释为一种直指社会进化论与文明等级论等帝国主义意识形态基础的反帝国主义政治哲学。

《非共和论》并非1912年突然出现的文本，而是曹兢燮自1907年首次论及梁后超以来，在经过《读冰室文集》(1908)与《困言》(1909)等累积的西方学术批判的延长线上形成的结果。辛亥革命以后，“共和”一词作为与文明、进步属于同一语义系统的新事物话语广泛流通，而这一话语场本身已经将帝国主义世界秩序预设为不证自明的前提。在这一意义上，曹兢燮介入该论争，不仅仅是选择了一个政治体制的问题，而是在追问该话语场的前提本身。此外，曹兢燮撰写《非共和论》的时间，恰与其反抗国权丧失的实践经历相重合。这一事实进一步表明，该论说与其亲身实践的抵抗并行不悖，构成了另一条思想战线。

本文将《非共和论》的论证重构为三个层次。第一，曹兢燮虽然从人类社会内部的需要出发探讨政治权力的起源，但随即又将政治权力正当性的终极依据转移至“天命”这一超越性根源。他将世袭与禅让视为正当的政治权力转移，并对历代王朝更替赋予细密的正当性等级。在此论证基础上，他把总统制贬低为尚不如盗贼首领，甚至不如儒者从未承认为正统的佛教僧团之假合。这种论述把自诩为文明尺度的西方式制度拉至该尺度的最底端，是一种象征性颠覆的策略。同时，这也可被理解为一种试图将政治正当性的判断标准置于西方和日本所设定之评价对象之外的努力。

第二，梁后超认为西方法有治无乱，曹兢燮将该命题与昼夜交替、春夏秋冬循环等最基本的经验事实相对照，并据此加以驳斥。这并非对西方事物本身的排斥，而是针对一种将西方现代性绝对化为历史发展终点的线性进步时间观。他将西方共和政体的稳定性相对化为尚不足百年的暂时局面，并不从制度，而是从君主教育中寻找防止暴君出现的途径。由此，他所摸索的政治稳定方案并非移植西方制度，而是在儒家修己治人的传统内部寻求替代路径。

第三，曹兢燮指出，政治参与范围的扩大反而可能导致缺乏名分的权力欲望纷纷滋长；与此同时，他承认隐逸可以作为一种正当的实践方式，而在儒教政治固有的时间性影响下，经过一个时代所累积的仁政，在内涵频繁政权更替机制的总统

制下，从根本上便不可能实现。进一步而言，他虽然保留西方式的名称，却将其实际内容彻底置换为儒家的禅让模式。此举可以被理解为一种象征性姿态，鲜明地表明政治正当性的判定标准并非西方所独有。

值得注意的是，《非共和论》所诊断的共和政体之诸多病理，在今天同样可以被视为映照现实政治的一面镜子。曹兢燮指出，政治地位并非取决于实力与仁政的积累，而是由宣传与动员的总量决定。这一判断与当今媒介政治、形象政治所呈现的病理具有惊人的相似性。他在论及选举制度时警告说，百姓的好恶并无恒常，既有卓然不群却鲜有追随者的人，也有仅凭虚名便可赢得大众的人。此一论述所忧虑的结构，与当今由大众人气和知名度而非实际能力主导政治领袖选择的现象，并无本质差异。

此外，曹兢燮指出了总统制的局限。数年之后即须离任，即使执政者拥有深远谋略与优秀的政策，也往往刚刚开始推行，继任者便已到来并将其改变。此一判断，准确揭示了任期制权力受制于选举周期、因而难以维持具有长远眼光之政策的制度困境。毫不夸张地说，他在一百年前便预见了现代民主制度本身所包含的这一结构性难题。当然，曹兢燮所提出的身份世袭或禅让模式，已无法在当今社会原样恢复。然而，相比于制度形式上的自治性，他更视制度运行者的道德能力以及政治所需要的长期时间尺度为问题所在。正是在这一点上，他提出的问题至今仍然有效，并促使我们重新思考那些无法仅凭制度完备便得到解决的政治根本问题。

由此可见，这种抵抗并非无力的沉默或情绪化的反弹，而是通过系统论证直接攻击对方的逻辑基础。它提示我们，有必要重新阅读20世纪初朝鲜儒教知识分子的西方批判著述，不应仅将其视为时代错置的证据，而应理解为他们针对文明等级话语展开思想对抗的产物。最终，这一工作还应进一步拓展为对近代浪潮冲击之下朝鲜精神文化所具有的思想厚度与论证力量的重新评价。

문명의 위계에 맞서는 유교적 사유

一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에 나타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

전송희(부산대)

- I. 머리말
- II. 1910년대 초 동아시아 공화정 담론과 「非共和論」의 저술 배경
 - 1. 중국의辛亥革命과 조선에서의 공화정 담론 과급
 - 2. 조공섭의 서구문명 비판과 「非共和論」의 사상적 맥락
- III. 「非共和論」에 나타난 유교적 정치사상의 논리와 제국주의 문명 비판
 - 1. 초월적 권력과 임의적 권력 : 天命과 대통령제의 사상적 대결
 - 2. 서구 대의제와 선거주의의 병리 진단 : 권력투쟁의 일상화와 仁政의 붕괴
- IV. 맺음말

I. 머리말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흔히 무장투쟁이나 외교적 청원과 같은 가시적 실천의 형태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저항은 실천의 층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군사력과 자본만이 아니라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식의 틀, 예를 들어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위계, 진보를 향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시간, 서구적 정치·사회 제도를 인류 보편의 도달점으로 서사화하는 담론 등을 통해서도 관철되었다. 이 인식의 틀 자체를 겨냥한 사상적 대결 또한 저항의 엄연한 한 양식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深齋 曹兢燮(1873~1933)이 저술한 「非共和論」을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非共和論」은 1912년 저술한 것으로 이보다 앞서 저술한 「困言」과 한 해 뒤인 1913년 저술한 「順天解」와 함께 묶여 『困言』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¹⁾ 「非共和論」은 표제상으로는 공화정이라는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국한되어 보이지만 그 논증의 실질은 훨씬 넓은 과녁을 겨누고 있다. 조공섭이 梁啓超의 서양 사람의 법은 가히

1) 『困言』의 간행은 1916년 창강 김택영과 조공섭의 제자인 성순영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송희, 「근대전환기 심재 조공섭의 『飲水室文集』 독서와 학적 대응으로서의 『困言』」, 『한국한문학연구』 93, 한국한문학회, 2025 참조.

다스려짐은 있고 혼란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철없는 아이의 견해로 천하의 일을 함부로 의논한다고 일갈할 때²⁾ 그가 겨냥한 것은 양계초 개인의 오류가 아니라 서구적 정치제도를 역사 발전의 종착점이자 문명의 완성태로 절대화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였다.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문명 서사, 다시 말해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논리로 국가와 민족 간의 위계를 정당화하는 담론은 비단 중국의 정치체제 논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이 식민지 침탈을 문명화의 사명으로 정당화하는 데 동원한 이념적 기반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非共和論」의 사회진화론 비판은 제국주의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의 지적 도전으로 다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조공섭은 보다 앞서 저술한 「困言」에서도 신문물을 접한 자들이 “문명한 세상이야! 문명한 세상이야!”라고 자랑하는 세태를 공자의 견해와 어긋난다고 조소한 바 있다. 문명담론 자체에 대한 그의 비판적 거리는 「非共和論」에 국한되지 않는 일관된 사상적 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⁴⁾ 여기에 그가 경술국치 이후 두문불출하며 은거를 택하고, 고종의 승하에도 항복한 군주라는 이유로 服을 입지 않는 선택을 하였으며, 1919년 총독부에 보내는 글의 초안을 작성하다가 옥고를 치른 실천적 행보⁵⁾들을 겹쳐 읽을 필요가 있다. 그때 비로소 「非共和論」은 단순한 정치철학적 논설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된 저항’과 ‘논리로 구축된 저항’이 하나의 사상적 전선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자리매김 된다.

지금까지 「非共和論」 및 조공섭의 공화주의 비판을 정면으로 다룬 선행연구로는 가장 먼저 유영옥의 연구가 있다. 유영옥은 「非共和論」을 정통 儒道의 사수를 표방하면서도 실은 서구 문명의 일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려 흡수하는 지점을 지닌 텍스트로 규명하였다.⁶⁾ 이어 김낙진은 「非共和論」의 논증을 유교 명분주의·겸양론·心合理氣 인간관·천명론이라는 네 축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조공섭의 사상을 사회진화론적 폭력에 맞선 유교적 평화주의의 실천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 평화주의가 유교적 위계질서 내부의 폭력성 자체는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진단하였다.⁷⁾ 김호는 「非共和論」을 조공섭의 정약용 비판과 나란히 놓아, 형벌보다 교화를 우선하는 그의 정치론을 인간에 대한 환대의 논리로 재해석하고 법과 폭력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성찰의 선취로 평가하였다.⁸⁾ 정성희는 이인재와의 비교를 통해, 조공섭이 임기제 대통령과 그를 견제하는 의회라는 근대적 개념을 신분제적 사고 틀 안에서 끝내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짚어냈다.⁹⁾

이 네 연구는 각기 「非共和論」을 유교 내부 논리의 정교함, 법과 폭력에 대한 통찰의 선취, 혹은 신분제적 사유의 한계라는 각도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이들 선행연구는 조공섭이 가장 깊이 겨냥했던 서구·일본 문명 서사의 폭력적 위계 그 자체를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의 견지에서 정면으로 재구성하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非共和論」이 신해혁명이라는 외부의 사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급조된 예외적 텍

2) 曹兢燮, 『巖棲集』17. 「非共和論」. “異哉! 梁啓超之言曰: ‘西人之法, 可以有治而無亂, 孟子之言一治一亂, 非也.’ 吾嘗笑之曰: ‘使天有晝而無夜, 有春夏而無秋冬, 則其言可信也? 若是乎其爲孩童之見而妄議天下事哉?’”

3) 이태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基底)-」, 『한국사론』6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4, 579쪽.

4) 유영옥,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 연구」, 『東洋漢文學研究』30, 동양한문학회, 2010, 306~307쪽.

5) 조공섭의 실천적 행보들에 대한 내용은 전송희, 「深齋 曹兢燮의 成學過程과 學的 實踐 研究: 『深齋日記』를 토대로 한 생애사적 고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6) 유영옥,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 연구」, 『東洋漢文學研究』30, 동양한문학회, 2010.

7) 김낙진, 「曹兢燮의 共和主義 비판과 朱子學적 근거」, 『南冥學研究』33,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2.

8) 김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 『韓國實學研究』32, 한국실학학회, 2016.

9) 정성희, 「식민지 시기 영남유림의 서양 정치제도 연구와 대응 -이인재(李寅梓:1870~1929)와 조공섭(曹兢燮:1873~1933)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트가 아니라 이미 1909년에 집필된 「困言」에서부터 치밀하게 축적되어 온 서구 문명 담론 비판의 철저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非共和論」의 논리적 층위를 면밀히 재검토함으로써, 그의 공화정 비판이 단순한 체제 수호를 넘어 제국주의적 진보 담론의 자명성을 어떻게 해체하려 했는지 그 사상적 대결의 전선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근대 전환기라는 격랑 속에서 서구 문명에 치열하게 논증으로 맞섰던 영남 유림의 사상적 궤적을 짚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식민지적 세계관에 포섭되지 않았던 조선 정신문화의 두께와 저항의 힘을 온전히 재평가하는 작업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II. 1910년대 초 동아시아 공화정 담론과 「非共和論」의 저술 배경

1. 중국의 辛亥革命과 조선에서의 공화정 담론 파급

1911년 신해혁명으로 淸朝가 무너지고 이듬해 중화민국이 성립하면서, 共和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낯선 제도가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들이 직접 대면해야 할 현실적 화두가 되었다. 중국은 조선 지식인에게 문명의 원류였던 만큼, 그곳에서 일어난 군주제의 붕괴와 대통령제의 등장은 단순한 이웃 나라의 정변이 아니라 유교적 세계 질서 전체의 향방을 되묻게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共和라는 말 자체는 이 시기 신문과 잡지를 통해 문명, 진보, 개화와 동일한 계열에 놓이는 신문물의 언어로 유통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양계초를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의 저술이 국내에 활발히 소개되면서, 서구의 정치제도를 역사 발전의 필연적 귀결로 서사화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 이 시기의 지형이다.

이 담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조공섭 스스로가 구사한 어휘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사용한 자유·평등·공화·권리·公德과 私德·우승열패·진보·生命과 力·습群 등의 용어는 대부분 양계초의 「新民說」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조공섭 개인의 특이한 독서가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이 서양 관련 지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로였다. 심지어 안창호는 구국운동에 뜻을 둔 이들에게 『飲氷室文集』 100권을 사서 배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여가 될 것이라 역설하였고, 대성학교 교장으로서는 한문 시간에 五經보다 이 문집을 교재로 삼았을 정도였다.¹⁰⁾ 세상을 피해 산골에 우거하던 조공섭조차 이런 환경 속에서 양계초의 글을 읽고 고금동서의 정치학술과 시무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공화와 문명을 같은 계열의 신문물로 유통시킨 이 시기의 담론장 자체가 이미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자명한 전제로 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공섭이 「非共和論」에서 공화정 논쟁에 뛰어든 것은 단지 하나의 정치체제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담론장의 문명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위계의 논리를 되묻는 것이었다.

이러한 담론의 축적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체·정체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 체면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주권 소재에 따른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근대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 이 시기이며, 갑신정변의 개화파였던 유길준·박영효가 이미 군주권을 제한하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구상한 바 있었고, 이후 독립협회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해 군주권 제한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간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까지도 논자들의 대세는 입헌군주제였으며, 공화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10년 국권 상실로 군주 자체가 소멸하고, 이듬해 신해혁명이 그 논쟁 구도를 결정적으로 자극한 이후의 일이었다. 조공섭의 「非共和論」은 바로 이처럼 입헌이나 전체냐의 구도가 입헌군주제냐 공화제냐의 구도로 전환되는 결정적 국면, 그리고 복벽과 공화가 팽팽히 대립하던 시기에 저작된 글

10) 김낙진, 위의 논문, 264~265쪽.

이다.¹¹⁾

한편 이 시기 서양 정치제도를 연구한 것이 조공섭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같은 영남 퇴계학맥의 도학자였던 省窩 李寅梓(1870~1929)는 조공섭과 정반대의 태도로 같은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였다. 이인재는 서양의 부강함의 근본 원인을 헌법·행정 등 정치제도에서 찾다가 그 원류가 철학에 있음을 깨닫고 『고대 회랍철학고변』을 저술하였으며, 공화제의 핵심을 대의제와 지방자치로 파악하고 『주례』·『맹자』의 구절에서 그와 상응하는 근거를 찾아 서양 정치제도를 조선의 현실에 접목하려 시도하였다. 우송열패·자유·민권 등 강유위·양계초의 개념과 사회진화론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한 이인재의 태도는 동서양의 근원적 理는 같으니 그 적용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理一分殊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²⁾ 조공섭이 같은 시기 같은 학맥 안에서 이인재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그의 「非共和論」이 단순히 신문물에 무지하거나 완고했던 결과가 아니라 서양 정치제도를 수용할 것인가 그 이념적 기반 자체를 되물을 것인가라는 당대 도학자들 앞에 놓인 실제적 분기점에서 후자를 선택한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2. 조공섭의 서구문명 비판과 「非共和論」의 사상적 맥락

「非共和論」은 1912년에 돌연 등장한 텍스트가 아니라, 조공섭이 늦어도 1907년부터 이어온 서구 학술 비판 작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가 양계초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07년 경남 거창의 金鎭學에게 보낸 답서에서였는데, 여기서 그는 양계초로 대표되는 新學問을 준비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사람들이 지켜보는 演武場에 올라 손발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비유하였다.¹³⁾ 신학문을 이끄는 자들의 경험과 사려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 비유는 조공섭이 서구 학술에 대해 전면적 배척이 아니라 그 미숙함과 성급함을 지적하는 비판의 태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이듬해인 1908년 「讀飲氷室文集」의 저술로 이어진다. 조공섭은 양계초의 문집을 직접 읽은 뒤, 그의 논설이 논의의 대상을 정확히 통찰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수미일관하여 독자를 설득할 만한 힘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연함이야말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현혹에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그는 양계초를 賈誼·陸贄·司馬遷·董仲舒·陳亮·呂大臨 등 중국 역대 인물들에 조목조목 견주며, 그에게 재능과 식견은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사상적 내실과 학문적 통합력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⁴⁾ 이는 단순한 비평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과 참신한 주장이 결코 사상적 내실이나 학문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엄정한 도학적 잣대를 세우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독서 체험은 1909년 「困言」의 저술로 결실을 맺는다. 45개의 짧은 단락으로 구성된 이 글에서 조공섭은 천부인권론과 공화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유교적 질서와 전통적 국가관을 해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¹⁵⁾ 특히 주목할 것은 「困言」에 대한 郭鍾錫의 발문이다. 박종석은 이 글이 기독교의 無父와 공화제

11) 유영옥, 위의 논문, 308~311쪽.

12) 정성희, 위의 논문, 103~107쪽.

13) 曹兢燮, 『巖棲集』10, 「答金道明【鎭學○丁未】」, “時學近亦畧窺一二, 政如三家村童, 猝入演武場相似, 耳目交眩, 手脚齊顫, 不知前日之曾有此身否也.”

14) 전송희, 위의 논문, 52~53쪽.

15) 전송희, 위의 논문, 44쪽.

의 無君이 지닌 심각성을 드러냄으로써 양계초 등의 학설이 실은 亂臣賊子들이 창도한 것임을 밝혀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¹⁶⁾ 이는 공화제 비판의 핵심 논지인 군주 없는 정치체제가 곧 인류의 해체라는 것이 이미 3년 앞선 「困言」의 단계에서 조공섭 자신과 그의 학문적 동료들 사이에서 뚜렷이 인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非共和論」은 신해혁명이라는 외부의 사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글이 아니라, 이미 다져진 사상적 토대 위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완성된 논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困言」의 구체적 논지 가운데 두 대목은 「非共和論」의 논증과 직접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첫째는 천부인권론에 대한 비판이다.

백성들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은 性 뿐이니, 어찌 그것을 일러 天賦人權이라 하는 것인가? 이 때문에 그 성을 온전히 하는 자는 때로 권력에 굽히며 그 권력을 지키는 자는 때로 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순임금이 象에게 있어서와 문왕이 주왕에게 있어서 그 성을 다함이 지극하였으니,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살펴보면 그 권력의 지극함을 놓아버린 것이다. 크롬웰이 군주를 시해한 것과 나폴레옹이 백성을 죽인 것은 그 권력의 지극함을 펼친 것이니 군자로서 그것을 살펴보면 그 성의 지극함을 해친 것이다.¹⁷⁾

여기서 조공섭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오직 性뿐이며 權은 그에 속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그리고 난 뒤 순임금과 문왕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성을 온전히 지켰던 사례와 크롬웰과 나폴레옹이 권력을 끝까지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性을 해쳤던 사례를 대비시킨다. 性과 權을 대립시키고는 권력의 절제를 도덕적 완성으로, 반대로 권력의 관철을 도덕적 파탄으로 규정하는 이 논리는 「非共和論」에서 천명을 정치적 정당성의 유일한 근원으로 세우고 그 천명이 인간의 자의적 권리 주장과는 다른 층위에 있음을 논증하는 구도와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있다. 다만 「困言」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겨냥한 원론적 비판에 머물고 있었다면, 「非共和論」은 그 비판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제라는 구체적 제도로 논의를 이동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문명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공자께서 요임금을 칭송하여 말씀하시기를 "높고 크도다, 그 공업이여. 찬란하도다, 그 문장이여."라고 하셨으니 요임금의 임금 됨은 그 거처함을 물으면 흙으로 된 섬돌 계단이 삼단이었고, 띠풀로 지붕을 엮고 처마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으며, 그 백성을 물으면 우물을 파고 밭을 갈아서 나가서는 일하고 들어와서는 쉴 뿐이었으니 무엇이 그 높고 찬란한 것인가? 뉴욕을 간 자들이 마치 천제를 뵈 듯이 하고, 런던을 유람한 자들은 마치 바다에 들어가 용을 본 듯이 하여 멍하니 스스로를 잃고서 다투어 여러 사람들에게 과장하여 말하기를 "문명이로다! 문명이로다!"라고 하니 아! 그 또한 공자께서 본 것과 다르구나.¹⁸⁾

16) 郭鍾錫, 『俛宇集』142, 「書曹仲謹困言後」. “余得以讀焉, 見其根據乎聖人之旨而闢百家之詖邪, 執天理之正而權繩於衆技之焚殺, 發明王道之大, 而功利霸強之雄於一時者其罪益彰, 推人倫之至, 而靈魂無父共和無君之說, 可無疑於爲亂臣賊子之倡也, 卽此而可以反經, 可以撥亂而回治也.”

17) 曹兢燮, 『困言』. “民之所受乎天者, 性而已矣. 而何其謂天賦人權也? 是故全其性者, 有時乎詘權, 保其權者, 有時乎戕性. 舜之於象也, 文王之於紂也, 盡其性之至也, 自庸人觀之, 放其權之極也. 克林威爾之弑君也, 拿破崙之戕民也, 伸其權之至也, 由君子觀之, 賊其性之極也.”

18) 曹兢燮, 『困言』. “孔子之稱堯曰: ‘巍巍乎! 其有成功也. 煥乎! 其有文章’ 堯之爲君也, 問其居, 則土階三等, 茅茨不剪而已矣. 問其民, 則耕田鑿井, 出作入息而已矣, 而何其巍然煥然也. 適紐約者, 如觀天帝然, 遊倫敦者, 如入海觀龍然, 惘然而自失, 斷斷然而夸諸人曰: ‘文明乎文明乎!’ 噫! 其亦異於孔子之見矣.”

조공섭은 공자가 칭송한 요임금의 문명이 물질적 화려함이 아니라 검소함 속에서 이루어진 도덕적 성취에 있었음을 환기하며, 뉴욕과 런던의 외형적 화려함에 압도되어 문명을 외치는 세태를 공자의 견해와 어긋난다고 조소한다. 조공섭은 기계의 발달과 눈앞의 화려한 변화가 문명의 발달이라 판단하는 인식을 경계하며 문명은 욕망을 절제하고 도덕적 성숙이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단언한다.¹⁹⁾ 이 대목은 3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非共和論」에서 서구적 정치제도를 문명의 완성태로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반박이 「困言」에서 이미 원론적으로 개진되었던 문제의식의 재현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非共和論」의 반제국주의적 문명 비판은 1912년에 돌출한 예외적 발상이 아니라, 1907년의 첫 언급에서 1908년의 독서 논평, 1909년의 「困言」을 거쳐 다져진 조공섭 사상의 일관된 축이 신해혁명이라는 정세 변화를 계기로 정치체제론이라는 구체적 형태를 갖추게 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非共和論」에 이르는 사상적 축적의 과정은 조공섭이 처했던 실존적 위치와도 정확히 포개진다. 그가 「非共和論」을 쓴 1912년은 경술국치 이후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自靖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고향 창녕을 떠나 대구 비슬산으로 거처를 옮기며 국권 상실에 저항하는 뜻을 실천하고 있었다.²⁰⁾ 국권을 이미 상실한 상황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두 가지 층위의 위기였다. 하나는 국권 상실이라는 정치적·물리적 위기이며, 다른 하나는 그 국권을 뒷받침해온 유교적 세계관 자체가 문명·진보의 이름 아래 시효를 다한 것처럼 취급되는 인식론적 위기였다. 몸을 감추어 국권침탈을 거부하는 것이 전자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1907년부터 다져온 서구 학술 비판을 「非共和論」으로 완성시켜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서사의 논리적 기반 자체를 되묻는 것은 후자에 대한 응답이었다. 「非共和論」이 겨냥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즉 문명과 진보의 이름으로 유통되던 제국주의 정치체제 정당성의 새로운 척도 그 자체였다.

III. 「非共和論」에 나타난 유교적 정치사상의 논리와 제국주의 문명 비판

1. 초월적 권력과 임의적 권력 : 天命과 대통령제의 사상적 대결

「非共和論」의 정치철학적 기획은 1912년 신해혁명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즉자적으로 반응하여 돌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조공섭이 1909년 「困言」에서 천부인권론의 기만성을 지적하고, 도덕적 절제[舜, 文王]를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크롬웰, 나폴레옹]와 대비시키며 서구적 문명 개념을 비판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굳건하게 기반하고 있었다. 조공섭은 이러한 사유의 축적 위에서 제국주의가 문명의 정점으로 절대화하던 공화정과 대통령제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 세상에 이른바 共和國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共和의 도가 상도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처음 날 때 금수와 같으므로 다스림이 없으면 잡히고 어지럽게 된다. 이에 그 무리 가운데 뛰어난 이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고 태만하여 혹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그 가운데 뛰어난 이를 추대하여 뒤를 잇게 하는데, 이처럼 한 것이 여러 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존엄한 名位와 바탕으로 삼을 權力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질박한 덕이 점차 박해지고 사사로운 뜻이 점차 자라게 되었다. 이에 가부의 의논이 쌓이고 쟁탈의 틈이 생겨서 백성들이 그 폐단을 괴롭게 여기게 되

19) 전송희, 위의 논문, 63~64쪽.

20) 고향 창녕을 떠나 대구 비슬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송희, 「深齋 曹兢燮의 成學過程과 學的 實踐 研究 : 『深齋日記』를 토대로 한 생애사적 고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를 참조.

었다. 이때에 伏羲·神農·黃帝와 같은 성인이 일어나 하늘을 잇고 표준을 세워 그도가 오래갈 수 있고 그 일이 대대로 전할 수 있었다. 백성들이 이에 기뻐하면서 높여 부르기를 황제라고 하여 섬겨서 임금으로 삼고 낮추어 신하가 되었다. 임금이 죽기에 이르러 끼친 혜택이 있고 그 後嗣가 어질다면 세습하여 바꾸지 않고, 그 후사가 능하지 못하다면 백성들이 또 이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 후사가 세습하는 것과 백성들이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다. 堯 임금이 일어나 그 후사를 얻지 못하자 천하의 선비들을 살펴봄에 舜이 있었다. 이에 신하들에게 묻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신에게 명을 구하였는데, 모두 ‘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28년이 된 후에 요 임금이 천하를 순에게 전해 주었으니 얻기가 이처럼 어렵고 주기가 이처럼 신중한 것이다.²¹⁾

인용한 내용은 「非共和論」의 가장 첫 부분으로 정치권력의 기원을 묻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조공섭은 태초의 인간을 금수에 가까운 존재로 규정하고 다스림 없이는 잡되고 어지럽게 된다고 전제한 뒤, 무리 가운데 뛰어난 이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었다고 서술한다. 인간을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그리지 않고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정치의 기원을 찾는 이 서술 방식은 조공섭이 정치권력의 기원 자체를 초월적이지 아니라 인간 사회 내부의 필요에서 찾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의 자리에 존엄한 名位와 바탕으로 삼을 만한 權力이 뒤따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권력의 위상이 생겨나자 백성의 질박했던 덕은 점차 멀어지고 사사로운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권력을 둘러싼 可否의 의논이 쌓이고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애초에 다스림을 위해 고안되었던 자발적 추대 방식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폐단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혼란을 구제하기 위해 복화·신농·황제와 같은 성인이 등장하여 하늘을 잇고 표준을 세우면서 권력의 정당성은 더 이상 인간의 자의적 추대라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고 하늘의 뜻에 있는 것으로 재정의된다. 요가 순에게, 순이 우에게 자리를 전한 禪讓의 절차는 신하에게 묻고 백성에게 드러내고 신에게 명을 구하며 2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신중함으로 서술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과 신중함 자체가 그에게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권력의 이양이 이토록 어렵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결코 인간의 자의에 맡겨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조공섭이 말하는 하늘의 뜻[天命]이 결코 맹목적인 운명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권력이 천명에 의해 부여되고 유지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통치자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賢能함, 즉 聖人으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다. 인용문의 말미에 후사가 어질다면 세습하여 바꾸지 않고, 그 후사가 능하지 못하다면 백성들이 또 이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명시한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현능하지 못한 자가 권력을 차지할 경우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떠나게 되며, 이러한 민심의 이반은 곧 권력의 이동이자 천명의 교체를 의미한다. 즉 조공섭은 초월적인 하늘의 뜻을 백성의 향배와 지도자의 현능함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척도와 긴밀하게 연결 지은 것이다.

21) 曹兢燮, 『巖棲集』 卷17, 「非共和論」. “今之世有所謂共和之國者焉, 夫共和之道, 其可以爲常乎哉? 蓋民之初生, 如禽獸然, 無以治之, 則繁雜殺亂, 於是乎推其尤者以爲帥長, 其人之老且倦, 或不勝其任也, 則又推其尤者以繼之, 如是蓋有代矣. 然以其有名位之可尊, 權力之可藉, 而生民之大機漸漓, 私意浸長, 於是可否之論積, 而爭奪之釁興, 民將苦其弊也. 而有聖人如伏羲、神農、黃帝諸后者作, 能繼天立極, 其道可以久壽, 其業可以世傳, 民乃翕然而尊號之曰‘皇帝’, 奉事之以爲君, 承下之以爲臣. 及其沒也, 而遺澤存, 其嗣之賢也, 則世襲而不移, 其不能也, 則民又去之而之他. 夫其世襲與去而之他, 非其民之所能爲也. 天也. 唐堯氏作, 不得其嗣, 於是相天下之士而有曰舜者. 於是詢之於臣, 暴之於民, 命之於神, 既皆曰可. 凡二十有八年, 然後舉天下而傳之, 其得之若此其難也, 予之若此其審也.”(번역은 曹兢燮 저, 김홍영 외 역, 『암서집』, 점필재, 2013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아래의 『암서집』 소재 작품의 번역 또한 이와 같다.)

다만 그는 권력의 이동과 민심의 이반을 긍정하면서도 그 모든 변화의 최종 주체를 ‘백성’이 아닌 ‘하늘’로 단호히 전제한다. 백성이 무능한 지도자를 떠나는 행위조차 백성 스스로의 임의적 결정이 아니라 천명의 발현이라는 것인데 이때 조공섭이 말하는 천명과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것은 한 해 뒤인 1913년 저술한 「順天解」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늘에는 ‘천리’와 ‘천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컨대 모두 하늘의 명이다. 천리에 달려 있는 것은 순응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천운에 달려 있는 것은 순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순응하지 못할 것도 있다. 천운을 따르면서 천리에 해가 됨이 없는 것은 순응함이 옳지만 천운을 따랐는데 천리에 해가 되는 것은 순응함이 옳지 않다. 천명에 순응하여 존재하고 천명을 거역하여 망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²²⁾

이 글에서 조공섭은 천명을 절대적 올바름인 天理와 역사적 운행인 天運으로 세분화한다. 그에 따르면 천리는 언제나 순응해야 할 절대적 도덕 기준이지만, 천운은 때때로 천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즉 단순히 현실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천운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도덕적 정당성인 천리까지 온전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조공섭은 천리를 거역하고 시대의 흐름인 천운에만 영합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존재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망함이 크고 오래가며, 반대로 천운을 거역하더라도 천리를 굳게 지키는 志士는 일시적으로 망하는 듯 보여도 존재함이 크고 오래간다고 역설하였다.²³⁾ 이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공화정의 파급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타류 앞에서도 유교적 인물과 도덕을 수호하려는 저항이 결코 역사적 패배가 아님을 논증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 위에서 그는 탕왕·무왕의 정벌, 한·당·명의 창업, 송 태조의 즉위를 모두 하늘이 허락한 권력 교체라는 하나의 논리선상 위에 배열하되, 그 도덕적 정당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섬세한 위계를 매긴다.²⁴⁾ 탕왕과 무왕의 정벌조차 완전히 떳떳한 것은 아니었다는 자기 성찰의 흔적을 남겨두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창업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그 이하의 왕조 교체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권력 교체의 정당성이 결코 일률적이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하게 저울질되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위계의 정점에 놓이는 것이 다름 아닌 文王이다. 스스로 덕과 형세와 천명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끝내 紂王을 치지 않은 문왕의 절제를 조공섭은 지극한 덕으로 칭송하며 이를 뒷사람의 으뜸가는 도리로 삼고, 공자가 임금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극도로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처신을 아랫사람의 도리로 제시하여 군신 관계의 전범을 보여준다.²⁵⁾ 이처럼 군신의 義를 부자의 親과 같은 끊어낼 수 없는 天理로 격상시킴으로써 세습과 정통을 지탱하는

22) 曹兢燮, 『巖棲集』17, 「順天解」. “曰: ‘天有二, 有天理, 有天運, 要之皆天之命也. 在理者, 無不可順也; 在運者, 有可順者, 有不可順者. 從其運而無傷於理者, 順之可也; 從其運而傷於理者, 順之不可也. 順天而存, 逆天而亡, 恒也.’”

23) 曹兢燮, 위의 글. “曰: ‘理與運俱順者, 其恒也存, 順乎理而逆乎運者, 有時而亡; 理與運俱逆者, 其恒也亡, 逆乎理而順乎運者, 有時而存. 有時而亡者, 有不亡者存, 故其亡也小以暫, 而其存也大以久; 有時而存者, 有不存者存, 故其存也小以暫, 而其亡也大以久. 理與運俱順者, 大人能之, 衆人嚮之; 理與運俱逆者, 大愚居之, 衆人背之. 順乎理而逆乎運者, 志士爲之, 凡民難之; 順乎運而逆乎理者, 志士耻之, 凡民恒由之.’”

24) 曹兢燮, 『巖棲集』卷17, 「非共和論」. “故孔子稱之曰: ‘惟天爲大, 惟堯則之.’ 舜又不得其嗣, 於是相天下之士, 曰禹以其道行之, 天下無異心, 後世無疑辭. 夫堯·舜之傳賢·虞·夏之受禪, 非其君與臣之所能爲也, 天也. 自夏以後, 世襲之道, 未之或改也, 改之則亂. 故子嚙惑焉而戮, 漢獻帝脅焉而亡. 至其德之甚衰而民必去之, 然後有伐而代之者, 湯·武是已; 有乘亂而取之者, 漢·唐·明是已; 有非其欲而得之者, 宋藝祖是已. 然猶上者有慙德之說, 下者有詭獲之貶, 秦·晉以下無譏焉. 若夫德可以代之, 勢可以取之, 命可以得之, 而猶且不敢有其心焉, 終其身而不變者, 文王是已. 故孔子稱之曰: ‘周之德, 其可謂至德也已.’”

25) 曹兢燮, 위의 글. “夫君臣之義, 猶父子之親,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故文王之事紂也, 盡其誠敬而已, 不見其君之非也. 天下之塗炭, 非不隱於心

힘이 무력이나 다수의 물리적 합의가 아니라 신하의 자발적이고 항구적인 윤리적 헌신에 있음을 논증해 낸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천명론과 군신의리론은 「非共和論」 전체의 논증에서 하나의 公理 역할을 한다. 조공섭은 정치적 정당성이 철저히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결코 인간의 자의적인 합의나 제도의 형식으로 가볍게 정할 수 없는 차원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이때 정당성을 담보하는 초월적 근원으로서의 하늘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하늘이 권력의 유지와 이동을 판단하는 절대적 근거는 바로 그 통치자가 군주로서의 자질, 즉 도덕성과 賢能함을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다. 앞서 그가 堯가 舜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데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역사적 사례를 소환한 것 역시 군주의 자질을 오랜 시간 철저히 검증한 뒤에야 양위나 세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권력의 획득과 이동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도덕적 검증을 거치는 天命의 과정임을 논증함으로써, 조공섭은 조선의 정치적 정당성을 투표나 다수결이라는 서구·일본의 근대적 정치 형식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는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강요한 가장 근본적인 폭력, 즉 피지배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배자가 설정한 문명의 척도로 재단하는 권력에 대한 원리적 거부이자 치열한 사상적 항전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공리 위에서 조공섭은 서구의 대통령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어찌 임금이 있단 말인가라는 공화주의자의 반문에 대해 그는 공화를 주장하는 자들도 결국 우두머리 없이는 조직될 수 없어 한 사람을 추대하여 대통령으로 삼는다는 자가당착을 짚어낸 뒤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지금 시대에 共和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인데 어찌 임금이 있단 말인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 우두머리가 없을 수 없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대통령’이라고 한다. 우두머리로 삼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虛名을 빌려 주었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평민과 동등하게 된다. 허명을 빌려 주었을 때는 마치 도적에 우두머리가 있는 것과 같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 마치 제사에 芻狗를 쓴 것과 같다. 先儒가 승려들 사이에 스승과 제자가 있음을 논하여 假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신토록 그 관계를 감히 변하지 않으니 어찌 이 ‘대통령’을 아침에는 임금으로 여기다가 저녁에는 동료로 여기는 것과 같겠는가. 어찌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침에는 임금으로 여기다가 저녁에는 동료로 여기는 것과 같겠는가. 그렇다면 문왕이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것과 공자가 조심스럽게 삼갔던 것이 모두 외모로만 꾸며서 그 본심이 아닌 것이 되니 성인의 도는 족히 본받을 것이 못 되는가. 사람이고서 이 지경에 이른다면 곧 군신의 의리가 철저한 벌과 개미만도 못할 것이다.²⁶⁾

이 대목에서 조공섭은 두 개의 비유를 동원한다. 첫째는 도적에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대통령이라는 허명이 정당성의 실질이 아니라 임시로 빌려 쓰는 명목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둘째는 제사에 芻狗를 쓴 것이라는 비유로, 필요할 때만 쓰이고 다 쓰면 버려지는 대통령직의 소모적 성격을 지적한다. 이 두 비유는 모두 名位가 그 자체로 항구적 실체를 갖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임의로 부여되고 회수되는 사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조공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교 僧家の 사제관계인 假合을 끌어와 대통령제를 한층 더 낮잡아 본다. 先儒들이 승려들의 사제관계를 두고 진실한 인륜이 아니라 임시로 모인 것이라 폄하했음에도 종신토록 그 관계를 감히 변하지 않는 반면 대통

也, 而君臣之義, 有大於此者, 故不敢違也. 是故在上則爲文王, 在下則爲孔子. 孔子之事君也, 命召之則色勃如也, 入其門則鞠躬如也, 過其位則如不能言也, 升其堂則如不能息也. 其爲禮也, 則曰‘過公門必下, 路馬不齒.’ 夫敬其君而至於其馬猶不敢齒, 則其他可知已.”

26) 曹兢燮, 위의 글. “今之言共和者曰: ‘鈞是人也, 何君之有?’ 然爲此說者, 又不能無其帥也, 則間推一人焉, 以爲長曰‘大統領’. 方其長之也, 借之以虛名; 及其去之也, 等之於平民. 其借之也, 如盜賊之有渠魁; 其去之也, 如祭祀之用芻狗. 先儒論佛氏之有師弟子, 而謂之假合. 然且終身不敢變焉, 豈若是大統領者之朝君而夕儻之也? 若然則文王之變變, 孔子之兢兢, 皆飾於外貌而非其心, 聖人之道, 不足以爲法歟? 人而至此, 曾不如蜂蟻也夫!”

령이라는 관계는 아침에는 임금으로 여기다가 저녁에는 동료로 여기는 것이니, 궤하의 대상이었던 승가의 가합보다도 오히려 못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제를 유교적 군신관계와 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교 바깥의 다른 위계질서보다도 못한 것으로 이중으로 격하시키는 정교한 수사 전략이다.

이러한 비판은 곧바로 인륜의 위기로 이어진다. 조공섭은 문왕의 두려움과 공경, 공자의 조심스러운 처신이 모두 외모로만 꾸며서 그 본심이 아닌 것이 되어버릴 위험을 지적하며, 사람이고서 이 지경에 이룬다면 곧 군신의 의리가 철저한 벌과 개미만도 못할 것이라는 극언으로 절을 맺는다. 벌과 개미의 군집조차 지니고 있는 상하의 질서를 사람이 만든 정치체제가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퇴행이라는 논리다. 이 대목에서 앞서 확립된 군신의리론이 대통령제 비판의 실질적 근거로 다시 소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조공섭의 비판이 당대 공화제 담론을 주도했던 양계초의 논리와 어떻게 길항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양계초를 비롯한 당대의 개화 지식인들에게 대통령제를 위시한 서구의 대의제와 선거주의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문명과 진보를 이끄는 인류 보편의 표준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선거와 의회를 통해 대중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부국강병의 핵심이라 믿었다. 그러나 조공섭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서구의 선거주의와 대의제가 진정한 지혜를 모으는 합리적 과정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이기적 권력욕의 각축장일 뿐이라고 보았다. 양계초가 문명의 정점으로 내세운 이 근대적 제도를, 조공섭은 항구적인 인륜이 부재한 이단의 假습이나 짐승의 무리보다도 못한 야만의 상태로 역전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강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문명 대 야만’의 잣대 자체를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서구적 근대가 결코 역사의 필연적 도달점이 될 수 없음을 폭로한 치열한 지적 투쟁이었다.

2. 서구 대의제와 선거주의의 병리 진단 : 권력투쟁의 일상화와 仁政의 붕괴

조공섭이 파악한 공화제를 문명의 정점으로 옹호하는 당대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위로는 포악한 임금이 정사를 마음대로 행하는 해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래로는 재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모두 스스로 재능과 지혜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조공섭은 이 두 논거를 논파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단선적 진보사관을 해체하고, 대의제와 선거 제도가 내포한 병리를 치밀하게 짚어낸다.

이상하구나! 梁啓超의 말에 “서양 사람의 법은 가히 다스려짐은 있고 혼란은 없으니, ‘한 번은 잘 다스려지고 한 번은 혼란하게 된다’라는 맹자의 말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비웃어 이르기를 “가령 낮은 있고 맑은 없으며 봄과 여름은 있고 가을과 겨울은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철없는 아이의 견해로 천하의 일을 함부로 의논하는가.”라고 하였다. 혼란을 없게 할 수 없고 폭군을 없게 할 수 없으니, 성인의 도는 혼란을 더디게 하고 폭군을 느슨하게 할 것이 있는데, 賈誼가 말한 ‘하나라·은나라·주나라 三代의 시대에 태자를 교육한 것’이 그 요체이다. 사람의 성품은 심하게 서로 다르지 않으니 桀王·紂王·幽王·厲王이 어찌 대대로 나오는 자질이겠는가. 中品の 재질인 사람은 함께 향상할 수 있으니 그만 한 임금이 있으면 그만 한 신하가 있으므로 인재의 부족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삼대 이하의 시대에는 교육의 도리가 거행되지 않아 태자를 교육하는 법이 더욱 무너졌다. 그러므로 비록 한나라 문제와 무제의 인후함과 영명함일지라도 그 자식이 바둑을 두다가 사람을 죽이게 하고, 博望苑을 열어 빈객들을 잡되게 이르게 하였으니, 혼란을 재촉하고 포악함을

27) 曹兢燮, 위의 글. “然說者之言則以爲：‘從共和之道，蓋有二善焉，上而無暴君專制之害也，下而有材智者皆得自盡也。’是又不達之論也。”

연 것이 또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歐美에 공화의 법을 행한다는 것은 아직 백 년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운세가 상승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 법이 오히려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한나라, 당나라, 은나라, 주나라처럼 오래된다면 그 법이 혼란을 부르고 폭정을 일으킴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²⁸⁾

첫 번째 논거에 대한 반박은 양계초를 향한다. 조공섭은 우왕·탕왕·문왕·무왕과 같은 성군의 도가 존재했음에도 걸왕·주왕·유왕·여왕과 같은 폭군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여, 治亂의 순환이 인간 의지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天理 차원의 문제임을 밝힌다. 이러한 순환사관을 배경으로 그는 양계초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경험적 사실에 서구 정치체제의 무오류성 신화를 견주어 반박하는 이 비유는 그가 서양 문물 자체를 배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 발전의 종착점으로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곧이어 서구 공화정의 안정성을 아직 백 년이 되지 않았고 운세가 상승할 시기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일시적 국면일 뿐이라 상대화하며, 만일 한나라·당나라·은나라·주나라처럼 오래된다면 그 법 또한 혼란과 포악함을 피할 수 없으리라 반문한다.

이 대목의 사상사적 무게는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나온다. 양계초가 대표하는 진보사관은 단지 하나의 역사철학이 아니라 이 시기 동아시아에 유통되던 사회진화론의 정치사상적 표현이었으며, 이 사회진화론이야말로 서구 열강과 일본이 자신의 팽창과 지배를 문명이 야만을 開導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정당화하는 데 동원한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결국 조공섭이 반박한 것은 결국 양계초 한 사람의 낙관론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를 역사의 필연적 도착점으로 서사화하고 그 도착점에 이르지 못한 사회를 아직 미숙한 단계로 배치하는 진화론적 의식 그 자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의 역할을 치란의 순환 자체를 소멸시키는 데 두지 않고 다만 혼란을 지체시키고 포악함을 이완시키는 데 두는 그의 재정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서구적 제도의 이식이 아닌 유교적 修己治人の 전통 안에서 정치적 안정의 대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대항 서사로 읽어야 한다.

재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그 재능과 지혜를 다 쓰고자 한다. 그러나 세도가 흥성할 때는 재능과 지혜를 가진 선비가 모두 현달하여 다 쓰이지만 세도가 쇠퇴할 때는 굴복하여 쓰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현달한 데서 쓰이지 않으면 반드시 은거하는 데서 베풀고, 당시에 쓰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세에 유익함이 있다. 그런데 만약 사람마다 모두 반드시 현달하여 당시에 쓰이고자 한다면 이치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또 지위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며 임무에는 크고 작음이 있다. 지위가 귀한 사람은 명령하고 천한 사람은 그 명령을 받들며 임무가 큰 사람은 만 가지를 행하고 작은 사람은 한 가지를 행하여 감히 서로 어기지 않으니 이것이 다스림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지위가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능가하고 임무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침범하여 시끄럽게 의논하고 어지럽게 변경하니 명색은 비록 다스림이지만 실제인즉 혼란인 것이다.²⁹⁾

28) 曹兢燮, 위의 글. “異哉! 梁啓超之言曰: ‘西人之法, 可以有治而無亂, 孟子之言一治一亂, 非也.’ 吾嘗笑之曰: ‘使天有晝而無夜, 有春夏而無秋冬, 則其言可信也? 若是乎其爲孩童之見而妄議天下事哉?’ 夫亂不可使無, 暴君不能使之不作, 而聖人之爲道, 則有可以遲亂而弛暴者, 賈誼所稱‘三代之教太子’, 其要也. 人性不甚相遠, 桀、紂、幽、厲, 豈世出之資哉? 中材者可以與之上也, 有其君則有其臣, 人材之不足, 非所憂也. 三代以下, 教道不舉, 而教太子之法尤壞. 故雖以漢文、武之仁英, 而使其子博局而殺人, 開博苑而雜進賓客, 其速亂而啓暴, 不亦宜哉? 今歐美之爲共和者, 未及百年也, 又其運之方昇也, 故其法猶可以支持. 使如漢、唐、殷、周之久也, 則其法之召亂而興暴, 可以防也哉?”

29) 曹兢燮, 위의 글. “夫人之有才智者, 固欲其用之盡也. 然世之興也, 則才智之士畢顯而盡其用, 其衰也, 則有屈伏而不見用者矣. 然不有用於顯, 必有施於隱; 不有用於時, 必有益於後. 若人人而必欲其顯而有用於時, 理之所不能然也. 且夫位有貴賤, 任有大小. 貴者令之, 賤者承之. 大者萬之, 小者一之, 不敢相違越, 斯之爲治. 今也使賤者加其貴, 小者侵其大, 囂囂然而議之, 紛紛然而更之, 名雖爲治, 其實則亂.”

두 번째 논거에 대한 반박은 인재 등용의 문제로 향한다. 조공섭은 먼저 재능과 지혜의 발휘를 세상에 등용 되는 것으로만 국한하는 전제 자체를 반박하여 현달한 데서 쓰이지 않으면 반드시 은거하는 데서 베풀고, 당시에 쓰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세에 유익함이 있다며 隱逸 또한 하나의 실천 양식이라 역설한다. 이는 조공섭 자신이 실제로 택했던 은거의 삶과도 조응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인재관을 바탕으로 조공섭은 지위의 귀천과 임무의 대소라는 전통적 위계질서가 곧 다스림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재확인한다. 그는 귀한 자가 명령하고 천한 자가 받드는 상하의 질서와 각자의 분수에 맞는 임무 수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통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반면 모든 이에게 정치 참여의 문을 열어둔 공화정의 현실에 대해서는 지위가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능가하고 임무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침범하여 시끄럽게 의논하고 어지럽게 변경하는 이수라장으로 규정한다. 명색은 다스림을 표방하지만 그 실체는 혼란에 불과하다는 이 통렬한 비판은 평등과 참여라는 서구적 근대의 가치가 실상은 무분별한 권력투쟁과 하극상을 초래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태일 수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이러한 위계론 위에서 그는 지위의 귀천과 임무의 대소가 다스림의 기본 조건임을 재확인하며 공화정의 의회와 정당 정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금 政院을 마련하고 議員을 두어서 사람마다 정사를 의논하게 하고, 또 그 뜻을 얻지 못하면 각자 정당을 만들어 연설로써 고무하고 신문으로써 전파하여 다시 나아가기를 구함이 마치 장작을 쌓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뒤에 온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땅벌이 일어나는 듯하여 모두 남에게 해독을 끼칠 마음을 두는데, 이것을 두고 각기 스스로 그 재능과 지혜를 다했다고 한다면 또한 시시하지 않은가. 그리고 큰 재능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큰 지혜는 스스로 쓰지 않으며 현자는 임금이 공경을 다하고 예를 다하지 않으면 이르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서 맞이하여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땅벌이 일어나는 듯한 가운데 잡되게 모여들게 하여 천하의 대사를 논하게 한다면 霸道를 도왔던 孫叔敖와 百里奚 같은 무리들도 오히려 수치스러워할 것인데, 하물며 王道를 도왔던 伊尹과 太公의 무리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다면 이른바 ‘스스로 다했다’고 하는 것은 부박하고 자질구레한 작은 지혜와 부분적인 재능의 종류일 뿐이고 큰 지혜와 온전한 재능은 실로 나아갈 길이 없다. 다행히 온전한 재능 큰 지혜를 가진 선비가 추대를 받아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래에서 자질구레하게 구는 사람의 견제를 받아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뜻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게 된즉 비록 심원한 계획과 훌륭한 정책이 있더라도 그 단서를 시험하자마자 이를 변경하는 이가 또 이른다. 그러하거늘 잔혹함을 이기고 살벌함을 제거하며한 세대가 지난 뒤에 仁政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³⁰⁾

공화정의 현실적 작동 방식에 대한 조공섭의 비판은 의회와 정당 정치, 그리고 매체를 동원한 여론 형성의 폐해로 향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제도의 개방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뜻과 재능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공섭의 눈에 비친 서구식 대의제는 권력을 향한 맹목적 투쟁의 장에 불과하다. 그는 의원을 두고 정당을 만들어 연설과 신문으로 대중을 선동하며 권력을 쫓는 모습을 땅벌이 일어나는 듯하여 모두 남에게 해독을 끼칠 마음을 두는 이수라장으로 묘사한다. 이는 만민의 정치 참여라는 서구적 근대의 가치가 실상은 끊임없는 파벌 싸움과 이기적 권력욕의 난

30) 曹兢燮, 위의 글. “今也設院置員, 使人人得以議之, 又不得則各自爲政黨, 演說以鼓之, 新報以播之, 求其更進, 如積薪然. 後者欲其爲上也, 如地蜂之起也. 皆有螫人之心焉, 謂之各盡其材智, 不亦銳乎? 且大材不自衒, 大智不自用, 賢者不致敬盡禮則不至, 不虛心延訪則不答. 今使雜沓於蜂起之中, 使論天下之大事, 叔敖, 里奚之徒, 猶或羞之, 而況伊尹, 太公之倫哉? 如此則其所謂自盡者, 小智一材浮薄瑣瑣之流爾, 其大而全者, 則固無路可進也. 幸有全材大智之士, 得推舉而爲統領, 下爲瑣瑣者之所牽制, 必不能行其有爲之志. 又不數歲而去之, 則雖有深猷美政, 纔試其端而更之者又至矣. 欲求其有勝殘去殺, 世而後仁之功, 何可望哉?”

립으로 귀결될 뿐임을 예리하게 간파한 것이다.

나아가 조공섭은 이러한 선거주의와 정당 정치가 본질적으로 진정한 인재를 배제하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유교적 전통에서 큰 재능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큰 지혜는 스스로 쓰지 않는 법이며, 진정한 賢者는 통치자가 최고의 예로써 묻지 않으면 결코 나서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대중을 선동하고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시끄러운 공화정의 선거판에는 이러한 큰 지혜와 온전한 재능을 가진 자가 나아갈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결국 공화정 체제에서 스스로 재능을 다했다고 떠드는 이들은 부박하고 자질구레한 작은 지혜를 지닌 자들에 불과하며, 이는 인재 등용을 자랑하는 서구 정치체제가 도리어 지도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기만적인 제도임을 폭로한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임기제 대통령이라는 권력 구조가 내포한 단기제와 그로 인해 仁政이 붕괴된다는 지적이다. 조공섭은 설령 온전한 재능을 지닌 인물이 추대되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 내의 자질구레하게 구는 사람들의 끝없는 견제에 부딪혀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몇 년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교체되는 제도의 속성상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단서를 열자마자 그 연속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잔혹함을 극복하고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는 仁政이라는 유교 정치 고유의 장기적인 시간성은 잦은 정권 교체를 구조적으로 내장한 공화정 아래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처럼 서구 정치체도의 모순을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서구식 제도가 문명의 정점이라는 제국주의적 위계 담론의 허구성을 근저에서부터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의 선출을 투표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비록 공정한 것 같다. 그러나 백성의 도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우뚝한 인물이지만 따르는 이가 드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헛된 명예로도 대중을 얻는 사람이 있다. 공자·맹자가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일생을 마치도록 상하로 사림이 없었지만, 陳恒의 경우는 일국이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고 王莽의 경우는 그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49만 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어디에서 그 중도를 취할 것인가. 蜀漢의 劉先主가 諸葛孔明을 등용하고 前秦의 苻堅이 景略을 발탁할 때 좌우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지 않았는데, 만약 투표를 했다면 그 표를 얼마나 얻었을 것인가.³¹⁾

이어 조공섭의 논의는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이 투표의 다수결 원리에 대한 조공섭의 비판은 서구 공화제가 지닌 맹점을 가장 예리하게 겨냥한 대목이다. 조공섭은 대통령 선출을 표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대중의 변덕스러운 기호에 권력의 향방을 맡기는 위험한 제도임을 간파한다. 그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평생을 떠돌았던 공자와 맹자의 고독한 삶을 헛된 명예로 무려 49만 명의 칭송을 받으며 대중을 기만했던 王莽의 위선과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이는 다수결에 대한 맹신이 진정한 도덕적 지도자를 배제하고, 오히려 헛된 명예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위선자들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衆愚政治와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통박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대중의 투표로는 진정한 정치적 지혜를 결코 판별할 수 없음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논증하며 서구 문명의 우월성 신화를 최종적으로 기각한다. 촉한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등용하고 전진의 부견이 王猛을 발탁할 때

31) 曹婉燮, 위의 글. “統領之選也, 以投票之多寡, 雖若公矣, 而民之爲道也, 好惡無常性, 蓋有特立而寡與者, 亦有虛譽而得衆者. 孔、孟轍環天下, 終身無上下之交, 而陳恒一國皆欲以爲君, 王莽頌其德者, 至四十九萬人. 若是者, 將安所取衷哉? 先主之用孔明, 苻堅之舉景略, 左右諸臣皆不悅, 若用票焉, 其得之幾何?”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던 사실을 환기하며 만약 이를 투표에 부쳤다면 결코 그 뛰어난 인재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즉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심원한 통찰과 탁월한 정치적 결단은 종종 다수의 평범한 의견과 충돌하기 마련인데 선거주의는 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공섭은 화려한 문명의 외양 속에 감춰진 서구 공화정의 실체로 포퓰리즘, 권력투쟁, 단기제가 불러올 문제를 낱알이 반박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이 들이밀던 문명과 야만의 위계 척도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치열한 반제국주의 정치철학을 완성해 내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조공섭의 「非共和論」을 사회진화론과 문명 위계론이라는 제국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정면으로 겨냥한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1909년 「困言」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그의 서구 문명 비판은 「非共和論」에 이르러 天命論을 근거로 한 권력 정당성의 해체로 이어졌다. 조공섭은 서구의 대통령제를 도적의 우두머리나 승가의 假승보다 못한 것으로 이중 격하시키고, 治亂의 순환이라는 경험적 진리를 들어 양계초가 대표하던 서구 진보사관의 무오류성 신화를 통렬하게 논파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서구 대의제와 선거 제도가 내포한 구조적 병리를 짚어내는 지점에 있다. 그는 공화정의 의회와 정당 정치를 권력을 향한 이기적 투쟁이 난립하는 아수라장으로 묘사하였으며,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가 도덕적 지혜를 갖춘 진정한 賢者를 배제하고 위선적인 포퓰리즘과 衆愚政治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또한 임기제 권력이 초래하는 정책의 단기주의를 지적하며, 한 세대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仁政의 시간성이 공화정 아래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간파했다. 요컨대 그는 서구식 제도가 문명의 정점이라는 제국주의적 위계 서사의 척도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림으로써 인식론적 저항을 완성해 낸 것이다.

지금까지 근대 전환기 유학자들의 이러한 정치적 논쟁들은 흔히 고루한 위정척사나 시대에 뒤떨어진 반동적 담론으로 평가되어 왔다. 서구적 근대를 지향점으로 삼아온 역사 서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의 발전 방향을 거스르는 보수성의 증거로만 일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동향은 이러한 유교정치담론을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헌정주의적 기획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호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조공섭이 정치를 각 계층의 이기적 투쟁의 장으로 규정한 공화주의를 비판한 이면에는 賢能한 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유교적 이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공섭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학자들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공자의 정치와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한 통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라 18세기 이래 조선에서 지속되어 온 유교정치담론이 20세기의 서양 정치 제도와 치열하게 마찰하며 빚어낸 주체적인 정치적 모색의 과정이었다.³²⁾

이 지점에서 조공섭의 비판을 단지 세상 물정에 어둡고 고루한 유학자의 맹목적인 고집 정도로 치부해 온 기존의 편견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대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를 주도했던 양계초는 서구 문명과 진보사관을 맹신하며 중국의 근대화를 부르짖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직후인 1918년 파리강화회의에 중국 대표단의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유럽을 순방한 뒤에야 비로소 서구 문명의 참담한 실상에 눈을 뜨게

32) 김호, 「『유교헌정론』과 조선의 모색, 하나의 시론」, 『기전문화연구』42,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21.

된다. 그가 『구유심영록절록(歐遊心影錄節錄)』에 남긴 감상록에서 고백했듯, 진보와 국민 통합의 성지로 여겼던 서구는 제국주의적 이권 나눠먹기에 급급했고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과 제대 군인들의 불만으로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에 불과했다. 서구의 이상적 그림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야 양계초는 서구 문명 비판의 전선에 서며 동양 전통 사상으로서의 회귀를 모색하게 된다.³³⁾

그러나 창강의 곤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³⁴⁾ 조공섭은 서구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고서도 이미 1909년과 1912년의 저술을 통해 서구 정치 체제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기적 권력 투쟁과 민주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그가 양계초를 향해 철없는 아이라고 조소했던 것은 양계초가 알팍한 서구 지식에 경도되어 그 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병통을 보지 못함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는 홍대용이나 박지원과 같은 조선의 실학자들이 보여주었던 풍부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서구의 과학적 실증을 앞서 나갔던 것처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조선 지식인의 웅숭깊은 인문학적 통찰력이자 수백 년간 축적된 전통 사상의 힘이 발휘한 지적 승리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실상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복고적 온건보수주의자로 전환한 양계초보다, 오직 사유의 깊이만으로 그 한계를 미리 예견했던 조공섭의 학문적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물론 조공섭의 대안이었던 신분적 세습이나 禪讓의 모델을 오늘날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제도의 형식적 정합성보다 그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의 도덕적 역량과 정치의 장기적 시간성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은 제도의 완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누가 어떤 자질로 얼마나 긴 호흡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평가는 궁극적으로 조공섭 한 사람의 복권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20세기 초 조선의 유교 지식인들이 남긴 서구 비판의 저작들은 문명개화의 거대 서사 속에서 오랫동안 시대착오의 증거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저작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공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지 낡은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가 아니라 그 낡은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 구조를 겨냥한 지적 대결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非共和論」을 반제국주의적 정치철학으로 다시 읽는 이 작업이 조선 정신문화가 근대라는 파고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논증으로 맞섰던 힘을 재평가하는 더 넓은 작업의 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33)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65~68쪽 참조.

34) 金澤榮, 『韶獲堂集』 3, 「困言序」. “深齋子數年前作一論, 極言孔子事君之大義, 以惜中國新制之失. 今也中國果病於新, 而議復其舊, 是則孔子明見萬世, 而深齋子能逆觀數年之外爾. 世之人其亦以此爲鑒, 尊信此書而有以復其性也哉!”

참고문헌

郭鍾錫, 『俛宇集』(고전종합DB)

金澤榮, 『韶濩堂集』(고전종합DB)

曹兢燮, 『困言』(국립중앙도서관)

曹兢燮, 『深齋集』(국립중앙도서관)

曹兢燮, 『巖棲集』(고전종합DB)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김낙진, 「曹兢燮의 共和主義 비판과 朱子學적 근거」, 『南冥學研究』33,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2.

김 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 -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공섭의 정약옹 비판」, 『한국실학연구』32, 한국실학학회, 2016.

, 「‘유교헌정론’과 조선의 모색, 하나의 시론」, 『기전문화연구』42,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21.

유영옥,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 연구」, 『東洋漢文學研究』30, 동양한문학회, 2010.

이태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基底)-」, 『한국사론』6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4.

전송희, 「深齋 曹兢燮의 成學過程과 學的 實踐 研究 : 『深齋日記』를 토대로 한 생애사적 고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근대전환기 深齋 曹兢燮의 『飲氷室文集』 독서와 학적 대응으로서의 「困言」」, 『한국한문학연구』93, 한국한문학회, 2025.

정성희, 「식민지 시기 영남유림의 서양 정치제도 연구와 대응 -이인재(李寅梓:1870~1929)와 조공섭(曹兢燮:1873~1933)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조소앙의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

시림(상해사회과학원)

<국문 초록>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은 독립운동가, 외교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긴 문학가이기도 하다. 특히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상해, 남경, 중경 등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의 활동은 정치적 실천과 문학 창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그의 삼균주의 사상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 체험이 문학 창작과 항일 담론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망명 시기의 활동과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조소앙의 중국 체험이 항일 글쓰기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조소앙에게 단순한 망명지가 아니라 사상과 문학이 함께 성장한 공간이었다. 그는 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등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하는 한편, 대계도(戴季陶), 장계(張繼), 황개민(黃介民) 등 중국 혁명가들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신아동맹당과 대동당 활동은 그의 민족 독립 사상과 동아시아 연대 의식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문학 창작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중국 체험은 조소앙의 항일 글쓰기 전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는 『대한독립선언』을 비롯한 선언문과 논설을 통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으며, 『김상옥전』, 『유방집』 등의 의열전기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역사적 기억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중국 망명 생활 동안 창작한 다수의 한시는 조국 상실의 비애와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는 동시에 항일 의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그의 문학은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선언문, 전기, 시, 언론 활동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문학과 독립운동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조소앙의 중국 체험을 중심으로 그의 항일 글쓰기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그의 독립운동뿐 아니라 문학 창작의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문학을 통해 한중 양국 지식인들이 공동의 항일 투쟁 속에서 구축한 연대 의식과 문화적 공감대를 재조명함으로써, 한중 공동 항일의 역사적 기억과 동아시아 문학 교류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赵素昂的中国体验与抗日书写

柴琳(上海社会科学院)

<中文摘要>

赵素昂(1887—1958)是韩国近代著名的独立运动家、外交家,同时也是重要的文学家。1913年流亡中国后,他长期活动于上海、南京、重庆等地,在积极投身韩国独立运动的同时,创作了大量文学作品,其中国体验成为其抗日书写形成的重要基础。然而,既有研究主要关注赵素昂的三均主义思想及独立运动实践,对中国体验与文学创作之间的关系缺乏系统探讨。本文以赵素昂流亡中国时期的活动及文学作品为中心,考察其中国体验对抗日书写形成与发展的影响。

中国不仅是赵素昂开展独立运动的重要舞台,也是其思想发展与文学创作的重要空间。在中国期间,他与申圭植、朴殷植等韩国独立运动家并肩奋斗,同时与戴季陶、张继、黄介民等中国革命人士保持密切交往,并积极参与新亚同盟党、大同党等组织活动。这些经历深化了其民族独立思想和东亚联合意识,也深刻影响了其文学创作。赵素昂的中国体验贯穿于其抗日书写之中。他通过《大韩独立宣言》等宣言、政论阐释韩国独立的正当性,通过《金相玉传》《遗芳集》等义烈传记重构独立运动的历史记忆,并借助大量汉诗抒发流亡之苦、亡国之痛与光复理想,赋予文学以民族启蒙和精神动员的功能。其文学创作涵盖宣言、传记、诗歌、报刊评论等多种文体,体现出文学创作与独立运动相互融合、相互促进的鲜明特点。

本文通过考察赵素昂中国体验与抗日书写之间的互动关系,揭示中国不仅是其独立运动的重要实践空间,也是其文学世界形成的重要基础;同时,进一步阐释其文学创作所体现的中韩知识分子在共同抗日斗争中形成的合作意识与文化共鸣,为重新认识中韩共同抗战的历史记忆及东亚文学交流提供新的研究视角。

조소앙의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

시림(상해사회과학원)

- I. 서론
- II. 중국, 항일 글쓰기의 공간
- III. 문학으로 이어진 독립의 길
- IV. 결론

I. 서론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 독립운동은 국내 중심의 비밀결사 활동에서 해외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독립운동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특히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집결한 정치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망명 지식인들이 신문과 잡지를 간행하고 선언문을 작성하며 문학 작품을 창작한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 망명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으며, 한국 독립운동의 이념과 항일 담론이 발전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독립운동의 실천 공간인 동시에 문학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기록하고 독립 의식을 확산시키는 창작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체험은 근대 한국 망명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은 이러한 망명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외교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운영, 한국 독립 문제의 국제적 제기, 삼균주의의 체계화 등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소앙은 정치가이자 사상가일 뿐 아니라 다양한 문학 활동을 지속한 문학가이기도 하였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상해, 남경, 중경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한시를 창작하고, 의열전기를 집필하며, 『한국문원(韓國文苑)』을 편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학 실천을 이어 갔다. 이러한 작품들은 개인의 망명 경험을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식민지 현실과 민족 독립의 염원, 그리고 한중 공동 항일의 역사적 경험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조소앙의 문학은 그의

독립운동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과 긴밀하게 결합된 또 하나의 항일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조소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독립운동사와 정치사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삼균주의의 형성과 사상적 특징,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활동, 외교 노선 등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조소앙의 정치사상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비교적 충실하게 규명되었다.³⁵⁾ 최근에는 문학 분야에서도 그의 유학일기³⁶⁾, 『한국문원』³⁷⁾, 의열전기³⁸⁾ 등에 관한 개별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문학가로서의 면모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부분 특정 작품이나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소앙 문학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둘째, 그의 문학 창작을 중국 망명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셋째, 한시·의열전기·문헌 편찬을 서로 독립된 문학 활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항일 글쓰기로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결과적으로 조소앙 문학이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였으며, 문학을 통해 민족 독립 의식과 한중 연대 의식을 어떻게 구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에 본고는 조소앙의 중국 체험을 중심으로 그의 항일 글쓰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이 조소앙에게 어떠한 창작 공간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한시, 의열전기, 『한국문원』이라는 서로 다른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중국 체험이 어떻게 항일 의식과 민족정신, 그리고 한중 공동 항일의 역사적 기억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소앙 문학을 정치사나 사상사의 부수적인 자료가 아니라, 근대 동아시아 망명 문학과 한중 문학 교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학적 실천으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II. 중국, 항일 글쓰기의 공간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조소앙은 30여 년 동안 상해, 북경, 중경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문학 창작을 병행하였다. 중국은 그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정치 활동과 문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신문과 잡지를 창간하고 선언문을 기초하며 다양한 저술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개도(戴季陶), 장계(張繼), 황개민(黃介民) 등 중국 혁명가들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러한 교류는 그의 독립운동뿐 아니라 문학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신아동맹당과 대동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중 지식인의 협력은 민족 독립을 동아시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이후 그의 항일 글쓰기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조소앙에게 중국 체험의 의미는 정치적 실천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중국 혁명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

35) 조소앙의 독립운동, 삼균주의 사상 관련 연구는 많다. 주로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소앙의 업적, 『아시아문화』 Vol.12, 1996년; 김기승,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8 No.1, 2009년; 홍선휘,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경기: 한길사, 1982년; 김기승, 일본 유학을 통한 조소앙의 근대 체험-제국주의적 근대 배우기에서 근대 극복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47, 2006년 등이 있다.

36) 황호덕, 근대 동아시아의 文體·身體·政體, 趙素昂의 『東遊略抄』의 경우, 『서강인문논총』 Vol.44, 2015년.

37) 황호덕, 근현대 동아시아에서 지성과 담론의 교류: 政體와 文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언어정치학과 趙素昂-漢文字의 盟誓, 조소앙의 선언, 성명, 강령 집필과 『韓國文苑』을 중심으로-, 『史林』 Vol.45, 2013년; Songyeol Han, "Fish and Fish Trap": Cho Soang and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in China (1930-1945), Bond Beyond Nation: Sinographic Network and Korean Nationhood, 1860-1945,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8.

38) 황호덕, 독립운동의 역사, 혁명가의 열전, 한중연대의 기념비, 조소앙 지음, 이정원 옮김, 『유방집』,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9년.

여 한국 독립을 개별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약소민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과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등 주요 선언문에 반영되었으며, 민족 평등·국가 평등·인류 평등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임시정부 활동과 국제 외교 경험은 문학을 현실과 분리된 예술이 아니라 민족 독립을 위한 실천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조소앙에게 혁명의 공간인 동시에 문학이 현실에 개입하는 방식을 체득한 공간이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이 조소앙에게 항일 문학의 공공 공간(public space)³⁹⁾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에서는 검열과 언론 통제로 인해 항일 담론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유통할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신문·잡지의 창간과 저술 활동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⁴⁰⁾ 조소앙은 『적자보(赤子報)』(1919), 『상해주간(上海週刊)』(1924), 『한보(韓報)』(1931), 『진광(震光)』(1934) 등의 매체를 창간하거나 집필에 참여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을 중국 사회에 소개하고, 한중 양국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그는 『상해주간』과 『한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왜적을 물리쳐 민족의 치욕을 씻고, 한중이 굳게 동맹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자(拒倭雪國恥, 結共守同盟, 保東亞平和)”⁴¹⁾를 제창하여 역사와 문화, 현실을 공유하는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언론 활동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항일 담론을 확산시키고 공동의 여론을 형성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

또한 조소앙은 중국에서 문학 창작과 문헌 편찬을 지속하며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족문화를 기록하였다. 그는 의열투쟁을 기념하는 전기를 집필하고, 한국 역대 문학 작품을 정리한 『한국문원(韓國文苑)』을 편찬하였으며, 전란 속에서도 한시 창작을 이어 갔다.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는 장르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항일 실천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중국은 조소앙에게 단순한 망명지가 아니라 혁명을 실천하고 문학을 생산하며 역사 기억을 구축하는 공간이었고, 그의 항일 글쓰기는 바로 이러한 중국 체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중국 체험은 이후 한시, 의열전기, 『한국문원』으로 이어지며 조소앙 특유의 항일 글쓰기를 형성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문학으로 이어진 독립의 길

39) 서구에서는 근대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신문과 잡지가 필사본을 대체하며 대중매체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신문과 잡지의 등장은 공중을 결집시키고 문학적 토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을 형성함으로써 계몽과 자기계몽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대표적인 연구에서 공공 영역(public sphere)은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 개념으로 제시된다. 이는 시민 사회로부터 형성되어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공적 공간을 의미하며, 정치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론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근대 동아시아에서 공공 영역의 형성과 발전은 서구와 달리 시간적·공간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거치지 않았으며, 점진적으로 전개된 역사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 영역(public sphere)보다 공공 공간(public spa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공공 공간은 공공 영역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리킨다. 하버마스 저, 조위동 외 역, 『공공 영역의 구조변동』, 상해: 학림출판사, 1990년, 55쪽; 방평, 『만청 상해의 공공영역(1895-1911)』,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7년, 5쪽 등 참조.

40) 1920년대부터 해방까지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200종 이상의 신문이나 잡지를 간행하였다. 김주현,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사 및 연구, 『어문론총』 75호, 2018년, 182쪽 참조.

41) 조소앙, 상해주간사설(上海週刊社說), 삼균학회 편, 『조소앙 문집(상)』, 서울: 햇불사, 1979년, 231-233쪽.

1. 한시와 망국의 기억

조소앙의 문학 활동 가운데 한시는 그의 중국 체험과 항일 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르이다. 그는 유년기부터 유학 교육을 받으며 전통적인 한시 창작 능력을 익혔으며, 일본 유학 시기에도 꾸준히 한시를 창작하였다. 특히 그의 한시는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첫 번째는 일본 유학 시기이고, 두 번째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임시정부와 함께 중국 각지를 전전하던 시기이다. 전자의 작품이 망국의 현실 속에서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 후자의 작품은 중국에서의 항일 투쟁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저항 의식과 한중 공동 항일의 정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조소앙의 한시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전통적인 서정시를 넘어, 시대 현실과 민족의 운명을 기록한 항일 글쓰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유학 시기의 한시는 망명 문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작품인 「일본 도쿄에서 집안의 편지를 받고 느낀 감회(在日京承家書有感)」(1906)에서는 타국에서 가족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노래하며 유학생의 외로움과 향수를 담아낸다.⁴²⁾ 그러나 이러한 향수는 점차 개인적 감정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운명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다.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 창작한 「정미년 병중음(丁未病中吟)」에서는 “객지에서 서의 시름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근심이다(不是客愁是國愁)”⁴³⁾라고 하여 자신의 슬픔이 더 이상 객지 생활의 외로움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비통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조소앙 한시에서 개인적 향수가 민족적 비애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이며, 이후 그의 항일 글쓰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1910년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이러한 의식은 더욱 심화된다. 『동유략초(東遊略抄)』에 수록된 여러 작품에서는 일본의 봄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일은 타향 끝에서 오직 조국만을 그리워하는 것뿐이다(可憐此地傷心事, 惟有天涯思美人)”⁴⁴⁾과 같이 현실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미인(美人)’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조국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되며, 아름다운 자연과 암울한 현실을 대비시키는 방식을 통해 망국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조소앙에게 일본 유학은 근대 문명을 배우는 과정인 동시에 식민지 현실을 자각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항일 문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중국 망명 이후, 특히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1937년 이후의 한시는 조소앙 한시 창작의 두 번째 절정을 이룬다. 임시정부와 함께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충칭 등지를 이동하며 창작한 약 40여 편의 작품은 전쟁의 현실과 항일 의지를 직접적으로 담아낸다. 예를 들어 「광주유감 1(廣州有感一)」에서는 “늙은 무궁화는 거센 바람 속에 외롭게 서 있고, 해당화는 반쯤 떨어져 빗소리마저 슬픔을 더한다.(老槿獨存風勢亂, 棣花半落雨聲悲)”⁴⁵⁾라고 하여 무궁화와 해당화를 각각 한국과 중국의 상징으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침략 아래 놓인 양국의 현실을 형제의 운명으로 연결하였다. 반면 「광주유감 4(廣州有感四)」에서는 “양성의 젊은이들은 모두 호걸이었다.(羊城子弟多豪傑)”⁴⁶⁾이라고 노래하며 중국인의 항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은 조소앙의 한시가 개인적 망명 체험을 넘어 한중 공동 항일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담아

42) 조소앙. 일본 도쿄에서 집안의 편지를 받고 느낀 감회(在日京承家書有感), 삼균학회 편, 『조소앙 문집(하)』, 서울: 햇불사, 1979년, 177쪽.

43) 조소앙. 동유략초(1909년 4월 2일), 『문집(하)』, 377쪽.

44) 조소앙. 동유략초(1910년 4월 23일), 『문집(하)』, 392쪽.

45) 조소앙. 광주유감 1(廣州有感一), 『문집(하)』, 192쪽.

46) 조소앙. 광주유감 4(廣州有感四), 『문집(하)』, 192쪽.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이 시기의 작품 가운데 「중경에서 왜군의 독산 진격 소식을 듣고 지은 시(重慶聞倭逼獨山有感)」은 항일 의식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그는 “중원의 용사들은 번개처럼 내달리고... 날뛰는 왜적은 머지않아 멸망 하리라.”(中原壯士馳如電...跳梁小丑崇朝滅)⁴⁷⁾과 같은 표현을 통해 중국 군민의 항전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한편,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는 역사 인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복군 창설을 축하하며 지은 「광복군을 위해 축하하며(爲光復軍祝)」에서는 삼학사와 칠충신, 윤봉길과 안중근 등 한국 역사의 충의 인물을 차례로 소환하면서 “삼한의 사내는 본래 이러한 기개를 지녔으니, 어찌 왜적에게 몸을 굽히겠는가.(三韓男子元如此, 肯向蝦夷屈此身)”⁴⁸⁾이라고 노래하였다. 과거의 충절과 현재의 독립전쟁을 연결하는 이러한 역사적 상상력은 조소앙의 한시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적 서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조소앙의 한시는 일본 유학 시기의 망국 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 망명 시기의 적극적인 항일 의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특히 중국에서의 전쟁 체험은 그의 시적 세계를 개인적 향수에서 민족 공동체의 운명으로 확장시켰으며,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의 항일전쟁을 동일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의 한시는 전통적인 한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의 역사 현실을 담아낸 문학적 실천이었으며, 중국 체험이 항일 글쓰기로 구체화되는 가장 직접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의열전기와 영웅의 형상화

중국 망명 시기 조소앙의 항일 글쓰기는 한시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1925년 『김상옥전(金相玉傳)』, 1933년 『유방집(遺芳集)』을 간행하여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희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유방집』에는 민영환, 조병세, 안중근, 강우규, 이봉창, 윤봉길 등 8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수록되어 있으며, 조소앙은 이들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의열(義烈)”의 상징으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중국이라는 망명 공간은 이러한 작품의 집필과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중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되었다.

조소앙은 의열전기를 집필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존중하는 동시에 문학적 서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김상옥전』에서는 김상옥의 활동을 단순히 사건 중심으로 나열하지 않고, 인물의 심리와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영웅의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드러낸다. 예를 들어 아내의 장례 장면에서는 “음산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陰雨霏霏)”⁴⁹⁾라는 음울한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는 김상옥의 모습을 묘사하여 혁명이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고뇌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서술은 독립운동가를 추상적인 영웅으로 신격화하기보다 인간적 감정과 희생을 함께 보여 주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즉, 조소앙의 전기는 사실의 기록에 문학적 재현을 결합하여 항일 영웅의 형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조소앙에게 전기 집필의 목적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민족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유방집』의 서문에서 그는 “『유방집』은 사라

47) 조소앙. 중경에서 왜군의 독산 진격 소식을 듣고 지은 시(重慶聞倭逼獨山有感), 『문집(하)』, 195쪽.

48) 조소앙. 광복군을 위해 축하하며(爲光復軍祝), 『문집(하)』, 181쪽.

49) 한살림. 『김상옥전(金相玉傳)』, 상해: 삼일인서관, 1925년, 10쪽.

질 수 있으나 열사의 정신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遺芳集』或可沒也, 而烈士之精神, 固不可拔也)⁵⁰⁾라고 강조하면서, 화랑정신이 시대를 넘어 계승되듯 의열정신 역시 민족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가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 서술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향한 정치적 실천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의열 서사의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봉창과 윤봉길이다. 조소앙은 이봉창이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와 김구와 만나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상해가 한국 독립운동의 전략적 중심지였음을 보여 준다. 그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겠는가.(不入虎穴, 安得虎子)”⁵¹⁾라고 말하며 적진으로 향했고, 천황 폭살을 시도한 뒤에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태연히 체포되었다. 조소앙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열 정신을 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윤봉길 의거에 대한 서술은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가 결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소앙은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공원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의거 직전 직접 답사한 뒤 남긴 「4월 27일 신공로 답청가(四月二十七日新公路踏青歌)」를 함께 수록하였다. 그는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기 직전 “호랑이가 양 떼를 노려보듯”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영웅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사실의 기록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민족적 영웅으로 재탄생시키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조소앙은 의열 인물들을 서술하면서 유서, 격문, 재판 진술, 시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 예를 들어 민영환의 「국민에게 남긴 유서(告國民遺囑)」, 조병세의 「유소(遺疏)」, 안중근을 기리는 김택영의 시 등을 작품 속에 삽입하여 역사적 사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자들이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전기의 사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자들의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 내며, 의열 정신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조소앙의 의열전기가 한국만의 민족주의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부 역사 자료를 수정하면서까지 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최익현전(崔益鉉傳)」에서는 기존 문헌의 표현을 수정하여 임진왜란 당시 명군과 조선군이 함께 승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표현은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작은 한국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중 공동 항일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그의 전기는 역사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중국 망명이라는 시대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동아시아 연대 의식을 담은 정치적 텍스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김상옥전』과 『유방집』은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를 넘어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문학적 실천이었다. 특히 상해를 비롯한 중국의 혁명 공간은 조소앙으로 하여금 의열 인물들의 희생을 동아시아 공동 항일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게 하였으며, 그의 항일 글쓰기에 역사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3. 『한국문원』과 민족문화의 재구성

조소앙의 중국 체험은 항일시와 의열전기에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도 이어졌다. 1932년 상해에서 간행한 『한국문원(韓國文苑)』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한국이 식

50) 조소앙. 유방집 서문(遺芳集序), 『유방집(遺芳集)』, 상해: 대동학회, 1933년, 15쪽.

51) 조소앙. 이봉창전, 『유방집』, 86쪽.

민지로 전락한 이후 일본의 문화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는 민족문화를 자유롭게 계승하고 전파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조소앙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리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창작 공간이 되었다. 『한국문원』은 단순한 고전 선집이 아니라, 망명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독립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이었다.

조소앙은 『한국문원』 서문에서 런던박물관에서 『삼강행실도(三綱行實錄)』를, 파리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춘향전』을, 상해에서 광개토왕비를 접하면서 한국의 문화유산이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받는 반면 정작 조국에서는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히 인식하였다고 회고한다. 그는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면 문화 또한 사라진다.(國亡文亦亡)”을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하였으며, 흩어진 민족문화의 정수를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망명 생활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한국문원』 편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한국문원』은 부여에서 조선왕조에 이르는 산문과 시문을 폭넓게 수록하면서도 단순한 문학 선집에 머물지 않는다. 조소앙은 창엽, 충절, 향전, 의병 활동과 같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한국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하였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이 “한국 문원의 정화”일 뿐 아니라 후손에게는 민족정신을 전하고, 우방에게는 “동문의 오랜 우의(昭其同文之久)”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장자』의 “득어망전(得魚忘筌)”을 인용하며 “통발은 잊을 수 있어도 물고기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筌可忘也而魚不可失也)”⁵²⁾라고 밝힌 것은, 한문은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며 진정 보존해야 할 것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문원』은 중국 독자를 염두에 둔 문화외교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조소앙은 한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한문 문화를 공유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동문(同文)”의 전통이 양국의 연대와 공동 항일의 역사적 기반이라고 설명하였다. 책에는 명나라와 조선이 함께 외적에 맞서 싸운 사례들이 다수 수록되었으며, 특히 김응하의 전기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외세에 저항한 역사를 부각하였다. 이를 통해 조소앙은 과거의 역사적 기억을 현재의 항일 연대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한국문원』은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1932년 『대공보』 문학부간에 실린 오밀(吳宓)의 평론은 이 책의 가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한문 문화권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였고, 둘째, 중한 양국의 오랜 문화적 유대를 보여 주었으며, 셋째, 한국의 경험을 통해 중국 역시 민족문화의 보존과 국가의 미래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국문원』이 단순히 한국인을 위한 문헌이 아니라 “문화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文化存在者, 國必不亡)”⁵³⁾고 중국 지식인들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⁵⁴⁾

더욱 중요한 점은 조소앙이 문헌을 단순히 수집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편집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기존 문헌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한편, 외세에 맞선 저항과 자주 독립의 전통을 보여 주는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편집 전략은 식

52) 조소앙. 한국문원·서문, 『문집(상)』, 349쪽.

53) 신간, 천진에 도착 한국문원(新書到津 韓國文苑), 『대공보(大公報)』, 1932년 12월 27일.

54) 오밀. 한국지사 조소앙 편 한국문원(韓國志士趙素昂編 韓國文苑), 『대공보 문학부간(大公報·文學副刊)』, 1932년 12월 12일.

민지 현실 속에서 한국 민족의 역사적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즉, 『한국문원』은 과거를 정리하는 문헌집인 동시에 중국 망명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구성된 민족문화의 선언이었으며, 조소앙의 항일 글쓰기가 정치적 저항을 넘어 문화적 저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조소앙의 중국 체험은 단순한 망명 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항일 글쓰기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역사적 기반이었다. 중국은 조소앙에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문학 창작과 문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에서의 망명 경험을 바탕으로 한시를 통해 망국의 현실과 광복의 의지를 노래하였고, 의열전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민족의 역사적 기억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한국문원』의 편찬을 통해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문화적 실천을 이어 갔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학 장르는 모두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항일 의식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었다.

특히 조소앙의 항일 글쓰기는 정치적 선전이나 개인적 체험의 기록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문학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한국의 독립을 중국의 항일전쟁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려는 시각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시에서는 중국 군민의 항전 의지를 함께 노래하였고, 의열전기에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을 서사화하였으며, 『한국문원』에서는 '동문(同文)'의 전통과 한중 공동 항일의 역사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이는 중국 체험이 조소앙의 문학적 시야를 한국 민족주의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한중 연대라는 보다 넓은 역사적 인식으로 확장시켰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조소앙의 문학을 정치사나 사상사의 부수적 자료로 이해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 체험과 항일 글쓰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조소앙에게 단순한 망명지가 아니라 항일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문학적 공간이었으며, 그의 문학은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중 양국이 공동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한 연대 의식과 문화적 공감대를 보여 주는 중요한 매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소앙의 중국 체험은 한 개인의 망명 경험을 넘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역사적 기억을 문학으로 기록하고 공유한 과정이었다. 그의 항일 글쓰기는 근대 동아시아의 연대 의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며, 오늘날 한중 문학 교류와 공동 항일 역사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김기승. 일본 유학을 통한 조소앙의 근대 체험-제국주의적 근대 배우기에서 근대 극복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47, 2006년.
- 김기승.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8 No.1, 2009.
- 김주현.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사 및 연구, 『어문론총』 75호, 2018년.
- 방평, 『만청 상해의 공공영역(1895-1911)』,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7년.
- 삼균학회 편, 『조소앙 문집(상·하)』, 서울: 햇불사, 1979년.
- 신간, 천진에 도착 한국문원(新書到津 韓國文苑), 『대공보(大公報)』, 1932년 12월 27일.
- 오밀. 한국지사 조소앙 편 한국문원(韓國志士趙素昂編 韓國文苑), 『대공보 문학부간(大公報·文學副刊)』, 1932년 12월 12일.
-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소앙의 업적, 『아시아문화』 Vol.12, 1996년.
- 조소앙 지음, 이정원 옮김, 『유방집』,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9년.
- 조소앙. 『유방집(遺芳集)』, 상해: 대동학회, 1933년.
- 하버마스 저, 조위동 외 역, 『공공 영역의 구조변동』, 상해: 학림출판사, 1990년.
- 한살림. 『김상옥전(金相玉傳)』, 상해: 삼일인서관, 1925년.
- 홍선휘.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경기: 한길사, 1982년.
- 황호덕. 근대 동아시아의 文體·身體·政體, 趙素昂의 『東遊略抄』의 경우, 『서강인문논총』 Vol.44, 2015년.
- 황호덕. 근현대 동아시아에서 지성과 담론의 교류: 政體와 文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언어정치학과 趙素昂 -漢文字의 盟誓, 조소앙의 선언,성명,강령 집필과 『韓國文苑』을 중심으로-, 『史林』 Vol.45, 2013년.
- Songyeol Han, "Fish and Fish Trap": Cho Soang and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in China (1930-1945), Bond Beyond Nation: Sinographic Network and Korean Nationhood, 1860-1945,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8.

제1회 성균관대 · 산동대학 · 부산대 공동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제국주의에 맞선 유교 지식인:
동아시아 의병근왕운동의 투쟁 양상과 사상적 지향점

발행일 : 2026년 08월 07일
발행처 :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 본 학술대회는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C2A02046232)